

국립국어원
가나다전화에
물어보았어요



여러분은 우리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가나다전화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국립국어원에는 **가나다전화**가 있습니다.

1991년 첫발을 내디딘 ‘가나다전화’는 2010년에 2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가나다전화’는 꾸준히 성장하면서 국립국어원의 대표적인 우리말 상담 창구 구실을 해 왔습니다. 1996년에 2,151건이던 상담 건수가 2010년에는 33,713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온라인 가나다 상담 건수도 2000년에 1,866건이던 것이 2010년에는 10,006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올해 2010년에는 상담 인력을 늘리고 전국 단일 전화번호인 1599-9979(국어친구)를 개통하였으며, 전화 자동 연결 설비를 도입해 ‘국어생활종합상담실’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동안 온라인 가나다를 통해 이루어진 국어와 관련한 질문과 대답을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묻고 답한 내용의 종류도 다양하고 수준도 천차만별이지만 이 책에는 일반인은 물론 공무원이 공공언어를 바로 쓰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가려 실었습니다.

정부와 행정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공문서를 작성할 때는 국민을 배려해야 합니다. 그 배려는 공문서는 ‘쉬워야 하고’, ‘정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문서에 쓰인 언어는 국민을 편하게 하는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국민의 편에서 알기 쉬운 우리말을 씀으로써 국민에게 쉽고 정확하게 정책을 전달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불필요한 외국어를 섞어 쓰거나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말을 섞어 쓴 일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공공언어는 국민에게 정신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도 입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공문서는 알기 쉬운 우리말로 작성해서 국민에게 알기 쉽게, 바르게, 그리고 품격 있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행정의 효율이 높아지고 우리나라의 격, 곧 ‘국격’도 높아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 “국립국어원 가나다전화에 물어보았어요”가 일반인이 언어생활을 하거나 공무원이 공문서를 작성할 때에 우리말을 바르게 쓰는 지침이 되어, 우리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합니다.

2010년 12월 2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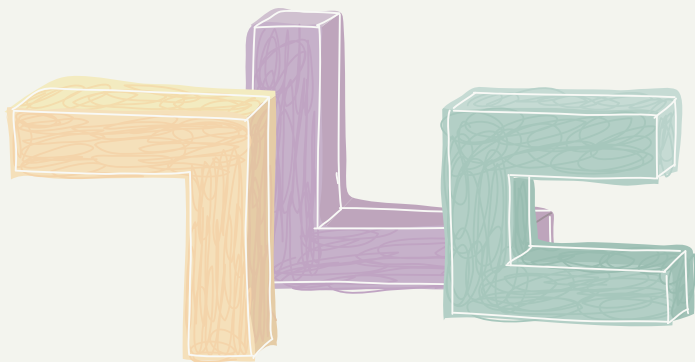
국립국어원

원장 권재일

1. 맞춤법	7
2. 띄어쓰기	177
3. 낱말	241

■ 찾아보기 341

■ 공문서 쓸 때 도움받을 곳 358



일러두기

제목

전셋집 ·
전세방

사전을 찾아보니 전세방과 전셋집 둘 다 있는데요, 이 두 단어의 발음과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경우와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 대해 알려 주세요.

핵심어

- ① 사이시옷
- ② 전세방
- ③ 전셋집

사이시옷을 써야 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두 음절로 된 6개 한자어’의 세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말이 포함된 합성어라고 해서 다 사이시옷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30항은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유어가 하나라도 들어 있는 구성은 뒷말이 된소리로 나가거나 앞말과 뒷말 사이에 ‘ㄴ’이 덧나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합성어이어야만 사이시옷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안 나가거나 덧나는 소리가 없는 것(계거품/개다리소반/새장/애꾸눈/깨알……), (2) 뒷말의 첫소리가 본래 된소리나 거센소리인 것(나리꽃/허리띠/쇠뿔/보리쌀/배탈/개펄……) 등의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습니다.

‘전셋집’은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므로 사이시옷을 쓰는 것이 바른 표기이고, ‘전세방’은 한자어로 된 구성이되, ‘한글 맞춤법’ 제30항에서 제시한 6개의 예에 속해 있는 단어가 아니므로 사이시옷을 넣지 않는 것이 바른 표기입니다.

‘전셋집’은 [전세쩍/전센쩍]으로 읽고, ‘전세방’은 [전세뽕]으로 읽습니다.

본문 제목 아래에 있는 **핵심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 ① ‘사이시옷, 띄어쓰기, 준말, 높임법’과 같은 문법 용어 등은 명조체로 표시하였다.
- ② 바른 표기나 바른 말은 진한 색으로 표시하였다.
- ③ 틀린 표기나 틀린 말은 옅은 색으로 표시하였다.

1

맛쥬법

곱빼기 · 곱배기

곱빼기

곱배기

-빼기

-배기

‘눈곱’은 [눈꼽]으로 소리 나지만 ‘눈’과 ‘곱’으로 형태소가 나뉘어(분리되어) ‘눈곱’으로 쓴다고 들었습니다. ‘눈살[눈쌀]’도 마찬가지로 들었고요. ‘곱빼기’도 ‘곱’과 ‘빼기’의 형태소가 나뉘지는데 [곱빼기]로 발음되잖아요. 이때는 ‘곱배기’로 쓰는 거예요, ‘곱빼기’로 쓰는 거예요?

문의하신 단어는 ‘곱빼기’로 적습니다. ‘곱빼기’의 ‘-빼기’는 몇몇 명사 뒤에 붙어 ‘그런 특성이 있는 사람이나 물건’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입니다. ‘-배기/-빼기’가 혼동될 수 있는 단어는, 첫째, [배기]로 발음되는 경우는 ‘-배기’로 적고 (예 귀통배기/나이배기/대짜배기/육자배기/주정배기/포배기/혀짤배기), 둘째, 한 형태소 내부에서, ‘ㄱ’, ‘ㅂ’ 받침 뒤에서 [빼기]로 발음되는 경우는 ‘-배기’로 적으며 (예 뚝배기/학배기), 셋째, 다른 형태소 뒤에서 [빼기]로 발음되는 것은 모두 ‘-빼기’로 적습니다 (예 고들빼기/그루빼기/대갈빼기/머리빼기/곶빼기/과녁빼기/밥빼기/악착빼기/억척빼기).

(관련 규정: ‘한글 맞춤법’ 제6장, 제54항)

?!

있음(○) 있음(x)

‘있다’의 어간 ‘있-’에 명사형 전성 어미 ‘-음’이 붙어서 ‘있음’이 됩니다. ‘없다’도 ‘없음’과 같이 씁니다. ‘먹다’의 명사형을 ‘먹슴’으로 쓰지 않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공정률 · 공정율

접미사

공정률

공정율

-률

-율

‘공정률 80%’에서 ‘공정률’과 ‘공정율’ 중 어느 것이 맞나요?

‘공정률’이 맞습니다. ‘비율’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ㄴ’ 받침을 제외한 받침 있는 일부 명사 뒤에는 ‘-률’을 붙이고, 모음으로 끝나거나 ‘ㄴ’ 받침이 있는 일부 명사 뒤에는 ‘-율’을 붙입니다.

- 예
1. 경쟁률/사망률/입학률/출생률/취업률
 2. 감소율/소화율/할인율

앞 문장 · 뒤 문장

사이시옷

앞 문장

뒤 문장

뒷골목

뒷일

‘앞 문장’, ‘뒤 문장’이 맞는 표현인가요? 그럼 ‘앞문장’, ‘뒷문장’은 틀린 표현인가요?

‘뒷골목’, ‘뒷일’ 같은 합성어에서만 사이시옷을 적은 형태인 ‘뒷’을 볼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경우에는 각각의 단어인 ‘앞’, ‘뒤’, ‘문장’을 써야 하므로 ‘앞 문장’, ‘뒤 문장’처럼 띄어쓰기 바랍니다.

‘1번 난’, ‘1번 란’ 가운데 어느 것이 맞나요? 한자 뒤에는 ‘란’으로 쓰고 한글, 외래어 뒤에는 ‘난’으로 쓴다고 배운 것 같은데, ‘번’이 한자니까 ‘1번 란’이 맞는 표기 아닌가요?

1번 난·
1번 란

알고 계신 대로 고유어와 외래어 명사 뒤에 붙어 ‘구분된 지면’의 뜻을 나타내는 말은 ‘난’이고, 한자어 명사 뒤에 붙어 ‘구분된 지면’의 뜻을 나타내는 말은 ‘란’입니다. 그런데 문의하신 ‘1번’은 한 단어가 아니므로, 앞에서 말한 ‘난/란’의 쓰임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 뒤에는 ‘책, 신문, 잡지 따위의 지면에 글이나 그림 따위를 싣기 위하여 마련한 자리’를 가리킬 때 쓰는 ‘난’을 써서 ‘1번 난’처럼 쓰는 것이 맞습니다.

난
란

1번 난
1번 란



실시 예(○) 실시례(X)

‘실시’와 ‘예’가 결합한 단어를 한 단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두 단어를 띄어서 쓰는 것이 맞습니다.

볶히다 ·
볶어지다 ·
볶거지다

볶히다
볶어지다
볶거지다

‘눈시울이 볶거지다.’, ‘눈시울이 볶거지다.’, ‘눈시울을 볶히다.’ 중 어느 것이 맞는 표현인가요?

‘볶히다’, ‘볶어지다’를 써서 ‘눈시울을 볶히다.’, ‘눈시울이 볶어지다.’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 예 1. 어머니는 아들이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화들짝 놀라며 눈시울을 볶혔다.
2. 새로 산 아파트에 들어서면서 아버지는 매우 어려웠던 지난날이 생각나시는지 눈시울이 볶어지셨다.

참고로 ‘볶거지다’는 ‘물체의 거죽으로 둥글게 툭 비어져 나오다.’,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두드러지게 커지거나 갑자기 생겨나다.’의 뜻으로 쓰이며, ‘눈시울이 볶거지다.’는 잘못 쓴 문장입니다.



심상치 않다(○) 심상지 않다(X)

‘ㄱ’, ‘ㅂ’, ‘ㅅ’ 등의 무성 자음이 앞에 올 때를 제외한 ‘하지’는 ‘치’로 줄어듭니다.

‘쑥스럽다’에서는 ‘-스럽다’인데, ‘안스럽다’에서는 왜 ‘-쓰럽다’인가요?

쑥스럽다 ·
안스럽다

‘쑥스럽다’와 ‘안스럽다’는 ‘한글 맞춤법’ 제5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글 맞춤법’ 제5항은,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ㄱ’, ‘ㄴ’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받침 ‘ㄴ’, ‘ㄹ’, ‘ㄷ’, ‘ㅇ’은 예사소리를 경음화하는 필연적인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스럽다’로 적으며, ‘ㄱ’, ‘ㄴ’ 받침 뒤는 경음화의 규칙성이 적용되는 환경이므로 된소리로 나더라도 된소리로 적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쑥스럽다’로 적습니다.

된소리
쑥스럽다
안스럽다

(관련 규정: ‘한글 맞춤법’ 제6장, 제54항)

?!

가지러 오다(○) 가질러 오다(X)

‘가지다’와 ‘오다’ 사이에 연결 어미 ‘-러’가 결합되었으므로 ‘가지러 오다’로 씁니다.

맞히다 · 맞추다

맞히다

맞추다

정답을 맞히다

정답과 맞추다

‘철호는 정답을 맞추지 못했다.’

이 문장이 어떤 국어 문제집에 맞는다고 나와 있는데요. ‘철수는 정답을 맞히지 못했다.’와 같이 써야 맞는 표현 아닌가요?

‘문제의 정답을 맞히다.’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고르다.’의 뜻이고, ‘문제의 정답을 맞추다.’는 ‘답지를 놓고 답지와 비교하여 채점하다.’의 뜻입니다. 이처럼 ‘맞추다’와 ‘맞히다’는 쓰임이 다른 말로, ‘맞히다’는 ‘적중하다’의 뜻으로 ‘정답을 골라내다.’의 의미가 있는 말이고, ‘맞추다’는 ‘둘 이상의 일정한 대상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여 살피다.’의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아래의 예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예 1. 수수께끼의 답을 정확히 맞히면 상품을 드립니다.
2. 그는 시험지를 정답과 맞추어 보고 나서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참고하신 문제집의 답안은 상황에 따라서 어느 하나가 맞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

거친(○) 거치른(x)

‘거칠다’는 ‘거칠어’, ‘거친’, ‘거치니’와 같이 활용합니다.

연도 · 년도

발간 연도

졸업 연도

1950년도

연도

원래는 ‘발간 연도’, ‘졸업 연도’와 같이 띄어 써야 맞지만, 붙여 쓰고자 할 때 ‘연도’의 표기가 ‘발간년도’, ‘졸업년도’, ‘출간년도’와 같이 ‘년도’로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연도’와 ‘년도’는 쓰임에 따라 다르게 표기합니다. ‘어문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문의하신 말은 한 단어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발간 연도’와 같이 띄어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본음이 ‘녀’, ‘뇨’, ‘뉴’, ‘니’인 한자가 첫머리에 놓일 때는 ‘여’, ‘요’, ‘유’, ‘이’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이때는 ‘년도’가 아니라 ‘연도’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와 같이 ‘연도’의 자립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만, 의존 명사로 쓰일 경우에는 ‘연도’를 ‘년도’로 표기합니다. 예를 들어 ‘1950년도’와 같이 사용할 때는 ‘년도’로 표기합니다.

?!

곰삭하다(○) 곰삭이다(x)

‘곰삭다’의 사동형은 ‘곰삭히다’입니다. 여기에 연결 어미 ‘-어’가 결합하면, ‘-히’와 ‘-어’가 ‘-혀’로 줄어 ‘곰삭혀’로 씁니다.

양 · 량

‘두 글자로 된 말 뒤에 ‘량’이나 ‘양’이 붙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량’과 ‘양’의 쓰임이 갈리나요?

양
량

분량이나 수량을 나타내는 말로, 고유어와 외래어 명사 뒤에는 ‘양’을 쓰고, 한자어 명사 뒤에는 ‘량’을 씁니다.

구름양
가사랑

- 예 1. 양: 구름양/칼슘양
2. 량: 가사랑/노동량/작업량

어느새 · 금세

‘어느새’와 ‘금세’는 ‘어느 사이에’와 ‘금시에’가 줄어든 말 같은데, 줄임말의 모양이 왜 다른지 궁금합니다.

어느새
금세
금시에
어느세
금세

‘한글 맞춤법’ 제1장에서도 밝혔듯이, 맞춤법에서는 각 형태소가 지닌 뜻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려고 본래 모양을 밝혀 적는 것을 또 하나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세’는 ‘금시에’의 준말이므로 ‘금세’로 적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새’는 ‘어느 틈에 벌써’의 의미로, ‘어느새’와 같이 복합어로 구성되어 있고, ‘새’는 ‘사이’의 준말이므로 ‘어느새’로 적는 것입니다.

수개미 · 수캐미

수개미
수캐미
수캐
숫양
수-

‘한글 맞춤법’ 규정 제31항 2에 따르면, ‘수캐’, ‘수컷’, ‘수탉’, ‘암캐’, ‘암컷’, ‘암탉’ 등이 표준어입니다. 이는 접두사 ‘수-’와 ‘암-’이 다른 단어와 연결될 때 사이시옷처럼 ‘ㅎ’이 첨가되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왜 ‘수-+개미’는 ‘수캐미’가 아니고 ‘수개미’인가요? 안울림 예사소리로 시작하는 ‘개미’가 ‘ㅎ’과 결합하면 ‘캐미’로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는 ‘표준어 규정’ 제2장, 제1절 자음, 제7항에 따라 ‘수개미, 수거미, 수나비, 수늑대, 수모기, 수벌, 수범, 수사슴, 수산양, 수여우, 수오리, 수옹, 수이리, 수자라, 수할미새, 수제비’와 같이 적는 것이 맞습니다. 접두사 다음에서 나는 거센소리를 인정하는 단어는 ‘수강아지, 수캐, 수컷, 수키와, 수탉, 수탕나귀, 수톨찌귀, 수돼지, 수평아리’에 한하며, 접두사 ‘숫-’을 붙이는 단어는 ‘숫양, 숫염소, 숫쥐’에 한합니다.

(관련 규정: ‘한글 맞춤법’ 제1부 표준어 사정 원칙, 제2장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제1절 자음, 제7항)

?!

눈 덮인(○) 눈 덮힌(x)

‘덮다’의 피동사는 ‘덮이다’이며, 관형형은 ‘덮인’입니다.

웬지 · 웬지

웬지
웬지
왜인지
웬

‘웬지’와 ‘웬지’의 차이를 알려 주세요.

‘웬지’는 ‘왜+ㄴ지’의 줄임말로 ‘왜 그런지 모르게. 또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의 의미를 지닌 부사이므로, ‘웬지 정이 간다.’와 같이 씁니다. ‘웬’은 ‘어찌된, 어떠한’이라는 뜻의 관형사로 ‘웬 영문인지 모르다.’, ‘이게 웬 날벼락이람.’, ‘골목에서 웬 사내와 마주치다.’와 같이 씁니다. 따라서 ‘웬지’의 형태로는 쓸 수 없습니다.

연 · 년

연
년
한 해

‘비용 절감 효과: 1억원/년’과 같이 쓸 때 ‘1억원/년’, ‘1억원/연’ 중 어느 것이 맞나요?

‘한 해’의 뜻을 나타내는 ‘연(年)’을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연’은 ‘연 강수량/연 12%의 이율/그는 연 400%의 보너스를 받는다.’와 같이 주로 다른 체언 앞에 쓰이므로 ‘연 1억 원’과 같이 쓰는 것이 맞지만, 제시하신 것 중에서는 ‘1억 원/연’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한편 ‘1년, 2010년, 몇 년’의 경우에는 ‘년’으로 씁니다.

한자 ‘龍’자가 이름에 쓰일 경우, 어느 것이 맞는 표기인가요?

1. 김기룡
2. 김기용

이름 표기와 관련된 자료에 따르면, 호적 법규에 명시된 예외 규정에 따라 인명용 한자의 첫소리가 ‘ㄴ’ 또는 ‘ㄹ’인 한자는 그러한 한자가 이름자의 첫 음으로 사용된 경우이든 나중 음으로 사용된 경우이든 관계없이 출생 신고인에게 선택권을 주어, 본인의 희망에 따라 ‘ㄴ’ 또는 ‘ㄹ’이나 ‘ㄴ’ 또는 ‘ㅇ’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성씨 두음 법칙 적용 표기 재검토’ 자료)

김기룡 ·
김기용

두음 법칙
사람 이름
룡
용

?!

고마워(○) 고마와(X)

‘굽다’, ‘뚫다’의 활용형 ‘고와’, ‘도와’를 빼고는 모두 ‘-워’로 씁니다.

?!

들렀다(○) 들렸다(X)

동사 ‘들르다’의 활용 형태는 ‘들러’, ‘들르니’, ‘들렀다’입니다.

젓가락 · 숟가락

젓가락
젓가락
숟가락
숟가락

젓가락은 왜 ‘저’ 아래에 ‘ㅅ’이 붙고, 숟가락은 왜 ‘수’ 아래에 ‘ㄷ’이 붙나요?

‘저’와 ‘가락’이 결합한 이 말에서 ‘가락’이 [까락]과 같이 된소리로 나므로, ‘한글 맞춤법’ 제30항에 따라 사이시옷을 받치어 ‘젓가락’으로 적습니다. ‘숟가락’의 ‘숯’은 본디 ‘술’이지만, 역사적으로 ‘ㄷ’으로 바뀌어 굳어진 단어는 어원적인 형태를 밝히어 적지 않는다는 ‘한글 맞춤법’ 제29항에 따라 ‘숯가락’으로 적습니다.

서른두째 · 서른둘째

서른두째
서른둘째
두째
둘째

1. 차례의 뜻을 나타내는 ‘서른두째’
2. 수량의 뜻을 나타내는 ‘서른둘째’

‘둘째’, ‘두째’의 바른 쓰임을 알고 싶습니다. 어떤 원칙에 따라 달리 씹니까?

‘두째’는 차례를 나타내는 말로 앞에 다른 수가 올 때에는 받침 ‘ㄹ’이 분명히 탈락하는 것이 언어 현실입니다. 따라서 ‘열두째, 스물두째, 서른두째’의 경우에는 ‘두째’를 쓰도록 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부터 세어 모두 ‘열두 개째, 스물두 개째, 서른두 개째’가 됨을 이르는 수량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열둘째, 스물둘째, 서른둘째’와 같이 씹니다.

‘성령께서 권고하되 죄 씻으라 하시네.’라는 노랫말에서 ‘권고하되’가 맞나요, ‘권고하대’가 맞나요?

하되 · 하대

보이신 맥락에서는 ‘-되’를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되’는 뒤에 오는 말이 인용하는 말임을 미리 나타내어 보일 때 인용 동사에 붙여 쓰는 연결 어미입니다.

권고하되

권고하대

-되

예 제자들이 대답하되 “모르나이다.”/탕왕이 걸을 남소로 쫓으시고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 이르시되 다음에 나를 구실로 삼을 무리가 있을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제시한 문장을 맞춤법에 맞게 적으면 ‘성령께서 권고하되 “죄 씻으라.” 하시네.’입니다.

‘내일은 날씨가 춥습니다. 그럼으로/그러므로 내일 외출하실 때는 옷을 따뜻하게 입으시길 바랍니다.’에서 ‘그럼으로’가 맞습니까, ‘그러므로’가 맞습니까?

그러므로 ·
그럼으로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는 ‘그러므로’입니다. ‘그럼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써’라는 수단의 의미를 가지는 말로 ‘그럼으로써’와 같이 쓰이는 말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문장의 맥락에서는 ‘그러므로’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그럼으로써

은 · 는

괄호 뒤 조사

은

는

1. 영조물기관 (서울대학교, 국립교도소, 국립대학교)는 행정기관으로 보지 않는다.
2. 영조물기관(서울대학교, 국립교도소, 국립대학교) 는 행정기관으로 보지 않는다.
3. 영조물기관(서울대학교, 국립교도소, 국립대학교)은 행정기관으로 보지 않는다.

이 가운데 맞는 표기는 어느 것인가요?

소괄호는 ‘니체(독일의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와 같이 붙여 쓰고, 조사는 앞말에 붙여 적습니다. 그리고 소괄호로 묶인 내용을 조사의 이형태를 결정하는 환경으로 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제시하신 것 중 3번과 같이 쓰는 것이 맞습니다.

(관련 규정: ‘한글 맞춤법’ 문장 부호)

?!

갈때기(○) 갈대기(x)

기다랑다(○) 길다랑다(x)

1. 뭐라고요? 사랑한다고요, 숙제 다 했다구.
2. 뭐라고요? 사랑한다고요, 숙제 다 했다고.

1과 2 중에 어느 표현이 맞나요? 제 생각으로는 2의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텔레비전이나 주위에서 1의 표현을 많이 써서 어느 표현이 맞는지 헷갈립니다.

표준어에는 ‘-구’의 형태로 끝나는 어말 어미가 없습니다. 제시하신 표현에는 어미 ‘-라고’, ‘-ㄴ다고’, ‘-다고’가 쓰였으므로, 생각하신 대로 ‘뭐라고요?’, ‘사랑한다고요.’, ‘숙제 다 했다고.’와 같이 써야 합니다.

-라고 · -다고

-라고요

-리구요

-다고요

-디구요

‘인사말, 반대말, 소개말, 노랫말, 존댓말, 혼잣말’ 등 사이시옷을 표기할 때 매우 어려운데 확실히 구별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표준 발음을 정확히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이시옷 규정에 따라 뒷말의 첫소리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면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데, 표준 발음이 [인사말], [반:대말], [소개말]인 이 말은 ‘인사말, 반대말, 소개말’과 같이 적고, [노랜말], [존덴말], [혼잔말]인 이 말은 ‘노랫말, 존댓말, 혼잣말’과 같이 적습니다.

인사말 ·
혼잣말

사이시옷

‘ㄴ’ 소리 덧남

인사말

인삿말

노랫말

떼려야 · 떨래야

떼려야
떨래야
-으려야
-르래야

‘떨래야 떨 수 없다, 떼려야 떨 수 없다’ 가운데 어느 것이 맞는 표현인가요?

문의하신 것은 ‘떼려야 떨 수 없다.’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표준어 규정’에서는 ‘-(으)려야’가 ‘-(으)르려야, -(으)르래야’에 비해 널리 쓰이므로 ‘-(으)려야’를 표준어로 삼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표준어 규정’ 제17항은 발음이 비슷한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으)르려야, -(으)르래야’를 버리고 ‘-(으)려야’를 표준어로 삼은 것입니다.

(관련 규정: ‘표준어 규정’ 제2장, 제4절, 제17항)

?!
말마따나

말마따나(○) 말맞다나(x)

‘말마따나’는 ‘말’ 뒤에 ‘말한 대로, 말한 바와 같이’ 따위의 뜻을 나타내는 격조사 ‘마따나’가 붙은 형태입니다.

‘()’ 부호는 ‘괄호’, ‘{ }’ 부호는 ‘중괄호’, ‘[]’ 부호는 ‘대괄호’라고 하는데, ‘ㄱ ㄴ’는 뭐라고 부르나요?

낫표

‘한글 맞춤법’ 규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작은따옴표를 대신하여 쓰는 ‘ㄱ ㄴ’은 ‘낫표’라고 합니다. ‘낫표’는 세로쓰기에 쓰는 문장 부호이므로 가로쓰기에는 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는 ‘소괄호’라고 합니다.

문장 부호

낫표

소괄호

‘드러냄표’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드러냄표

‘드러냄표’는 문장 내용 가운데 주의해야 하거나 중요한 부분을 특별히 보일 때에 쓰는 문장 부호입니다. 문장 부호 “나 ”을 가로쓰기에서는 글자 위에, 세로쓰기에서는 글자 오른쪽에 붙입니다.

문장 부호

드러냄표

큰따옴표 · 작은따옴표

문장 부호
따옴표

큰따옴표(“ ”)

작은따옴표(‘ ’)

문장이 나열될 때, 큰따옴표를 문장마다 쓰는 것이 맞는지, 여러 문장을 한꺼번에 묶어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생각을 나타내는 작은따옴표 안에 또 작은따옴표가 들어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까마귀가 세 번 ‘객자와 객자와’ 울며 날아가니, 분명 자객이 온다는 징조구나.’에서 ‘객자와 객자와’ 부분 따옴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 쓰면 되나요?

큰따옴표는 글 가운데서 직접 대화를 표시할 때, 또는 남의 말을 인용할 때에 씁니다. 그러므로 글 가운데서 대화의 단위 또는 인용된 문장의 단위마다 큰따옴표를 쓰면 됩니다. 한편, 따온 말 가운데 다시 따온 말이 있을 때에는 작은따옴표를 씁니다. 마음속으로 한 말을 적을 때에도 작은따옴표를 씁니다. 문의하신 두 번째 문장은 마음속에서 한 말이므로 작은따옴표 안에 전체 문장을 넣고, 그 안에 작은따옴표를 다시 넣어 까마귀의 울음소리를 표시하면 됩니다.

?!
예외

(전을) 부치다(O) (전을) 붙이다(X)

‘번철이나 프라이팬 따위에 기름을 두르고 빈대떡, 저냐, 전병 따위의 음식을 익혀서 만듦.’의 뜻으로는 ‘부치다’를 씁니다.

국문에서 ‘coma(,)’의 사용법을 알고 싶어요. ‘예를 들면, 또한, 바꿔 말하면’ 등과 같은 표현을 할 때 콤마를 찍는 것이 맞나요, 찍지 않는 것이 맞나요? ‘coma’는 쉼을 두는 것이므로 자기가 찍고 싶을 때 찍으면 되나요?

반점

문장 부호

반점

쉼표

문의하신 것과 같이 문장 첫머리의 접속이나 연결을 나타내는 말 다음에 반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쓰이는 접속어(그러나, 그러므로, 그리고, 그런데 등) 뒤에는 쓰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 문맥상 끊어 읽어야 할 곳에 쓰기도 합니다.

빠짐표는 어떤 기호로 나타내나요?

빠짐표

안드러냄표 중 ‘빠짐표’는 ‘□’로 표시합니다. ‘빠짐표’는 다음과 같이 쓰입니다.

1. 옛 비문이나 서적 등에서 글자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 그 글자의 수효만큼 쓴다.

大師爲法主□□賴之大□薦(옛 비문)

2. 글자가 들어가야 할 자리를 나타낼 때 쓴다.

문장 부호

빠짐표

안드러냄표

소괄호 · 줄표

문장 부호

소괄호

줄표

소괄호와 줄표의 용법이 궁금합니다.

소괄호의 용법 가운데 원어, 연대, 주석, 설명 등을 넣을 경우를 설명하여 어문 규정에서는 아래와 같은 예를 보기로 주었습니다.

- 예 1. 커피(coffee)는 기호 식품이다.
3·1 운동(1919) 당시 나는 중학생이었다.
2. “무정(無情)”은 춘원(6·25 때 납북)의 작품이다.
니체(독일의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줄표와 관련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용 맥락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줄표(—): 이미 말한 내용을 다른 말로 부연하거나 보충함을 나타낸다.

- 1) 문장 중간에 앞의 내용에 대해 부연하는 말이 끼어들 때 쓴다.
그 신동은 네 살에 — 보통 아이 같으면 천자문도 모를 나이에 — 벌써 시를 지었다.
- 2) 앞의 말을 정정 또는 변명하는 말이 이어질 때 쓴다.
- 어머님께 말했다가 — 아니, 말씀드렸다가 — 꾸중만 들었다.
 - 이건 내 것이니까 — 아니, 내가 처음 발견한 것이니까 —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다.

‘말’이라는 것이 특정한 단위를 한정해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문 규정에서 보여 준 예문으로 볼 때, 명사구 단위 정도의 길이인 간단한 설명을 보충할 때에는 소괄호를 사용하고, 명사구 이상의 말로 부연 설명할 때에는 줄표를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 보고합니다.

붙임 1. ○○ 계획서 1부.

2. ○○ 인사기록카드 1부. 끝.

질문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붙임 1. ○○ 계획서 1부.

이 부분에서 1부 쓰고 마침표를 찍는가 안 찍는가입니다. 찍는다면 그 이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점

문장 부호

문장 끝

온점

마침표

대개 ‘1부입니다.’, ‘1부임.’과 같이 어미로 끝맺는 경우에는 온점을 쓰지만, 제시하신 바와 같이 명사로 끝나는 경우에는 온점을 쓰기도 하고 쓰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미로 끝나지 않은 경우라도 서술이 끝난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 계획서 1부.’와 같이, 서술을 나타내는 문장의 끝에 ‘온점’을 쓰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

되들이(○) 되드리(x)

‘되들이’는 ‘곡식이나 물, 술 따위를 되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입니다.

?!

생때같다(○) 생떼같다(x)

‘생때같다’는 ‘몸이 튼튼하고 병이 없다.’라는 뜻으로 ‘생때같은 자식’과 같이 씁니다.

가운뎃점

문장 부호
같은 계열
가운뎃점

가운뎃점(·)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가 같은 의미인가요? 또 가운뎃점을 열거된 단위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를 나타낼 때 쓴다고 하는데 ‘및’이나 ‘그리고’와 같은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시하신 문장에 쓰인 ‘가운뎃점’은, ‘경북 방언의 조사·연구’와 같이, 같은 계열의 단어 사이에 쓰는 가운뎃점의 쓰임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 방언의 조사·연구’가 ‘경북 방언을 조사하고 연구함.’의 뜻을 나타내는 것과 같이, ‘설치·운영’은 ‘설치하고 운영함.(=설치와 운영/설치 그리고 운영)’의 뜻을 나타냅니다.

?!
?

섞박지(O) 석박지·석바지(X)

‘섞박지’는 ‘배추와 무·오이를 절여 넓적하게 썬 다음 여러 가지 고명에 젓국을 쳐서 한데 버무려 담은 뒤 조기젓 국물을 약간 부어서 익힌 김치’입니다.

마침표

문장 부호

관용구

마침표

온점

마침표에 대한 질문입니다. ‘손이 크다’라는 관용어를 적으려고 할 때, 예를 들어, “‘손이 크다’라는 관용어는 널리 알려진 표현이다.”라고 적고자 한다면, ‘손이 크다’라는 작은따옴표 안에 마침표를 찍어야 하나요? ‘바람 앞의 등불’과 같은 표현도 위 예와 같은 식으로, 문장 안에서 설명의 대상으로 적을 때 “‘바람 앞의 등불.’이라는 관용어는 널리 알려진 표현이다.”와 같이 마침표를 찍어야 할까요?

‘마침표’는 문장의 끝에 씁니다. 문의하신 ‘손이 크다.’는 관용구이지만 외형적으로 문장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보아, ‘손이 크다.’와 같이 마침표를 찍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나 ‘바람 앞의 등불’은 외형적인 조건으로 보면 ‘등불’을 핵으로 하는 명사구로 보이기 때문에 문장의 끝을 의미하는 마침표를 찍는 것은 자연스럽게 않습니다. 한편, 서술, 명령, 청유 등을 나타내는 문장의 끝에 ‘온점’을 쓰므로, 용언의 명사형으로 끝났더라도 서술, 명령, 청유 등을 나타내는 문장의 끝이라면 ‘온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

숫처녀(0) 수처녀(x)

‘숫처녀’는 ‘더럽혀지지 않아 깨끗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숫-’이 명사 ‘처녀’에 붙어 만들어진 말입니다. 예 숫총각

소괄호 · 온점

문장 부호

소괄호

온점

한자 문장을 한글로 번역한 뒤 병기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吾不關焉)’라는 말을 쓰려고 할 때
1.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吾不關焉)’ 2.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吾不關焉).’ 3.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吾不關焉)’. 세 가지 방법 중 어떻게 쓰는 것이 적절할까요?

‘한글 맞춤법’ 문장 부호 ‘온점’ 규정에 문의하신 것과 관련하여 따로 지침은 없으나, 관용적으로 소괄호 안의 문장이 앞 문장과 내용상 긴밀한 관계일 때에는 두 문장의 마침표를 묶어 괄호 밖에 하나만 쓰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마침표를 각각 따로 씁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예 1. 우리말의 ‘ㄱ, ㄷ, ㅂ’ 등의 소리는 폐쇄음이다(전통적으로는 흔히 파열음이라고 하였다).
2. 아래에서는 우리말의 호칭어와 지칭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경어법의 전반적인 모습은 제3장에서 다룬다.)

문의하신 것은 예 1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설명을 넣을 적에 쓰는 소괄호는 앞에 붙여 씁니다. 이에 따라, 제시하신 것 중 ‘2’의 형식으로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
예

녹슨(○) 녹슬은(X)

어간 ‘녹슬-’에 ‘-은’이 연결되면 ‘ㄹ’이 탈락해 ‘녹슨’이 됩니다.

머리말 · 머릿돌

사이시옷

머리말

머릿말

머릿돌

머리돌

머리말은 흔히 머릿말이라고 잘못 쓰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머리말과 머릿돌이 헷갈리는데요. 사이시옷은 순우리말과 한자 사이에서 발생한다고 어렵듯이 알고 있는데 ‘말’과 ‘돌’ 둘 다 우리말이니 그 규칙이 적용된 것 같지는 않고 왜 머리말은 머릿말이 아닌데 머리돌은 머릿돌인가요?

‘사이시옷’은 순우리말 또는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 가운데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거나,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가거나,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거나,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날 때 받치어 적습니다.

‘머리말’은 순우리말 ‘머리’와 순우리말 ‘말’로 된 합성어인데, [머리말]과 같이 표기 그대로 발음되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지 않지만, ‘머릿돌’은 순우리말 ‘머리’와 순우리말 ‘돌’로 된 합성어로, [머리똥]과 같이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 ‘한글 맞춤법’ 제4장, 제4절, 제30항)

?!
?

무엇일까요(○) 무엇이가요(x)

어미 ‘-르가’는 ‘-르까’의 잘못입니다.

전셋집 · 전세방

사이시옷
전세방
전셋집
전세집

사전을 찾아보니 전세방과 전셋집 둘 다 있는데요. 이 두 단어의 발음과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경우와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 대해 알려 주세요.

사이시옷을 써야 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두 음절로 된 6개 한자어’의 세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말이 포함된 합성어라고 해서 다 사이시옷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30항은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유어가 하나라도 들어 있는 구성은 뒷말이 된소리로 나거나 앞말과 뒷말 사이에 ‘ㄴ’이 덧나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합성어여야만 사이시옷을 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안 나거나 덧나는 소리가 없는 것(게거품/개다리소반/새장/애꾸눈/깨알……), (2) 뒷말의 첫소리가 본래 된소리나 거센소리인 것(나리꽃/허리띠/쇠뿔/보리쌀/배탈/개펄……) 등의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습니다.

‘전셋집’은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므로 사이시옷을 쓰는 것이 바른 표기이고, ‘전세방’은 한자어로 된 구성이되, ‘한글 맞춤법’ 제30항에서 제한한 6개의 예에 속해 있는 단어가 아니므로 사이시옷을 넣지 않는 것이 바른 표기입니다.

‘전셋집’은 [전세쩍/전센쩍]으로 읽고, ‘전세방’은 [전세뺱]으로 읽습니다.

‘사글세 집, 사글셋집’ 중 어느 것이 맞나요?

‘사글세’와 ‘방’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는 인정되므로 ‘사글셋방’과 같이 적지만, ‘사글세’와 ‘집’이 결합한 합성어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각각의 단어인 ‘사글세’와 ‘집’을 띄어 ‘사글세 집’과 같이 적습니다.

사글세 집 ·
사글셋집

사이시옷
사글세 집
사글셋집
사글셋방

시중에 나와 있는 고등학교 수학책과 문제집을 보면, 명제 단원에서 ‘r은’이 아닌 ‘r는’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알려 주세요.

영어 알파벳의 열여덟 번째 자모인 ‘R/r’의 이름은 ‘아르’이므로 그 뒤에 조사 ‘는’을 붙여 ‘r(아르)는’과 같이 적습니다.

r은 · r는

알파벳 뒤 조사
r는
아르는
r은
알은

가질 · 갖을

준말의 활용형

가지다

갖다

갖을

가질

‘많은 돈을 가질/갖을 것이다.’ 중에 어느 표현이 맞나요? 흔히 쓰는 말인데 막상 적으려고 하니까 헛갈리네요.

‘많은 돈을 가질 것이다.’로 적어야 합니다. ‘가지다’의 준말 ‘갖다’는 자음 어미가 붙어 ‘갖고’, ‘갖는(다)’, ‘갖기’와 같이는 활용하지만, 모음 어미가 붙어 ‘갖아’, ‘갖으러’, ‘갖었습니다’와 같이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준말 ‘갖’에 ‘예정’을 뜻하는 관형형 어미 ‘-을’이 결합한 ‘갖을’로 써서는 안 되며, 본말 ‘가지-’에 ‘예정’을 뜻하는 관형형 어미 ‘-르’이 결합한 ‘가질’로 써야 합니다.

참고로 ‘가지다/갖다’를 비롯하여 ‘머무르다/머물다’, ‘서두르다/서둘다’, ‘서투르다/서툴다’ 등도 모음 어미가 연결될 때에는 준말의 활용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 ‘표준어 규정’ 표준어 사정 원칙 제2장, 제3절 준말, 제16항)

?!

얼마큼(○) 얼마만큼(X)

‘얼마큼’은 ‘얼마만큼’에서 줄어든 말입니다.

‘날이 개었다.’와 ‘날이 갰다.’는 둘 다 맞는 표현인가요, 아니면 ‘갰다’만 맞는 표현인가요?

개었다 · 갰다

본말인 ‘개었다’와 준말인 ‘갰다’를 모두 쓸 수 있습니다. ‘가다’, ‘서다’와 같이 모음 ‘ㅏ, ㅑ’로 끝난 어간에 ‘가아/가았다’, ‘서어/서었다’와 같이 ‘-아/-어’, ‘-았-/-었-’이 어울릴 적에는 ‘가/갔다’, ‘서/섰다’와 같이 준 대로만 적어야 합니다. 하지만 ‘개어/개었다’, ‘베어/베었다’, ‘세어/세었다’와 같이 ‘ㅐ, ㅔ’ 뒤에 ‘-어’, ‘-었-’이 어울려 ‘개/갰다’, ‘베/뻘다’, ‘세/쌌다’와 같이 줄 적에는 준 대로 적고, 줄지 않을 적에는 ‘개어/개었다’, ‘베어/베었다’, ‘세어/세었다’와 같이 줄지 않은 대로 적습니다.

(관련 규정: ‘한글 맞춤법’ 제4장, 제5절 준말, 제34항, 붙임 1)

준말

개었다

갰다

개다

?!
?

아뿔싸(○) 앓뿔싸(x)

일이 잘못되었거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뉘우칠 때 가볍게 나오는 소리를 표현하는 감탄사로 ‘아뿔싸’ 외에 ‘하뿔싸’, ‘어뿔싸’가 있습니다.

갈 거죠 ·
갈 꺼죠

의존 명사
갈 거죠
갈 꺼죠
거

‘갈 거죠?’와 ‘갈 꺼죠?’ 중에 어느 표현이 맞나요? ‘거죠’와 ‘꺼
죠’의 차이도 알고 싶습니다.

‘갈 거죠?’와 같이 적습니다. 관형사형 ‘-르’과 뒤에 연결
되는 ‘ㄱ’이 한 단어처럼 발음될 때 ‘ㄱ’은 된소리로 납니다.
따라서 ‘갈 거죠?’에서 ‘거’의 ‘ㄱ’이 [ㄱ]과 같이 된소리로 나
는 것입니다. 하지만 표기는 의존 명사 ‘거’의 형태대로 ‘거’
와 같이 적어야 하므로 ‘갈 꺼죠?’는 잘못이며 ‘갈 거죠?’와
같이 써야 합니다.

깨끗잡다 ·
깨끗참다

깨끗하지 않다
깨끗지 않다
깨끗잡다
깨끗참다

‘깨끗지 않다’의 준말로 ‘깨끗잡다’, ‘깨끗참다’ 중에 어느 것
이 맞나요?

‘깨끗잡다’와 같이 적습니다. ‘깨끗하지 않다→깨끗지 않
다’, ‘거북하지 않다→거북지 않다’, ‘섬섬하지 않다→섬섬
지 않다’와 같이 ‘ㄱ, ㅂ, ㅅ’ 등의 무성 자음이 앞에 올 때에는
‘하’가 아주 줄어 거센소리로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
않-’이 한 개 음절로 줄어지는 경우는 ‘잡’으로 적습니다. 다
시 말해 ‘깨끗하지 않다→깨끗지 않다→깨끗잡다’의 과정
을 거쳐 ‘깨끗잡다’와 같이 적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 ‘한글 맞춤법’ 제4장, 제5절, 제39항, 제40항)

다음 단어들은 왜 ‘-았다/었다’와 활용할 때 차이가 나죠?
아래의 예로 설명해 주세요.

1. 기쁘다: 기뻐다, *기뻐다
예쁘다: 예뻐다, *예뻐다
미쁘다: 미뻐다, *미뻐다
2. 나쁘다: 나뻐다, 나뻐다
바쁘다: 바뻐다, 바뻐다

1에서는 *가 있는 것이 틀린 표현인 줄 알겠는데 2에서는 어느 것이 맞는 표현인가요?

기뻐다 ·
기뻐다

용언의 활용

예뻐다

예뻐다

미뻐다

바뻐다

용언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한글 맞춤법’ 제16항에서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ㅏ, ㅑ’일 때에는 어미를 ‘-아’로 적고, 그 밖의 모음일 때에는 ‘-어’로 적는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용언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서 벗어나므로, 이와 관련해서는 ‘한글 맞춤법’ 제18항에서 따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어미 활용이 원칙에서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습니다. ‘나쁘다’, ‘바쁘다’는 이 규정에서 설명하는 ‘어간의 끝 ‘-’가 줄어들 적’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어간의 끝 ‘-’가 줄어드는 것은 어간의 끝음절이 ‘ㄹ’인 경우를 제외한 ‘-’로 끝나는 용언을 말하는데, ‘ㄷ다, 답그다, 따르다, 뜨다, 잠그다, 치르다, 트다, 가쁘다, 고프다, 기쁘다, 나쁘다, 미쁘다, 바쁘다, 슬프다, 아프다, 예쁘다, 크다’ 등이 있습니다.

문의하신 2의 ‘나쁘다’, ‘바쁘다’는 각각 어간의 끝 ‘-’가 줄어졌을 때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ㅏ’가 되므로 어미 ‘-아’와 결합해 ‘나빠/나뻐다’, ‘바빠/바뻐다’로 활용됩니다.

-내 ·
-느내 ·
-으내

-냐고 해
-느냐고 해
-으냐고 해
있느내

보통 ‘~하냐고 해’를 다 말하지 않고 줄여서 말하잖아요. 예를 들면 엄마가 저에게 공부 잘하고 있냐고 물어봤을 경우, 제가 이것을 제 친구에게 전달할 때 ‘엄마가 나보고 공부 잘하고 있네/있내.’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나요? 써 놓고 보니 둘 다 틀린 것 같아요. 혹시 이런 표현 자체가 틀린 것인가요?

‘-냐고 해’가 줄어든 말은 ‘-내’이고, ‘-느냐고 해’가 줄어든 말은 ‘-느내’이고, ‘-으냐고 해’가 줄어든 말은 ‘-으내’입니다. 제시하신 문장에서는 ‘있다’의 어간 ‘있-’ 뒤에 ‘-느내’가 붙으므로 ‘있느내’와 같이 쓰면 됩니다.

코끼리입니다 ·
코끼립니다

서술격 조사
'이다'의 어간
'이-' 생략
코끼리입니다
코끼립니다
지우깅니다

‘코끼리입니다/코끼립니다’ 둘 다 쓸 수 있습니까? 둘 다 문법적으로 옳은 표현인지 궁금합니다.

‘코끼립니다’는 ‘코끼리(명사)+이-(서술격 조사 어간)+-ㅂ니다(종결 어미)’에서 서술격 조사 어간 ‘이-’가 생략된 것입니다. 이처럼 서술격 조사 ‘이다’의 어간 ‘이-’는 모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서 생략되기도 하는데, 그러한 현상을 문법적으로 틀린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입말에서는 ‘코끼리입니다’, ‘지우깅니다’와 같이 서술격 조사 어간 ‘이-’가 흔히 생략되지만, 글말에서는 본디대로 ‘코끼리입니다’, ‘지우개입니다’와 같이 쓰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음식을 먹지 마라.
2. 음식을 먹지 말아라.
3. 음식을 먹지 말라.

세 표현 중 어느 것이 맞나요?

‘말다’에 명령형 어미 ‘-아(라)’가 결합하여 쓰일 때에는 ‘말아’, ‘말아라’가 아닌 ‘마’, ‘마라’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마라’를 써야 합니다. 한편 ‘가지 말라고 했다.’처럼 간접 명령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말라’를 쓸 수 있습니다.

마라 · 말라

마라
말라고
말아라
말다

ㄹ 탈락 용언에 명사형 어미 ‘-ㅁ’이 올 때 언제나 매개 모음 ‘으’를 취하지 않나요?

용언이 명사 구실을 하게 하는 어미로, ‘ㄹ’ 받침인 용언의 어간 뒤에는 ‘많이 배품’, ‘음식을 만듦’, ‘거리가 넓’과 같이 ‘-ㅁ’이 붙고,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용언의 어간 뒤에는 ‘찾음과 잃음’, ‘산의 높음과 바다의 깊음’과 같이 ‘-음’이 붙는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 · -ㅁ

명사형 어미
-ㅁ
-음
배품
찾음

마는 ·
만 ·
만은

준말
마는
만
만은

용언의 활용에서는 ‘마는’으로 쓰고, 체언 뒤에서는 ‘만은’으로 쓴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 용언의 활용에서 ‘하고 싶다마는’을 ‘하고 싶다만’으로 줄여 써도 맞나요?

‘싶다마는’은 ‘싶다만’으로 쓸 수 있습니다. ‘마는’은 종결어미 ‘-다’, ‘-냐’, ‘-자’, ‘-지’ 따위의 뒤에 붙어 앞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의문이나 그와 어긋나는 상황 따위를 나타내는 보조사이고, ‘만’은 ‘마는’의 준말입니다.

예 먹고 싶다마는/먹고 싶다만 돈이 없다.

참고로 ‘만은’은 ‘너만은 꼭 와야 한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조사 ‘만’과 ‘은’이 결합한 형태입니다.

?!
예

꽤 매 다(○) 꽤 매 다(X)

깎 다(○) 깎 다(X)

‘갓다/가지다’, ‘서툴다/서투르다’, ‘머물다/머무르다’, ‘서둘다/서두르다’ 등은 복수 표준어로서 모음으로 된 어미가 결합하면 본딧말로 활용해야 하지만 자음으로 된 어미가 오면 준말, 본딧말 모두에 붙여서 활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서툴다/서투르다

서툰 재주/서투른 재주

그 일이 서툴어(×)/그 일이 서툴러(서투르-+-어)(○)

2. 머물다/머무르다

머문 사람, 머무는 사람/머무른 사람, 머무르는 사람

그곳에 머물어(×)/그곳에 머물러(머무르-+-어)(○)

위의 예문에서 ‘서투르-+-어=서툴러’, ‘머무르-+-어=머물러’, ‘머물-+-는=머무는’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간의 끝음절 ‘르’가 어미 ‘-아’, ‘-어’ 앞에서 ‘ㄹㄹ’로 바뀌는 용언이 있는데, ‘머무르다’, ‘서투르다’, ‘호르다’가 그러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머무르다’, ‘서투르다’, ‘호르다’에 어미 ‘-어’가 결합되면 ‘머물러’, ‘서툴러’, ‘홀러’가 됩니다. 한편, 어간 끝 받침 ‘ㄹ’이 어미의 첫소리 ‘ㄴ’, ‘ㄹ’, ‘ㄷ’과 ‘-(으)오’, ‘-(으)ㄹ’ 앞에서 줄어드는 경우에는 준 대로 적습니다. 따라서 ‘머물다’에 어미 ‘-는’이 결합하면 ‘머무는’이 됩니다.

(관련 규정: ‘한글 맞춤법’ 제18항 붙임 9, 제18항 붙임 1)

서툴러 ·
서툴어

서툴다/서투르다

머물다/머무르다

서툴러

머물러

머무는

뭘까 · 뭐일까

뭐이다

뭐일까

뭘까

무엇을

뭘

흔히 쓰는 말로 ‘뭘까?’라는 말이 있지요. 생각해 보니 ‘뭘’이라는 말은 ‘무엇을’의 준말인데 이를 따르자면 ‘뭘까’는 ‘무엇을 까’라는 이상한 말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상 ‘뭘까’를 ‘무엇을까’가 아니라 ‘무엇일까’라는 뜻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전을 찾아봐도 ‘뭘’이 ‘무엇을’과 ‘무엇이’를 동시에 아우른다는 내용은 없네요. 그렇다고 ‘뭘까’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다’의 ‘이’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보통 생략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뭘까?’는 ‘뭘’과 ‘이다’의 어간 등에 붙어 나타나는 어미 ‘-ㄴ까’가 결합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무엇을’의 준말 ‘뭘’과 ‘까’의 결합이 아니라, ‘뭐이다’에 ‘-ㄴ까’가 결합한 형태에서 ‘이’가 생략되어 ‘뭘까?’가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뭘 해?’는 ‘무엇을 하느냐’는 의미이므로 이때의 ‘뭘’은 ‘무엇을’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마뜩잖다(○) 마뜩찮다(○)

형용사 ‘마뜩잖다’는 ‘마음에 들 만하지 아니하다.’는 뜻으로, ‘마뜩지 않다’의 준말이 표준어가 된 예입니다.

‘바뀌다’는 ‘바뀌었다’로 쓸 수 있지만,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바졌다’라는 말이 옳은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쓰면서도 의문이 생기는 단어입니다. 만약 맞다면 어떤 원칙에 따라 그렇고, 틀리다면 어떤 원칙에 위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뀌다’는 ‘바뀌었다’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뀌었다’를 ‘바졌다’로 쓸 수는 없습니다. 우리말은 [ㄱ]와 [ㄴ]가 줄어들어 [ㄷ]가 되기도 어렵고, 현재 한글에는 ‘ㄱ+ㄴ’의 줄임꼴을 표기할 모음 글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졌다’나 ‘사졌다’ 등은 잘못된 표기이며 ‘바뀌었다’, ‘사귀었다’와 같이 적어야 합니다.

바뀌다 ·
바뀌었다 ·
바졌다

바뀌다
바뀌었다
바졌다
사귀었다
사졌다

‘부자연스럽다’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를 결합한 꼴인 ‘부자연스러운’이 ‘부자연스런’으로도 쓰이나요?

맞춤법에 맞는 표기는 ‘부자연스러운’입니다. 형용사 ‘부자연스럽다’는 어간의 ‘ㄴ’이 불규칙적으로 활용하는 용언인데, ‘ㄴ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 어간 뒤에 어미 ‘-은’이 붙을 때 활용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 1. 부자연스럽다: 부자연스럽+-은 → 부자연스러운(O)/부자연스런(×)
2. 아름답다: 아름답+-은 → 아름다운(O)/아름단(×)
3. 덥다: 덥+-은 → 더운(O)/던(×)

부자연스러운 ·
부자연스런

‘ㄴ’불규칙 용언
부자연스러운
부자연스런
아름다운
아름단

않- · 안

‘않-’과 ‘안’을 쓸 때 매우 헷갈립니다. ‘않-’과 ‘안’의 차이점을 알려 주세요.

준말
않다
안
아니하다
아니

‘않다’는 ‘아니하다’의 준말이고, ‘안’은 ‘아니’의 준말입니다. 따라서 ‘아니하다’를 줄여 쓸 자리에는 ‘않다’를 쓰고, ‘아니’를 줄여 쓸 자리에는 ‘안’을 씁니다. 예를 들어 ‘아무 말도 아니하다.’, ‘먹지 아니하다.’의 ‘아니하다’를 줄일 때에는 ‘아무 말도 않다.’, ‘먹지 않다.’와 같이 ‘않다’를 쓰고, ‘아니 먹다.’, ‘소리가 아니 들리다.’의 ‘아니’를 줄일 때에는 ‘안 먹다.’, ‘소리가 안 들리다.’와 같이 ‘안’을 씁니다. ‘않다’는 동사 또는 보조 용언으로 기능하고, ‘안’은 부사로 기능하는 말로 그 쓰임새가 다릅니다. 사전에서 ‘않다/아니하다’, ‘안/아니’를 찾아보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가르치다 · 가리키다(o) 가르키다(x)

‘가르키다’는 ‘가르치다’와 ‘가리키다’의 비표준어입니다. ‘가르치다’는 ‘지식이나 기능, 이치 따위를 깨닫거나 익히게 하다.’ 등의 뜻으로 쓰이는 단어이며, ‘가리키다’는 ‘손가락 따위로 어떤 방향이나 대상을 집어서 보이거나 말하거나 알리다.’ 등의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짐 따위를 싣다.’에서 ‘싣다’에 대해 질문합니다. 기본형은 ‘싣다’인데, ‘실어’, ‘실으니’ 등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싣는’은 그대로 ‘싣는’으로 쓰는데 왜 이렇게 쓰나요? 규칙 같은 게 있나요? 이런 현상에 이름이 있다면 이름도 알려 주세요.

싣다 ·
싣는 ·
실어

어간 말음인 ‘ㄷ’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 ‘ㄹ’로 활용하는 용언을 ‘ㄷ 불규칙 용언’이라고 하는데, ‘묻다’, ‘듣다’, ‘걷다’ 따위가 ‘물어’, ‘들어’, ‘걸어’ 등으로 활용되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싣다’는 ‘실어’, ‘실으니’ 등으로 활용되므로 ‘ㄷ 불규칙 용언’에 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와 같은 ‘ㄷ 불규칙 활용’은 어간 말음인 ‘ㄷ’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 ‘ㄹ’로 변하는 활용 형식이므로,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인 ‘-는’과 결합할 때는 ‘ㄷ’이 변하지 않고 ‘싣는’이 됩니다.

‘ㄷ’불규칙 용언

싣는

실는

실어

싣어

?!

추리닝(O) 츠리닝(X)

‘추리닝(← training)’은 운동이나 야외 활동을 할 때 편하게 입는 옷을 이르는 말로 사전에 올라 있지만, ‘추리닝’의 순화어인 ‘연습복’, ‘운동복’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
어떡해 ·
어떻게

어떻게
어떡해
어떻게
어떻다
어떻게 해

요즘 텔레비전 자막이나 인터넷 광고 글을 보면 ‘어떻게/어떡해/어떻게’를 혼동해서 쓰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어떻게’는 ‘어떻(어떻다의 어간)-+ -게’가 합쳐진 부사어이고, ‘어떡해’는 ‘어떻게 해’의 준말, ‘어떻게’는 틀린 말 같습니다. 이 셋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아시는 대로 ‘어떻게’는 어법에 맞지 않는 말이고, ‘어떻게’와 ‘어떡해’는 어법에 맞는 말입니다. ‘어떻게’는 ‘어떻게’가 줄어든 ‘어떻다’에 어미 ‘-게’가 결합하여 부사적으로 쓰이는 말이고, ‘어떡해’는 ‘어떻게 해’라는 구가 줄어든 말입니다. ‘어떻게’는 부사적으로 쓰여 ‘어떻게 된 거니?’, ‘요즈음 어떻게 지내십니까?’처럼 다양한 용언을 수식합니다. 한편 ‘어떡해’는 ‘나 어떡해.’, ‘오늘도 안 오면 어떡해.’처럼 그 자체가 완결된 구이므로, 서술어로는 쓰일 수 있어도 다른 용언을 수식하지는 못합니다.

?!

감색(○) 곤색(X)

‘곤색’의 ‘곤’이 일본식 발음이기 때문에 ‘감색(紺色)’, ‘검남색’, ‘진남색’으로 바꿔 쓰는 것이 좋습니다.

‘-에요’와 ‘-예요’의 차이를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둘의 어법상 차이점과 ‘누구예요?’, ‘누구예요?’ 중 어느 것이 맞는지를 알려 주세요.

-에요 ·
예요 ·
이에요

‘-예요’는 ‘이다’나 ‘아니다’의 어간 뒤에 붙는 어미이고, ‘예요’는 서술격 조사 어간 ‘이-’ 뒤에 ‘-예요’가 붙은 ‘이에요’의 준말입니다.

-에요

예요

이에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 예 1. 책이에요, 아니예요.
2. 사과예요(← 사과이에요요), 누구예요?(← 누구이에요요?)

“표준국어대사전” 서술격 조사 ‘이다’에 실려 있는 다음과 같은 정보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어 규정’ 26항에서 복수 표준어로 삼은 ‘이에요’와 ‘이어요’는 ‘이다’의 어간 뒤에 ‘-에요’, ‘-어요’가 붙은 말이다. ‘이에요’와 ‘이어요’는 체언 뒤에 붙는데 받침이 없는 체언에 붙을 때는 ‘예요’, ‘여요’로 줄어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지우개’ 뒤에 붙은 ‘지우개이에요’, ‘지우개이어요’는 ‘지우개예요’, ‘지우개여요’로 줄어든다. 하지만 ‘연필’ 뒤에 붙은 ‘연필이에요’, ‘연필이어요’는 줄어들지 않는다. 사람 이름일 경우, 받침이 있을 때에는 ‘-이’가 덧붙으므로(영숙 → 영숙이) 받침이 없는 체언과 같아져서 ‘영숙이에요’, ‘영희예요’가 된다. ‘아니다’는 용언이므로 ‘이에요’, ‘이어요’가 결합하지 않고 어미인 ‘-에요’, ‘-어요’만 결합하여 ‘아니예요’, ‘아니어요’가 된다. 이들은 ‘아네요’, ‘아녀요’로 줄어든다. 흔히 ‘아니예요’를 쓰는 일이 있지만 이는 잘못이다.

끼이다 · 끼다

‘친구들 틈에 끼어/끼여 앓다.’의 경우에는 전자가 맞나요, 후자가 맞나요?

준말
끼다
끼이다
끼어
끼여

‘무리 가운데 섞이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로 ‘끼이다’나 ‘끼다’를 쓸 수 있습니다. ‘끼다’는 ‘끼이다’의 준말입니다. 따라서 ‘친구들 틈에 끼어(끼+어) 앓다.’ 또는 ‘친구들 틈에 끼여(끼이+어) 앓다.’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했을지도 · 했을런지도

1. 했을지도 모르지.
2. 했을런지도 모르지.

둘 다 맞는 문장인가요?

했을지도
했을런지도
-르는지
-르런지

‘했을지도 모르지.’가 맞는 표기입니다. ‘-르는지’는 어미입니다. 앞에 ‘르’이 오는 경우 자음 동화가 되기 때문에 발음과 표기를 혼동하여 ‘른지’ 또는 ‘런지’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되’와 ‘돼’ 사용법이 헷갈려요. ‘너 사과 먹으면 안 돼.’에서는 ‘돼’를 쓰는 것 같은데, ‘되’는 어떤 경우에 쓰이나요? ‘되-’와 ‘돼’의 구별법 좀 알려 주세요.

되- · 돼

되-
돼
되어
되다

‘되-’는 ‘되다’라는 단어의 어간으로서 반드시 뒤에 어미가 붙어야 문장에서 쓰일 수 있습니다. 어미 ‘-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어미와 자유롭게 결합하여 ‘되어’, ‘되고’, ‘되며’, ‘되지’, ‘되는데’, ‘된’ 등으로 다양하게 쓰입니다. 반면, ‘돼’는 어간 ‘되-’에 어미 ‘-어’가 붙어서 된 ‘되어’가 축약된 것입니다. ‘너 사과 먹으면 안 돼.’에서 ‘돼’는 반말 ‘되어’가 축약된 것이므로 ‘돼’가 되는 것입니다.

문맥에서 ‘되-’와 ‘돼’를 쉽게 구분하려면 ‘되-’나 ‘돼’ 바로 뒤에 ‘-어’를 붙여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뒤에 ‘-어’를 붙여 자연스러운 맥락이라면 ‘-어’가 원래 포함되어 있는 ‘돼’가 있어야 할 자리이고, ‘-어’를 붙여 부자연스러운 맥락이라면 ‘-어’가 없는 ‘되-’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몸매 되지, 얼굴 되지.’에서 ‘되지’는 ‘되-’ 뒤에 ‘-어’를 넣어 ‘되어지’로 표현할 경우 어색해지므로 ‘돼’가 아니라 ‘되-’가 되는 것입니다.

?!
수레

수레(O) 구르마(X)

‘구르마’의 표준어는 ‘수레’입니다.

-읍니다 ·
-습니다

-읍니다
-읍니다
-ㅂ니다

현재는 ‘-습니다’를 옳은 표현으로 정해 놓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때는 ‘-읍니다’가 옳은 표현이었던 것으로 하는데, 그 역사를 알 수 있을까요?

‘표준어 규정’ 전에는 ‘-읍니다’와 ‘-습니다’를 함께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1988년 ‘표준어 규정’이 개정되면서 ‘-습니다’를 채택하였습니다. ‘표준어 규정’ 제17항에 보면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고 하여, ‘-읍니다’를 버리고 ‘-습니다’를 쓴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습니다’는 종래 ‘-습니다’, ‘-읍니다’ 두 가지로 적고 ‘-습니다’ 쪽이 더 각듯한 표현이라고 해 왔으나, 이 규정에서는 ‘-습니다’와 ‘-읍니다’ 사이의 그러한 의미 차가 확연하지 않고 일반 구어(口語)에서 ‘-습니다’가 훨씬 널리 쓰인다고 판단하여 ‘-습니다’ 쪽으로 통일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모음 뒤에서는 ‘-ㅂ니다’를, 자음 뒤에서는 ‘-습니다’만을 씁니다.

(관련 규정: ‘표준어 규정’ 표준어 사정 원칙 제2장, 제4절, 제17항)

?!

그다지(○) 그닥(X)

‘그러한 정도로는. 또는 그렇게까지는’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는 ‘그다지’입니다.

‘낮설다’라는 말을 ‘하다’ → ‘합니다’처럼 바꿔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ㄹ’ 받침인 용언의 어간 뒤에는 ‘-ㅂ니다’가 오고, 이때 ‘ㄹ’은 사라집니다. 어간의 끝소리인 ‘ㄹ’이 ‘ㄴ’, ‘ㄷ’, ‘ㅂ’, ‘ㅇ’, ‘시’ 앞에서 탈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낮설다’에 ‘-ㅂ니다’가 결합해 활용된 끝은 ‘낮섭니다’가 됩니다. 참고로 다른 활용 형태를 더 보이면, ‘낮설어(요)’, ‘낮서니’, ‘낮서오’ 등이 있습니다.

낮섭니다 ·
낮섭니다

낮설다
낮섭니다
낮섭니다
낮서니
낮서오

‘가십시오’, ‘오십시오’가 맞는 표기인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또 ‘-셔요’가 존칭어(경어)인지 문의드립니다.

정중한 명령이나 권유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는 ‘-십시오’이므로 ‘가다’, ‘오다’의 어간 ‘가-’, ‘오-’ 뒤에 ‘-십시오’를 붙여 ‘가십시오’, ‘오십시오’와 같이 적습니다. 종결 어미 ‘-셔요’는 상대방을 보통으로 높이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형으로,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상대방에게는 잘 쓰지 않습니다.

가십시오 ·
오십시오

가십시오
오십시오
-십시오
-셔요

계श्य · 계세요

계श्य
계세요
계시어요
-श्य
-세요

‘계시다’는 ‘계십니다’, ‘계십니까?’, ‘계십시오’ 등으로 활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요’를 붙일 때와 ‘-세요’를 붙일 때 사용이 혼란스럽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다’는 ‘계श्य’와 ‘계세요’로 활용합니다. ‘계श्य/계세요’는 ‘말씀하श्य/말씀하세요’, ‘가श्य/가세요’처럼 용언의 어간 뒤에 ‘-श्य/세요’가 결합한 방식과는 달리, 본래부터 존대 형태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인 ‘계시다’의 어간 ‘계시-’ 뒤에 ‘-어요’가 붙은 ‘계시어요’가 줄어 ‘계श्य’가 되는 것이고, ‘-시어요’의 준말로 ‘-श्य’와 동의어인 ‘-세요’가 붙어 ‘계세요’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계시어요’가 ‘계श्य’로 줄고 이때 ‘-श्य’와 동의어인 ‘세요’가 올 수 있으므로 ‘계श्य’와 ‘계세요’ 형태를 모두 쓸 수 있습니다. ‘계시다’ 외에 ‘주무시다(주무श्य/주무세요)’도 ‘계시다’의 활용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

꼬여서(O) 꼬श्य서(X)

‘그럴듯한 말이나 행동으로 남을 속이거나 부추겨서 자기 생각대로 끝다.’라는 뜻의 동사는 ‘꼬이다’입니다. ‘꼬이다’의 어간 ‘꼬이-’에 연결 어미 ‘-어서’가 결합하면 ‘꼬여서’가 됩니다.

‘그 잘못을 고칠려고/고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에서 ‘고칠려고’가 맞습니까, ‘고치려고’가 맞습니까? 아니면 둘 다 쓸 수 있습니까?

‘고치려고’가 맞습니다. 어떤 행동을 할 의도나 욕망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는 ‘-려고’입니다. ‘고치다’의 어간 ‘고치-’에 연결 어미 ‘-려고’가 붙으면 ‘고치려고’와 같이 활용합니다.

- 예 내일은 일찍 일어나려고(일어나+-려고) 한다.
너는 여기서 살려고(살+-려고) 생각했니?
집을 마련하려고(마련하+-려고) 저축을 한다.

고치려고 ·
고칠려고

고치려고
고칠려고
고치다
-려고

‘그죠?’라고 하면 잘못 표현한 것인가요? 아니면 ‘그렇죠?’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 줄임말 같은 것인가요?

‘그러하다’의 준말은 ‘그렇다’입니다. 여기에 종결 어미 ‘-지’와 보조사 ‘요’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지요’의 준말인 ‘-죠’가 결합할 때에는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는 형식이어야 하므로 ‘그렇죠’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렇죠 · 그죠

그렇죠
그죠
그러하다
그렇다
-죠

나쁘대요 ·
나쁜대요 ·
나쁜데요

나쁘대요
나쁜대요
나쁜데요
-대요
-는데

‘학생들 성적이 왜 나쁘대요/나쁜대요/나쁜데요?’ 중에 어떤 문장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흔히 쓰는 표현인데 올바른 표기가 헷갈려서 질문합니다. 어떤 표기가 맞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대요’는 ‘-다고 해요’가 줄어든 말입니다. 형용사 어간이나 어미 ‘-으시-’, ‘-었-’, ‘-겠-’ 뒤에는 ‘대요’가 붙고, 동사 어간 뒤에는 어간의 받침 유무에 따라 ‘-ㄴ대요’ 또는 ‘-는데요’가 붙습니다. 그런데 문의하신 문장에 쓰인 용언은 ‘나쁘다’이므로 ‘나쁘대요’의 형태로 활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학생들 성적이 왜 나쁘대요?’와 같이 쓰면 됩니다.

한편 ‘-는데’는 해할 자리에 쓰여, 어떤 일을 감탄하는 뜻을 넣어 서술함으로써 그에 대한 청자의 반응을 기다리는 태도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도 쓰입니다. 따라서 ‘학생들 성적이 정말 나쁜데.’, ‘학생들 성적이 정말 나쁜데요.’로 쓸 수 있습니다.

?!

개구쟁이(○) 개구장이(x)

기술자에게는 ‘장이’(예 미장이, 땀장이, 무두장이), 그 밖에는 ‘쟁이’가 붙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도록 했으므로 ‘개구쟁이’가 표준어입니다.

‘병이 없어지거나 괜찮아지다.’라는 의미로 쓰는 ‘났다’와 ‘병이 생기다.’라는 의미의 ‘났다’가 있는데요. ‘병이 나왔다.’라는 문장은 위의 문장에서 전자의 의미인데 줄이게 되면 ‘났다’가 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 전자의 의미로는 ‘났다’가 되는데 줄임 표현이 잘못된 것인가요?

‘(병이) 나타났다’는 ‘나아’, ‘나으니’, ‘났는[난:는]’으로 활용합니다. 즉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는 경우 ‘ㅅ’이 떨어지기 때문에 ‘났다’에 과거 시제의 ‘-았-’이 붙으면 ‘나왔다’가 됩니다. 이때 ‘ㅅ’ 소리 하나가 줄어 들면 ‘(병이) 나타났다’가 됩니다

(관련 규정: ‘한글 맞춤법’ 제18항 2, 제34항)

났다 · 나타났다

났다
나왔다
났다



치르다(○) 치루다(X)

‘잔금을 치렀다.’에서 ‘치렀다’는 ‘치렀다’로 써야 합니다. 기본형이 ‘치르다’이기 때문입니다.

누우면 · 누으면

누우면

누으면

굽다

굽다

굽다

‘눅다’의 활용형으로 ‘누우면’과 ‘누으면’ 중 어느 것이 맞나요? ‘굽다’와 ‘굽다’도 마찬가지로 헷갈립니다. ‘눅다’는 ‘도우면’이 맞는 표기 같은데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네요. 각각의 활용형을 예를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눅다’, ‘굽다’, ‘굽다’, ‘눅다’는 어간의 끝소리 ‘ㅂ’이 모음 앞에서 ‘오/우’로 바뀌는 ‘ㄷ 불규칙 용언’입니다. 활용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 눅-/ (빵을) 굽-/굽+-어 → 누워/구워/주워
 눅-/굽-/굽+-으면 → 누우면/구우면/주우면
 눅+-아 → 도와
 눅+-으면 → 도우면

?!

있게꿈(○) 있겠꿈(X)

앞의 내용이 뒤에서 가리키는 사태의 목적이거나 결과, 방식, 정도 따위가 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는 ‘-게꿈’입니다.

?!

맞닥뜨리다 · 맞닥트리다(○) 맞닥드리다(X)

‘맞닥트리다’ 외에 ‘맞닥뜨리다’와 비슷한 말로, ‘맞다닥뜨리다’, ‘맞다닥트리다’가 있습니다.

가: 오늘 휴강이다!

나: 뭇 때문예요?

위 문장에서 ‘때문예요?’가 맞나요? 아니면 ‘때문이에요?’가 맞나요?

제시한 대화의 맥락에서 볼 때 ‘뭇 때문예요?’의 ‘때문예요’는 ‘때문에+요’의 결합으로 보아 ‘뭇 때문예요?’로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때문’에 ‘이다’의 활용형이 붙은 것으로 본다면 ‘뭇 때문이에요?’와 같이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뭇 때문예요?’와 같이 나타낼 수는 없는데, ‘이다’의 활용형인 ‘예요’는 받침 없는 체언 뒤에 나타나므로 ‘때문’ 뒤에는 올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때문예요 ·
때문예요

때문예요

때문이에요

때문예요

?!

동그라미표(○) 공표 · 영표(○)

‘동그라미표’, ‘공표’, ‘영표’는 모두 같은 말입니다. ‘오표’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당일(○) 당일 날(X)

‘당일 날’은 ‘일’과 ‘날’이 의미가 중첩되므로 ‘당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담가 · 담궈

담가
담그다
잠가
잠그다
담궈

‘김장을 담가’, ‘김장 담가주기’, ‘김장 담갔습니까?’ 등 ‘담가’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담가’가 맞는 말인가요?

그리고 ‘가스 잠켰나?’, ‘문 잠켰나?’를 ‘가스 잠갔나?’, ‘문 잠갔나?’로 말을 합니다. ‘가스 잠켰습니다.’, ‘문 잘 잠켰나?’가 맞는 말 아닌가요?

‘김치 · 술 · 장 · 젓갈 따위를 만드는 재료를 버무리거나 물을 부어서, 익거나 삭도록 그릇에 넣어 두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담그다’와 ‘물, 가스 따위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차단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잠그다’는 어간 ‘담그-’, ‘잠그-’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아/아서’가 붙으면 ‘담가’, ‘담가서’, ‘잠가’, ‘잠가서’와 같이 활용하는 용언입니다. 따라서 ‘담가’, ‘잠가’와 같이 쓰는 것이 맞습니다.

?!

나름대로(O) 나름되로(X)

다 닳도록(O) 다달토록(X)

‘뺏다’는 ‘뺏어라’, ‘뺏었다’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뺏다’도 ‘뺏었다’, ‘뺏어라’가 되나요? ‘ㅈ’는 양성 모음으로 알고 있는데 왜 ‘뺏았다’, ‘뺏았다’로 활용하지 않나요? 참고로 ‘빼앗다’는 ‘빼앗아라’로 활용하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어서 다르게 활용하는지 궁금합니다.

‘한글 맞춤법’ 제16항은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ㅈ, ㅊ’ 일 때에는 어미를 ‘-아’로 적고, 그 밖의 모음일 때에는 ‘-어’로 적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뺏다’, ‘뺏다’는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ㅈ, ㅊ’가 아니므로 어미 ‘-어’와 결합합니다. 따라서 ‘뺏어’, ‘뺏어’와 같이 활용합니다. 그러나 ‘빼앗다’는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ㅈ’이므로 어미 ‘-아’와 결합합니다. 따라서 ‘빼앗아’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뺏어 · 빼앗아

뺏어
 뺏다
 빼앗아
 빼앗다
 뺏어

?!
 ?!

눈치껏(○) 눈치껏(x)

나뭇가지(○) 나무가지(x)

말란 · 마란

말란
마란
말라는
말다
-란

명령이나 청유문에서 부정형은 ‘말다’를 사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밤새우지 마란(말란) 말이야.’는 ‘밤새우지 마라(말라)고 하는 말이야.’의 축약형인 듯한데 이때 ‘마란’으로 써야 하나요, ‘말란’으로 써야 하나요?

‘말다’와 같이 ‘ㄹ’ 받침인 동사 어간 뒤에 ‘-라고 한’이 줄어든 ‘-란’과 ‘-라고 하는’이 줄어든 ‘-라는’을 붙여 ‘밤새우지 말란 말이야.’, ‘밤새우지 말라는 말이야.’와 같이 씁니다.

바르다 · 발라 · 발라서

‘ㄹ’불규칙 용언
바르다
발라
발라서

‘예의가 바르다.’가 원래 맞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저 애는 예의가 발라서 그래.’와 같이 ‘발라서’, ‘발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확실히 알고 싶어요.

‘말이나 행동 따위가 사회적인 규범이나 사리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들어맞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동사 ‘바르다’는 어간의 끝음절 ‘르’가 어미 ‘-아’ 앞에서 ‘ㄹㄹ’로 바뀌는 ‘ㄹ’ 불규칙 용언입니다. 따라서 ‘바르-’ 뒤에 ‘-아’ 또는 ‘-아서’가 붙으면 ‘발라’, ‘발라서’와 같이 적습니다.

‘아니요’와 ‘아니오’는 둘 다 높임말인 듯한데 어떻게 구분해야 합니까? 또 ‘아니요’에는 ‘아뇨’ 같은 준말이 있지만 ‘아니오’에는 그런 준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습니까?

아니요 ·
아니오

‘아니요’는 감탄사 ‘아니’에 존대를 나타내는 보조사 ‘요’가 붙은 꼴로, 예를 들어 ‘철수 있니?’, ‘아니요, 없어요.’와 같이윗사람이 묻는 말에 부정하여 대답할 때 쓰는 말입니다. ‘아니요’는 ‘아뇨’처럼 줄어든 형태로 쓰기도 합니다.

대답하는 말
아니요
아뇨
(책이) 아니오

한편 ‘아니오’는 형용사 ‘아니다’의 어간 ‘아니-’에 하오체의 어말 어미 ‘-오’가 붙은 꼴로, 예를 들어 ‘이것은 책이 아니오.’와 같이 서술어로만 쓸 수 있습니다. 서술어로 쓰는 하오체의 ‘아니오’는 ‘아뇨’와 같이 줄어든 형태로 쓰지 않기 때문에 준말로 다루지 않습니다.

?!
?

한 곳 차이(○) 한 끝 차이(X)

코 끝(○) 콧망울(X)

실력이 는 · 실력이 느는

늘다
실력이 는
실력이 느는
-은
-는

‘일 년 사이에 실력이 부쩍 는 것을 알 수 있다.’에서 왜 ‘는’이 맞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느는’은 옳지 않은 표현인가요? 그리고 ‘늘다’가 불규칙 활용을 하는 동사라고 하는데, ‘늘다’가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알려 주세요.

‘늘다’는 ‘재주나 능력 따위가 나아지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이며, ‘늘다’, ‘늘어’, ‘느니’, ‘느오’ 등으로 활용합니다. 동사는 어간 뒤에 과거를 나타내는 어미 ‘-은’과 현재를 나타내는 어미 ‘-는’을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실력이 는’과 ‘실력이 느는’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 아다시피

알다
알다시피
아다시피
-다시피

‘알다시피/아다시피’ 둘 중에 어느 표기가 맞나요?

동사 ‘알다’의 어간 ‘알-’에 ‘-는 바와 같이’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다시피’가 결합하게 되면 ‘알다시피’가 됩니다. ‘알다’가 ‘ㄴ’, ‘ㄹ’, ‘-오’, ‘-시’ 앞에서 ‘아는’, ‘압니다’, ‘아오’, ‘아시오’ 등처럼 어간의 끝소리인 ‘ㄹ’이 탈락하는 용언이기 때문에 ‘아다시피’처럼 쓰려는 경향이 있지만, 어미 ‘-다시피’ 앞에서는 어간의 끝소리 ‘ㄹ’이 탈락할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다시피’는 잘못이고, ‘알다시피’가 맞는 말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의문이 생겨서 올립니다. ‘되지도 않은 영어’라는 자막이 나왔는데 ‘되다’가 동사이고 현재를 말하는 것이니 ‘되지도 않는’이 맞는 말 아닌가요?

않는 · 않은

‘되지도 않은’이 맞는 표기입니다. ‘않다’는 앞에 오는 용언의 품사에 따라 보조 동사도 되고 보조 형용사도 되는데, 동사 뒤에 쓰이면 보조 동사가 되고, 형용사 뒤에 쓰이면 보조 형용사가 됩니다. ‘되지도 않은 영어’에서 ‘않은’은 앞에 오는 ‘되다’가 동사이므로 보조 동사가 됩니다. 보조 동사 ‘않다’는 현재형인 경우에는 ‘않는’, 완료형인 경우에는 ‘않은’으로 적는데, ‘되지도 않은 영어’는 ‘완성되지도 않은 덜된 영어’라는 뜻으로 해석되므로 완료형 ‘않은’으로 적는 것이 맞습니다.

완료형

현재형

않는

않은

?!

꽃봉오리(O) 꽃봉우리(X)

‘망울만 맺히고 아직 피지 아니한 꽃’을 이르는 말은 ‘꽃봉오리’입니다. ‘봉우리’는 산에서 뾰족하게 높이 솟은 부분을 이르는 말인 ‘산봉우리’를 가리킬 때 씁니다.

즐거라 · 즐기라

직접 명령

간접 명령

즐거라

즐기라

즐기다

‘즐기다’의 명령형을 ‘즐거라’로 알고 있었는데, 책을 보다 보니 계속 ‘즐기라’로 나와 있네요. ‘즐기라’도 맞는 표현인가요?

문의하신 사항은 ‘직접 명령’과 ‘간접 명령’이라 일컫는 표현에 관련된 것으로, ‘즐거라’, ‘즐기라’ 두 가지 형태 모두 쓸 수 있습니다. ‘즐거라’는 직접 명령으로, ‘즐기다’의 어간 ‘즐기-’ 뒤에 끝음절의 모음이 ‘ㅏ, ㅑ’가 아닌 동사 어간 뒤에 붙어, 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어라’가 결합한 형태입니다. ‘즐기라’는 간접 명령으로, ‘즐기-’ 뒤에 받침 없는 동사 어간에 붙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청자나 독자에게 책 따위의 매체를 통해 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라’가 결합한 형태입니다.

?!

터뜨리다(○) 터트리다(○)

‘-뜨리다’와 ‘-트리다’는 둘 다 널리 쓰이는 복수 표준어입니다. ‘터뜨리다’와 ‘터트리다’를 비롯하여, ‘깨뜨리다/깨트리다’, ‘떨어뜨리다/떨어트리다’, ‘쏟뜨리다/쏟트리다’ 등도 표준어입니다.

평소에 ‘하신 게로구먼/하신 거로구먼’이라는 표현을 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어떻게 써야 올바른 표현인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거로구먼 ·
게로구먼

‘하신 거로구먼’이 맞습니다. 의존 명사 ‘것’의 구어적 형태 ‘거’는 주격 조사 ‘이’와 연결될 때에는 함께 축약되어 ‘게’가 됩니다(예 먹을 게 없어.). 하지만 서술격 조사 ‘이다’와 연결될 때에는 ‘이’가 생략되어 ‘거다’가 됩니다(예 이제 갈 거다.). 이에 따르면 ‘하신 거로구먼’은 의존 명사 ‘거’에 서술격 조사 ‘이-’와 어미 ‘-로구먼’이 붙어 된 말로, ‘이’가 생략되어 ‘거로구먼’과 같이 씁니다.

‘이’ 생략
거로구먼
게로구먼
-로구먼

‘부상당하다’는 써도 되는 표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상입다’도 써도 되는 표현인가요?

부상입다 ·
부상(을) 입다

동사 ‘당하다’를 써서 ‘부상을 당하다’와 같이 쓰거나 접미사 ‘-당하다’를 붙여 ‘부상당하다’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접사 ‘입다’나 ‘부상입다’는 한 단어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도움, 손해 따위와 같은 말을 목적으로 하여 ‘받거나 당하다.’의 뜻을 나타내는 동사 ‘입다’를 써서 ‘부상(을) 입다’와 같이 표현해야 합니다.

부상당하다
부상을 당하다
부상입다
부상(을) 입다

서두르다 · 서둘다

준말
서두르다
서둘다
서투르다
서툴다

1. 서두르다-서둘다
2. 서투르다-서툴다

위 예시는 복수 표준어가 된다고 나와 있네요. 그런데 비교란에 ‘모음 어미가 연결될 때에는 준말의 활용형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문장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둘다’와 ‘서툴다’는 각각 ‘서두르다’와 ‘서투르다’의 준말입니다. 문의하신 바와 같이 ‘표준어 규정’ 제16항에서는 준말과 본말이 다 같이 널리 쓰이면서 준말의 효용이 뚜렷이 인정되는 두 가지를 다 표준어로 삼는다고 하면서, 모음 어미가 연결될 때에는 준말의 활용형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준말인 ‘서둘다’, ‘서툴다’의 어간 ‘서둘-’, ‘서툴-’에 어미 ‘-지’와 같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을 경우에는 ‘서둘지’, ‘서툴지’처럼 활용형을 쓸 수 있지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결합하여 활용하는 것은 잘못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즉 ‘서둘어’, ‘서툴어’와 같은 활용형은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쇠고기(○) 소고기(○)

‘쇠고기’와 ‘소고기’는 모두 표준어입니다. ‘쇠’는 전통적 표현이나, ‘소’도 우세해져 두 가지를 다 쓰게 하였습니다. 예 쇠가죽/소가죽, 쇠고기집/소고기집

금액을 한글로 표기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맞나요?
 ‘15,201,100원’을 ‘일금 일천오백이십만일천일백원정’으로
 써야 맞는지, ‘일금 일천오백이십만천백원정’으로 써야 맞는지
 궁금합니다.

‘일금 일천오백이십만천백원정’이 맞습니다. 숫자를 한
 글로 표기하는 경우 ‘만’ 단위로 띄어서 쓰지만, 금액을 적
 을 때는 변조(變造) 등의 사고를 방지하려는 뜻에서 붙여
 쓰는 게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영수증 등에서 제일 앞에
 ‘일’을 덧붙이는 것은 다른 숫자를 덧붙여 금액이 변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간에는 ‘일’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또 뒤에
 ‘원정’으로 적는 것은 ‘원’이 금액의 단위이고, ‘-정’은 ‘그 금액에 한정됨.’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기 때문이며, 이때 ‘원’과 ‘-정’은 붙여서 씁니다.

(관련 규정: ‘한글 맞춤법’ 제44항)

일천오백이십만
 일천일백원정 ·
 일천오백이십만
 천백원정

금액 표기
 일금
 원정
 일천



꽃 다(○) 꽃 다(○)

‘쓰러지거나 빠지지 아니하게 박아 세우거나 끼우다.’를 뜻하는 말은 ‘꽃다’
 입니다.

하나 · 하느냐

하나
하느냐
-느냐
-냐
-으냐

보통 ‘어떻게 하나?’고 쓰잖아요. ‘~하냐’ 이런 식으로 ‘안 가냐?’, ‘안 하나?’라고 쓰는데 이러면 틀린 표현일까요? ‘하느냐’, ‘먹느냐’로 ‘-느냐’를 붙여야 맞는지 아니면 그냥 ‘하냐’, ‘먹냐’로 줄여 써도 되는지 궁금해요.

‘하느냐’, ‘먹느냐’로 적는 것이 맞습니다. ‘-냐’는 ① ‘ㄹ’ 받침이거나 받침 없는 형용사 어간 뒤, ② ‘이다’의 어간 뒤, ③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쓰이고, ‘-으냐’는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형용사 어간 뒤에 쓰이며, ‘-느냐’는 ① 동사 어간 뒤, ② ‘있다’, ‘없다’, ‘계시다’의 어간 뒤, ③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쓰입니다. ‘하다’와 ‘먹다’는 동사이므로 ‘-느냐’를 붙여 ‘하느냐’, ‘먹느냐’로 적어야 합니다.

?!

색색(O) 색색가지(X)

‘여러 가지 색깔’ 또는 ‘가지각색의 여러 가지’를 뜻하는 ‘색색’에는 이미 ‘여러 가지’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염치 불구하고’는 우리가 자주 쓰는데 틀린 말이라고 하더군요. 왜 틀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써야 올바른 표현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염치 불고하다 ·
염치 불구하고

‘염치를 돌아보지 아니하다.’의 뜻을 가진 말로 ‘불고염치(不顧廉恥)하다.’가 있는데, 이 말이 ‘염치 불고하다.’와 같은 구성으로 쓰이면서 ‘염치 불구하고.’로 잘못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불고염치하다
염치 불고하다
염치 불구하고
염치
불구하다

‘얼매여 거리끼지 아니하다.’의 뜻인 ‘불구하다’가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인 ‘염치’와 결합하여 ‘염치 불구하고.’처럼 쓰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염치’라는 단어의 용례를 통해서 본다면 ‘염치에 어긋나다./염치가 없다./염치를 모르다.’와 같이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 긴 개 긴(O) 도진개진(X)

웃놀이에서 자기 말로 남의 말을 쫓아 잡을 수 있는 거리를 가리키는 말에 ‘긴’이 있습니다. ‘도 긴 개 긴’은 ‘도토리 키 재기’와 뜻이 비슷한 말입니다.

맞춤 · 맞춤

맞춤
맞추다
미춤
미추다

남성복 전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기존에 ‘명품맞춤정장’이라고 써 왔는데 한 임직원께서 ‘맞춤’인지 ‘마춤’인지 확인하여 반영하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표기가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정한 규격으로 물건을 만들도록 미리 주문하여 만들. 또는 그렇게 만든 물건’을 뜻하는 말은 ‘맞춤’입니다. 한때 ‘맞추다’와 ‘마추다’가 양립하여, ‘일정한 치수나 규격대로 만들도록 미리 맡기다, 약속하다.’의 뜻으로는 ‘마추다’가, ‘어긋남 없이 꼭 맞도록 하다, 갖다 대어 붙이다, 올바르게 대다, 정도를 알맞게 하다.’의 뜻으로는 ‘맞추다’가 쓰였으나, ‘한글 맞춤법’에서는 이러한 구별 없이 ‘맞추다’만 쓰도록 하였습니다.

?!

도르래(O) 도르레(X)

사람들이 평상시에 ‘웃웃/웃웃’이라고 많이 하는데, 어느 것이 정확한 표현인지 알려 주세요.

웃웃 · 웃웃

‘웃웃’과 ‘웃웃’ 둘 다 표준어입니다. ‘표준어 규정’ 제12항에서는 ‘웃-’과 ‘웃-’을 명사 ‘위’에 맞추어 ‘웃-’으로 통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웃’과 대립을 이루는, ‘위에 입는 웃’을 뜻하는 ‘웃웃’은 표준어입니다. 또 ‘아래, 위’의 대립이 없는 단어는 ‘웃-’으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도록 한 규정에 따라 ‘맨 곁에 입는 웃’을 뜻하는 말은 ‘웃웃’으로 적습니다.

웃웃

웃웃

웃웃

국유재산법을 보다가 제33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입찰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보았습니다. 입찰은 ‘붙이다’인지 ‘부치다’인지 헷갈립니다.

부치다 · 붙이다

문의하신 문장에 쓰인 ‘상품의 매매나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여러 희망자에게 각자의 낙찰 희망 가격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는 일’이라는 ‘입찰(入札)’의 뜻과 문맥을 고려할 때, ‘어떤 문제를 다른 곳이나 다른 기회로 넘기어 맡기다.’의 뜻을 가진 ‘부치다’를 써서 ‘입찰에 부치다.’와 같이 쓰는 것이 맞습니다.

부치다
입찰에 부치다
붙이다

빌다 · 빌리다

빌려
빌어
빌리다
빌다

‘이 자리를 빌려’가 맞는지, ‘이 자리를 빌어’가 맞는지 궁금하네요. 알려 주세요.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와 같이 쓰는 것이 맞습니다. ‘빌리다’의 여러 가지 뜻 가운데 ‘일정한 형식이나 이론, 또는 남의 말이나 글 따위를 취하여 따르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인의 말씀을 빌려 설교하다./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등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를 빌려’라고 할 때에는 ‘빌어’가 아니라 ‘빌려’로 써야 합니다.

‘빌다’와 ‘빌리다’를 혼동하여 잘못 쓰는 것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가 있는데, 이 경우는 ‘이 자리를 구걸하여 감사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로 써야 맞습니다.

?!

쟁여 놓다(○) 쟁겨 놓다(x)

‘쟁여 놓다’는 동사 ‘쟁이다’의 어간 ‘쟁이-’에 보조 동사 구성인 ‘-어 놓다’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쟁이다’는 ‘재다’와 같은 뜻으로 ‘물건이나 음식을 차곡차곡 쌓거나 담아 두다.’의 뜻입니다.

‘국자를 고리에 거는 손잡이 구멍’에서 국자를 거는 것을 뭐라고 하나요? ‘고리’인지 ‘걸이’인지 알려 주세요.

걸이 · 고리

국자가 걸릴 수 있게 만들어진 돌출된 부분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걸이’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고리’는 ‘방문 고리’처럼 긴 쇠붙이나 줄, 끈 따위를 구부리고 양 끝을 맞붙여 둥글거나 모나게 만든 물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걸이
고리

음식점에 가면 전이 여러 종류 나오는 메뉴를 ‘모듬전’ 또는 ‘모듬전’으로 표시했는데 어느 표현이 맞나요?

모듬 · 모듬

초 · 중등학교에서, 효율적인 학습을 위하여 학생들을 작은 규모로 묶은 모임을 이르는 교육 전문어인 ‘모듬’이나, 국물을 많이 넣은 냄비에 해산물이나 채소 따위의 여러 가지 재료를 넣고 끓이면서 먹는 일본식 요리를 이르는 ‘모듬 냄비’, 여러 사람이 모두 먹기 위하여 함께 담은 밥을 이르는 ‘모듬밥’의 쓰임을 참고하여 ‘모듬’의 형태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모듬
모듬
모듬냄비
모듬밥

서너 · 세네

서너
세
네
세네

‘동네를 서너/세네 바퀴 돌다.’에서 ‘서너’와 ‘세네’ 중 어느 것이 맞나요?

어떤 둘레를 빙 돌아서 제자리까지 돌아오는 횟수를 세는 단위 의존 명사인 ‘바퀴’는 그 앞에 관형사가 놓입니다. ‘바퀴’ 앞에 관형사 ‘한/두/세/네/서너’가 놓이면 ‘한 바퀴/두 바퀴/세 바퀴/네 바퀴/서너 바퀴’로 쓰며, 관형사 ‘서너’를 쓸 자리에 관형사 ‘세’와 ‘네’를 쓰려면 ‘세, 네 바퀴’처럼 써야 합니다. 그런데 ‘세, 네 바퀴’처럼 쓰는 것보다는 그 수량이 셋이나 넷임을 나타내는 관형사로, ‘서너 되/서너 명/서너 사람/서너 포기/서너 집’처럼 쓰이는 ‘서너’가 있으므로 ‘서너 바퀴’처럼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

불러 젓히다(○) 불러 제끼다(X)

‘젓히다’는 ‘앞말의 행동을 막힘없이 해치우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 용언입니다. ‘제끼다’는 ‘젓히다’의 비표준어입니다.

‘손에 책 한 권이 들려 있었다. 1층 종합자료실에서 대여받은 것이었다.’

‘대여’는 빌려 준다는 의미입니다. 위 문장에서처럼 ‘대여받은’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지, ‘대여한’이라고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여 받은’처럼 띄어 써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가난한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대여하다./구청에서 책을 임시 도서관에 무료로 대여했다.’와 같이, ‘대여하다’는 ‘빌려 주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경우, 주체가 ‘도서관’이면 ‘대여하다’를 쓰고, 주체가 ‘나’이면, 피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 ‘-받다’가 붙은 ‘대여받다’를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대여하다 ·
대여받다

대여하다
빌려 주다
대여받다



한가락 하다(○) 한가닥 하다(x)

‘한가락 하다’는 ‘(숙되게) 어떤 방면에서 뛰어난 활동을 하거나 이름을 날린다.’의 뜻입니다.

완전 · 완전히

완전 완전히

모 회사 광고 중에 ‘완전 맛있다.’라고 표현한 것이 있는데 맞는 표현인가요?

요즘 흔히 쓰이는 ‘완전 ~하다’는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완전’은 주로 일부 명사 앞에 쓰여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추어져 모자람이나 흠이 없다는 뜻의 명사입니다. 따라서 제시하신 문장은 이 말을 쓰기에 적절한 형식이 아닙니다. 이때는 뒤에 오는 용언을 꾸밀 수 있는 부사가 와야 합니다. 그런데 부사 ‘완전히’ 역시 이때에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모두 갖추어져 모자람이나 흠이 없다는 뜻이므로, ‘맛있다’와 함께 쓰기에는 의미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 도움이 되셨기를

높임 표현 도움이되었기를 도움이되셨기를

실생활에서 종종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도움 되셨기를’은 도움을 준 저 자신을 높이는 표현 같아서요. 그렇다면 ‘도움 되었기를 바랍니다.’라는 표현은 예의가 없어 보이는 것 같고요.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가 맞는 표현인가요?

‘도움이 되었기를’과 같이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기를 들어, ‘이 정보가 누구에게 도움이 되다.’와 같은 문장에서 주체는 ‘이 정보가’인데, 이는 높임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서술어에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시-’를 붙여 ‘되시었기를/되셨기를’과 같이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공문서를 작성할 때 수신자나 발신기관명을 어떻게 적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노원구청 기획감사실에서 생산한 공문이라면, 발신기관명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획감사실’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기획감사실’ 중 어떤 것이 맞는 표현인가요? 어떤 때에 ○○구를 쓰고 어떤 때에 ○○구청을 쓰는지 차이점을 알려 주세요.

구 · 구청

노원구
노원구청
구청
구

‘서울특별시 노원구’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둘 다 관청 이름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노원구’는 행정 구역 자체를 말할 때,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은 기관이나 그 기관의 청사를 말할 때 많이 쓰여 왔으므로 그에 따라서 적절히 구별하여 쓸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것과 같이 산하 기관을 이르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기획감사실’과 같이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혼꾸멍나다(○) 혼구멍나다(x)

‘혼꾸멍나다’와 ‘혼꾸멍내다’는 각각 ‘혼나다’와 ‘혼내다’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므로 되도록이면 ‘혼나다’와 ‘혼내다’를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세요 · 마시오

마세요
마시오
-세요
-시오

안내판에 쓰인 ‘올라가지 마세요./올라가지 마시오’ 가운데 적절한 표현은 어느 것인지 궁금합니다.

‘마세요’나 ‘마시오’는 모두 상대방을 보통으로 높이는 종결형의 말체로, 모두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마세요’는 격식체인 ‘하오체(보통으로 높이는 종결형의 말체)’와 ‘하십시오체(아주 높이는 종결형의 말체)’를 쓸 자리에 두루 쓰는 비격식체에 해당하고, ‘마시오’는 상대방을 보통으로 높이는 종결형의 말체로 격식체에 해당합니다. ‘마세요’와 같은

비격식체 표현은 표현이 부드러우며 주관적인 느낌을 주고, ‘마시오’와 같은 격식체 표현은 의례적으로 쓰며 표현은 직접적, 단정적, 객관적입니다. 이러한 비격식체와 격식체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의도에 맞게 정하여 쓰시면 됩니다.

?!

내로라하다(○) 내노라하다(x)

‘내로라’는 ‘나이로다’에서 온 말로 ‘내로라하다’는 ‘어떤 분야를 대표할 만하다.’의 뜻입니다.

통상 ‘나이가 많다/적다’로 표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령이 높다/낮다, 많다/적다’가 섞여서 쓰이는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이 정확한 표현인가요?

높다 · 낮다

‘연령이 많다./연령이 적다.’와 같이 표현해도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으나, 일반적으로 ‘많다/적다’는 ‘나이’의 서술어로 쓰이고, ‘연령’의 서술어로는 ‘높다/낮다’가 쓰입니다.

연령
나이
높다
낮다
많다

의존 명사는 홀로는 쓰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때문에’라는 의존 명사가 어두에 쓰일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한 문장이 끝나고 ‘때문에 이는 다른 의미라 할 수 있다.’ 등으로 말입니다.

때문에 ·
이 때문에

‘때문’은 명사나 대명사, 어미 ‘-기’, ‘-은’, ‘-는’, ‘-던’ 뒤에 쓰여, 어떤 일의 원인이나 까닭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때문에/그것 때문에’처럼 다른 말 아래에서 쓰입니다.

어두
때문에
때문
이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문하다 ·
자문을 구하다

‘자문을 구하다.’와 ‘자문을 받다.’ 가운데 바른 표현은 어느 것인가요?

자문하다
자문을 받다
자문을 구하다

‘어떤 일을 좀 더 효율적이고 바르게 처리하려고 그 방면의 전문가나 전문가로 이루어진 기구에 의견을 묻다.’를 뜻하는 말로는 ‘자문하다(자문을 하다)’를 씁니다.

-지 말았으면 ·
-지 않았으면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와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중에서 어느 것이 맞는 표현인가요? 아니면 각각에 맞는 용도가 있나요?

-지 말았으면
-지 않았으면
-지 않다
-지 말다

‘말다’가 ‘-지 말다’ 구성으로 쓰일 때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함을 나타냅니다.

예 이곳에서 수영하지 마시오.
밥을 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휴지를 함부로 버리지 마라.

그러므로 문의하신 문장에는 ‘-지 않다’를 쓰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오늘 ○○께서 나에게 ○○을 여쭙어/물어 보셨다.’에서 어느 것이 맞는 표현인가요?

묻다 · 여쭙다

문의하신 문장에는 용언의 어간에 높임의 선어말 어미 인 ‘-시-’를 붙여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높임법인 주체 높임법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물어보다’에 선어말 어미 ‘-시-’를 붙여 ‘오늘 선생님께서 나에게 ○○을 물어보셨다.’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여쭙다’는 ‘묻다’의 높임을 실현한 어휘로 ‘웃어른에게 말씀을 올리다.’의 뜻이며,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선생님께 여쭙어라.’와 같이 쓰입니다.

여쭙다
묻다
여쭙어
물어

‘○○상을 수여받았다.’고 쓰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수여(授與)’는 준다는 뜻인데 뒤에 다시 ‘받다’를 쓰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여받다 · 받다

‘수여(授與)’에 준다는 의미가 들어 있기 때문에 ‘받다’와 함께 쓰면 어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여받다’보다는 ‘(무엇을) 받다’라고 하는 것이 표현의 간결성 측면에서 좋습니다.

수여
수여받다
받다

~에 감사합니다.
~을 감사합니다

‘성실 납세에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수정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에 감사합니다
~을 감사합니다
~에 대해 감사
합니다

명사가 나열되는 ‘성실 납세’와 같은 표현보다는 ‘성실하게 납세하다.’와 같이 풀어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성실하게(성실히) 납세하신 것을 감사합니다./성실하게(성실히) 납세하신 것에 감사합니다./성실하게(성실히) 납세하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와 같이 표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경우 .
경우에는

‘~한 경우, ~한 경우에는’ 중 어느 것이 바른 표현인가요?

1. 수정 · 폐기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각 부서의 장은 결재를 받아 ○○○을 제출해야 한다.
2. 수정 · 폐기가 부득이한 경우 각 부서의 장은 결재를 받아 ○○○을 제출해야 한다.

경우에는
경우

예를 든 1과 2는 모두 쓸 수 있습니다. 1은 명사 ‘경우’ 뒤에 조사 ‘에’와 ‘는’이 붙은 표현이고, 2는 명사 ‘경우’ 뒤에 조사가 쓰이지 않은 표현입니다. 2와 같이 조사가 쓰이지 않은 경우에는 ‘수정 · 폐기가 부득이한 경우,’와 같이 문장 안에서 짧은 휴지를 나타내는 반점을 쓰기도 합니다.

‘담당자분이 연락드리도록 해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장이 옳은 표현인지요. ‘~하도록 ~해준다’의 표현이 가능하다면, ‘~드리도록 ~해드리다’의 표현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담당자 분/담당자분’, ‘연락드리도록/연락 드리도록’의 띄어쓰기도 궁금합니다.

‘연락드리도록’과 ‘해 드리다’는 각각 담당자, 화자(話者)의 행위를 나타내는 서술어이므로, 각각의 서술어를 밝혀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드리다’의 ‘-드리다’는 접미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적습니다. 한편 ‘-분’도 접미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적지만, 제시하신 상황을 고려할 때 ‘-분’을 쓰지 않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연락드리도록
해 드리다

연락드리다
해 드리다
-드리다

연락드리도록
해 드리다
분



불리다(○) 불리우다(X)

‘신이라 불리운 사나이’에서 ‘불리운’은 ‘불린’으로 써야 합니다. ‘부르다’의 피동사는 ‘불리다’입니다.

깊은 양해 ·
넓은 양해

양해
깊은 양해
넓은 양해
깊다
넓다

상대방에게 뭔가 양해를 구할 때 ‘양해 부탁드립니다.’를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처럼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올바른 표현인지 알고 싶습니다.

‘깊은’의 경우 ‘깊다’라는 형용사에 관형사형 어미 ‘-은’이 결합한 관형어로, 명사인 ‘양해’와 ‘감사’ 앞에 쓰여 꾸밈이 가능합니다. ‘넓은’도 ‘넓다’라는 형용사에 관형사형 어미 ‘-은’이 결합한 관형어로, 명사인 ‘양해’ 앞에 쓰일 수 있으나, ‘양해’에 ‘마음이 넓고 아량이 있게 받아들임.’의 의미가 있으므로, 중복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두껍다 ·
두텁다

두텁게
두텁다
두껍게
두껍다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에서 ‘두텁게’의 쓰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층을 이루는 사물의 높이나 집단의 규모를 보통의 정도보다 크게 하다.’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두껍게’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한편 ‘두텁다’는 ‘신의, 믿음, 관계, 인정 따위가 굳고 깊다.’의 뜻인데, ‘굳다’, ‘깊다’에서 뜻을 유추하여 ‘어떤 것을 단단하게 하다./힘이나 뜻을 강하게 하다./넉넉하게 하다./수준을 높게 하다.’와 같은 뜻을 나타내고자 한다면 ‘두텁다’를 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곽티슈’, ‘우유곽’이라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티슈각’, ‘성냥각’이라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성냥 상자인 ‘성냥갑’은 인터넷 사전에 ‘성냥을 담는 갑’이라고 풀이가 나오는데요, 그 밖의 ‘곽’, ‘각’은 인터넷 사전을 검색해 봐도 명확한 표준어 표기는 나오지 않네요. 물건을 담는 포장지 또는 그 상자를 무엇이라 표기하는지 궁금합니다.

갑 티슈 ·
곽 티슈

갑티슈

곽티슈

우유갑

성냥갑

‘표준어 규정’ 제22항에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생명력을 잃고 그에 대응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면, 한자어 계열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라는 조항에 따라 고유어인 ‘곽’을 버리고 널리 쓰이는 한자어 ‘갑(匣)’을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각’은 ‘곽’ 또는 ‘갑’의 잘못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유곽, 성냥각’은 ‘우유갑, 성냥갑’으로 써야 합니다. 이러한 예로 ‘개다리소반(○)-개다리밥상(×), 겸상(○)-맞상(×)’ 등이 있습니다. 다만 ‘갑 티슈, 티슈 갑’은 아직 한 단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삼가다(○) 삼가하다(×)

‘통행을 삼가해 주십시오.’에서 ‘삼가해’는 ‘삼가’로 써야 합니다. 기본형이 ‘삼가다’이기 때문입니다.

노느다 · 나누다

노느다
나누다
노나
나누어

‘반반씩 노나/나누어 먹어.’

둘 다 맞는 표현인가요? 둘 다 맞는 표현이라면 ‘노느다’와 ‘나누다’를 혼용하면 안 되는 문장의 예를 들어 주세요.

‘노느다’는 ‘여러 몫으로 갈라 나누다.’를 뜻하는 말입니다. ‘나누다’도 ‘몫을 분배하다.’, ‘음식 따위를 함께 먹거나 갈라 먹다.’ 등으로 쓰입니다. 따라서 의미가 비슷한 말이지만 다음과 같이 쓰임에 따라 제약 조건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노느다’ 앞에는 ‘(~과) ~을, ~을 ~으로’에 해당하는 말이 옵니다. 또 ‘~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주어로 옵니다.

한편, ‘몫을 분배하다.’를 의미하는 ‘나누다’ 앞에는 ‘~을 ~에/에게’에 해당하는 말이 옵니다. ‘음식 따위를 함께 먹거나 갈라 먹다.’를 의미하는 ‘나누다’ 앞에는 ‘(~과) ~을’에 해당하는 말이 오는데, 이때는 ‘노느다’처럼 ‘~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주어로 옵니다.

그러므로 문의하신 맥락에서는 ‘노나 먹어.’, ‘나누어 먹어.’ 모두 쓸 수 있습니다.

?!

호리멍덩(○) 호리멍텅(x)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넌따랴다’와 ‘넙다랴다’를 찾으면 모두 나오는데, 어떤 것이 표준어이며, 왜 비표준어까지 검색되는지 궁금합니다.

넌따랴다 ·
넙다랴다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는 경우, 그 원형을 밝히어 적음을 원칙으로 하나,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넌따랴다’는 ‘넙-’의 겹받침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입니다.

넙다랴다
넌따랴다

“표준국어대사전”은 흔히 쓰는 비표준어도 표제어로 올렸고, 그러한 경우에는 뜻풀이 정보에 기호 ‘→’를 표시하여 표준어로 안내하고 그 뜻풀이를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규정: ‘한글 맞춤법’ 제4장, 제3절, 제21항, 다만)

?!
?

휴지 조각(○) 휴짓조각(X)

난도 · 난이도

난이도 난도

‘고난이도’라는 표현이 아예 틀렸다고 알고 있었는데, 사전을 찾아보니, ‘난이-도(難易度)’에 대한 설명이 ‘2」『운동』 체조 따위의 경기에서, 선수가 구사하는 기술의 어려운 정도. ≍난도03(難度)’라고 나오네요. 그렇다면 ‘난이도’와 ‘난도’가 운동 경기에서는 같은 뜻으로 쓰인다는 말인가요? 만약 ‘수학 문제가 고난이도였다.’라고 하면 틀리고, ‘고난이도 체조 동작이다.’라고 하면 맞나요?

‘고난이도’라는 말의 쓰임에서 잘못된 점은 ‘어렵고 쉬운 정도’의 의미인 ‘난이도’에 ‘높다’라는 말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즉 ‘어려운 정도’가 ‘높거나 낮다.’ 또는 ‘쉬운 정도’가 ‘낮거나 높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다만 ‘난이도’는 ‘운동’ 영역의 전문어로 쓰일 때는 ‘어렵고 쉬운 정도’가 아닌 ‘선수가 구사하는 기술의 어려운 정도’의 의미로 ‘난도’와 동의 관계에 있습니다. 즉 ‘운동’과 무관한 수학 문제의 어려운 정도를 말하려면 ‘난이도’가 아닌 ‘난도’를 쓰는 것이 바른 표현입니다.



야젓잡다(○) 야짚잡다(x)

‘야젓잡다’는 ‘말이나 행동 따위가 좀스러워 점잖지 못하고 가벼운 데가 있다.’는 뜻입니다.

방송 자막을 보면 출연자가 당황하는 상황을 묘사하면서 ‘안절부절’이라고 표기하던데, 이것이 맞는 표현인가요? 안절부절은 반드시 ‘안절부절못하다’라는 말과 같이 ‘못하다’라는 말이 붙어야 하는 것으로 오래전에 방송국의 우리말 코너에서는 기억이 있어서요. 즉 ‘안절부절 못함.’ 이렇게 표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아니면 ‘안절부절=안절부절 못함.’ 인가요?

안절부절못하다 ·
안절부절

안절부절못하다
안절부절

‘안절부절못하다’가 표준어입니다. ‘표준어 규정’ 표준어 사정 원칙 제25항에 보면,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고 하고 ‘안절부절못하다’를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양’을 뜻하는 부사 ‘안절부절’이 ‘전차에 올라타자 조바심은 더욱 심해지고 안절부절 견딜 수가 없었다.’와 같이 쓰이는데,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양’을 뜻하는 부사 ‘안절부절’과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다.’를 뜻하는 동사 ‘안절부절못하다’는 의미상 통합니다.



줄리다(○) 줄립다(x)

‘자고 싶은 느낌이 들다.’는 뜻의 말은 ‘줄리다’입니다.

달리다 · 딸리다

(실력이) 딸리다

(실력이) 달리다

(실력이) 딸려서

(실력이) 달려서

어렸을 때부터 즐겨 사용해 온 표현인데 사전을 찾아보니 없더군요. ‘부속되다’의 ‘딸리다’가 아니라 ‘부족하다’라는 의미의 ‘딸리다’라는 동사인데 주로 ‘내가 영어가 좀 딸려서.’와 같이 사용합니다. 이런 단어는 아예 없나요, 아니면 제가 잘못 사용한 건가요?

‘실력이 좀 모자라다.’는 뜻으로 쓰고자 한다면 ‘딸려서’가 아니라 ‘달려서’라고 해야 합니다. 능력이나 힘이 모자라다는 뜻을 나타내는 ‘달리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달리다’를 좀 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된소리로 ‘딸리다’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런 뜻의 ‘딸리다’는 표준어가 아닙니다.

떼어 놓은 당상 · 따 놓은 당상

떼어 놓은 당상

따 놓은 당상

따놓당상

떼놓당상

관용 표현 중에서 ‘떼어 놓은 당상(○), 떼 놓 당상(x), 따 놓은 당상(○), 따 놓 당상(x)’이 맞나요?

‘떼어 놓은 당상/따 놓은 당상’으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이 말은 일이 이미 확실하여 조금도 틀림이 없다는 뜻을 빗대어 ‘따(떼어) 놓았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때 쓰인 ‘놓다’는 활용할 때 ‘놓지, 놓고, 놓은, 놓아, 놓으니’처럼 ‘ㅎ’이 떨어지는 일이 없으므로, ‘ㅎ’을 살려 써야 합니다.

수험서를 만들다 보니 ‘보기’ 또는 ‘선택지’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합니다. 어느 것이 맞는 표기인가요? 한자와 우리말의 차이라 어느 쪽이라도 상관없나요?

보기 · 선택지

‘보기’와 ‘선택지’는 의미가 다른 단어입니다. 먼저, ‘보기’는 ‘본보기’와 같은 말로, ‘어떤 사실을 설명하거나 증명하기 위하여 내세워 보이는 대표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선택지’는 미리 제시된 여러 개 답 가운데에서 물음이나 지시에 따라 알맞은 답을 고르도록 하는 시험 형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언급하신 것이 후자의 의미를 가리키기 위한 의도로 사용되었다면 ‘선택지’라고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보기 선택지

아기가 12개월 되면 기념일로 맞는 날인데, 그것을 ‘돌’이라고 쓰나요, ‘똥’이라고 쓰나요? ‘ㄹ’ 받침인데 그냥 읽을 때는 ‘돌’이라고 읽는 건가요? 옛날엔 ‘돌’이라고 쓰다가 지금은 바뀌었나요? 바뀌었다면 그 이유도 알려 주세요.

돌 · 똥

‘똥’은 ‘돌’의 잘못입니다. ‘표준어 규정’ 제6항에서는 유사한 형태가 의미를 구별함이 없이 사용되는 경우, 이들 중 한 가지만을 표준어로 삼는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똥’은 버리고 ‘돌’을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돌’은 생일의 의미로, ‘똥’은 주기의 의미로 구분해 왔으나 현실적으로 이것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표준어에서 이를 수용한 것입니다.

돌 똥

네 · 예

대답으로 감탄사 ‘네’를 쓰는데요, ‘네’로 했을 경우와 ‘예’로 했을 경우 차이가 있나요?

대답하는 말

네

예

윗사람의 부름에 대답하거나 묻는 말에 긍정하여 대답할 때 또는 윗사람이 부탁하거나 명령하는 말에 동의하여 대답할 때 ‘네’ 또는 ‘예’를 모두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와 ‘예’는 동의어이므로 쓰임새에 차이가 없습니다.

발다 · 발트다

‘시간이 너무 짧게 뒤이어서’라는 의미로 ‘시간이 너무 발트다.’와 같은 말을 쓰는데 ‘발트다’의 정확한 표기법을 알려 주십시오.

발다

발트다

‘시간이 너무 발다.’와 같이 적습니다. ‘시간이나 공간이 다붙어 몹시 가깝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형용사 ‘발다’의 현재형은 ‘발다’의 어간 ‘발-’ 뒤에, 형용사 어간 뒤에 붙어 현재 사건이나 사실을 서술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다’가 붙은 ‘발다’를 씁니다.

옷 중에 ‘남성 마이, 여성 마이’ 식으로 불리는 ‘마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확한 이름인가요? 조끼 위에 걸치듯 입는 옷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 근거를 찾을 길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정장 상의’ 또는 위에 적은 대로 ‘조끼 위에 걸치듯 입는 옷’ 정도의 의미라고 본다면 과연 ‘마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말이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것인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이 터지고 소매가 달린 짧은 상의를 일컫는 말인 ‘재킷(jacket)’을 일본어에서 온 ‘마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킷’도 ‘웃웃’으로 순화하여 쓰도록 하였으므로, ‘재킷’이나 ‘마이’가 아닌 ‘웃웃’을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웃웃 ·
재킷 ·
마이

웃웃
재킷
jacket
마이

내 성씨를 부를 때는 ‘한가입니다.’라고 하는데 친구 부인의 성이 한가일 때는 ‘한가’라고 해야 하는지 ‘한씨’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친구 부인의 경우, 남의 부인을 높이는 뜻에서 ‘한가’라고 하지 않고 ‘한씨’라고 합니다.

한가 · 한씨

성씨
가(家)
씨(氏)

부각하다 · 부각시키다

부각하다
부각시키다
-시키다

‘부각하다’는 사전에 실려 있으나 ‘부각시키다’라는 표현은 없더군요.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데, ‘부각시키다’도 혹시 ‘소개시키다’의 경우처럼 잘못된 사동 표현은 아닌가 하여 질문드립니다.

문의하신 ‘부각시키다’는 ‘소개시키다’와 같은 이유로 피해야 할 표현입니다. 즉 ‘부각하다’와 ‘부각시키다’ 사이에 특별한 의미 차이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불필요하게 사동 표현 ‘-시키다’를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서방 · 서방님

남편 여동생의 남편
처남의 부인
서방님
아주머니
처남의댁

남편 여동생의 남편을 어떻게 부르나요? 서방님이라는 분도 있고, 서방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아주머니(손위 처남) 또는 처남댁(손위, 손아래 처남)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한가요?

남편 누이동생의 남편에 대한 호칭어는 ‘서방님’입니다. 그리고 손위 처남의 부인에 대한 호칭어는 ‘아주머니’, 손아래 처남의 부인에 대한 호칭어는 ‘처남의 댁’입니다.

(참고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 화법 해설’)

청첩장 등을 발송할 때 ‘○○○님 귀하’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올바른 표현인지 궁금합니다. ‘○○○님’ 또는 ‘○○○ 귀하’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 아닌가요?

귀하 · 죄하

편지 봉투

귀하

님

죄하

존하

윗사람에게는 ‘이름+직함+님(께)’과 ‘○○○ 귀하’, ‘○○○ 죄하’를 쓰고, 동년배 사이에는 ‘○○○ 귀하’ 또는 ‘○○○ 님(에게)’을 씁니다. ‘표준 화법 해설’의 편지 봉투 쓰는 법에 대한 규정을 보면, 윗사람에게 보내는 편지 봉투에는 ‘이름+직함+님(께)’과 ‘○○○ 귀하’, ‘○○○ 죄하’를 쓰도록 했습니다. 또 ‘귀하’가 ‘존하’나 ‘좌하’보다 등급이 낮기는 하지만 낮은 말이 아니므로, 직함이 없어 적절히 높여 대우할 표현이 없는 경우 ‘귀하’를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씨 귀하’는 ‘씨’가 오늘날에는 높이는 느낌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귀하’와 중복되므로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님 귀하’의 ‘님’도 같은 이유에서 쓰지 않도록 하고, ‘○○○ 과장님 귀하’처럼 이름과 직함을 쓴 뒤 ‘귀하’를 다시 붙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동년배 사이에는 ‘○○○ 귀하’ 또는 ‘○○○ 님(에게)’을 쓰도록 했습니다.



희귀하다(○) 휘귀하다(○)

저희 · 우리

저희
우리
우리나라
저희 나라

저희와 우리를 구분하기 힘듭니다. ‘우리’의 존대어가 ‘저희’라고 알고 있는데, 말을 듣는 사람이 지칭하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존대어인 ‘저희’를 사용할 수 없고 ‘우리’를 사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 ·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같은 국민끼리 ‘저희 나라’라고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렇게 된다면 말을 듣는 사람은 같은 국민이 아니게 되기 때문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즉 한 회사 내 직원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존대어인 ‘저희 회사’가 아니라 ‘우리 회사’가 되고, 회사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존대어로 말할 때는 ‘저희 회사’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맞나요?

또 나라의 경우는 외국인과 이야기를 하더라도 나라가 겸양의 대상이 될 수 없기에 ‘저희 나라’가 아닌 ‘우리나라’로 써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맞나요?

아시는 대로, ‘저희’는 말하는 이 자신이 포함된 ‘우리’를 낮춤으로써 듣는 사람을 높이고자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같은 무리라면, 이 말을 쓰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또 ‘나라’는 겸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어떤 경우이든 ‘저희 나라’가 아닌, ‘우리나라’로 표현해야 합니다.

?!

배 턴(○) 바 통(○)

‘배턴’과 ‘바통’은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저에게 남편보다 위인 손위 시누이가 계세요. 형님이라고 부르자니 시댁에 큰형님과 작은형님이 계셔서 큰형님, 작은형님, 시누이님이 함께 계실 때 그냥 ‘형님’이라고 부르면 구별이 안 될 것 같아요.

1. 아주버님의 아내인 형님과 구별해서 시누이를 부를 때 호칭이 궁금하고요.
2. 다른 사람에게 시누이를 지칭할 때 어떤 말로 표현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형님 · 시누이

남편의 누나
남편의 여동생
시누이
형님
고모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시누이’는 남편의 누나나 여동생으로 ‘소고(小姑)’, ‘숙매(叔妹)’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표준 화법 해설’에서 정한 남편의 누나에 대한 호칭어는 ‘형님’입니다. 시댁 쪽 사람에게 남편의 누나를 지칭할 때는 호칭어와 마찬가지로 ‘형님’을 쓰고, 친정 쪽 사람과 타인에게는 ‘시누이’, ‘○○ 고모’로 지칭합니다. 자녀에게 지칭할 때는 자녀의 위치에 서서 ‘고모’ 또는 ‘고모님’으로 지칭합니다.

?!

그러잖아도(○) 그러참아도(X)

‘그러지 않아도’가 줄어든 말이므로 ‘그러잖아도’로 써야 합니다.

말씀입니까 · 말씀이십니까

높임 표현

말씀이다

말씀이시다

흔히 콜센터 상담사들이 고객이 한 말을 되묻기 위해 쓰는
말입니다.

고객: 7일입니다.

상담사: 7일 말씀입니까?/7일 말씀이십니까?

이 가운데 어느 것이 맞는 표현인지 궁금합니다.

서술어로 ‘말씀이다’, ‘말씀이시다’ 중 어느 것을 쓸지 따
져 본다면, 서술어에 대한 주어가 ‘질문(내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7일 말씀입니까?’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선배 · 선배님

높임 표현

선배

선배님

선배란 말도 존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종종 남을 붙이지
않았다고 불쾌해하는 사람을 봅니다. 선배라고만 하면 뒷사람
에게 예의에 어긋나는지 궁금합니다.

‘선배’는 같은 분야에서, 지위나 나이 · 학예(學藝) 따위
가 자기보다 많거나 앞선 사람을 이르는 말인데, 이것이 상
대를 높여 이르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상대를 높이고
자 한다면, ‘높임’의 뜻을 더하는 ‘-님’을 붙여 ‘선배님’과 같
이 표현하기 바랍니다. 남을 높여 말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도 듣는 이가 불쾌감을 갖지 않도록 배려하겠다는 마음이
므로, 이 점을 헤아려서 원만하게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에 대한 호칭 표준을 알고 싶습니다. 직장에서 자기 아내에 대해 표현할 때 동료나 상사 앞에서 종종 ‘제 아내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올바른 표현인가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직장 상사, 연장자 또는 모르는 사람 앞에서 자기 아내에 대한 호칭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내 · 집사람 ·
안사람 · 처

아내를
가리키는 말

그 사람

집사람

처

안사람

문의하신 내용은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직장 상사, 연장자, 모르는 사람 등에게 자기 아내를 가리키는 것에 대한 것이므로, 호칭보다는 지칭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자기 아내를 가리키는 말은 누구 앞에 서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나, 대체로 친부모 앞에서는 ‘그 사람, ○○ 어미(어멈)’, 장인 · 장모 앞에서는 ‘집사람, 그 사람, 안사람, ○○ 어미(어멈)’ 등으로 가리킵니다. 친구에게는 ‘그 사람, 집사람, 안사람, 아내’ 정도로 가리키며, 직장 사람들에게는 ‘집사람, 안사람, 아내, 처’ 정도로 가리킬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것은 ‘표준 화법 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리

도린결(○) 도린결(×)

‘도린결’은 ‘사람이 별로 가지 않는 외진 곳’이라는 말입니다.

사부님 ·
선생님

선생님의 남편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사부님이라 하는 분들도 있는데, 표준 호칭을 알고 싶어서 문의합니다.

호칭어
선생님의 남편
사부님

‘사부(師夫)님’이라고 하면 됩니다. ‘표준 화법 해설’에 선생님의 남편을 ‘사부(師夫)님’, ‘선생님’, ‘○ 선생님’, ‘○○ ○ 선생님’으로 부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지는 ·
가지시는

높임법
두는
두시는
분이다
분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우리의 행복에 더 관심을 두는 분입니다.’라는 문장의 높임말 표현이 맞나요? 이 말을 듣는 대상은 같은 어머니의 자녀입니다. 헛갈리는 단어는 ‘두는’과 ‘분입니다’입니다.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술어 ‘두다’와 ‘분이다’의 주체는 ‘어머니’입니다. 따라서 주체를 높이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 ‘-시-’를 각각의 서술어에 붙여 ‘두시는’, ‘분이십니다’와 같이 표현하여 ‘어머니께서는 우리의 행복에 더 관심을 두시는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름을 높여서 말할 때 듣는 이가 이름의 성을 알고 있다는 전제 아래 ‘저희 아버지의 존함은 홍 길자 동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듣는 이가 이름의 성을 모를 때 ‘저희 사장님의 존함은 홍자 길자 동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알고 모르고 구분 없이 성 뒤에는 ‘자’를 붙이지 않는 것이 정확한가요? 그리고 이름을 들었는데 다시 확인할 경우 ‘이름이 홍자 길자 동자라고 하셨나요?’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가요?

‘표준 화법 해설’에서는 손윗사람의 성함을 소개할 때, 성을 제외한 이름에만 ‘~자’를 붙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함자는 홍 길자 동자이십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들은 이름을 다시 확인하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성함이 홍 길자 동자라고 하셨나요?’라고 하면 됩니다.

?!

떠 버 리(○) 떠 벌 이(X)

뒤 치 다 꺼 리(○) 뒷 치 닥 꺼 리(X)

어머니께서 전화
하셨어요 · 어머
니가 전화했어요

높임법

어머니께서

어머니가

1. 할머니,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2. 할머니, 어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1의 경우 높임법에 맞는 표현인가요, 틀린 표현인가요?

아버지를 할머니께 말할 때에는 아버지에 대해서는 높이지 않는 것이 전통이지만, 오늘날 이러한 전통도 변하여 아버지보다 윗분에게도 아버지를 높이는 것이 일반화되어 감에 따라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여 ‘할머니, 내일 아버지가 오신대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진지 잠수시라고 하셨습니다.’와 같이 아버지를 아버지보다 윗사람에게 높여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할머니,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 화법 해설’)

?!
?

뒹 다(○) 뒹 다(x)

‘뜨다’에 ‘-었-’이 붙어 활용하면 ‘뒹-’이 됩니다.

고객 응대를 하고 있는데 ‘고객님 피부 타입에 적합할 듯합니다.’가 맞나요, 아니면 높임말로 ‘고객님 피부 타입에 적합하실 듯합니다.’가 맞나요? 어느 것으로 안내를 해드려야 할까요? 또 ‘줄어드실 거예요.’와 ‘줄어들 거예요.’, ‘수령 가능하실 거예요.’와 ‘수령 가능합니다.’ 중 어느 표현이 적절할까요?

적합할 듯 ·
적합하실 듯

높임 표현

적합할 듯

적합하실 듯

받으실 수 있다

-시-

‘-시-’는 주체의 동작이나 상태를 높이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인데, 보기를 들어 ‘이 제품이 누구에게 적합하다.’에서 ‘이 제품’이라는 주체나 ‘문제가 줄어들다.’에서 ‘문제가’라는 주체는 높일 대상이 아니므로 ‘-시-’를 붙여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이 제품이 적합합니다.’, ‘이 제품이 적합할 듯합니다.’, ‘이 제품이 적합할 거예요.’, ‘문제가 줄어들 것입니다.’, ‘문제가 줄어들 거예요.’와 같이 표현합니다. 그리고 ‘수령이 가능하다.’와 같은 표현 대신 ‘다른 사람이 주거나 보내오는 물건 따위를 가지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받다’를 써서 ‘(내일쯤 물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와 같이 표현할 것을 권합니다.

?!
?

드므(O) 드무(X)

‘드므’는 ‘넓적하게 생긴 독’입니다.

장녀 · 장남 ·
말이 · 첫째

장녀
막내
장남
말이
첫째

청첩장에 장남, 장녀, 차남, 막내 등을 표기할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1남 1녀 중 막내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오빠 한 명만 있는데 이런 경우 장녀도 되고 막내도 된다고 배운 것 같습니다. 청첩장 초안을 신청하면서 아무 생각없이 막내로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장녀가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경우 막내는 틀린 표현인가요? 장녀로 해야 하나요?

‘장녀’는 둘 이상의 딸 가운데 맏이가 되는 딸을 이르는 말이므로, 문의하신 경우에 ‘장녀’라고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여러 형제자매 중에서 맨 나중에 난 사람을 이르는 ‘막내’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장남’은 둘 이상의 아들 가운데 맏이가 되는 아들을 이르는 말이고, 여러 형제자매 가운데서 제일 순위인 사람을 이룰 때는 ‘말이’ 또는 ‘첫째’를 씁니다.

?!

서슴지 않다(○) 서슴치 않다(X)

동사 ‘서슴다’는 흔히 ‘서슴지’ 꼴로 ‘않다’, ‘말다’ 따위의 부정어와 함께 쓰입니다.

요즘 방송에서 보면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이 출연했을 때 ‘아무개 아나운서’, ‘아무개 변호사(님)’, ‘아무개 선수’ 이런 식으로 부르곤 합니다. 연예인들은 ‘아무개 씨’라고 부르구요.

직업 이름을 상대방 이름 뒤에 붙여 호칭하는 것이 화법에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다른 직업도 붙일 수 있나요? 또 ‘아무개 교수님’ 같은 경우는 교수님은 직업명이면서 동시에 직위명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변호사, 선수, 아나운서’도 같은 경우인가요?

○○○ 씨 ·
○○○ 선생님

소개하는 말
가리키는 말
씨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명 뒤에 직업명을 붙여 소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국립국어원 ‘표준 화법 해설’의 ‘소개할 때 인사말’에 따르면, 방송에서 초청 인사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 씨’라고 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다만 연로한 초청 인사인 경우에는 직함이 있으면 직함을 붙여 ‘○○○ 선생님, ○○○ 교수, ○○○ 사장’ 등으로 소개하는 것이 사회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서 자연스럽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별 의 별(○) 별 에 별(X)

‘보통과 다른 갖가지의’라는 뜻의 단어는 ‘별의별’입니다.

고객 · 손님

고객
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철도공사의 출입구 액정 표시 면에, 승차권을 개표 또는 집표할 때 안내 문구 내용을 ‘고객님, 감사합니다.’라고 표출하려고 합니다. ‘고객, 감사’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올바른 표현은 무엇인지 알려 주십시오.

‘고객’은 원래 ‘상점 등에 물건을 사러 오는 손님’이라는 뜻이고 상대를 가리켜 이르는 말(지칭어)로는 쓸 수 있지만, 부름말(호칭어)로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고객’에는 이미 높임의 뜻이 있으므로 ‘-님’을 붙여 ‘고객님’과 같이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고객’의 순화어로 ‘손님’을 정해 놓았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단어를 쓰는 맥락을 고려해서 적절한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쓰실 것을 권합니다. 한편 ‘감사합니다.’와 ‘고맙습니다.’는 현재 그 쓰임이 비슷하지만 순우리말인 ‘고맙습니다.’를 쓰는 것을 권장합니다.

?!

(땀이) 배 어(○) (땀이) 배 여(X)

‘배어’는 동사 ‘배다’의 어간 ‘배-’에 어미 ‘-어’가 결합된 활용형입니다.

매장에서 손님에게 물과 메뉴판을 제공하고 인사를 할 때 ‘좋은 시간 되세요.’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틀린 표현이니 ‘좋은 시간 보내세요.’라고 하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용해 온 이 말이 왜 틀리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와 같이 서술어로 ‘되다’를 쓰면 ‘무엇이 무엇이 되다’라는 구조가 되어 ‘(당신이) 좋은 시간(이) 되세요.’와 같이 ‘당신’이 ‘시간’이 되라는 의미가 되므로 의미상 맞지 않습니다. ‘무엇이 무엇을 보내다’와 같은 구조로 쓰이는 ‘보내다’를 서술어로 써서 ‘(당신이) 좋은 시간(을) 보내세요.’와 같이 표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되다 · 보내다

되다
보내다

‘딸내미’가 딸을 귀엽게 부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던데, 자기보다 윗분의 딸을 딸내미라 해도 되나요?

예를 들면 ‘사장님 딸내미는 참 예쁘십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딸내미는 보통 허물없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관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말로 보입니다. 손윗사람이나 자신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의 딸을 가리켜 말할 때는 ‘따님’이라고 높여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딸내미 · 따님

딸내미
따님

소개합니다 ·
소개해 드립니다

소개하다
소개합니다
소개해 드립니다

대중 앞에서 누구를 소개할 때, 대중을 객체로 보고 객체를 높이는 ‘○○ 씨를 소개해 드립니다.’가 맞는 표현인가요? 아니면 대중을 청자로 보고 상대를 높이는 ‘○○ 씨를 소개합니다.’가 맞는 표현인가요?

‘소개하다’나 본용언 ‘소개하다’ 뒤에 보조 용언 ‘드리다’가 이어진 ‘소개해 드리다’를 모두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소개하다’를 쓰는 것이 간결합니다.

보여 주다 ·
보여 드리다

높임법
보여 주다
보여 드리다

제가 친구 사진을 부모님께 보여 드렸다고 했을 때 그 친구가 한 말 중 ‘그 사진을 왜 보여 줬어?’가 맞는 표현인가요, ‘그 사진을 왜 보여 드렸어?’가 맞는 표현인가요?

‘그 사진을 왜 보여 드렸어?’가 알맞은 표현입니다. 한 문장의 주어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대우하여 표현하는 높임법인 ‘객체 높임법’에 따라, 객체인 ‘부모님’을 높이기 위해 ‘주다’의 높임말인 ‘드리다’를 써서 표현해야 합니다.

국어사전에는 올케라는 말이 오빠나 남동생의 부인을 부르는 말이며 새언니는 오빠의 부인을 부르는 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오빠의 부인에게는 올케, 새언니라 하고 남동생의 부인에게는 올케라고 하면 되나요? 오빠의 부인이 나이가 나보다 많으면 새언니라고 하고 적으면 올케라고 해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제시하신 단어 외에 오빠의 아내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인 새언니와 같이 쓰이는 말로 ‘올케언니’와 ‘언니’가 있습니다. ‘올케’는 오빠의 아내를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빠의 아내를 나이와 관계없이 ‘새언니, 올케언니, 언니’로 부를 수 있습니다. 남동생의 아내는 ‘올케’라고 합니다.

올케 ·
새언니 ·
올케언니

호칭어
올케
올케언니
언니
새언니



(굳은살이) 박이다(O) (굳은살이) 박히다(X)

‘손바닥, 발바닥 따위에 굳은살이 생기다.’라는 뜻의 단어는 ‘박이다’입니다.

님 · 님아 · 님이여

호격 조사

님아

님

님이여

인터넷에서 많이 사용하는 ‘님아’라는 표현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1. ‘님아’라는 표현과 ‘님’이라는 표현의 의미는 인터넷에서 사실 상 같습니다. 그런데 ‘님아’라는 표현을 반말로 해석해 불쾌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님아’라는 표현이 반말인지 아닌지 알려 주세요. 반말이라면 왜 반말이 되는지 알려 주세요.
2. ‘장모님아, 아버님아, 중대장님아’와 같은 예가 적절한가요? 제가 볼 땐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님(극존칭)+아(평어)’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온라인상에서 님이라는 표현은 극존칭의 의미가 아니라(신원이 확실치 않은) 특정 대상을 호명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님아’는 상대를 높여 부르는 말로 부적절합니다. ‘님아’는 ‘님’과 호격 조사 ‘아’가 결합한 말입니다. 여기서 ‘님’은 인터넷에서 ‘○○○ 님’처럼 대상을 높여 이르는 것을 앞의 이름을 생략하고 쓴 것으로 보이며, ‘아’는 손아랫사람이나 짐승을 부를 때 쓰는 호격 조사입니다. 이에 따르면 ‘님아’는 높임말과 낮춤말이 기형적으로 어울린 경우라서 적절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님’이 상대를 존대하는 의미가 있는 만큼 뒤에 오는 호격 조사도 이에 어울리게 정중하게 부르는 뜻을 나타내는 호격 조사 ‘이여’를 붙여 ‘님이여’라고 하든지, 그냥 호격 조사 없이 ‘님’이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님’은 의존 명사라 앞에 다른 말이 없이는 쓸 수 없으니 앞에 이름을 넣어 ‘○○○ 님’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여동생의 남편을 남자의 경우 매부라고 호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제’라고도 하는데, ‘매제’라는 말도 표준 화법으로 인정되나요? 또 여동생의 남편을 여자의 경우 ‘○ 서방’이라고 하는데 ‘제부’라고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부’라는 표현도 표준 화법으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매제’는 손아래 누이의 남편을 이르는 말이고, ‘제부’는 여동생의 남편을 이르는 말입니다.

‘표준 화법 해설’은 남자의 경우, 여동생의 남편을 이르는 말은 ‘매부’, ‘○ 서방’으로 정하였고, 부모, 동기, 타인에게는 호칭어와 같은 말로, 처가 쪽 사람에게는 ‘매부’로 지칭하도록 했습니다. 여자의 경우, 여동생의 남편을 부르는 말은 ‘○ 서방’, ‘○ 서방님’으로 정하였고, 당사자에게는 ‘○ 서방(님)’, 친정 쪽 사람에게 지칭할 때는 ‘○ 서방’, 시댁 쪽 사람에게는 자녀에게 기댄 ‘○○ 이모부’와 ‘동생의 남편’을 쓰도록 하였습니다.



경 의 실 (○) 갱 의 실 (X)

‘경의실’은 ‘탈의실’, ‘옷 갈아입는 곳’으로 바꿔 쓰면 좋습니다.

시간이 있으신가요 · 계신가요

높임법

시간이 있으신가요

시간이 있으시다

시간이 계시다

시간이 계신가요

‘시간 좀 계신가요?’는 잘못된 표현이고 ‘있으신가요?’가 맞는 표현이라고 알고 있는데, ‘있나요?’도 맞는 표현 아닌가요? 한 문장에서 존칭은 한 번만 사용해도 된다고 알고 있어서요.

존경의 어휘를 쓰지 않아야 할 자리에 이를 쓰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있으신가요?’ 정도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용언이 여러 개가 함께 나타날 경우 일률적으로 규칙을 세우기는 어렵지만 문장의 마지막 용언에 존경법 선어말 어미 ‘-시-’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있나요?’는 ‘○○가 일을 마치고 가셨다.’와 같이 용언 여러 개가 함께 나타난 경우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존경법 선어말 어미 ‘-시-’를 쓰는 문제는 문장의 주체를 높이느냐와 관련된 문법적 문제이며, 종결 어미를 달리하는 공손법은 화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시간이 있나요?’에서 ‘해요’체로 종결하는 것은 존대해야 할 사람에게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쓸 수 없으므로 ‘시간이 있나요?’라고 묻는 것이 공손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표준 화법 해설’에서는 일반적으로 높여야 할 상대에게는 ‘시간이 있으신가요?’ 정도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사원이 원장님께 보고를 할 때 자신의 상사인 실장이 무엇을 하였다는 식으로 보고하려고 합니다. ‘원장님, 실장님께서 보고를 올리셨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높임법이 맞나요? 윗사람에게 보고할 때 3인칭을 높이는 게 아니라고 하던데, 저는 3인칭도 같이 높여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과장님
이 · 원장님,
과장님께서

직장에서의
높임법

과장님께서

-시-

문의하신 문장은 ‘원장님, 실장님이 ~올리셨다고 합니다.’와 같이 표현합니다. 가족 간이나 사제 간처럼 사적인 관계에서는 윗사람 앞에서 그 사람보다 낮은 윗사람을 낮추는 것이 적용되지만, 직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장에서 윗사람을 그보다 윗사람에게 지칭하는 경우, 예를 들어 사장님 앞에서 과장님을 지칭할 때 ‘과장님께서’까지는 곤란해도 ‘과장님이’처럼 ‘님’을 쓰고, 주체를 높이는 ‘-시-’를 넣어 ‘과장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처럼 높여 말하는 것이 우리의 언어 예절입니다.

(참고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 화법 해설’)



여쭙어(○) 여쭙워(○)

‘여쭙어’와 ‘여쭙워’의 기본형은 각각 ‘여쭙다’, ‘여쭙다’로 이 두 단어는 동의어입니다.

우리 · 저희

우리 저희 제

1. ‘내 어머니’를 손윗사람에게 말할 때 ‘저의 어머니’ 또는 ‘제 어머니’라고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저희 어머니’라고 하는 게 맞나요?

2. ‘우리 동생’은 ‘제 동생’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점양의 말 중에서 ‘우리’ 대신 ‘저희’를 써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나라는 언제나 ‘우리나라’로 표현하지만, 그 밖의 경우에 윗사람에게 말할 때는 ‘저희 가게에서는’처럼 ‘저희’를 쓸 수 있습니다.

한편, 말하는 이가 자기보다 높지 아니한 사람을 상대하여 어떤 대상이 자기와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는 ‘우리 어머니’, ‘우리 신랑’, ‘우리 아기’, ‘우리 동네’, ‘우리 학교’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생’의 쓰임도 가능합니다. 또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상대하여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낮춤말 ‘저희’를 사용하여 ‘저희 어머니’, ‘저희 회사’, ‘저희 집’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또 ‘저희 어머니’, ‘우리 동생’을 꼭 ‘제 어머니’, ‘제 동생’으로 바꾸어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내화(○) 실례화(X)

이력서를 처음 쓰는데 호주와의 관계 부분이 헛갈려서 문의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를 쓰라 하고, 어떤 사람은 ‘부’를 쓰라 하더군요. 호주는 아버지이시고 저는 둘째아들입니다. 호주와의 관계에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이력서에 있는 ‘호주와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호주의 입장에서 본 이력서 작성자의 위치’라는 의미로 통용됩니다. 따라서 호주가 아버지라면 ‘호주와의 관계’는 문어체에서 ‘아들’이나 ‘딸’ 또는 이 둘을 아우르는 말인 ‘자(子)’를 쓰면 됩니다.

아들 · 자(子)

이력서의
호주와의 관계

자
부

‘고(故)’의 쓰임과 관련해서 ‘고(故) 박정희 대통령’으로 쓰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이셨던 고(故) 외할아버지’처럼 특정 인물의 이름이 아닌 일반 명사 앞에 ‘고(故)’를 붙여서 쓸 수 있나요? 만약 일반 명사 앞에 붙지 못한다면 두 번째 문장은 ‘회장이셨던 돌아가신 외할아버지’로 풀어서 써야 하나요?

‘고(故)’는 죽은 사람의 성명 앞에 쓰여 ‘이미 세상을 떠난’의 의미가 있는 관형사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이름 앞에 써야 하며, 그 밖에는 생각하신 대로 바꿔 쓰면 됩니다.

고(故)

관형사

고(故)

수고하십시오 · 애쓰십시오

인사말

수고

고생

노고

애쓰다

보통, 일을 끝내고 서로 수고했다는 말로 ‘수고하셨습니다.’ 또는 ‘수고하십시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수고’라는 말은 원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쓰는 말이라는 것을 책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고생하셨습니다.’라는 말을 쓰는 게 맞는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업무를 마치고 아랫사람이 먼저 퇴근할 때에 윗사람에게 ‘고생하십시오.’라는 말도 맞는 표현인가요? 아니면 ‘애쓰십시오.’라는 말이 맞는 표현인가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적절한 표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표준 화법 해설’을 참고하면, ‘수고하셨습니다.(수고했네.)/수고하십시오.(수고하게.)’라는 표현이 윗사람에게는 적절하지 않고, 동년배나 아랫사람에게는 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동년배나 아랫사람에게 쓸 수 있는 말은 제시돼 있으나, 윗사람에게 ‘수고’와 관련된 의미를 포함하는 표현을 써야 할 상황에서 어떠한 표현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생하셨습니다.’의 경우 ‘어렵고 고된 일을 겪음. 또는 그런 일이나 생활’을 뜻하는 ‘고생’도 ‘수고’와 마찬가지로 뜻이므로, 윗사람에게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저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정도의 인사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를 넘어/너머 세계로’에서 ‘넘어’와 ‘너머’ 중 어느 것이 맞나요?

넘어 · 너머

제시하신 문장에는 ‘아시아를’이라는 목적어가 있으므로 ‘무엇이 무엇을 넘다’의 문형으로 쓰이고, ‘일정한 기준이나 한계 따위를 벗어나 지나다.’의 뜻을 나타내는 동사 ‘넘다’를 써서 ‘넘어’와 같이 적는 것이 맞습니다. 명사 ‘너머’는 ‘높이나 경계로 가로막은 사물의 저쪽. 또는 그 공간’을 뜻하는 말로, 높이나 경계를 나타내는 명사 다음에 쓰입니다.

예 산 너머/고개 너머/저 너머/들창 너머, 파랗다 못해 보라색을 머금은 하늘이 눈에 싱싱했다.

넘어
너머
넘다

‘태풍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되었다.’에서 ‘발생되었다’를 ‘발생했다’로 고쳐야 한다고 합니다. “표준국어대사전” 용례를 보면 ‘발생하다/발생되다’ 둘 다 사용하던데, 위의 표현이 옳게 쓰인 것이 아닌가요?

발생되다 · 발생하다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경우라면 ‘발생되다’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동 표현을 지양해야 한다는 관점에서는 ‘발생되다’보다는 ‘어떤 일이나 사물이 생겨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발생하다’를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동 표현
발생되다
발생하다

금슬 · 금실

금슬 금실

‘금슬’이 ‘거문고와 비파’를 이르는 말이지만 ‘금실’(부부간의 정)이란 단어의 본뜻말이기도 합니다. 그럼 ‘부부간의 정’을 표현하는 말에 ‘금슬’, ‘금실’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예전에 어디서 ‘부부간의 정’은 ‘금실’이 맞고 ‘금슬’은 틀렸다고 본 것 같아서요.

부부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금슬’과 ‘금실’을 모두 쓸 수 있습니다. ‘금실’은 거문고와 비파의 음률이 잘 어울린다는 뜻인 ‘금슬지락(琴瑟之樂)’을 어원으로 합니다.

그러나 음운 변화와 의미 변화를 겪어 현대 국어에서는 ‘부부간의 사랑’을 나타낼 때 ‘금실’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원말인 ‘금슬’과 함께 ‘금실’도 표준어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거문고와 비파를 나타낼 때는 원래대로 ‘금슬’을 써야 합니다.



찾아뵈었다/찾아뵈었다(○) 찾아뵈었다(x)

‘찾아뵈다’에 어미 ‘-었-’이 연결되면 ‘찾아뵈었다’가 되고, 그 준말은 ‘찾아뵈었다’가 됩니다.

1. 일곱 살 때까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2. 일곱 살 때까지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

위 두 문장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제시하신 문장은 언제부터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일곱 살이라는 시점까지 할머니와 함께 산 동일한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다만 ‘살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 과거에서 일곱 살 때까지 진행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즉 일곱 살 때까지도 살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한편 ‘살았다.’는 사건이 일곱 살에 끝났음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하면 ‘살고 있었다.’는 과거 진행의 의미를, ‘살았다.’는 과거 완료의 의미를 나타내는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살았다 ·
살고 있었다

과거 진행

과거 완료

살았다

살고 있었다

살다



따뜻하다(○) 따듯하다(○)

두 말은 어감이 다른 표준어입니다.

별로 · 별로예요

별로 별로예요 예요 이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별로예요.’, ‘별로였어요.’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요’나 ‘였어요’는 원래 명사 뒤에 붙을 수 있는데, 부사인 ‘별로’에도 붙을 수 있나요? 위의 표현이 맞는지, 틀리다면 정확한 표현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별로예요.’에 쓰인 ‘예요’는 서술격 조사 ‘이다’의 어간 뒤에 ‘-예요’가 붙은 것입니다. 서술격 조사는 주로 체언 뒤에 붙어 쓰이지만, 체언 외에도 조사나 부사, 용언의 어미 뒤에도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사 ‘별로’는 부정 뜻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여 ‘이렇다 하게 따로, 또는 그다지 다르게’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별로’ 뒤에 바로 서술격 조사 ‘이다’가 쓰인 ‘별로예요.(별로이예요.)/별로였어요.(별로이었어요.)’처럼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별로 기분이 내키지 않는다./할 말이 별로 없다./그의 병세는 예전에 비해 별로 나아진 것이 없었다./사업은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처럼 ‘별로’와 호응하는 말이 뒤에 이어지는 것이 적절합니다.

?!

(손이) 시려(○) (손이) 시려워(X)

기본형이 ‘시리다’이기 때문에 ‘손이 시려.’와 같이 쓰는 것이 맞습니다.

1. 그동안 많이 컸구나.
2. 너희 둘 중 누가 더 크니?

위 문장 1의 ‘컸구나’는 동사, 2의 ‘크니’는 형용사라고 하는데 왜 그런 것입니까?

‘크다’는 형용사로 쓰이기도 하고, 동사로 쓰이기도 하는 용언입니다. 형용사 ‘크다’는 ‘사람이나 사물의 외형적 길이, 넓이, 높이, 부피 따위가 보통 정도를 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예를 들면 ‘키가 크다.’, ‘가구가 커서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는 덩치만 크지 겁이 많아서 덩치값도 못한다고 놀림을 받는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한편, 동사 ‘크다’는 ‘동식물이 몸의 길이가 자라다.’라는 뜻으로, ‘키가 몰라보게 컸구나.’, ‘날씨가 건조하면 나무가 크지 못한다.’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크다

동사
형용사

크다

?!

부기(○) 붓기(x)

부종(浮腫)으로 부은 상태를 뜻하는 말은 ‘부기’입니다.

관련되다 · 관련이다

관련이다

관련되다

관련하다

~와 관련입니다

~와 관련한 문서
입니다

공문 첫머리에 ‘~과 -○○○호 관련입니다.’를 쓰는데 ‘관련입니다’가 맞는 표현인지 궁금합니다. ‘관련 있다’, ‘관련하다’, ‘관련되다’ 말고 ‘관련이다’로 쓰면 어색한가요? 어떤 공문에서 ‘관련됩니다’로 쓴 걸 본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아니면 ‘관련입니다’가 ‘관련이 있는 문서입니다’를 줄여서 쓴 표현인가요?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이 일은 ~과 ○○○호 관련입니다.’와 같이 쓰면 주어 ‘이 일은’과 서술어 ‘관련이다’의 호응 관계가 어색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일은 ~과 ○○○호와 관련됩니다.’ 또는 ‘~과 ○○○호와 관련한 문서입니다.’와 같이 ‘관련되다/관련하다’를 서술어로 써서, ‘무엇이 무엇과 관련되다/관련하다’의 문형으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

소꿉장난(○) 소꿉장난(X)

‘밥을 먹었다. 그리고 나서/그러고 나서 이를 닦았다.’

위 문장에서 ‘그러고 나서’가 옳은 표현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에 ‘나서’를 결합하여 쓰는 것은 잘못입니다. ‘-고 나서’ 앞에는 동사만 오기 때문에 동사가 아닌 ‘그리고’와 결합하여 쓰는 것은 잘못으로 봅니다. ‘-고 나서’의 기본형은 ‘-고 나다’인데, ‘-고 나다’의 구성은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 끝났음을 나타내는 말이며 아래와 같이 씁니다.

예 숙제부터 하고 나서 놀아라.
밥을 먹고 나니 힘이 쏙는다.

한편 ‘그러다’는 동사이므로 ‘-고 나다’ 앞에 올 수 있는 말이고, 따라서 ‘그러고 나서’와 같은 쓰임도 가능합니다.

그러고 나서 ·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고 나다

그러다

그러고

?!
?

상이군인(○) 상의군인(x)

그리고는 · 그러고는

그러고는
그리고는
-고는

‘아버지는 시골로 이사를 하셨다. 그리고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그곳을 마음에 들어하셨다.’와 같은 문장에서 ‘그리고는’은 틀린 말인가요? ‘그리고는’과 ‘그러고는’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와 같은 접속 부사에는 ‘은/는’이 결합하지 않으므로 접속 부사 ‘그리고’의 의미로 ‘그리고는’과 같은 형태를 쓸 수 없습니다.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렇게 되게 하다.’라는 뜻의 ‘그러다’를 쓸 경우에는 어간 ‘그러-’ 뒤에 ‘-고는’이 붙은 ‘그러고는’을 써야 합니다.

싫니 · 싫으니

싫니
싫으니
-니
-으니

‘싫다’라는 단어를 의문형으로 사용할 때, ‘이거 하기 싫니?’와 같이 사용하는 걸 들었는데 올바른 표현인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싫으니?’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하기 싫니?’는 어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의문을 나타내는 어미 ‘-니/-으니’는 동사에 붙을 때와 형용사에 붙을 때 차이를 보입니다. ‘철수가 밥을 먹니/*먹으니?’와 같이 동사의 의문형은 ‘*먹으니’로 쓰일 수 없지만, ‘너는 영희가 좋니/좋으니?’처럼 형용사에는 ‘-니/-으니’가 모두 쓰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경우 ‘이거 하기 싫니?’와 ‘이거 하기 싫으니?’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부딪치다’와 ‘부딪히다’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나요?

‘부딪치다’는 ‘무엇과 무엇이 힘 있게 마주 닿거나 마주 대다. 또는 닿거나 대게 하다.’라는 뜻을 지닌 ‘부딪다’를 강조하는 뜻으로 쓰이고, ‘부딪히다’는 ‘부딪다’의 피동사입니다. 이처럼 ‘부딪치다’와 ‘부딪히다’는 주어의 행위가 능동인지 피동인지에 따라 달리 쓰입니다. 의미상 주어가 부딪는 행위를 당한 경우라면 ‘부딪히다’로 쓰고, 주어가 능동적으로 부딪는 행위를 한 경우라면 ‘부딪치다’로 쓰는 것이 알맞습니다.

문장의 맥락이나 문장을 표현하는 상황을 파악하면 ‘부딪치다’와 ‘부딪히다’ 중 어떤 서술어를 쓸지 파악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맥락(상황)이 파도가 뱃전에(파) 서로 마주 닿는 모습을 보고 표현할 때라면 (파도를 주어로) ‘파도가 뱃전에 부딪치다.’와 같이 ‘부딪치다’가 적절한 서술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맥락(상황)이 파도를 가르고 배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표현할 때라면 (파도를 주어로) ‘파도가 뱃전에 부딪히다.’와 같이 ‘부딪히다’가 적절한 서술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참고해서 ‘부딪히다’를 쓸지 ‘부딪치다’를 쓸지 판단하면 됩니다.

부딪치다 ·
부딪히다

강조
피동사
부딪치다
부딪히다
부딪다

?!
도금(○) 맥기(X)

‘맥기’는 ‘도금’으로 써야 합니다.

뵈다 · 뵈다

매개 모음

뵈다

뵈다

뵈어

책에서 자음 어미 앞에서는 ‘뵈다’만 쓰이고 모음 어미 앞이나 매개 모음 어미 앞에서는 ‘뵈다’가 쓰인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뵈고’, ‘뵈게’, ‘뵈는’과 같은 활용형이 가능하고, ‘뵈어’, ‘뵈을’, ‘뵈으니’, ‘뵈은’과 같은 활용형이 불가능한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경우 ‘뵈다’를 써서 ‘뵈어(뵈)', ‘뵈', ‘뵈', ‘뵈니’와 같이 써야 한다는 설명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뵈어’는 ‘뵈- + -어’인 줄 알겠는데 ‘뵈’는 ‘뵈- + -ㄹ(관형사형 어미)’이 아닌가요? ‘-ㄹ’은 자음 어미라고 생각하는데요. ‘뵈', ‘뵈니’ 역시 자음 어미와 결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틀렸나요?

말씀하신 대로 자음 어미 앞에서는 ‘뵈다’만 쓰고, 모음 어미나 매개 모음 어미 앞에서는 ‘뵈다’를 씁니다. 이 설명에서 나오는 매개 모음 어미는 어간의 음절 형태에 따라 매개 모음 ‘으’가 탈락될 수 있는 어미를 말합니다. 궁금하게 생각하신 ‘-ㄹ’과 ‘-니’의 경우는 ‘-고’, ‘-지만’ 등과 달리 어간 마지막 음절에 종성이 있는 경우 각각 ‘-을’과 ‘-으니’의 형태가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 ‘뵈다’와 ‘뵈다’의 사용 환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새 침 데 기(○) 새 침 땀 기(x)

어미 '-오' · 보조사 '요'

보조사

어미

하오체

-오

요

‘-오’와 ‘요’의 쓰임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아니오’, ‘아니요’의 차이는 ‘아니오’는 서술, ‘아니요’는 감탄사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지어서 ‘-오’와 ‘요’의 차이를 생각해 보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와 ‘요’ 둘 다 서술로 쓰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예: 어서 오시오, 먹어요 등). ‘-오’와 ‘요’가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오’는 어미로서, ‘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어미 ‘-시-’ 뒤에 붙습니다. 한편 ‘요’는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서, 종결 어미 뒤에 붙어 쓰입니다. 보기를 들면, 어미 ‘-오’는 ‘그대를 사랑하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중요하오.’, ‘얼마나 심려가 크시오?’와 같이 ‘사랑하-’, ‘중요하-’, ‘크시-’와 같은 어간이나 선어말 어미 ‘-시-’ 뒤에 붙어 ‘하오체’로 문장을 종결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보조사 ‘요’는 ‘돈이 없어요.’, ‘새싹이 돋는군요.’와 같이 ‘돈이 없어.’, ‘새싹이 돋는군.’과 같은 종결형에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일을 합니다.

?!
실날같다(○) 실낙같다(x)

실날같다(○) 실낙같다(x)

써지다 · 쓰여지다

쓰다
써지다
쓰이다
쓰여지다

훌륭하게 잘 쓴 글을 가리킬 때 ‘써진’과 ‘쓰여진’ 중 어느 표현을 써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잘 ‘쓰여진’으로 표현하는 것 같은데 정확한 표현을 알려 주세요.

‘쓰다’의 피동사는 ‘쓰이다’이므로 ‘요즘은 논문이 잘 안 쓰여서 괴롭다.’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한편, ‘쓰이다’에 다시 ‘-어지다’를 결합해 쓸 수는 없으므로 ‘쓰여진’은 잘못된 표현으로 봅니다. ‘머릿속의 생각이 종이 또는 이와 비슷한 대상 따위에 글로 나타난다.’를 의미하는 말인 ‘써지다’를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예 시를 써 보고 싶다. 그러나 단 한 줄도 써지지 않는다.

장남이에요 · 영숙이에요

어조를 고르는
접미사
영숙이에요
-이
이에요
예요

‘장남이에요.’와 ‘영숙이에요.’가 둘 다 맞는 표현이라고 하던데요. 똑같이 받침 있는 체언인데 왜 다른가요? ‘장남이에요.’는 알고 있던 내용이라 의문이 없는데 ‘영숙이에요.’에선 왜 앞에 ‘이’가 있는데 뒤에 또 ‘이에요(예요)’의 ‘이’가 중복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저 아이는 영숙이에요.’에서 ‘영숙이에요’와 같이 적을 수 있는 것은 받침이 있는 이름인 ‘영숙’에 ‘-이’와 ‘이에요/이에요’가 차례로 결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는 ‘영숙이가’, ‘영숙이를’처럼 받침 있는 사람의 이름 뒤에 붙어 어조를 고르는 접미사입니다.

‘해야 할 지’인 줄 알고 있었는데 ‘해야 할지’이더군요. 여기에서 ‘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어미 ‘-르지’

‘해야 할지’에서 ‘-르지’가 하나의 어미이므로 어간 뒤에 붙여 적습니다. ‘-르지’는 추측에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을 뒤 절의 사실이나 판단과 관련시키는 데 쓰는 연결 어미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덩빙거리다 시간만 보냈어.’, ‘내일은 얼마나 날씨가 추울지 바람이 아주 매섭게 불어.’, ‘내가 몇 등일지 마음엔 걱정이 가득했다.’처럼 쓰입니다. 또 추측에 대한 막연한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이 그림이 심사 위원들 마음에 들지?’, ‘도서관은 시원할지?’, ‘그분이 혹시 너의 담임 선생님이 아니실지?’와 같이 쓰입니다.

어미

해야 할지

해야 할 지

-르지

?!

가위표(○) 가새표(○)

‘가위표’와 ‘가새표’는 동의어입니다. ‘엑스포’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아하는구나 ·
좋아하구나

‘-구나/-는구나’의 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너 이거 참 좋아하구나.’, ‘너 이거 참 좋아하는구나.’ 둘 중 어느 표현이 맞는지 궁금해요.

-구나
-는구나
좋아하구나
좋아하는구나

‘-구나’는 ‘이다’의 어간, 형용사 어간 뒤에 붙어 나타나는 말이고, ‘-는구나’는 동사 어간 뒤에 붙어 나타나는 말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문의하신 문장에서 사용한 용언 ‘좋아하다’는 사전에서 그 품사를 ‘동사’로 제시하였으므로, ‘-는구나’를 붙여 ‘좋아하는구나.’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갠 · 개인

‘맑게 갠 하늘’과 ‘맑게 개인 하늘’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나요?

개다
갠
개이다
개인

‘흐리거나 낫은 날씨가 맑아지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은 ‘개다’이므로, ‘맑게 갠 하늘’이 맞습니다.

의문문의 간접 인용문은 보통 ‘형용사+-(으)냐고’나 ‘동사+-(느)냐고’를 사용하는데 어떤 교재에는 ‘으’나 ‘느’를 생략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 한국어인 발화에서도 이들을 생략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전 서울대 교재에서 ‘-냐고’로 나온 문형이 재판에서 ‘-(으/느)냐고’로 수정되었고, 국립국어원의 “한국어 문법 사전”에도 이와 같이 나와 있지만 생략 여부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냐고’가 문법적으로 옳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냐고 ·
-으냐고 ·
-느냐고

간접 인용절

-냐고
-으냐고
-느냐고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문의하신 ‘-냐고’와 ‘-으냐고’, ‘-느냐고’는 결합하는 환경을 달리하여 쓰이는 말입니다. 간접 인용절에 쓰이는 어미 ‘-느냐’에 인용을 나타내는 격 조사 ‘고’가 결합한 말 ‘-느냐고’는 ‘있다’, ‘없다’, ‘계시다’의 어간, 동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쓰입니다.

예 철수에게 어디 가느냐고 물어보아라.

간접 인용절에 쓰이는 어미 ‘-으냐’에 인용을 나타내는 격 조사 ‘고’가 결합한 말인 ‘-으냐고’는 ‘르’를 제외한 받침 있는 형용사 어간 뒤에 붙어 쓰입니다.

예 그 외국인은 나에게 강북과 강남 중 어느 곳이 인구가 많으냐고 물었다.

간접 인용절에 쓰이는 어미 ‘-냐’에 인용을 나타내는 격 조사 ‘고’가 결합한 ‘-냐고’는 ‘이다’의 어간, 받침 없는 형용사의 어간, ‘르’ 받침인 형용사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쓰입니다.

예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도 대답이 없다.

-더-

회상

-더-

-더라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더-’의 기능이 궁금해 질문합니다. ‘-더-’는 화자의 과거 경험에 대한 회상을 나타내므로 ‘너는 어제 춥더라.’와 같이 타자를 주체로 하는 표현은 쓸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표현인 ‘너는 어제 추워하더라.’라는 표현은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더-’는 과거 어느 때에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현재 말하는 장면에서 그대로 옮겨 와서 전달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입니다. 1인칭 화자를 주어로 하는 문장에 쓰여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고 싶다’ 뒤에 ‘-어하다’를 붙여 제3자의 주관적 상태를 관찰해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고 싶어하다’에 다시 ‘-더-’를 붙여 그 상태를 관찰한 것을 회상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너는 어제 추워하더라.’는 어제 상대방이 추워하는 것을 화자가 보았고, 그것을 지금 시점에서 회상하여 말하는 문장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꺼림칙하다 · 껌침칙하다(○) 껌침직하다(x)

‘매우 꺼림하다.’는 뜻의 형용사는 ‘꺼림칙하다’나 ‘껌침칙하다’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1. 바나나를 냉동고에 넣고 얼리다.
2. 바나나를 냉동고에 넣고 얼게 하다.

둘 중 어느 표현이 맞나요? 둘 다 맞다면 의미상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얼리다 ·
얼게 하다

사동 표현

얼리다

얼게 하다

‘게 하다’와 같은 장형 사동은 시킴을 받는 대상이 사람이나 동물처럼 유정물일 경우에 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아이에게 밥을 먹이다.’와 ‘아이에게 밥을 먹게 하다.’를 비교하여 보면 앞의 것은 주체가 직접 아이에게 밥을 먹여 주는 것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되나, 뒤의 것은 아이가 밥을 먹도록 한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지게 되어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뒤의 것은 ‘아이’가 ‘먹다’의 주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나나’의 경우는 스스로 얼 수는 없으므로 내포문의 주어가 될 수 없기에 ‘바나나를 냉동고에 넣고 얼리다.’와 같은 형식의 문장이 자연스럽습니다.

?!

점퍼(○) 잠바(○)

‘점퍼’와 ‘잠바’는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모아지다 · 모이다

이중 피동

모아지다

모다

모으다

모이다

표현 중에 ‘누가 ~를 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와 같은 말을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아지다’는 이중 피동 아닌가요? ‘모으다’의 피동사인 ‘모이다’를 써서 ‘관심이 모이고 있다.’로 표현해야 하지 않나요? 아니면 ‘누가 ~를 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가 적절한 표현 아닌가요?

‘모아지다’는 ‘모다(‘모으다’의 준말)’의 어간 ‘모-’ 뒤에 ‘-아지다’가 붙은 구성으로 이중 피동이 아닙니다. 따라서 ‘관심이 모아지다.’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으다’, ‘쏠리다’, ‘모이다(‘모으다’의 피동사)’를 써서 ‘관심을 모으다.’, ‘관심이 쏠리다.’, ‘관심이 모이다.’와 같기도 쓸 수 있습니다. 문맥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표현을 선택하여 쓰면 됩니다.

?!

주야장천(○) 주구장창(x)

‘주야장천(晝夜長川)’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연달아’의 뜻입니다.

‘바람의 화원’을 가끔 보는데 자주 나오는 대사 중에 ‘괜찮느냐?’가 매우 거슬립니다. ‘괜찮으냐?’가 옳은 표현 아닌가요?

괜찮으냐 ·
괜찮느냐

‘ㄴ’을 제외한 받침 있는 형용사 어간 뒤에 붙는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는 ‘-으냐’입니다. 형용사 ‘괜찮다’의 어간 ‘괜찮-’ 뒤에는 ‘-으냐’가 붙으므로 ‘괜찮으냐?’로 써야 합니다. ‘-느냐’는 ‘있다’, ‘없다’, ‘계시다’의 어간, 동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입니다.

종결 어미

괜찮으냐

괜찮느냐

-으냐

-느냐

‘내딛다’의 과거형이 ‘내딛었다’인지 ‘내디뎠다’인지 궁금합니다. ‘내딛다’가 ‘내디디다’의 준말이고 활용을 하는 경우는 본말의 활용만을 인정한다고 ‘표준어 규정’ 제16항에 나와 있는데 어떤 말이 표준어 규정에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내딛었다’는 ‘한글 맞춤법’에 어긋남이 없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내디뎠다 ·
내딛었다

‘표준어 규정’ 제16항 ‘모음 어미가 연결될 때에는 준말의 활용형을 인정하지 않는 단어’에 ‘내딛다’도 들어갑니다. 따라서 ‘내딛-+었-+다’와 같은 활용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내딛었다’와 같이 쓸 수 없으며, ‘내디디-+었-+다’와 같이 활용한 ‘내디디었다’나 ‘내디디었다’가 준 형태인 ‘내디뎠다’를 써야 합니다.

내디디다

내딛다

내디뎠다

내딛었다

내디디었다

거기에다가 · 거기에다

격 조사
거기에다가
거기에다
-에다가
-에다
거기다

‘앞말에 더해’라는 뜻에서 ‘거기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데, 막상 사전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은 말이더군요. 그렇다면 ‘거기다’의 올바른 표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대명사 ‘거기’ 뒤에 더해지는 대상을 나타내는 격 조사 ‘-에다가(준말: -에다)’를 붙여 ‘거기에다가(준말: 거기에다)’와 같이 적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용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예 이번 달에는 월급에다가 수당도 붙는다.
백 원에다 백 원을 더하니 이백 원이 되었다.

띠다 · 띄우다

미소를 띠다
띠며
띠어
띄다
띄우다

저는 ‘미소를 띠다.’가 맞는 표현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 ‘미소를 띄다.’가 많이 나오더군요. 어느 것이 맞는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감정이나 기운 따위를 나타내다.’의 의미를 가진 동사 ‘띠다’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띠다’는 ‘노기를 띠 얼굴’, ‘얼굴에 미소를 띠다.’, ‘대화는 열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은 살기를 띠기까지 했다.’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소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은 ‘띠다’입니다. 문의하신 경우는, 기본 동사가 ‘띄다’가 아니라 ‘띠다’이므로 ‘미소를 띠다.’가 맞습니다.

‘모르구나’, ‘하구나’ 등이 맞는 말인가요? ‘모르는구나’, ‘하는구나’에 비해 다소 어색한 느낌이 들어서요. ‘밝구나’, ‘예쁘구나’ 이런 것들이 어색하지 않은 것을 고려해 보면 동사에만 ‘-는’이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요?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사 어간 뒤에는 ‘-는구나’가 붙으므로, 동사 ‘모르다’, ‘하다’는 ‘모르는구나’, ‘하는구나’와 같이 활용합니다. 한편 형용사 어간에는 ‘-구나’가 붙으므로, 형용사 ‘예쁘다’, ‘밝다’는 ‘예쁘구나’, ‘밝구나’와 같이 활용합니다.

모르는구나 ·
예쁘구나

모르는구나

모르구나

-는구나

예쁘구나

-구나

‘문제를 유발시키다.’가 이중 사동인가요? ‘문제를 유발하다.’로 써도 되지 않나요?

‘유발하다’는 일반적으로 ‘어떤 것이 다른 일을 일어나게 하다.’와 같이 이미 사동의 의미를 포함한 뜻으로 쓰입니다. 따라서 ‘문제를 일어나게 하다.’의 뜻을 나타낼 때 사동의 뜻을 더하는 ‘-시키다’를 결합하여 ‘문제를 유발시키다.’처럼 쓸 필요 없이 ‘문제를 유발하다.’로 쓰면 됩니다.

유발하다 ·
유발시키다

사동 표현

유발하다

유발시키다

놀 거리 · 놀을 거리

놀 거리

놀거리

놀을 거리

놀을거리

거리

조어법을 보면 ‘동사의 관형형(-ㄹ/-을)+거리’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동사의 관형형이 ‘놀을’이기 때문에 ‘놀을거리’가 아닌가요? 그리고 한 단어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띄어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놀거리’, ‘놀을거리’, ‘놀 거리’, ‘놀을 거리’ 중 맞는 말이 어느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간의 받침이 ‘ㄹ’로 끝나는 동사에는 ‘-을’이 아니라 ‘-ㄹ’이 결합합니다. 보통 받침이 있는 어간 뒤에는 어간과 어미 사이의 소리를 고르는 음절 ‘으’가 붙어 ‘-을’, ‘-으면’, ‘-으려고’ 등의 어미가 결합하지만, ‘ㄹ’로 끝나는 동사에는 매개 음절 ‘으’가 붙지 않고 ‘-ㄹ’, ‘-면’, ‘-려고’ 등의 어미가 결합하기 때문입니다.

예 먹을/먹으면/먹으려고, 갈/가면/가려고, 놀/놀면/놀려고

이렇듯 ‘ㄹ’로 끝나는 용언이 받침이 없는 어간을 가진 용언과 비슷한 형태 변화를 겪는 것은 음소 ‘ㄹ’의 성절성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절성은 모음에 가까운 자질을 말하는데, 다시 말해 ‘ㄹ’은 다른 자음과 달리 완전히 자음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소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리’는 명사 뒤에 붙거나 어미 ‘-을’ 뒤에 쓰여 ‘내용이 될 만한 재료’를 뜻하는 말입니다. 의존 명사이므로 어미 ‘-을’ 뒤에 쓰일 때는 앞말과 띄어 쓰게 됩니다.

따라서 ‘놀다’의 관형형 ‘놀’과 의존 명사 ‘거리’가 결합한 말은 ‘놀 거리’로 표기합니다.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가 결합한 말로 보기 때문입니다.

‘안 좋은 소문이 돌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생겨지기도 한다.’에서 ‘생겨지기도’를 ‘생기기도’로 바꾸어야 적절한가요? 어떻게 바꿔야 바른 문장이 되는지 알려 주세요.

생기다 ·
생겨지다

생기다
생겨지다
-어지다

‘-어지다’를 동사 뒤에 붙여 쓸 수는 있지만 이때는 ‘무엇이 무엇을 어찌하다’의 문형이 ‘무엇이 어찌되다’의 문형으로 바뀌는 통사적 변화가 같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옷을 찢다. → 옷이 찢어지다.’, ‘새로운 말을 만들다. → 새로운 말이 만들어지다.’, ‘그 사람의 말을 믿다. → 그 사람의 말이 믿어지다.’와 같습니다. 그런데 동사 ‘생기다’는 ‘무엇이 무엇을 생기다’의 문형이 아니므로 ‘-어지다’를 붙여 ‘무엇이 생겨지다’와 같은 문형으로 되는 통사적 변화가 타당하지 않습니다. 제시하신 문장은 ‘어떤 일이 일어나다’의 뜻을 나타내는 문맥이므로 ‘무엇이 무엇에 생기다’의 문형으로 쓰이는 ‘생기다’를 써서 ‘불안감이 사람들 사이에 생기다.’와 같이 표현하면 됩니다.



덱석(O) 덱씩(X)

‘왈칵 달려들어 닝큼 물거나 움켜잡는 모양’을 나타내는 부사는 ‘덱석’입니다.

보여지다 · 보이다

피동사
이중 피동
보여지다
보이다

근래에 사용하는 말 중에 ‘보여진다’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로 접하게 되는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인다’라는 말이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은 차치하고 ‘보여진다’라는 말이 어법에 맞는지 궁금합니다.

‘보여지다’는 ‘보-+-이-+-어지다’로 피동 표현이 중복되어 사용된 예이기 때문에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동사 ‘보이다’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접미사 -이

어조를 고르는
접미사
받침있는이름
-이
가
-이가

‘철수가 밥을 먹었다.’와 같은 문장에서 ‘철수가’의 ‘가’는 주격 조사가 실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 음절의 환경에 따라서 주격 조사 ‘이’로도 교체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혜진이가 밥을 먹었다.’에서의 ‘혜진이가’에 ‘이’와 ‘가’가 같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우리말에는 ‘갑순이, 갑돌이’와 같이 받침 있는 사람의 이름 뒤에 붙어 어조를 고르는 접미사 ‘-이’가 있습니다. ‘혜진이가’에서 ‘혜진이’도 ‘혜진’ 뒤에 접미사 ‘-이’가 붙은 것입니다. 이때 ‘혜진이’는 받침 없는 체언과 같아지므로, 받침 없는 체언 뒤에 붙는 조사 ‘가’가 붙어 ‘혜진이가’와 같이 씁니다.

형용사는 명령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해라’와 ‘예뻐라’는 틀린 표현인데, ‘행복해지다’와 ‘예뻐지다’는 명령형으로 쓰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해져라’와 ‘예뻐져라’는 맞는 표현인가요, 틀린 표현인가요?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형용사에는 명령형 어미가 붙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령의 의미로 ‘행복해라’, ‘예뻐라’와 같이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지다’의 ‘지다’는 다른 보조 용언과 달리 본용언의 품사적 성격을 바꾸어 줍니다. ‘행복하다’, ‘예쁘다’가 ‘행복해지다’, ‘예뻐지다’가 되면 동사적인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행복해져라’, ‘예뻐져라’와 같은 명령형은 문맥에 따라 쓸 수 있습니다.

예뻐라 ·
예뻐져라

형용사의
명령형

행복해라
행복해져라

예뻐라

예뻐져라

?!
?

무뚝뚝하다(○) 묵뚝뚝하다(X)

떡볶이(○) 떡볶기(X)

삼가시길 · 삼가 주시기를

삼가시길
삼가 주시길
삼가시기
삼가다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은 삼가시길 바랍니다.’에서 틀린 부분이 있나요? ‘삼가다’를 높이려고 할 때 ‘삼가 주시기를 바랍니다.’로 쓰지 않고 ‘삼가시길 바랍니다.’로 써도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합니다. 그리고 ‘삼가시기’가 아닌 ‘삼가시길’로 써도 되나요?

제시하신 문장처럼 ‘삼가다’의 어간 뒤에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어미 ‘-시-’를 붙여 ‘삼가시길 바랍니다.’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삼가 주시기를’은 본용언 ‘삼가-’ 뒤에 어미 ‘-시-’가 붙은 보조 용언 ‘(-아) 주다’가 이어진 구성입니다.

그리고 목적격 조사를 붙여 ‘삼가시길’과 같이 쓸 수도 있고, 목적격 조사를 생략하고 ‘삼가시기’와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

시답잖다(○) 시덥잖다(x)

‘볼품이 없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뜻의 말은 ‘시답잖다’입니다.

외국 친구를 대신해서 질문합니다. 책에 ‘날마다/매일, 아침마다/매일 아침’과 같이 다른 것들은 대응하는 짝이 있는데 ‘매월, 매달’에 대응하는 ‘달마다’는 없다고 합니다. 저는 평소에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 듯한데 책에 없다면 표준어가 아닌가요? 아니면 책에 안 나온 것일까요?

한 해를 열둘로 나눈 것 가운데 하나의 기간을 일컫는 ‘달’ 뒤에 ‘날날이 모두’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마다’를 붙여 ‘달마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달마다’, ‘매월’, ‘매달’, ‘다달이’는 뜻이 같은 말입니다.

참고로 ‘달마다’와 같이 명사와 조사가 결합한 형태는 사전에 표제어로 실리지 않습니다.

달마다 ·
매월 ·
매달

달마다
매월
매달
다달이
마다

?!

헛갈리다 · 헛갈리다(○) 헤텔리다(x)

‘헛갈리다’와 ‘헛갈리다’는 둘 다 표준어입니다.

지 않은
지 않는

않는

않은

지나지 않은

지나지 않는

지나지 아니하다

부정 표현 ‘-지 않다’에 대한 질문인데요. ‘나와 너의 공조는 동상이몽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라는 문장에서 ‘않은’의 형태가 잘못된가요? ‘지나지 않다’가 동사니까 ‘지나지 않은/지나지 않는’ 둘 다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바른 표현은 어떤 것인가요?

‘-은’은 앞말이 관형어 구실을 하게 하고 동작이 과거에 이루어졌음을 나타내거나 동작이 완료되어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어미입니다. ‘-는’은 앞말이 관형어 구실을 하게 하고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나 행위가 현재 일어남을 나타내는 어미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사실을 서술하는 경우에는 ‘-은’을 붙여 ‘지나지 않은’으로, 현재의 사실을 서술하는 경우에는 ‘-는’을 붙여 ‘지나지 않는’으로 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나지 아니하다/못하다’는 ‘바로 그것밖에 달리 되지 아니하다.’를 뜻하는 관용구입니다.

- 예 1. 그의 말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2. 그는 자신이 사장인 것처럼 행동했지만 실상은 운전수에 지나지 못했다.

?!

(날씨가) 끄물끄물하다(○) (날씨가) 꾸물꾸물하다(X)

‘날씨가 활짝 개지 않고 몹시 흐려지다.’라는 뜻의 말은 ‘끄물끄물하다’입니다. ‘꾸물꾸물하다’는 ‘매우 자꾸 느리게 움직이다.’ 등의 뜻으로 쓰입니다.

‘내려뜨리다/내리꽃다/내리깎다’에서 ‘내려’와 ‘내리’를 따로 구별하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단어별로 다 외워야 하나요?

‘내려뜨리다/내리꽃다/내리깎다’는 단어 형성 방법이 다릅니다. 즉 ‘내려뜨리다’는 ‘내리-+-어-+-뜨리다’로 파생어이며, ‘내리꽃다’, ‘내리깎다’는 각각 ‘내리-+꽃다’, ‘내리-+깎다’가 결합한 합성어입니다. 이때의 ‘려’와 ‘리’는 표기 그대로 발음되므로 이에 따라 구별하기 바랍니다.

내려뜨리다 ·
내리꽃다 ·
내리깎다

단어 형성 방식
내려뜨리다
내리꽃다
내리깎다

‘로마자 표기법’에서 ‘서해 대교’는 ‘Seohae Bridge’, ‘남동 대교’는 ‘Namdong bridge’로 나와 있던데, ‘Bridge’는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별하나요? 아니면 다른 원칙이 있나요?

‘남동 대교’는 국립국어원 누리집의 ‘로마자 표기법’ 용례 찾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Namdong bridge’로 적습니다. 강에 놓인 ‘대교’는 ‘bridge’로 적고, 바다에 놓인 ‘대교’는 ‘광안 대교 Gwangan Bridge’, ‘서해 대교 Seohae Bridge’, ‘남해 대교 Namhae Bridge’와 같이 ‘Bridge’로 적도록 했습니다.

Bridge ·
bridge

로마자 표기
서해 대교
Seohae Bridge
남동 대교
Namdong
bridge

있다 ·
계시다 ·
있으시다

높임말
있으시다
계시다
있다

1. 거기에 아버지께서 있으셨다.
2. 그분은 두 살된 따님이 있으시다.

위 두 문장 중에 1은 틀리고 2는 맞다고 하는데요. ‘있으시다’는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1번 문장이 틀린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있다’는 동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입니다. ‘있다’의 높임말로는 ‘있으시다’, ‘계시다’가 가능한데, 이 가운데 ‘계시다’는 주로 동사적 용법을 갖는 ‘있다’의 높임말로, ‘있으시다’는 형용사적 용법을 갖는 ‘있다’의 높임말로 사용합니

다. 문의하신 문장 중 1의 ‘있다’는 ‘사람이나 동물이 어느 곳에서 떠나거나 벗어나지 않고 머물다.’의 의미인 동사적 용법으로, 2의 ‘있다’는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존재하는 상태이다.’의 의미인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습니다. 따라서 1에는 ‘계시다’, 2에는 ‘있으시다’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

줄대 파일(○) 쫄대 파일(x)

‘줍고 가늘게 쓰는 재료를 통틀어 이르는 말’은 ‘줄대’입니다.

고유 명사의 로마자 표기

로마자 표기
고유 명사
첫 글자
대문자
소문자

‘로마자 표기법’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고유 명사의 경우 첫 번째 글자를 대문자로 쓴다고 하는데, 얼마 전 국어 시간에 고유 명사라도 ‘로마자 표기법’의 첫 글자가 대문자, 소문자로 나뉜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태권도, 설날, 추석, 김치, 거북선, 가야금, 거문고, 무궁화’ 등은 소문자로 쓰고, ‘한글, 훈민정음, 흥부전, 춘향전, 애국가, 태극기, 대한민국’ 등은 대문자로 쓴다고 들었습니다. 왜 소문자, 대문자로 나뉘는지, 특별한 구분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마자 표기 용례 사전”에서 일반 용어로 분류한 ‘식생활 용어, 의생활 용어, 주생활 용어, 명절과 풍습, 놀이와 무예, 문화유산 및 국가 상징, 역사 지명’ 중에서, ‘식생활 용어, 의생활 용어, 주생활 용어, 명절과 풍습, 놀이와 무예’와 관련된 단어는 모두 첫 글자를 소문자로 적습니다. 그런데 ‘문화유산 및 국가 상징 용어’ 중에서 ‘고려대장경, 대한민국, 심청전, 애국가, 집현전, 춘향전, 태극기, 한글, 훈민정음, 흥부전’과 ‘역사 지명’인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고려, 조선, 대한민국’은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습니다. 용례 사전에서 이 단어들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은 것은 이들을 낱말의 특정한 사물을 다른 것들과 구별해 부르기 위하여 고유의 기호를 붙인 이름인 고유 명사로 보기 때문이며, 이 밖에 다른 어떤 표기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규정: ‘로마자 표기법’ 제3장 표기상의 유의점, 제3항)

Beobwon ·
Beopwon

로마자 표기
법원
Beobwon
Beopwon

‘법원’의 정확한 로마자 표기가 궁금합니다. ‘Beobwon’과 ‘Beopwon’ 중 어느 것이 정확한 표기인가요?

‘법원’의 로마자 표기는 ‘Beobwon’입니다. ‘로마자 표기 법’은 기본적으로 소리 나는 대로 적고, 제2항의 붙임에 나오는 것처럼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습니다. 따라서 ‘법’의 ‘ㅂ’은 모음 앞이기에 ‘b’로 적습니다.

귀네스 팰트로 ·
귀네스팰트로

띄어쓰기
외국 인명
귀네스 팰트로
귀네스팰트로
Gwyneth
Paltrow

‘한글 맞춤법’ 제48항 단서에 “성과 이름, 성과 호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띄어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외국 인명의 성과 이름은 띄어 써도 되고 붙여 써도 됩니까? 예를 들면 ‘귀네스 팰트로’와 ‘귀네스팰트로’는 모두 맞는 표기인가요?

외래어 인명의 경우에 성과 이름은 띄어 씁니다. 따라서 ‘Gwyneth Paltrow’는 ‘귀네스 팰트로’와 같이 적습니다.

(참고 자료: 국립국어원 누리집, 자료 마당, 공개 자료실, 외래어 표기 용례 자료-인명)

성명의 로마자 표기

로마자 표기

인명

성과 이름

이름을 영문으로 표기할 때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쭙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성과 이름을 헛갈리지 않도록 성을 쓰고 그 뒤에 ‘,’를 찍어서 구분해 주는 것이 좋다고 배운 기억이 있는데 ‘,’를 쓰는 게 맞나요? 아니면 ‘,’ 없이 그냥 성과 이름을 쓰나요?

‘로마자 표기법’ 제4항을 참고하면 인명의 로마자 표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씁니다.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의 표기를 허용함.)

예 민용하 Min Yongha(Min Yong-ha), 송나리 Song Nari(Song Na-ri),
한복남 Han Boknam(Han Bok-nam)

?!

밥심(O) 밥힘(X)

뱃속(O) 뻘속(X)

종고[조코] joko ·
농다[노타] nota

고유 명사 표기
로마자 표기

ㅎ

잡혀

japyeo

로마자 변환기에서 ‘잡혀’는 ‘japyeo’, ‘갇혀’는 ‘gatyeo’, ‘먹혀’는 ‘meokhyeo’와 같이 변환되는데요. 저는 ‘ㄱ’, ‘ㄷ’, ‘ㅂ’ 뒤에 ‘ㅎ’이 오면 ‘ㅎ’을 밝히어 적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ㅂ’, ‘ㄷ’의 경우는 일반에는 적용이 안 되고 고유 명사나 행정 구역에서만 ‘ㅎ’을 밝히더군요. 반면 ‘ㄱ’의 경우는 항상 ‘ㅎ’을 밝히고요.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로마자 표기법’은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한글의 형태를 그대로 적는 것이 아니라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 결과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문의하신 것은 ‘ㄱ’, ‘ㄷ’, ‘ㅂ’, ‘ㄴ’이 ‘ㅎ’과 합하여 거센소리로 나는 경우이며 이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표기하게 됩니다.

예 종고[조코] joko, 농다[노타] nota, 잡혀[자퍼] japyeo, 낱지[나치] nachi

다만,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습니다.

예 묵호 Mukho, 집현전 Jiphyeonjeon

또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로마자 표기법’에서 된소리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공권력’과 ‘벚꽃’은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공권력 · 벚꽃의 로마자 표기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문의하신 ‘공권력’의 발음 정보를 먼저 검토해야 하는데, ‘공권력’은 ‘공권력[공뀐녜]’으로 발음합니다.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공뀐녜]의 정보를 기준으로 로마자 표기를 합니다. 한편, ‘ㄱ’은 모음 앞에서는 ‘g’로 표기합니다. 그러나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로 표기합니다. 그러므로 ‘공권력’은 ‘gonggwonneok’으로 표기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벚꽃’은 음운 변화로 ‘꽃’이 된 것이 아니므로 [별꼐]이라는 발음을 기준으로 로마자 표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벚꽃’의 로마자 표기는 ‘beotkkot’이 됩니다.

공권력

[공뀐녜]

gonggwonneok

벚꽃

[별꼐]

?!

십상(○) 십상(x)

숍 · 샵

헤어숍
헤어샵
shop
숍
샵

‘hair shop’을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으려면 ‘헤어숍’으로 써야 하나요, ‘헤어샵’으로 써야 하나요?

‘shop’의 발음을 ‘외래어 표기법’ 제2장 표 1 국제 음성 기호와 한글 대조표에 따라 적으면, ‘숍’과 ‘샵’ 두 가지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숍’은 영국식 발음을 반영하는 표기이고, ‘샵’은 미국식 발음을 반영하는 표기입니다. 그런데 영어의 외래어 표기는 영국식 영어를 주로 채택하므로, ‘shop’을 ‘샵’이 아니라 ‘숍’으로 적습니다.

자음 ㄹ의 로마자 표기

ㄹ
로마자 표기
r
l
ll

‘로마자 표기법’에서 한글 자음 ‘ㄹ’은 로마자 ‘R’와 ‘L’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R’와 ‘L’을 구분하여 쓰는지 알고 싶습니다.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적고,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으며, ‘ㄹㄹ’은 ‘ll’로 적습니다.

- 예
1. 모음 앞: 구리 Guri, 설악 Seorak
 2. 자음 앞이나 어말: 칠곡 Chilgok, 임실 Imsil
 3. ‘ㄹㄹ’: 울릉 Ulleung, 대관령[대팔령] Daegwallyeong

(관련 규정: ‘로마자 표기법’ 제2장, 제2항, 붙임 2)

‘발이 · 발은 · 발에’의 발음

구개음화

발음

발이

발은

발에

구개음화가 무엇인지는 대략 알고 있습니다. 종성이 ‘ㄷ’이나 ‘ㅌ’으로 끝나고 나서 뒤에 모음 ‘ㅣ’가 오면, ‘ㄷ’과 ‘ㅌ’이 각각 ‘ㅈ’과 ‘ㅊ’으로 변하는 현상이죠. 그래서 ‘발이’가 [바치]로 소리 나죠. 그러면 이 구개음화는 모음 ‘ㅣ’에만 해당합니까? ‘발은’과 ‘발에’는 어떻게 읽어야 정확하죠? [바튼, 바테]가 맞는지, 아니면 [바춘, 바체]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홀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되므로, ‘발은’과 ‘발에’는 [바튼]과 [바테]로 읽습니다. 다만 ‘ㄷ, ㅌ(ㅌ)’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만나면, ‘ㄷ, ㅌ’을 각각 [ㅈ, ㅊ]으로 바꾸어 발음하므로, ‘발이’는 [바치]와 같이 발음됩니다.

?!

역할(○) 역할(X)

설거지(○) 설것이(X)

캐시백 · 캐쉬백

외래어 표기법

캐시백

캐쉬백

리더십

멤버십

‘캐쉬백’ 또는 ‘캐시백’의 영어 실제 발음으로는 ‘캐쉬백’이 더 가깝지만,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기법상으로는 ‘캐시백’, ‘리더십’, ‘멤버십’ 등으로 표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이나 신문 광고를 보면 종종 ‘캐쉬백’과 ‘캐시백’이 혼용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표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면 ‘캐시백’이 맞습니다. ‘외래어 표기법’ 제3장 표기 세칙, 제1절 영어의 표기, 제3항에 어말의 [ʃ]는 ‘시’로 적고, 자음 앞의 [ʃ]는 ‘슈’로, 모음 앞의 [ʃ]는 뒤따르는 모음에 따라 ‘샤’, ‘새’, ‘셔’, ‘셰’, ‘쇼’, ‘슈’, ‘시’로 적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어묵(○) 오뎅(X)

생로병사(○) 생노병사(X)

대부분의 생활 용어에서나 방송이나 신문에서 보면 ‘탑’으로 많이 발음하고, 그렇게 표기된 것 또한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톱’으로 써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톱’과 ‘탑’ 중에 어느 것이 맞나요? 그리고 ‘Cut’은 ‘컷’으로 써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야구 중계를 듣다 보니 해설자가 ‘OOO 선수, OOO 투수의 공이 치기 힘들었을 텐데 잘 [커트]했네요.’로 발음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커트’가 옳은 표현인가요?

‘top’은 ‘톱’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top gear’를 ‘톱 기어’로, ‘desktop’을 ‘데스크톱’으로 씁니다. 또 ‘야구에 서, 투수가 던진 공이 타자가 바라던 공이 아니거나 치기 거북할 때 배트를 살짝 대어 파울 볼로 처리하는 일’을 뜻하는 ‘cut’는 ‘커트’로 씁니다. ‘cut’을 ‘컷’으로 쓰는 쓰임새와 ‘커트’로 쓰는 쓰임새는 구별됩니다. ‘대본이나 촬영한 필름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는 일.’ 또는 ‘인쇄물에 넣는 삽화’를 나타내는 말은 ‘컷’으로 씁니다.

컷 · 커트

외래어 표기법

톱

탑

컷

커트

?!
틀림

추스르다(○) 추스리다(x)

주꾸미(○) 쭈꾸미(x)

겹받침 ‘ㄹ’의 발음

발음 겹받침

ㄹ

받침 ‘ㄹ’ 뒤에 ‘ㄱ’ 어미가 올 때에 앞받침 ‘ㄹ’은 ‘ㄹ’로 발음 되죠가요? 그런데 ‘말꺼나’와 같이 뒤의 어미가 된소리로 발음 되더라고요. ‘ㄹ’받침 뒤의 어미가 된소리가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겹받침 ‘ㄹ’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합니다. 다만, 용언의 경우에는 뒤에 오는 자음의 종류에 따라 두 가지로 발음됩니다. 먼저, ‘ㄷ, ㅌ, ㅅ’ 앞에서는 [ㄱ]으로 발음하되(①), ‘ㄱ’ 앞에서는 이와 동일한 ‘ㄱ’은 탈락시키고 [ㄹ]로 발음합니다(②).

① [ㄱ]으로 발음하는 경우

맑다[막따], 맑지[막찌], 맑습니다[막쑤니다]

② [ㄹ]로 발음하는 경우

맑게[말께], 맑고[말꼬], 맑거내[말꺼내]

한편, 겹받침 ‘ㄹ’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할 때는 ‘표준 발음법’ 제23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3항에서는 받침 ‘ㄱ(ㄲ, ㅋ, ㆁ, ㄷ, 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ㅌ,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ㄱ]으로 발음되는 받침 ‘ㄱ, ㅋ, ㆁ, ㄷ, ㄹ’ 뒤에서 ‘ㄱ, ㄷ, ㅌ, ㅅ, ㅈ’은 된소리인 [ㄱ, ㄷ, ㅌ, ㅅ, ㅈ]으로 각각 발음되는 된소리되기를 규정한 것입니다. 그 예로 ‘닭장[닥짱], 흙과[흑꽈], 맑다[막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쑤하신 것과 같이 [ㄹ]로 발음되는 ‘ㄹ’ 뒤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되기 현상은 경음화 규정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겹받침 ‘ㄹ’을 [ㄹ]로 발음하는 경우는 뒤에 ‘ㄱ’이 연결될 때이며, 이때의 발음은 ‘맑게[말께], 맑고[말꼬], 맑거내[말꺼내]’와 같이 한다는 것을 ‘표준 발음법’ 제11항의 예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맛있다’의 발음은 [마딤따]이고 [마신타]도 허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 발음법’ 제15항에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고 합니다. ‘맛있다’는 ‘ㅣ’모음으로 시작되니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닌지요? 또 ‘ㅣ’모음으로 시작되는 경우에는 제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소리를 첨가하여 [니, 나, 녀, 뇨, 뉴]로 발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맛있다’의 뒤 단어가 ‘이’로 시작되니 제15항이 아닌 제29항에 해당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맛있다’의 발음

발음

맛있다

[마딤따]

[마신타]

[만님따]

먼저, ‘맛있다’의 표준 발음이 [만님따]가 아닌 까닭은 그것이 표준어의 실제 발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표준 발음법’ 제1장 총칙 제1항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합리성을 고려하여 표준 발음법을 정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의하신 ‘맛있다’의 발음이 그러한데, ‘맛있다’는 실제 발음에서는 [마신타]가 자주 쓰이지만, 두 단어 사이에서 받침 ‘ㅓ’을 [디]으로 발음하는 [마딤따]가 오히려 합리성을 지닌 발음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마딤따]를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정하되, 실제 발음을 고려하여 [마신타]도 표준 발음으로 허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성명의 발음

발음
음의 첨가
ㄴ 첨가
사람 이름

‘손예진’의 발음은 [소네진], [손네진] 중 어느 것이 맞나요?
‘문영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녕호]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문녕호]라고 하던데요. 그리고 ‘선덕 여왕’은 주위를 보니 많은 분들이 [선덩녀왕]이라고 하는데 반해, 아니운서는 ‘곧이어 [선더겨왕]이 방송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ㄴ’음 첨가는 ‘표준 발음법’ 제29항에 따라서 복합어에서 일어나는 음운 현상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두 단어를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손예진, 문영호, 선덕 여왕’은 어문 규정과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라서 붙여 써야 하거나 붙여 쓸 수 있도록 한 것이기는 하지만 복합어는 아닙니다. 따라서 ‘ㄴ’음 첨가가 일어날 수 있는 음운 환경이기는 하지만, ‘ㄴ’음 첨가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각각 [소네진, 무녕호, 선더겨왕]과 같이 발음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연이어서 발음할 때에는 [손네진, 문녕호, 선덩녀왕]과 같이 ‘ㄴ’음을 첨가한 발음도 허용합니다.

?!

체(로 거르다)(O) 채(로 거르다)(X)

‘가루를 곱게 치거나 액체를 받거나 거르는 데 쓰는 기구’는 ‘채’입니다.

‘숫양’과 ‘숫염소’의 발음이 어떻게 되나요?

‘숫양 · 숫염소’ 의 발음

‘숫양, 숫염소’는 각각 [순냥]과 [순념소]로 소리 납니다.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음을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합니다(표준 발음법 제29항). 따라서 앞 요소의 받침은 첨가된 ‘ㄴ’ 때문에 비음으로 발음됩니다. 즉 ‘숫양’은 [순냥]에서 [순냥]으로 변화되어 소리나며, ‘숫염소’도 그 과정이 동일합니다.

발음

숫양

[순냥]

숫염소

[순념소]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아보니 똑같은 ‘뽕’ 받침의 단어인데, ‘열고’, ‘열지’는 [열꼬], [열찌]이고, ‘밟고’, ‘밟지’는 [밟꼬], [밟찌]로 되어 있네요. 어떤 차이에서 연유하는 것이지요?

‘열고’의 발음

‘표준 발음법’ 제10항에 따르면, 겹받침 ‘래’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ㄹ]로 발음하므로, 열다[열:따], 열꼬[열:꼬], 열지[열:찌]와 같습니다. 다만, ‘밟-’은 자음 앞에서 [ㅁ]으로 발음하므로, 밟다[밟:따], 밟소[밟:쏘], 밟지[밟:찌], 밟는[밟:는] → 밟:는, 밟게[밟:게], 밟꼬[밟:꼬]로 발음합니다.

발음

열다

열고

밟다

밟고

‘디귤’의 발음

발음
디귤이
[디그시]
히읇이
[히으시]

한글의 자음 중 ‘ㄷ’은 ‘디귤’으로 쓰고 ‘ㅎ’은 ‘히읇’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디귤이’나 ‘히읇이’처럼 ‘이’라는 조사가 붙으면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글 자모의 이름에 대한 발음 규정으로, ‘표준 발음법’ 제16항을 확인해 보면 관련 내용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디귤이’의 경우, 한글 자모의 이름은 첫소리와 끝소리 둘을 모두 보이기 위한 방식으로 붙인 것이어서 원칙적으로는 모음 앞에서 ‘디귤이[디그디], 디귤을[디그들]’ 등과 같이 발음하여야 하나, 실제 발음에서는 [디그시], [디그슬] 등과 같아 이 현실 발음을 반영해 규정화한 것입니다. ‘꽃이[꼬시], 밤낮으로[밤나스로], 술은[소슨], 무릎을[무르블], 부엌에[부어게]’ 등은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에서 보면 이 규정은 예외적인 것입니다. 규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전통성과 합리성에 어긋나면서 실제 발음만 따른 결과라고 부연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히읇이’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열어젖히다(○) 열어제치다(x)

‘-할게요’의 ‘-게요’ 말인데요. 원래 이게 ‘-께요’와 ‘-게요’ 중에서 ‘-게요’를 표준어로 삼은 거잖아요. 그러면 발음은 어떻게 하나요?

‘-게요’는 [게요]로 표기대로 발음합니다. 다만 ‘-할게요’는 [할께요]로 발음합니다. 이는 ‘표준 발음법’ 제27항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와 그 붙임 “-(으)ㄹ’로 시작되는 어미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에 따릅니다. 이 밖에도 ‘할걸[할꺄], 할밖[할빠께], 할세라[할쎄라], 할수록[할쑤록]’이 있습니다.

‘-게요’의 발음

발음

-게요

-ㄹ게요

[~ㄹ께요]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 ‘정확하게 읽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가졌으면’을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것이 있는데 [가져쓰면]이 맞나요, [가저쓰면]이 맞나요?

‘가졌으면’은 [가저쓰면]으로 발음됩니다.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 켜, 처’는 ‘지어, 찌어, 치어’를 줄여 쓴 것인데, ‘ㅈ, ㅊ, ㅌ’ 다음에서 [저, 켜, 처]와 같이 ‘ㄹ’ 같은 이 중 모음이 발음되는 경우가 없고, ‘가지어→가져가져, 찌어→찌[찌], 다치어→다쳐[다쳐]’와 같이 [저, 켜, 처]로 발음됩니다.

(관련 규정: ‘표준 발음법’ 제2장 자음과 모음, 제5항, 다만 1)

‘가졌으면’의 발음

발음

가졌으면

[가저쓰면]

[가저쓰면]

7종성

발음
받침 소리
대표음

7종성법에 따르면 받침으로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이 온다는데 단어 중에 이것 말고도 다른 자음이 받침으로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7종성법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표준 발음법’ 제8항에서는 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고 규정하고, 제9항에서는 받침 ‘ㄲ, ㅋ’, ‘ㅅ, ㅆ, ㅈ, ㅊ, ㅌ’,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ㅂ]으로 발음한다고 규정하였

습니다. 이때의 ‘7종성’은 어말에서 소리 나는 일곱 끝소리

를 말하는 것으로 글자의 개념이 아닌 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꽃, 곧, 곳, 곳, 끝’은 받침으로 쓰인 자음은 각기 다르지만 [꼇], [곧], [곳], [곳], [끗]과 같이 자음의 끝소리가 모두 [ㄷ]으로 소리 납니다. 따라서 ‘ㅅ, ㅆ, ㅈ, ㅊ, ㅌ’은 그 대표음을 [ㄷ]으로 정한 것입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이유로 ‘ㄲ, ㅋ’은 [ㄱ], ‘ㅍ’는 [ㅂ]을 대표음으로 삼습니다. 여기에 어말에서 그대로 소리 나는 [ㄴ, ㄹ, ㅁ, ㅇ]을 합해 7종성이 됩니다.

?!

엷히 다(○) 언치 다(x)

‘강의의’는 [강의의, 강의에, 강의의, 강이에] 이렇게 네 가지로 발음할 수 있나요?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조사 ‘의’는 [케]로 발음하는 것은 허용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강의의’를 원칙대로 발음하면 [강의의]가 되나, [강이의], [강의에], [강이에]와 같이 발음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강의의’의 발음

발음

[강의의]

[강이의]

[강의에]

[강이에]

지하철 역 이름 중에 ‘공릉역’과 ‘태릉입구역’이 있는데요. ‘공릉’은 ‘gongneung’이라고 적으며 [공능]이라고 읽고, ‘태릉’은 ‘taereung’이라고 적으며 [태릉]이라고 읽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단어들을 다르게 발음하나요?

‘공릉’이 [공능]으로 발음되는 것은 “받침 ‘ㄱ, ㅇ’ 뒤에 연결되는 ‘ㄹ’은 [ㄴ]으로 발음한다.”라는 ‘표준 발음법’ 제5장 음의 동화, 제19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태릉’은 음의 동화가 일어날 환경이 아니므로 표기대로 [태릉]으로 발음합니다.

‘공릉 · 태릉’의 발음

발음

공릉

[공능]

태릉

[태릉]

‘과’의 발음

발음
학과
[학파]

‘학과나 전문 분야를 나타내는 말’인 ‘과’말인데요. 사전을 찾아보니 특별히 발음과 관련된 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걸로 보아 그냥 [과]로 발음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학과의 경우는 [학파]로 발음하므로 국어국문학과와 의 경우는 [-파]가 되고 연극영화과의 경우는 그대로 [-과]로 발음할 것 같은데 맞나요?

‘과(科)’가 홀로 쓰일 때는 [과]로 발음합니다. 그런데 ‘국어국문학과’의 ‘과’는 [파]로 발음되며, 이는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ㄷ, ㅌ, ㄴ, ㄷ, ㅌ, ㄴ), ㄷ(ㅌ, ㄷ, ㄴ, ㄷ, ㅌ, ㄴ)’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ㅌ, ㄴ, ㅌ’은 된소리로 발음한다.”라는 ‘표준 발음법’ 제6장 경음화, 제23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연극영화과, 영문과, 의예과’ 등의 ‘과’도 [파]로 발음합니다. 한자어 ‘과(科)’와 한자어계 접미사 ‘-가(價), -권(權), -권(圈), -권(券)’은 다른 한자 형태소나 한자어 뒤에 붙어 쓰일 때 항상 경음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성질내다(○) 승질내다(x)

‘값있는’은 [가빈는]이고 ‘못잊어’는 [몬니저]이죠? ‘값+있는’, ‘못+잊어’로 똑같이 앞 단어가 자음으로 끝났고 다음 단어 첫 음절은 ‘이’로 시작했는데, ‘값있는’의 법칙을 따르면 ‘못잊어’도 [모디저] 아닌가요? ‘ㄴ’ 소리 첨가하라는 규칙을 따르면 ‘값있는’도 [감닌는]이 아닌가요?

‘못 잊어’와 ‘웃 입다’는 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처럼 두 단어가 이어지는 경우, 이들을 한 단어처럼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는 ‘ㄴ’이 첨가되어 [몬니저], [온넙따]와 같이 발음되고, 두 단어로 인식하고 발음하는 경우에는 ‘ㄴ’의 첨가 없이 [모디저], [오넙따]로 발음됩니다.

(관련 규정: ‘표준 발음법’ 제7장 음의 첨가, 제29항, 붙임 2)

‘값있는’의 표준 발음은 [가빈는]입니다. ‘값있는’의 표준 발음이 [감닌는]이 아닌 이유는 그것이 표준어의 실제 발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표준 발음법’ 제1의 근본 원칙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못 잊어 · 웃 입다’의 발음

발음

못 잊어
[몬니저/모디저]

웃 입다
[온넙따/오넙따]

값있는[가빈는]



움츠리다(○) 움추리다(x)

‘받혀’의 발음

발음

받히다

[바치다]

받혀

[바쳐]

‘승용차에 받혀’라고 할 때 ‘받혀’의 발음이 [바쳐]라고 발음 변환기에 나와 있던데, ‘표준 발음법’ 제12항에 보면 받침 [ㄷ]이 뒤 음절 첫소리 ‘ㅎ’과 결합되는 경우에 두 음을 합쳐서 [ㅌ]으로 발음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받혀’는 [바쳐]로 발음되나요?

‘받혀’의 기본형인 ‘받히다’의 발음은 ‘표준 발음법’ 제5장 음의 동화, 제17항, 붙임 규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붙임 규정이 “ㄷ 뒤에 접미사 ‘히’가 결합되어 ‘티’를 이루는 것은 [치]로 발음한다.”라고 기술한 대로 ‘히’가 결합할 때에 받

침 ‘ㄷ’과 합하여 [치]으로 구개음화하여 발음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과 관계 있는 발음을 보이는 단어로는 ‘굳히다[구치다], 단히다[다치다], 묻히다[무치다], 걷히다[거치다], 받히다[바치다]’ 등이 있습니다.

‘받히다’의 활용형인 ‘받혀’는 [바쳐]로 발음하는데, 이것은 ‘표준 발음법’ 제2장 자음과 모음, 제5항, 다만 1 규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받쳐[바쳐]와 같은 용언의 활용형의 경우 ‘돋치+어 → 돋쳐[돋치], 굳히+어 → 굳쳐[구치], 잊히+어 → 잊혀[이쳐], 붙이+어 → 붙여[부쳐]’ 등처럼 이중 모음을 단모음으로 발음합니다.

‘표준 발음법’ 규정과 그 해설은 국립국어원 누리집 ‘자료 마당, 어문 규정’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상견례’를 [상결례]가 아닌, [상견네]로 발음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ㄴ’과 ‘ㄹ’이 만나면 자음 동화 현상에 따라 ‘ㄴ’이 ‘ㄹ’로 소리 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상견례’의 발음

발음

상견례

[상견네]

[상결례]

‘상견례(相見禮)’는 ‘상견네’로 발음합니다. ‘상견례’에 있는 ‘ㄱ’은 ‘례’의 ‘ㄱ’이므로, ‘예, 례’ 이외의 ‘ㄱ’은 [ㄱ]로도 발음한다는 ‘표준 발음법’ 제2장, 제5항, 다만 2 조항에서 말하는 [ㄱ] 발음과 관련이 없습니다. 또 제20항에서는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한다는 규정을 제시하였으나, 일부 단어에서는 ‘ㄹ’을 [ㄴ]으로 발음한다고 설명하였으며 ‘상견례’는 그 예에 해당합니다. 이 밖에도 ‘의견란[의:견난], 임진란[임:진난], 생산량[생산냥], 결단력[결판녁], 공권력[공뀐녁], 동원령[동:원녕], 횡단로[횡단노]’ 등이 있습니다.

?!

수돗가(○) 수도가(x)

음의 동화

자음동화

백로 [뱅노]

‘백로’의 경우 자음 동화의 단계가 [백노]로 먼저 된 다음에 [뱅노]로 된다는 설명을 보았습니다. ‘백로’가 [백노]로 될 때, ‘ㅂ, ㄷ, ㄱ’과 ‘ㄹ’이 만날 때 ‘ㄹ’이 ‘ㄴ’으로 바뀌는 현상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막론[막논→망논], 백리[백니→뱅니], 험력[험녁→험녁], 십리[십니→십니]와 같이, 받침 ‘ㄱ, ㅂ’ 뒤에서 ‘ㄹ’은 [ㄴ]으로 발음되며, 그 [ㄴ] 때문에 ‘ㄱ, ㅂ’은 다시 [ㅇ, ㅁ]으로 역행 동화되어 발음됩니다. ‘백로’의 발음이 [백노]→[뱅노]의 과정을 거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표준 발음법’ 제5장 음의 동화, 제19항, 붙임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세숫대야(○) 세수대야(X)

예: 나는 학생입니다. 저곳은 바다입니다.

위의 예문과 같이 일상적으로 ‘입니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임니다]로 발음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으나, [임미다]로 많이 발음하는 것 같아 어느 쪽이 정확한 발음인지 궁금해서 질문해 봅니다.

[임니다]로 발음해야 합니다. ‘표준 발음법’ 제18항에 보면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 ㅌ, ㄴ, ㄹ)’은 ‘ㄴ, ㄹ’ 앞에서 각각 [ㅇ, ㄴ, ㄹ]으로 발음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1항에서는 이 밖의 자음 동화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꺾먹이[전머기](×[점머기])를 보기로 들고 있는데, ‘입니다’를 [임미다]로 발음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는 자음동화의 보기입니다.

‘입니다’의 발음

발음
입니다
[임니다]

?!

싯다섯(○) 쉬 혼다섯(×)

연음 발음

발음
연음
가죽을
[가주글]

‘표준 발음법’ 제13항에서는 “홀받침,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어 있는 경우,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책에는 ‘가죽을 남기고[가죽을 람기고]’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가주글]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죽을], [가주글] 어느 것이 맞는 발음인가요?

[가주글]로 소리 납니다. 이는 홀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는 ‘표준 발음법’ 제13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

물방개	[물방개](○)	[물뽕개](×)
효과	[효과](○)	[효파](×)
폭발	[폭발](○)	[폭팔](×)
요령성	[요령성](○)	[요녕성](×)

‘선릉 · 왕릉’의 발음

발음
선릉
[설릉]
왕릉
[왕능]

‘선릉역’ 발음이 [선능]과 [설릉] 중 어느 것이 맞습니까? 참고로 지하철에선 ‘설릉’으로 발음하고, 지역이나 인명 등 고유 명사인 경우 자음접변(말음법칙)에서 예외가 인정되던데, 왕릉은 적용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표준 발음법’ 제20항을 따르면, ‘신라[실라], 광한루[광:할루], ‘칼날[칼랄], 물난리[물랄리]와 같이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리]로 발음합니다. 이에 따라 ‘선릉’은 [설릉]으로 발음합니다. ‘표준 발음법’ 제19항을 따르면 ‘강릉[강능], 향로[향:노], 대통령[대:통녕]과 같이 받침 ‘ㄹ, ㅇ’ 뒤에 연결되는 ‘ㄹ’은 [ㄴ]으로 발음합니다. 이에 따라 ‘왕릉’은 [왕능]으로 발음합니다.

?!

찌 개(○) 찌 게(X)

어 지 림(○) 어 지 러 움(X)

표준 발음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간힘’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니 표준 발음이 [안간힘]이라고 나오는데 [간]이라고 발음되는 것은 어떠한 규칙에 따른 것인가요?

‘안간힘’의 발음

발음

안간힘

[안간힘]

‘안간힘’의 발음은 [안간힘]입니다. 합성어인 경우에는 뒤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간힘’이 이에 해당합니다.

‘안간힘’은 명사 ‘안’과 명사 ‘간힘’이 결합된 합성어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제6장 경음화, 제26항, 제28항)

?!

재채기(○) 제체기(X)

육개장(○) 육계장(X)

알아 두면 유용한 외래어 표기 ①

원어	맞는 표기	틀린 표기	설명
Dostoevskii	도스토옙스키	도스토예프스키	2005년에 제정된 ‘포르투갈어, 네덜란드어, 러시아어’의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도스토옙스키’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goal ceremony	골 세리머니	골 세러머니	‘골 세리머니’는 ‘득점 뒤풀이’로 바뀌 쓸 수 있습니다.
mL	밀리리터	미리리터	기호 ‘mL’로 나타내는 단위 명사는 ‘밀리리터’로 표기 하고 읽습니다.
navigation	내비게이션	네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은 ‘길도우미’로 바뀌 쓸 수 있습니다.
d’Artagnan	달타냥	다르타냥	‘달타냥’은 프랑스 소설 “삼총사”에 나오는 주인공 이 름입니다.
market	마켓	마케	‘마켓’은 ‘시장’으로 바뀌 쓸 수 있습니다.
manual	매뉴얼	메뉴얼	‘매뉴얼’은 ‘설명서’, ‘사용서’, ‘안내서’로 바뀌 쓸 수 있습니다.
もんぺ(monpe)	몸빼	몸뻐	‘몸빼’는 ‘왜 바지’, ‘일 바지’로 바뀌 쓸 수 있습니다.
jordan	조든	조던	미국의 농구 선수인 ‘Michael Jeffrey Jordan’의 표기 는 ‘마이클 제프리 조든’으로 적습니다.
balance	밸런스	발란스	‘밸런스’는 ‘균형’으로 바뀌 쓸 수 있습니다.
boots	부츠	부추	‘부츠’는 ‘목 구두’, ‘목 긴 구두’로 바뀌 쓸 수 있습니다.
circle	서클	써클	‘서클’은 ‘동아리’, ‘모임’으로 바뀌 쓸 수 있습니다.
solution	설루션	솔루션	‘설루션’은 ‘해결’, ‘해명’, ‘해법’으로 바뀌 쓸 수 있습 니다.
snack	스넥	스벱	‘스넥’은 ‘간편식’으로 바뀌 쓸 수 있습니다.
scene	신	씬	‘신’은 ‘장면’으로 바뀌 쓸 수 있습니다.
bancassurance	방카쉬랑스	방카슈랑스	‘은행’을 뜻하는 프랑스어 ‘방크(banque)’와 ‘보험’을 뜻하는 프랑스어 ‘아쉬랑스(assurance)’의 합성어인 프랑스어 ‘bancassurance’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방카쉬랑스’로 쓰고 말해야 합니다. 이 말은 ‘은행연 계보험’으로 바뀌 쓸 수 있습니다.

2

피어쓰기

-르걸· 걸(것을)

-르걸
것을
걸

‘걸’의 띄어쓰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일에 몰두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너와 함께 사는 걸 안타까워했다.’와 같은 문장에서 ‘걸’을 ‘것을’의 준말로 보아 띄어 쓰는 것이 맞나요? ‘그렇게 할걸.’처럼 ‘하+~르걸’의 종결 어미로 쓰였을 경우에는 붙여 쓰나요? 띄어 쓸 경우와 붙여 쓸 경우를 어떻게 구분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르걸’은 구어체로 혼잣말에 쓰여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이나 하지 않은 어떤 일에 대해 가벼운 뉘우침이나 아쉬움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입니다. 그러므로 ‘차 안에서 미리 자 둘걸.’, ‘내가 잘못했다고 먼저 사과할걸.’과 같이 씁니다. ‘그렇게 할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것’에 목적격 조사 ‘을’이 붙어 만들어진 ‘걸’은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씁니다. 따라서 ‘소리가 들린 걸 알고(=소리가 들린 것을 알고)’와 같이 앞말에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일에 몰두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너와 함께 사는 걸 안타까워했다.’도 마찬가지입니다.

10 년 · 10년

10년
10 년
십년
십 년

‘십 년 만에’와 같이 띄어 쓰는 것이 맞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십’을 숫자로 표기할 때도 띄어 쓰는 방법은 같은가요?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단위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적습니다. 다만 아라비아 숫자와 어울려 쓸 때는 ‘10년’과 같이 붙여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 년’(원칙), ‘10년’(허용)과 같이 적을 수 있는데, 아라비아 숫자와 어울려 쓸 적에는 일반적으로 ‘10년’과 같이 씁니다.

제1 · 제 1

제1
제 1
제-

‘제1 차’, ‘제1차’, ‘제 1차’, ‘제 1 차’ 중 맞는 것은 어느 것인가요?

‘그 숫자에 해당되는 차례’의 뜻을 더하는 ‘제-’는 접두사이므로 ‘제1’과 같이 뒤의 말에 붙여 적고, ‘제1’과 ‘차’는 ‘제 1 차’와 같이 띄어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제1 연구실’을 ‘제1연구실’처럼 쓸 수 있는 것과 같이 ‘제1차’로도 쓸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한글 맞춤법’ 제5장 띄어쓰기, 제2절, 제43항)

‘같은’을 쓸 때, 띄어쓰기를 해야 하나요, 하지 않아야 하나요? 아니면 경우에 따라 다른가요?

백옥 같은
감쪽같은

형용사 ‘같다’의 활용형 ‘같은’은 ‘백옥 같은 피부’, ‘우리 선생님 같은 분은 세상에 또 없을 거야.’, ‘여행을 할 때엔 반드시 신분증 같은 것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 ‘말 같은 말을 해야지.’, ‘사람 같은 사람이라야 상대를 하지.’, ‘그는 군인 같은 군인이다.’와 같이 앞말과 띄어 적습니다. 다만 ‘감쪽같다, 금쪽같다, 꿈같다, 목석같다, 불꽃같다, 실낱같다, 주옥같다, 찰떡같다, 한결같다’와 같은 합성 형용사의 어간 뒤에 어미 ‘-은’이 붙어 활용할 적에는 ‘감쪽같은, 금쪽같은, 꿈같은, 목석같은, 불꽃같은, 실낱같은, 주옥같은, 찰떡같은, 한결같은’과 같이 적습니다.

같다

같은

백옥 같은

감쪽같은



쉬파리 꿔뚱(O) 쉬파리 꿔 뚱(X)

‘쉬파리 꿔뚱’은 무질서하고 복잡하게 모여 있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관용구입니다. 이때 ‘-뚱’은 용언의 어간에 결합하여 뒤 절과 앞 절의 내용이 거의 같음을 나타내는 어미이므로 ‘꿔뚱’으로 붙여 씁니다.

30% 정도 ·
30%정도

‘~정도’라는 말을 쓸 때 ‘이 정도’, ‘그 정도’와 같이 띄어 쓰는데, ‘30%정도’, ‘3m정도’처럼 쓸 때에도 반드시 띄어 써야 하나요?

30% 정도
30%정도
정도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그만큼가량의 분량을 이르는 ‘정도’는 명사이므로 수량을 나타내는 앞말과 띄어 씁니다. 그러므로 ‘30% 정도’, ‘3m 정도’와 같이 띄어 써야 합니다.

궁금해할지도 ·
궁금해 할지도

‘당신은 혹시 ~을 궁금해할지도 모르겠다.’에서 ‘궁금해할지도’가 맞나요, ‘궁금해 할지도’가 맞나요?

궁금해할지도
궁금해 할지도
궁금해하다

‘궁금해하다’는 ‘궁금하- + -어 하-’의 구성으로 본용언과 보조 용언이 결합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띄어 써야 합니다. 하지만 형용사 ‘궁금하다’에 ‘하다’가 결합하여 타동사가 된 것으로, 이는 문법적인 성질이 달라져 하나의 말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보고 앞말에 붙여 적도록 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말로는 ‘당황해하다/당혹스러워하다/불안해하다/감격스러워하다/놀라워하다’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르지’와 결합한 이 말은 ‘궁금해할지도’와 같이 붙여 씁니다.

‘그중’처럼 ‘그/저/이’ 뒤에 한 음절 단어가 오면 붙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후’, ‘그 외’, ‘그 밤’, ‘이 땅’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후 · 그 외 ·
그 밤 · 이 땅

‘그중’, ‘이곳’, ‘저이’처럼 합성어가 된 경우에만 붙여 씁니다. 문의하신 ‘그 후’, ‘그 외’, ‘그 밤’의 ‘그’는 듣는 이에게 가까이 있거나, 듣는 이가 생각하는 대상을 가리킬 때 쓰거나,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관형사 ‘그’ 뒤에 명사 ‘후’, 의존 명사 ‘외’, 명사 ‘밤’이 이어진 것입니다. 또 ‘이 땅’은 말하는 이에게 가까이 있거나, 말하는 이가 생각하는 대상을 가리킬 때 쓰거나,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관형사 ‘이’ 뒤에 명사 ‘땅’이 이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단어가 아니고 관형사 뒤에 명사 또는 의존 명사가 이어질 경우에는 ‘그 후’, ‘그 외’, ‘그 밤’, ‘이 땅’처럼 띄어 써야 합니다.

그 후
그 외
그 밤
이 땅



야구 선수(O) 야구선수(X)

‘야구’와 ‘선수’는 각각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지만, ‘야구선수’는 표제어가 아니므로 ‘야구 선수’로 띄어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축구 선수’와 ‘농구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사 · 귀사

귀
귀하
귀사
귀사

공문 작성 시 많이 사용하는 인사말로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라고 쓸 때 ‘귀사’를 띄어 쓰는 분이 있고 붙여 쓰는 분이 있는데 헷갈립니다. ‘귀하’는 붙여 쓰는 걸 알겠는데 ‘귀사, 귀공사, 귀업소’의 경우에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상대편이나 그 소속체를 높이는 뜻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하는 ‘귀’는 관형사입니다. 따라서 뒤에 오는 명사와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귀하’, ‘귀사’ 등과 같이 단음절 한자어와 어울려서 쓰는 경우에, 한 단어로 인정되어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된 것은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날 · 그 다음 날

그 다음날
그 다음 날

‘그 다음날’, ‘그 다음 날’ 가운데 정확하게 띄어 쓴 것은 어느 것인가요?

‘다음날’의 경우 띄거나 붙일 때 그 의미가 달라지므로 문맥에 맞게 골라 써야 합니다. 오늘의 다음인 ‘내일’을 가리킬 때는 ‘다음 날’을 쓸 수 있으며, ‘정해지지 않은 미래의 어떤 날’을 가리킬 때는 ‘다음날’로 씁니다. 따라서 ‘그 다음날’과 ‘그 다음날’은 의미를 고려하여 골라 쓰면 됩니다.

‘그런만큼’, ‘이런만큼’에서 ‘만큼’을 띄어 쓰나요, 붙여 쓰나요?

제시하신 문구에는 뒤에 나오는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됨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 ‘만큼’을 씁니다. 의존 명사 ‘만큼’은 ‘그런 만큼’, ‘이런 만큼’과 같이 그 앞에 오는 관형어와 띄어 적습니다. 한편, 조사 ‘만큼’은 ‘집을 대궐만큼 크게 짓다.’, ‘부모님에게만큼은 잘해 드리고 싶었는데!’와 같이 체언이나 조사 뒤에 붙여 적습니다.

그런 만큼 ·
그런만큼

의존 명사
조사
만큼
그런 만큼
대궐만큼

‘씨’는 이름에 붙일 때는 띄어 쓰고(예: 김기동 씨), 성에 붙일 때는 붙여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에 붙여 쓸 때도 예외가 있어 그 사람을 높이거나 대접하여 부르거나 말할 때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쓰라고 하는데,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의 관점에서 말할 때, ‘김 씨’는 아저씨인데 대접하여 부르기에 ‘김 씨’로 띄어 써야 하는지 ‘김씨’로 붙여 써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의하신 경우와 같이 성년이 된 사람을 높이거나 대접하여 이를 때에는 성 아래에 의존 명사 ‘씨’를 써서 ‘김 씨’와 같이 띄어 씁니다. 접미사 ‘-씨’는 ‘그 성씨 자체’의 뜻을 더하는 말로, ‘그의 성은 김씨입니다.’와 같이 붙여 씁니다.

김 씨 · 김씨

김 씨
김씨
씨
-씨

밖에 · 밖

조사
명사
밖에
밖

‘밖’은 사전에 명사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 단어와 띄어 써야 할 거 같은데 ‘자음밖에’로 붙여 쓴 경우를 봐서 질문드립니다. 이 경우 ‘자음 밖에’가 맞을 듯한데 예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밖에’라는 형태의 조사가 있습니다. ‘밖에’는 조사이므로 체언이나 명사형 어미 뒤에 붙어 쓰입니다.

예) 공부밖에 모르는 학생/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한편, ‘일정한 한도나 범위에 들지 않는 나머지 다른 부분이나 일’을 이르는 명사 ‘밖’은 다음과 같이 씁니다.

예) 그녀는 기대 밖의 높은 점수를 얻었다./내 능력 밖의 일이다.

?!

아닌 게 아니라(○) 아닌게아니라(x)

‘어떤 사실이 정말 그러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관용구입니다.

?!

3월 달(○) 3월달(x)

‘3월 달’과 같이 쓸 수는 있으나 이미 ‘월’이 쓰였으므로 ‘달’을 빼고 ‘3월’처럼 쓰는 것이 간결합니다.

‘적들이 물밀듯 밀려온다.’에서 ‘물밀듯’은 ‘물밀(다)- + -듯’의 결합, 즉 ‘어간+어미’의 결합이므로 붙여 쓴다는 답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끓일 듯 말 듯’에서 ‘말’은 관형형인가요, 아니면 ‘말다’의 어간인가요? 제 생각에는 ‘말다’의 어간인 듯한데, 그렇다면 ‘끓일 듯’은 띄어 쓰고, ‘말듯’은 ‘물밀듯’의 예처럼 붙여 써야 하는 게 아닌가요?

듯 · -듯

듯

-듯

끓일 듯 말 듯

‘듯’은 의존 명사와 어미로 사용됩니다. 의존 명사 ‘듯’은 ‘짐작이나 추측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선행하는 형식이 관형형이며, 어미 ‘-듯’은 ‘뒤 절의 내용이 앞 절의 내용과 거의 같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선행하는 형식이 어간입니다. 즉 선행하는 형식과 의미를 기준으로 ‘듯’의 용법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끓일 듯 말 듯’에서 ‘말 듯’은 ‘말다’의 어간 ‘말-’과 관형형 ‘말’이 형태상 동일하여 혼동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끓일 듯 말 듯’의 ‘말’은 용언 ‘말다’의 관형형이며 이때 ‘듯’은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합니다. 종성이 ‘ㄹ’인 어간, ‘살다’, ‘(옷을) 걸다’ 등의 관형형은 각각 ‘내가 살 집’, ‘벽에 걸 액자’로 어간의 형태와 관형형의 형태가 동일합니다.



아전인수 격(O) 아전인수격(X)

‘격’이 일부 명사 뒤에 쓰여서 자격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의존 명사로써 앞말과 띄어 씁니다.

만 하다 · 만하다

보조사
나만 하다
만 하다
만

‘나만큼 크다’는 뜻으로 쓰려 하는데요. ‘나만하다’를 어떻게 띄어 써야 맞나요?

‘나만 하다’와 같이 적습니다. 여기서 ‘만’은 ‘하다’, ‘못하다’와 함께 쓰여 앞말이 나타내는 대상이나 내용 정도에 달함을 나타내는 보조사입니다.

예 집채만 한 파도가 몰려온다.
청군이 백군만 못하다.

띄어쓰기 · 띄어 쓰다

띄어쓰기
띄어 쓰다
붙여쓰기
붙여 쓰다

‘띄어쓰기’, ‘띄어 쓰다’, ‘붙여쓰기’, ‘붙여 쓰다’의 띄어쓰기가 궁금합니다.

‘띄어쓰기’와 ‘붙여쓰기’는 한 단어로 인정된 말이므로 붙여 씁니다. 그러나 ‘띄어 쓰다’, ‘붙여 쓰다’와 같이 쓸 때에는 문장 속 각 단어로 보아 띄어 씁니다.

‘이야기나 말을 들어준다.’라고 할 때 띄어쓰기는 어떻게 하나요? “표준국어대사전”에 ‘들어준다’는 ‘부탁이나 요구 따위를 받아들이다.’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부탁이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니까 ‘들어 주다’로 쓰는 것이 맞나요?

예: 내 말 좀 들어 줘.

제시하신 문장은 본용언 ‘들어’ 뒤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어떤 행동을 함을 나타내는 보조 용언 ‘주다’가 쓰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용언 ‘들어’와 보조 용언 ‘주다’는 ‘들어 주다(예 들어 줘.)’와 같이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 뒤에 연결되는 보조 용언은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하므로 ‘들어준다(예 들어줘.)’와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관련 규정: ‘한글 맞춤법’ 제5장 띄어쓰기, 제3절 보조 용언, 제47항)

들어 주다 ·
들어준다

보조 용언

들어주다

들어 주다



오늘 자 신문(○) 오늘자 신문(X)

‘날짜’를 나타내는 명사 ‘자’는 앞말과 띄어 씁니다. 예 3월 15일 자 신문

또 한 번 · 또 한번

또 한 번 또 한번 한 번 한번

‘또 한번의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에서 ‘또 한번’이 맞는지 ‘또 한 번’이 맞는지 올바른 띄어쓰기가 궁금합니다.

‘번’이 차례나 일의 횟수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과 같이 띄어 씁니다. ‘한번’을 ‘두 번’, ‘세 번’으로 바꾸어 뜻이 통하면 ‘한 번’으로 띄어 쓰고 그렇지 않으면 ‘한번’으로 붙여 씁니다. ‘실패하든 성공하든 한번 해 보자.’는 ‘두 번’으로 바꾸면 뜻이 통하지 않으므로 ‘한번’이 되지만, ‘한 번 실패하더라도 두 번, 세 번 다시 도전하자.’

는 ‘두 번’으로 바꾸어도 뜻이 통하므로 ‘한 번’으로 띄어 씁니다. 붙여 쓰는 ‘한번’은 (1) 어떤 일을 시험 삼아 시도함을 나타내는 말, (2) 기회 있는 어떤 때, (3) (주로 ‘한번은’ 꼴로 쓰여) 지난 어느 때나 기회, (4) (명사 바로 뒤에서 부사로 쓰여) 어떤 행동이나 상태를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문장은 ‘또 한 번의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와 같이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답임 선생님(O) 답임선생님(X)

‘답임’과 ‘선생님’ 두 단어로 이루어진 구 구성으로 보기 때문에 ‘답임 선생님’으로 띄어 적습니다.

‘부탁드리다’, ‘연락드리다’, ‘보내드리다’의 띄어쓰기가 궁금합니다. 이 경우에 ‘드리다’를 붙여 쓰는 것은 ‘주다’의 의미뿐 아니라 접미사의 용도도 있기 때문인가요?

드리다 · -드리다

부탁드리다
연락드리다
보내 드리다
보내드리다
드리다

‘드리다’는 동사와 접사로 쓰입니다. ‘드리다’가 구체적인 사물을윗사람에게 주는 행위를 뜻할 때에는 동사로서 앞말과 띄어 써야 하지만, 행위성을 지닌 동사성 명사 뒤에서는 어떤 행위를 윗사람에게 하는 것을 뜻하는 접미사이므로 중간에 조사가 개입하지 않는 한 앞말과 붙여 씁니다.

문의하신 ‘부탁드리다’, ‘연락드리다’는 명사에 접사 ‘-드리다’가 결합한 것으로 보아 붙여 씁니다. 그러나 ‘보내 드리다’는 ‘보내- + -어 드리다’로 분석되기에 경우가 다릅니다. 이 경우는 보조 용언 ‘-어 드리다’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기에 ‘보내 드리다’로 써야 하나 본용언과 보조 용언은 붙여 씀을 허용하기에 ‘보내드리다’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그로 인해(X)

대명사 ‘그’ 뒤에 오는 조사 ‘로’는 앞말에 붙이고, 동사 ‘인하다’의 활용형 ‘인해’는 앞 어절과 띄어 적습니다.

라고 · 고

인용 따옴표 라고 고

남의 말을 인용하는 경우의 띄어쓰기가 궁금합니다.

1.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한 학자가 있다.
2. “여러분! 침착해야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합니다.”

1에서 큰따옴표와 ‘라고’ 사이를 띄어야 하는지, 붙여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2와 같이 따온 말 가운데 다시 따온 말이 들어 있는 경우, 작은따옴표와 ‘고’ 사이를 띄어야 하는지 붙여 써야 하는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앞말이 직접 인용되는 말임을 나타내는 ‘라고’는 조사이므로 큰따옴표로 묶인 단위에 붙여 적습니다. 그리고 ‘한글 맞춤법’ 문장 부호, 작은따옴표의 용례에서 작은따옴표로 묶인 단위에 ‘고’를 붙여 적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쓰시기 바랍니다.



회의 중(○) 회의중(X)

명사 ‘회의’와 무엇을 하는 동안을 뜻하는 의존 명사 ‘중’은 각각의 단어이므로, ‘회의 중’과 같이 띄어 적습니다.

만 나이 38세를 쓸 때 ‘만38세’처럼 붙여 쓰나요, ‘만 38세’처럼 띄어 쓰나요?

‘만 38세’로 씁니다. 이때의 ‘만’은 ‘정해진 기간이 꼭 참.’이란 뜻의 관형사입니다. ‘보고서를 만 3주 만에 완성했다.’, ‘언니는 만 9개월 만에 사내아이를 낳았다.’처럼 뒷말과 띄어 씁니다.

만 ○○세 ·
만○○세

만
만 나이
만 38세
만38세

‘매월의 경영 상태를 밝히고 제48조의 결산을 준비하기 위하여 매기말에 이를 한다.’에서 ‘매기말’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띄어 써야 합니까?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나하나의 모든. 또는 각각의’를 뜻하는 말인 ‘매’는 관형어이므로 뒤에 오는 체언과 띄어 씁니다. 따라서 ‘매 기말’과 같이 띄어 쓰면 됩니다. ‘기말’은 회계 기간의 끝을 이르는 말로 보입니다. 다만 ‘매월’은 ‘매달’을 의미하는 한 단어가므로 붙여 씁니다.

매 기말 ·
매기말

매 기말
매기말
매월
매달

-ㄹ뿐더러 ·
-ㄹ 뿐더러

연결 어미
멀 뿐더러
멀뿐더러
-ㄹ뿐더러

1. 거리도 멀 뿐더러 교통편도 좋지 않다.
2. 거리도 멀뿐더러 교통편도 좋지 않다.

위의 두 예문 중에 어느 것이 맞는 표기입니까?

‘거리도 멀뿐더러 교통편도 좋지 않다.’와 같이 적습니다. ‘멀뿐더러’는 어간 ‘멀-(활용 시 ‘ㄹ’이 탈락됨.)’ 뒤에 어미 ‘-ㄹ뿐더러’가 붙은 활용형입니다. ‘-ㄹ뿐더러’는 어떤 일이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나아가 다른 일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입니다.

- 예 새 일꾼이 일도 잘할뿐더러 성격도 좋다.
라일락은 꽃이 예쁠뿐더러 향기도 좋다.



문제 되다(O) 문제되다(X)

명사 ‘문제’와 동사 ‘되다’가 쓰인 것이므로, ‘문제(가) 되다’와 같이 띄어 적습니다.

‘못돼먹다’가 사전에 없는데, 그렇다면 ‘못돼 먹다’로 띄어 써야 하나요?

못 돼먹다 ·
못돼먹다

‘되다’를 속되게 이르는 말인 ‘돼먹다’는 말이 있고,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사리에 어긋난 데가 있다.’는 뜻의 관용구 ‘돼먹지 않다(못하다)’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문의하신 것은 ‘못 돼먹다’로 쓰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못 돼먹다
돼먹다
못되다

한편 형용사 ‘못되다’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어간 ‘못되-’에 ‘-어 먹다’ 구성의 보조 용언으로 쓰이는 ‘먹다’가 결합한 것으로 보아 ‘못돼 먹다’와 같이 쓸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어 먹다’는 보조 동사로만 쓰이기 때문에 형용사 ‘못되(다)’ 뒤에서 보조 형용사가 되는 ‘-어 하다’를 이어 ‘못돼 먹다’와 같이 쓰는 것이 문법적으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밑줄 긋기(O) 밑줄긋기(X)

‘밑줄 긋기’는 한 단어가 아니므로 각각의 단어를 띄어 씁니다.

-ㄹ락 말락 ·
-ㄹ락말락

먹을락 말락 하다

보일락 말락 하다

-을락 말락

-ㄹ락 말락

‘먹을락말락하다’, ‘보일락말락하다’에서 ‘-ㄹ락말락’의 띄어쓰기는 어떻게 하나요?

문의하신 것은 ‘먹을락 말락 하다’, ‘보일락 말락 하다’처럼 씁니다.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동사 어간이나 어미 ‘-었-’ 뒤에 붙어 주로 ‘-을락 말락’ 구성으로 쓰여 거의 그렇게 되려는 모양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는 ‘-을락’이며, 받침 없는 동사 어간, ‘ㄹ’ 받침인 동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붙어 ‘-ㄹ락 말락’ 구성으로 쓰여 거의 그렇게 되려는 모양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는 ‘-ㄹ락’인데, 이 어미가 연결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띄어쓰기를 합니다.

- 예 그는 그 대학에 붙을락 말락 하는 간당간당한 점수로 원서를 냈다.
그녀는 한 스물이나 될락 말락 하는 나이로 보였다.
고개를 넘자 파도 소리가 들릴락 말락 하였다.

?!
?

첫 번째(○) 첫번째(X)

‘번째’는 차례나 횟수를 나타내는 말로 의존 명사이고, 그 앞에 놓인 ‘첫’은 관형사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단어인 ‘첫’과 ‘번째’는 띄어 적습니다.

‘마취의 정도를 점검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간질과 뇌손상의 진단을 돕기 위해서 뇌파를 연구하여 왔다.’라는 문장에서 ‘뿐만 아니라’의 앞은 띄어 쓰는 것이 맞나요, 붙여 쓰는 것이 맞나요?

문의하신 ‘뿐’은 보조사로 사용되었으므로 ‘위해서뿐만 아니라’와 같이 ‘뿐’을 앞말에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위해서뿐만 아니라 · 위해서 뿐만 아니라

뿐
뿐만 아니라

띄어쓰기 규정에서 단위 명사의 경우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순서나 숫자와 함께 쓰이는 경우는 붙여 쓸 수 있다고 하면서 ‘두시 삼십분 오초’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 경우, ‘두시 삼십 분 오 초’를 ‘두시 삼십분 오초’로 쓸 수 있는 것은 순서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숫자와 함께 쓰였기 때문입니까?

한국어로 숫자를 표기할 때는 의존 명사와 띄어 씁니다. 다만 연월일, 시각 등은 붙여 쓸 수 있습니다.

예 두 시 삼십 분 오 초 → 두시 삼십분 오초

또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할 때에도 의존 명사와 붙여 씁니다.

두시 삼십분 오초 · 두시 삼십분 오초

시간
시각
숫자

못되다 · 못하다

못되다
못 되다
못하다
못 하다

‘못되다/못 되다’, ‘못하다/못 하다’가 쓰인 문장들에서 어떤 경우엔 붙여 쓰고 어떤 경우엔 띄어 쓰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못되다’는 ‘성질이나 품행 따위가 좋지 않거나 고약하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를 뜻할 때 쓰는 형용사입니다.

- 예
1. 못된 심보/못되게 굴다.
 2. 그 일이 못된 게 남의 탓이겠어.

또 ‘못 되다’는 부사 ‘못’과 동사 ‘되다’가 결합된 말입니다. ‘되다’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으므로 이 경우의 의미는 ‘되다’의 의미에 ‘못’의 의미가 결합한 것으로 생각하면 될 듯합니다. 따라서 ‘못되다’와 ‘못 되다’의 사용 여부는 문맥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못하다’와 ‘못 하다’의 관계도 비슷한 맥락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부사 ‘못’은 뒤에 나오는 동사의 동작을 할 수 없다거나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고, ‘못하다’는 일정한 수준에 못 미치거나 할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못 되다’의 경우와 같이 ‘못 하다’의 ‘하다’가 대동사로 쓰이고 그 대동사 ‘하다’를 부정하는 ‘못’이 쓰인 경우에는 띄어 쓰는 것이 맞고, 수준에 못 미치거나 능력이 없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라면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할 말을 잃은 경우에는 ‘그 사람은 말을 못 하다.’로, 말을 유창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나 아예 말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람은 말을 못하다.’로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뭐하다/뭐 하다’의 차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와 같은 경우 ‘뭐 하고’를 띄어 쓰는데, ‘어서 가지 않고 뭐 하고 있어?’, ‘여태껏 뭐 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하는 거지?’, ‘아! 너 뭐 하는 놈이야?’와 같은 경우에도 전부 띄어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뭐하다 ·
뭐 하다

뭐하다
뭐 하다
무엇하다
뭐

‘어떤 일 따위에 이용하거나 목적으로 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동사 ‘무엇하다(준말: 뭐하다)’를 써서 ‘그거 사서 무엇하게?’, ‘집에 있지 무엇하러 왔느냐?’, ‘개 전화 번호는 알아서 뭐하려고?’와 같이 표현하고, ‘너 뭐 하고 있는데?’와 같이 상대에 대해 모르는 그 무엇을 물을 때에는 모르는 사실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 ‘뭐’를 써서 ‘뭐 하다’와 같이 표현합니다. 제시하신 문장들은 ‘뭐 하다’와 같이 띄어 쓰는 것이 적절한 문맥입니다.



생산업자(○) 생산 업자(x)

‘생산’ 뒤에, ‘사업’ 또는 ‘산업’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업’이 붙어 만들어진 ‘생산업’ 뒤에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자’를 붙여 ‘생산업자’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럴 만한 · 그럴만한

보조 용언
만하다
듯하다

한 원고에서 전체적으로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붙여 쓰는 것으로 통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붙여서 쓰기로 통일하는 경우에, 보조 형용사 ‘만하다’와 ‘듯하다’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가설을 만들어내지만, 그럴만한 증거가 없는듯하다.’에서 ‘만들어내지만’을 붙여 쓴다면, ‘그럴만한’과 ‘없는듯하다’는 붙여 쓰나요?

보조 용언 ‘만하다’는 ‘그럴 만한(원칙)/그럴만한(허용)’과 같이, ‘듯하다’는 ‘없는 듯하다(원칙)/없는듯하다(허용)’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보조 용언 띄어쓰기의 원칙은 보조 용언을 본용언과 띄어 적는 것이지만, ‘-아/어’ 뒤에 연결되는 보조 용언과 의존 명사 뒤에 ‘하다’, ‘싶다’가 붙어 만들어진 보조 용언은 본용언에 붙어 적는 것을 허용합니다. 허용 표기를 쓰고자 한다면 ‘그럴만한’, ‘없는듯하다’와 같이 쓸 수 있겠지만, 원칙대로 ‘그럴 만한’, ‘없는 듯하다’와 같이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규정: ‘한글 맞춤법’ 제5장, 제3절 띄어쓰기, 제47항)

?!
?

보잘것없다(○) 보잘 것 없다(x)

‘불만한 가치가 없을 정도로 하찮다.’는 뜻의 한 단어이므로 붙여 씁니다.

‘-아·-어’+ 보조 용언

보조 용언
기억해 두다
가 보다
씨 보다

1. ‘-아/어’ 뒤에 붙는 보조 용언을 띄어 쓰는 게 원칙이지만 붙여 써도 괜찮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억해 두다’, ‘음식을 해 주다’의 경우에는 ‘-아/어’가 붙지 않았는데도 붙여 쓰는 게 가능한가요?
 2. ‘가 보다’, ‘씨 보다’의 경우에도 ‘-아’로 끝나지 않는데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1. ‘기억해 두다’, ‘음식을 해 주다’의 ‘해’는 ‘하-+어’가 준 형태입니다. 어미 ‘-아/어/여’는 하나의 형태소이며, 이 형태(異形態)입니다. 하나의 형태소가 주위 환경에 따라 음상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달라진 한 형태소의 여러 모양을 가리켜 이형태라고 합니다. 알고 계신 대로 보조 용언은 본용언과 띄어 적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어/여’ 뒤에 연결되는 보조 용언은 붙여 적을 수 있으므로 ‘기억해 두다/음식(을) 해 주다(원칙)’, ‘기억해두다/음식(을) 해 주다(허용)’와 같이 적을 수 있습니다.
 2. ‘가 보다’, ‘씨 보다’의 ‘가’, ‘씨’는 ‘가- + -아’, ‘쓰- + -어’가 준 형태입니다. 그러므로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에 따라 ‘가 보다/씨 보다(원칙)’, ‘가보다/씨보다(허용)’와 같이 적을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것과 관련하여 ‘한글 맞춤법’ 제4장 형태에 관한 것, 제5절 준말 규정을 두루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간 · 부부 간

부부간 친구 간 형제간 간

‘부부간/부부 간’, ‘친구간/친구 간’, ‘형제간/형제 간’에서 맞는 표기는 어느 것인가요?

‘간’이 일부 명사 뒤에 쓰여 ‘관계’의 뜻을 나타낼 때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씁니다. 따라서 ‘친구 간’과 같이 띄어 씁니다. 다만 ‘부부 간’, ‘형제 간’의 경우 그 쓰임이 인정되어 한 단어로 사전에 올라 ‘부부간’, ‘형제간’이 된 것입니다. 문의하신 ‘부부간’, ‘형제간’ 외에도 ‘동기간’, ‘자매 간’, ‘남매간’은 모두 명사 ‘부부/형제/동기/자매/남매’와 의존 명사 ‘간’이 결합되어 한 단어가 된 합성 명사입니다. 그런데 ‘부부간’, ‘형제간’과 같이 한 단어로 형성된 경우 외에, ‘관계’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 ‘간’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에서와 같이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담당자분(O) 담당자 분(X)

‘-분’은 사람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높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입니다.

‘이번 국문과의 경쟁률이 십 몇 대 일입니까?’

‘국문과 경쟁률이 십몇 대 일이나 돼?’

위 두 문장에서 하나는 ‘몇’을 띄어 쓰고, 하나는 붙여 쓰는 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몇’은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와 의문의 뜻은 없고 ‘얼마 되지 않는 수’라는 뜻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이 의문의 뜻으로 구체적인 수를 물어보는 데에 쓰일 때에는 ‘십 몇’, ‘몇 십’과 같이 쓰고, ‘얼마 되지 않는 수’의 의미로 쓰일 때에는 ‘십몇’, ‘몇십’과 같이 씁니다. ‘이번 국문과의 경쟁률이 십 몇 대 일입니까?’의 ‘십 몇’과 같이 쓴 것은 ‘몇’에 의문의 뜻이 있고 ‘11~19’ 사이의 어느 수인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국문과 경쟁률이 십몇 대 일이나 돼?’의 ‘십몇’과 같이 쓴 것은 ‘몇’에 의문의 뜻이 없고 ‘얼마 되지 않는 수’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몇십 · 몇 십

몇

십 몇

십몇

십 몇 대 일

십몇 대 일



하늘 천 자(○) 하늘 천자(X)

‘자(字)’는 명사로, 앞말과 띄어 씁니다.

안 되다 · 안되다

안 되다 안되다

‘안 되다’와 ‘안되다’의 쓰임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되다’와 ‘안 되다’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부정의 뜻을 지닌 부사 ‘안’과 용언 ‘되다’가 이어진 ‘안 되다’는 ‘안되다’로 굳어져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그러한 경우를 한 단어로 인정하여 ‘(1) 일, 현상, 물건 따위가 이루어지지 않다. (2) 사람이 훌륭하게 되지 못하다. (3) 일정한 수준이나 정도에 이르지 못하다.’라는 세 가지 의미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되다’의 본래 의미가 그대로 살아 있고, ‘안’이 동사 ‘되다’를 부정하는 기능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 예 밥을 굶으면 안 된다.
선거에 출마했지만 당선이 안 되었다.
아직 수업 시간이 안 되어서 천천히 걸었다.
길이가 한 뼘이 안 된다.

?!

여러 가지(o) 여러가지(x)

‘사물을 그 성질이나 특징에 따라 종류별로 낱낱이 헤아리는 말’인 ‘가지’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씁니다. 예 몇 가지

‘있다’의 경우, 사전에 한 단어로 등록된 ‘재미있다’ 같은 단어는 붙여 쓰고, ‘용기 있다’와 같이 한 단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단어는 띄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국어대사전”에 ‘있다’는 ‘-어 있다’와 같이 보조 동사로도 쓰인다고 설명되어 있는데요. 보조 용언의 경우, 띄어서 쓰는 것이 원칙이되 붙여 써도 된다는 규정에 따르면 ‘숨어 있다’, ‘돼 있다’ 같은 경우에는 ‘숨어있다’, ‘돼있다’로 붙여 써도 되는 것인가요?

또 ‘있다’의 사전 설명 중에서 ‘-고 있다’의 구성으로 쓰일 때도 보조 동사로 분류되어 있던데, ‘-고 있다’도 보조 동사로서 ‘숨고 있다’를 ‘숨고있다’로 붙여 쓸 수 있는 것인가요?

-어 있다 ·
-고 있다

숨어 있다
숨어있다
되어 있다
되어있다
숨고 있다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연결해 주는 연결 어미가 ‘-어(예 먹어)’, ‘-아(예 잡아)’, ‘-여(예 하여)’인 경우에 한해서 보조 용언을 붙여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꾸러(꾸리-+어) 나가고’는 붙여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르치려(가르치-+려) 하고’, ‘인정하려(인정하-+려) 들고’, ‘할까(하-+ㄹ까) 봐’ 등은 위에서 언급한 연결 어미가 쓰이지 않은 경우이므로 붙여 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숨어 있다’, ‘되어 있다’는 ‘숨어있다’와 ‘되어있다’로 붙여서 쓰는 것도 허용되지만, ‘숨고 있다’는 붙여서 쓸 수 없습니다.

-ㄴ바·바

어미 의존 명사 -ㄴ바 바

‘바’에 대해서 여쭙 볼게요. ‘~한바, ~된바’ 같은 경우 붙여 써야 하나요, 띄어 써야 하나요?

어미 ‘-ㄴ바’는 어간에 붙여 적고, 의존 명사 ‘바’는 앞말과 띄어 적습니다. 어미 ‘-ㄴ바’는 ‘서류를 검토한바 몇 가지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었다.’와 같이 뒤 절에서 어떤 사실을 말하기 위하여 그 사실이 있게 된 것과 관련된 과거의 어떤 상황을 미리 제시하거나, ‘너의 죄가 큰바 웅당 벌을 받아야 한다.’와 같이 뒤 절에서 어떤 사실을 말하기 위하여 그 사실이 있게 된 것과 관련된 상황을 제시할 때 쓰입니다.

한편, 의존 명사 ‘바’는 ‘이왕 산 중턱까지 온 바에 꼭대기까지 올라갑시다.’, ‘어차피 매를 맞을 바에는 먼저 맞겠다.’와 같이 주로 ‘-은/는/을 바에(는)’ 구성으로 쓰이며, 앞말이 나타내는 일의 기회나 그리된 형편의 뜻을 나타냅니다.



수천억 원(○) 수천억원(X)

‘수’는 ‘몇’, ‘여러’, ‘약간’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므로 뒷말에 붙여 쓰고, ‘원’은 화폐의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씁니다.

‘한글 맞춤법’ 제47항에 보면, 본용언과 보조 용언이 ‘-아/어’로 연결된 경우 띄어 쓰기를 허용한다고 했는데 ‘-어지다’, ‘-어하다’는 붙여 쓴다고 하네요. ‘-어’를 연결 어미로 보아 띄어 써도 될 것 같은데 붙여 쓰는 것은 파생 접사로 보기 때문인가요?

‘-어지다’, ‘-어하다’는 본용언과 보조 용언이 통사적으로 결합한 것이지만, ‘-을 만들다 → -이 만들어지다, -을 세우다 → -이 세워지다’, ‘-이 좋다 → -을 좋아하다, -이 싫다 → -을 싫어하다’와 같이 문법 범주를 바꾸어 피동사, 타동사와 같은 구실을 하게 합니다. 이와 같은 점을 중시하여 ‘-어지다’와 ‘-어하다’는 붙여 쓰도록 한 것입니다.

-어지다 ·
어하다

-어지다
-어하다
만들어지다
좋아하다

‘맞춤법 중에서’와 ‘맞춤법중에서’ 가운데 어느 것이 맞나요?
또 ‘비상 시에/비상시에’, ‘운전 중에/운전중에’, ‘운동장 내에/운동장내에’ 가운데에는 어느 것이 맞나요?

여럿의 가운데를 뜻하는 ‘중’이나 무엇을 하는 동안을 뜻하는 ‘중’, 어떤 일이나 현상이 일어날 때나 경우를 뜻하는 ‘시’, 일정한 범위의 안을 이르는 ‘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맞춤법 중/운전 중’, ‘비행 시’, ‘운동장 내’와 같이 앞말과 띄어 적습니다. 다만 ‘그중’, ‘비상시(非常時)’, ‘사내(社內)’와 같이 하나의 단어로 굳어져 쓰임에 따라 합성어로 인정된 단어들은 모든 음절을 붙여 적어야 합니다.

비행 시 ·
비상시

의존 명사
중
시
내

들 · -들

의존 명사

접미사

들

-들

‘물고기와 곤충 들을 건져 냈어요.’에서 ‘들’을 띄어 써야 맞나요? ‘등’의 의미일 때는 띄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붕어, 개구리, 미꾸라지 들을 담았어요.’에서처럼 십표를 달아 하나하나 나열할 때는 당연히 띄어 쓴다는 건 알겠는데, 가운데가 ‘와’로 연결되는 명사들 뒤에 오는 ‘들’도 띄어 써야 하나요?

‘복수(複數)’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인 ‘-들’은 앞에 나오는 명사에 붙여 씁니다. 그러나 문의하신 표현에서와 같이 두 개 이상의 사물을 나열할 때 그 열거한 사물을 모두 가리키거나, 그 밖에 같은 종류의 사물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일 때의 ‘들’은 의존 명사로 봅니다. 그러므로 ‘책상 위에 놓인 공책, 신문, 지갑 들을 가방에 넣다.’와 같이 띄어 써야 합니다. 문의하신 문장도 ‘물고기와 곤충 들을 건져 냈어요.’와 같이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몸 둘 바를 모르다(○) 몸둘 바를 모르다(X)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모르다.’의 뜻을 나타낼 때 ‘몸 둘 바를 모르다.’와 같이 씁니다.

‘공부가 잘되다.’, ‘공부를 잘한다.’에서 ‘잘되다’, ‘잘한다’의
띄어쓰기가 맞나요?

잘되다 ·
잘하다

문의하신 경우는 부사 ‘잘’이 동사 ‘되다’, ‘하다’를 수식하는 구조가 아니라, 각각 하나의 동사 ‘잘되다’, ‘잘하다’가 쓰인 예이므로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일, 현상, 물건 따위가 썩 좋게 이루어지다.’를 뜻하는 ‘잘되다’는 ‘농사가 잘되다.’, ‘공부가 잘되다.’, ‘훈련이 잘된 군인’, ‘바느질이 잘된 양복’, ‘일이 잘돼 간다.’와 같이 쓰입니다. 그리고 ‘ 좋고 훌륭하게 하다.’를 뜻하는 동사 ‘잘하다’는 ‘공부를 잘하다.’, ‘살림을 잘하다.’, ‘일을 잘하다.’, ‘가정에서 교육을 잘해야 나라가 산다.’와 같이 쓰입니다.

잘되다
잘 되다
잘하다
잘 하다



경멸 조(〇) 경멸조(X)

‘조(調)’는 의존 명사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합니다.

접미사 ‘-여’

접미사

-여

10여 년간

10년여간

1. ‘-여’라는 접미사가 10 이상의 숫자에 붙어 ‘10여’, ‘100여’ 등으로 쓰이는 것은 많이 봐 왔지만 10 미만의 숫자 뒤에 붙어 쓰이는 경우는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가 10 미만의 숫자와는 같이 쓰이지 않는지,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어떤 경우에는 ‘10여 년간’을 ‘10년여간’으로 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 ‘10년여간’이라는 표현도 옳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1. ‘그 수를 넘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여’는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는 붙어 쓰이되, 주로 ‘십여 개, 이십여 년, 40여 개국, 백여 개, 백오십여 개의 기업체, 300여 개의 객석, 오백여 개의 점포들, 1,000여 개의 객실, 일천여 개소의 사업장, 이천여 명의 회원들’과 같이 ‘십’, ‘백’, ‘천’ 단위의 수를 나타내는 말 뒤에 붙어 쓰입니다. ‘-여’가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붙어 쓰이므로 ‘일곱여 개, 아홉여 명’과 같이 십 아래의 수에 쓰일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쓰임은 드뭅니다.

2. ‘-여’, ‘-간’은 접미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적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됩니다. 보기를 들어, 접미사 ‘-여’가 ‘10’, ‘10년’ 뒤에 붙으면 각각 ‘10여 (년)’, ‘10년여’와 같이 적고, 접미사 ‘-간’이 ‘10여 년’, ‘10년여’ 뒤에 붙으면, 각각 ‘10여 년간’, ‘10년여간’과 같이 적습니다.

예를 들면, ‘○○(○○에 관한 설명) 간’에서 괄호가 없다면 ‘○○ 간’ 이렇게 ‘간’을 띄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괄호가 있으면 ‘간’을 괄호 다음에 띄어야 하나요, 붙여야 하나요?

()간의 띄어쓰기

괄호
간
간

‘간’이 다음과 같이 의존 명사로 쓰인 경우는 ‘부자(아버지와 자식) 간에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처럼 ‘() 간’으로 띄어 씁니다. 그러나 ‘간’이 접미사로서 기간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동안’의 뜻을 더하거나(예 이틀간/한 달간/삼십 일간), 몇몇 명사 뒤에 붙어 ‘장소’의 뜻을 더할 경우(예 대장간/외양간)에는 붙여 씁니다.

1. 그렇게 서둘렀는데도 늦었다.
2. 그렇게 서둘렀는 데도 늦었다.

위의 두 문장 중 어느 것이 맞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는데도 ·
-는 데도

‘-는데’는 ‘이다’의 어간이나 받침 없는 형용사 어간, ‘ㄹ’ 받침인 형용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사오-’ 따위 뒤에 붙어서 뒤에 오는 절에서 어떤 일을 설명하거나 묻거나 시키거나 제안하기 위하여 그 대상과 상관되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입니다. 여기에 다시 보조사 ‘도’가 붙은 형태입니다. 따라서 ‘서둘렀는데도’로 붙여 쓰면 됩니다.

-는데도
-는 데도
-는데

**-고 싶다 ·
-고싶다**

**보조 용언
-고 싶다**

맞춤법/문법 검사기를 사용하는데 ‘-고 싶다’를 붙여 쓰면 틀렸다고 나오더군요. 본용언과 보조 용언은 붙여 쓸 수 있지만 예외가 있어서 붙여 쓰지 못할 때도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 싶다’는 어떤 예외로 붙여 쓸 수 없다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사 뒤에서 ‘-고 싶다’ 구성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며, 보조 용언을 붙여 쓸 수 있는 경우는 ‘-아/어’ 뒤에 연결되는 보조 용언이거나 의존 명사에 ‘하다’나 ‘싶다’가 붙어서 된 보조 용언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보조 용언 ‘-고 싶다’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되는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먹음직해 보인다(○) 먹음 직해 보인다(x)

‘음식이 보기에 맛이 있을 듯하다.’의 뜻을 나타내는 형용사 ‘먹음직하다’를 써서 ‘먹음직해 보인다.’와 같이 씁니다.



총인구수(○) 총 인구수(x)

‘인구수’ 앞에 ‘전체를 아우르는’ 또는 ‘전체를 합한’의 뜻을 나타내는 접두사 ‘총-’을 붙여 ‘총인구수’와 같이 씁니다.

‘했나봐’ 등의 띄어쓰기가 어떻게 되나요? ‘좋아한다 그랬다 나봐.’ 등에서 ‘봐’의 띄어쓰기가 혼란스럽습니다.

-나 봐 ·
-나 보다

문의하신 표현에서는 주로 ‘-나 하다’, ‘-나 싶다’, ‘-나 보다’ 구성으로 쓰여 자기 스스로에게 묻는 물음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나’가 쓰인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했나 봐.’, ‘그랬나 봐.’, ‘사랑하나 봐.’와 같이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나 봐
-나 보다
그랬나 봐

예 아침저녁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것을 보니 이제 가을이 되었나 보다.

한편, 보통 동사의 어간 뒤에는 ‘-나 보다’, 형용사의 어간 뒤에는 ‘-(으)ㄴ가 보다’의 형태가 쓰이는데, 이때의 ‘보다’는 보조 형용사의 용법으로 봅니다. 동사나 형용사 ‘이다’ 뒤에서 ‘-은가/는가/나 보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를 추측하거나 어렵듯이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보다’를 어미 ‘-어/아’로 연결되는 보조 용언으로 보기 어려워 앞말과 띄어 쓴 것을 적절한 형태로 보는 것입니다.

예 식구들이 모두 집에 돌아왔나 보다.

-지 못하다 ·
못생기다

-지 못하다
못생기다
못 생기다

‘못’에 관한 띄어쓰기입니다. ‘잘 생기지는 못 하므로/못하므로’, ‘못 생겼다/못생겼다’ 가운데 어느 것이 맞는 표현인가요?

‘-지 못하다’ 구성으로 쓰이는 보조 용언 ‘못하다’의 쓰임이므로 ‘못하므로’와 같이 적습니다. 그리고 ‘생김새가 보통보다 못하다.’를 뜻하는 형용사 ‘못생기다’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적습니다.

온 · 온-

온
온
온 힘
온마리

‘온힘’은 띄어 쓰나요, 붙여 쓰나요?

문의하신 경우에는 ‘전부의. 또는 모두의’를 뜻하는 관형사 ‘온’이 ‘힘’을 꾸미는 구조인 ‘온 힘’으로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꼭 찬 한 달’을 뜻하는 ‘온달’, ‘동물을 가르거나 쪼개지 아니한 통짜’를 뜻하는 ‘온마리’에 쓰인 접사 ‘온-’은 ‘꼭 찬’, ‘완전한’의 뜻을 나타내고, 관형사 ‘온’은 ‘모든’ 정도의 뜻을 나타내어, 둘의 뜻은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고유 명사 띄어쓰기

사전에 나와 있지 않은 공공장소 이름의 띄어쓰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월드컵공원’, ‘예술의전당’, ‘한옥마을’, ‘국립중앙박물관’, ‘광화문광장’ 등의 띄어쓰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유 명사의 띄어쓰기에 대해서는 ‘한글 맞춤법’ 제49항에서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위’란, 그 고유 명사로 일컬어지는 대상물의 구성 단위를 뜻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다시 말하면, 어떤 체계를 가지는 구조물에서, 각각 하나의 독립적인 지시 대상으로서 파악되는 것을 이른다. 예컨대 ‘한국 상업 은행 재동 지점 대부계’는 ‘한국 상업 은행/재동 지점/대부계’의 세 개 단위로 나뉜다.”

따라서 문의하신 고유 명사들은 ‘월드컵 공원/예술의 전당/한옥 마을/국립 중앙 박물관/광화문 광장’으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며, ‘월드컵공원/한옥 마을/국립중앙박물관/광화문광장’으로 붙여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술의 전당’처럼 조사나 용언의 활용형으로 연결된 고유 명사는 ‘예술의전당’으로 붙여 쓸 수 없습니다.

고유 명사
월드컵 공원
월드컵공원
예술의 전당
예술의전당

굴러 들어오다 ·
굴러들어 오다

굴러 들어오다
굴러들어 오다
굴러들어오다

‘굴러들어오다’의 띄어쓰기 원칙을 알고 싶습니다. ‘굴러들다’, ‘들어오다’는 사전에 있지만,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군요.

‘굴러 들어오다/굴러들어 오다’의 띄어쓰기는 의미에 따라 달라집니다. ‘굴러서 들어온다’는 뜻이라면 ‘굴러 들어오다’이고, ‘굴러들어서 온다’는 뜻이라면 ‘굴러들어 오다’로 띄어 써야 합니다.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온다.’는 ‘굴러서 들어온다’는 뜻이므로 ‘굴러 들어온다’로 띄어 쓰지만, ‘어디서 굴러들어 왔는지 모르는 자를 어떻게 믿어?’는 ‘굴러들어서 온다’는 뜻이므로 ‘굴러들어 왔는지’로 띄어 써야 합니다.

내 주다 ·
내주다

보조 용언
동사
내 주다
내주다

아래 예문의 띄어쓰기가 궁금합니다.

1. 시간을 내주셔서/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선생님께서 숙제를 내주셨다/내 주셨다.

제시하신 문장은 동사 ‘내주다’를 쓸 문맥이 아니고, 본용언 ‘내다’와 보조 용언 ‘주다’를 써야 할 문맥입니다. 따라서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에 따라,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내 주셔서’, ‘내 주셨다’와 같이 띄어 적는 것이 원칙이고, ‘내 주셔서’, ‘내주셨다’와 같이 붙여 적는 것이 허용됩니다.

(관련 규정: ‘한글 맞춤법’ 제5장 띄어쓰기, 제3절 보조 용언, 제47항)

1. 한 입 가지고 두말하면 그건 사나이가 아니다.
2. 누구나 신혼여행 하면 제주도가 먼저 떠오르게 마련이다.

여기에서 앞 문장의 ‘하면’은 붙여 쓰는데, 뒷 문장의 ‘하면’은 왜 띄어 쓰나요?

‘두말하다’는 ‘두말+하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합성 동사이므로, 모든 음절을 붙여 써야 합니다. 반면에 ‘신혼여행 하면’의 ‘하면’은 앞의 말이 이야기의 화제가 됨을 나타내는 동사이므로,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써야 한다는 맞춤법 규정에 따라서 앞말과 띄어서 써야 합니다.

두말하면 ·
하면

두말하다
두말하면
하다
하면

‘따라’는 조사만 나와 있습니다. ‘-을 따라 하다’ 또는 ‘-을 따라하다’로 쓸 경우가 있는데, ‘따라하다’와 같이 동사화해서 붙여 써도 되나요? 아니면 ‘따라 하다’와 같이 띄어서 써야 하나요? 이때 품사는 무엇인가요?

‘-을 따라 하다.’는 ‘-을 따라서 하다.’는 뜻으로, 이때 ‘따르다’와 ‘하다’는 각각 동사입니다. 따라서 ‘따라 하다’와 같이 띄어 적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 하다 ·
따라하다

따라 하다
따라하다
따라서 하다

‘실천’입니다 ·
‘실천입니다

따옴표
인용
조사
‘실천’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실천’입니다.’에서처럼 ‘실천’ 뒤에 띄어쓰기를 해야 하나요? 앞쪽 따옴표와 그 앞에 있는 말은 띄어 쓰는 게 이해됩니다. 그러나 뒤쪽 따옴표와 ‘입니다’는 따옴표와 안의 말을 하나의 낱말로 보아 붙여 쓰는지 아니면 따옴표를 확실히 구분하기 위해 앞뒤를 띄어 쓰는지 설명해 주세요.

따옴표로 이어지는 문장이라고 해서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야 할 문장 성분을 띄어 쓰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문의 하신 문장은 ‘지금 필요한 건 ‘실천’입니다.’와 같이 쓰면 됩니다.

실행하십시오 ·
동작하십시오

실행하다
동작하다
실행하십시오
동작하십시오

‘실행 하십시오.’, ‘동작 하십시오.’와 같은 표현의 경우 ‘실행하다’, ‘동작하다’에 높임법을 쓴 것인데, 띄어 쓰는 것이 맞나요, 붙여 쓰는 것이 맞나요?

‘실행을 하다.’, ‘동작을 하다.’의 하십시오체는 ‘실행을 하십시오.’, ‘동작을 하십시오.’와 같이 쓰지만, 동사로서 한 단어인 ‘실행하다’, ‘동작하다’의 하십시오체 활용형은 ‘실행하십시오.’, ‘동작하십시오.’와 같이 씁니다.

‘만’이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면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쓰고 조사이면 붙여 쓴다고 알고 있는데요. 조사로 쓰이는 건 ‘오직’의 뜻을 갖는 경우인가요? 그러면 ‘일 년만 있으면 온다.’의 경우는 ‘시간의 경과’로 보아 띄어 쓰는지 ‘오직’의 뜻으로 보아 붙여 쓰는지 궁금합니다.

‘만’이 의존 명사로 쓰이는 것은 동안이 얼마간 계속되었음을 나타낼 때입니다.

- 예 십 년 만의 귀국
친구가 도착한 지 두 시간 만에 떠났다.
그때 이후 삼 년 만이다.
도대체 이게 얼마 만인가.

그러나 문의하신 문장 ‘일 년만 있으면 온다.’에 쓰인 ‘만’은 화자가 기대하는 마지막 선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쓰였기에 앞말에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무의식중에(○) 무의식 중에(X)

‘자기도 모르는 사이’를 이르는 ‘무의식중’은 ‘무의식’과 ‘중’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 명사입니다. 따라서 그 뒤에 조사 ‘에’가 붙으면 ‘무의식중에’와 같이 적습니다. 반면, ‘무엇을 하는 동안’이라는 뜻의 ‘중’은 앞말과 띄어 씁니다.

- 예 근무 중/수업 중/회의 중/식사 중/그러던 중

살짝요 · 살짝이요

살짝요
살짝이요
요
이요

‘살짝이요.’라고 할 때, 띄어 쓰는 것이 맞는지 붙여 쓰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보조사 ‘요’는 종결 어미 뒤에 붙으므로, 서술격 조사 ‘이다’의 어간 ‘이-’ 뒤에 어미를 결합하지 않고 보조사 ‘요’를 붙여 ‘이요’처럼 쓰는 것은 옳바르지 않습니다. 문의하신 경우는 체언이나 부사어, 연결 어미 등의 뒤에 붙어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요’를 써서 ‘살짝요’처럼 쓰는 것이 맞습니다.

예 마음은요 더없이 좋아요.
어서요 읽어 보세요.
그렇게 해 주시기만 하면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눈코 뜰 새 없다(○) 눈코 뜰새없다(x)

‘정신 못 차리게 몹시 바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관용구는 ‘눈코 뜰 사이 없다.’입니다. 다만 ‘새’는 ‘사이’의 준말이므로, ‘눈코 뜰 새 없다.’처럼 적을 수 있습니다.

명사형 외래어와 ‘하다’, ‘되다’를 같이 붙여 쓰는 예가 많은데, 이럴 경우 기본적인 외래어 표기의 띄어쓰기 원칙에 따라서 외래어와 우리말을 구분하기 위해 띄어 써야 하는지, 붙여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모니터링하다’의 경우, ‘모니터링을 하다’로 보고 띄어 써야 하는지, ‘모니터링하다’로 붙여 써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모니터링하다 ·
모니터링을 하다

외래어
모니터링하다
모니터링을 하다

외래어의 띄어쓰기 원칙은 일반어, 전문어의 띄어쓰기 원칙을 모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래어와 고유어를 구분하기 위해 띄어 쓰지는 않으며, 접사가 외래어와 함께 쓰일 경우에도 일반 띄어쓰기 원칙과 같이 생각해 붙여 씁니다. ‘모니터링’은 명사인데, 이 말에 접사 ‘-하다’를 붙이면 ‘모니터링하다’가 됩니다. ‘하다’의 기능 때문에 ‘모니터링하다’는 동사로 봅니다. 한편, ‘모니터링을 하다’로 쓰는 것도 가능한데, 이때는 접사가 아닌 일반 동사 ‘하다’의 목적어에 ‘모니터링’이 온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동사로 ‘청소하다’, ‘공부하다’를 쓸 수 있지만, 동사구의 형태로 ‘청소를 하다’, ‘공부를 하다’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한 것을 생각해 보면 같은 예임을 알 수 있습니다.



환기 시(O) 환기시(X)

일부 명사 뒤에 쓰여, 어떤 일이나 현상이 일어날 때나 경우를 뜻하는 의존명사 ‘시’는 앞말과 띄어 적습니다.

몇 번 · 몇번

몇 번 몇번

‘몇번’과 ‘몇 번’ 중 어느 것이 맞나요?

관형사 ‘몇’과 의존 명사 ‘번’은 각각의 단어이므로 ‘몇 번’과 같이 띄어 씁니다.

참고로 ‘수(數)’와 관련하여 쓰이는 ‘몇’은 의문의 뜻인 경우와 의문의 뜻이 없고 ‘얼마 되지 않는 수’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이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만 관형사는 뒷말과 띄어 쓴다는 원칙대로 띄어 쓰고, ‘얼마 되지 않는 수’의 의미로 쓰일 때에는 다음과 같이 씁니다.

1. 뒤에 숫자 표현이 오는 ‘몇’은 그 뒤의 숫자와 붙여 씁니다.

예 몇십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

2. 앞에 숫자 표현이 오는 ‘몇’도 그 앞의 숫자와 붙여 씁니다.

예 십몇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다.

3. 앞뒤로 숫자 표현이 오면 뒤의 숫자와만 붙여 쓰고 앞의 숫자와는 띄어 씁니다.

예 사상자가 삼만오천 몇백 명에 달한다.

새벽녘 · 해 질 녘

새벽녘
해 질 녘
해질녘

‘해질녘’이라는 단어를 붙여 쓰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책에서 ‘해 질 녘’으로 띄어 쓴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형태인 ‘새벽녘’은 국어사전에 있는데 ‘해질녘’은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지 않더군요. ‘해질녘’을 단일어로 붙여 써야 하나요, 아니면 ‘해 질 녘’으로 띄어 써야 하나요?

‘새벽녘’은 명사 ‘새벽’과 명사 ‘녘’이 결합되어 ‘날이 셀 무렵’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합성어이므로 모든 음절을 붙여 써야 합니다. 그러나 문의하신 ‘해 질 녘’은 명사 ‘해’와, ‘해나 달이 서쪽으로 넘어가다.’의 뜻을 나타내는 동사 ‘지다’의 관형사형 ‘질’과, 어미 ‘-을’ 뒤에 쓰여 어떤 때의 무렵을 나타내는 의존명사 ‘녘’이 이어진 구성으로, 합성어가 아니기 때문에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쓴다는 원칙에 따라 ‘해 질 녘’처럼 띄어 써야 합니다.



구 특허법(○) 구특허법(X)

‘지난날의. 지금은 없는’의 뜻을 나타내는 관형사 ‘구(舊)’는 뒤에 오는 말과 띄어 적습니다. **예** 구 시민 회관/구 대한 청년단

들어가 봐야 · 들어가봐야

합성 동사
보조 용언
들어가 봐야
들어가봐야

본용언과 보조 용언은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책에는 ‘본용언이 복합어일 경우에는 붙여 쓰면 안 된다.’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들어가 봐야 알지.’에서 ‘들어가다’는 ‘들다’와 ‘가다’의 복합어이므로 보조 용언 ‘보다’를 붙여 써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먹고 싶어 하다.’의 보조 용언 ‘하다’를 띄어 쓰는 이유와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정식 규정인가요?

‘한글 맞춤법’ 제5장 띄어쓰기, 제3장 보조 용언, 제47항, ‘다만’에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동사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다’, ‘떠내려가다’, ‘덤벼들다’와 같은 합성 동사 뒤에 보조 용언이 오는 경우에는 ‘들어가 봐야’, ‘떠내려가 버렸다.’, ‘덤벼들어 보아라.’와 같이 띄어 적습니다. 이처럼 합성 동사 뒤에 연결되는 보조 용언을 붙여 쓰지 않도록 한 것은 그 표기 단위가 길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대모험(○) 대 모험(X)

‘큰, 위대한, 훌륭한, 범위가 넓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대-’는 뒷말과 붙여 적습니다.

‘쓸 데 없다’와 ‘쓸모없다’의 띄어쓰기에 대해 문의합니다. ‘쓸 데 없다’는 세 개의 낱말(쓰다, 데, 없다)로 이루어져 각각 띄어 써야 하지만, ‘쓸모없다’는 하나의 낱말로 굳어져 붙여 써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쓸 만한 가치가 없다.’는 뜻을 나타내는 형용사 ‘쓸모없다’와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공연한 싸움만 일으키느냐?’와 같이 쓰이는 ‘아무런 쓸모나 득이 될 것이 없다.’의 뜻을 나타내는 형용사 ‘쓸데없다’는 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종이에 글씨를 쓸 곳이 없다.’, ‘서류의 원본과 부분 중 부분은 사용할 일이 없다.’와 같은 문맥에서는 동사 ‘쓰다’, 의존 명사 ‘데’, 형용사 ‘없다’를 쓰므로, ‘종이에 글씨를 쓸 데가 없다.’, ‘서류의 원본과 부분 중 부분은 쓸 데가 없다.’와 같이 띄어 적습니다.

쓸모없다 ·
쓸데없다 ·
쓸 데가 없다

쓸데없다
쓸 데가 없다
쓸모없다



큰 외삼촌(○) 큰 외삼촌(x)

‘큰-’이 항렬상 ‘말이’의 뜻을 나타낼 때는 접두사로 쓰인 것이므로 뒤에 오는 말과 붙여서 씁니다.

성명의 띄어쓰기

고유 명사
전문 용어
홍길동

성명의 띄어쓰기가 궁금합니다.

1. 포항시의회의원 홍 길 동
2. 포항시의회의원 홍길동
3. 포항시의회 의원 홍 길 동
4. 포항시의회 의원 홍길동

이 네 가지 중 어느 것이 맞나요?

성과 이름은 붙여 쓰고,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붙여 쓸 수 있으며,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는 ‘한글 맞춤법’ 제5장 띄어쓰기, 제4절 제48, 49, 50항을 참고하여, ‘포항 시 의회 의원 홍길동(원칙)’, ‘포항 시의회 의원 홍길동/포항시의회 의원 홍길동(허용)’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

한 잔(○) 한잔(○)

‘한 잔’을 ‘두 잔’ 또는 ‘석 잔’ 등으로 바꾸어 쓸 수 있는 상황에서는 ‘한 잔’과 같이 띄어 적고, ‘한 차례 마시는 술’의 뜻을 나타낼 때는 ‘한잔’으로 붙여 씁니다.

예 술 한잔 하자.

우리말 · 우리 말

우리말 우리 말

‘우리말’이란 단어는 붙여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말’이란 표현이 우리 한국어에만 해당하는 거의 고유 명사 급의 표현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이 자기 나라 말에 대해 말할 때도 ‘우리말’이라고 붙여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본인이 외국인 신부에게 “신부님도 우리말을 꽤 하시네요.”라고 할 경우, ‘우리말’의 띄어쓰기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말’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사람의 말’을 이르는 말로, 여기서 ‘우리나라’는 ‘우리 한민족이 세운 나라를 스스로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말’이 ‘자국의 말’이라고 뜻풀이되지 않는 한,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의 말’을 뜻하는 ‘우리말’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우리말’보다는, 일부 명사 앞에 쓰여 말하는 이가 자기보다 높지 아니한 사람을 상대하여 어떤 대상이 자기와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 쓰는 ‘우리’를 사용하여 ‘우리 말’과 같이 표현했다고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부산행 열차(○) 부산 행 열차(x)

‘-행’이 ‘그곳으로 향함’의 뜻을 더할 때는 접미사이므로 앞말과 붙여 씁니다. ‘부산행 열차’라는 표현보다는 ‘부산 가는 열차’로 표현하는 것이 더 우리말답습니다

예쁜 데다가 · 예쁜데다가

예쁜 데다가

예쁜데다가

-ㄴ 데다가

-ㄴ데다가

1. 영화는 예쁜데다가 똑똑하다.

2. 영화는 예쁜 데다가 똑똑하다.

위의 두 문장 가운데 띄어쓰기가 맞는 것은 어느 문장인가요?

‘영화는 예쁜 데다가 똑똑하다.’로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문의하신 문장은 ‘예쁘다’는 사실에 덧붙여 ‘똑똑하다’는 사실을 말하므로, 이어지는 말이 앞말과 다른 방향이거나 상반된 내용임을 나타내는 어미 ‘-ㄴ 데’에 강조의 ‘다가’가 결합한 쓰임으로 보기는 어렵고, ‘예쁘다’의 관형형 ‘예쁘-+ㄴ’ 뒤에 의존 명사 ‘데’가 오고 그 뒤에 ‘앞말이 무엇이 더하여지는 뜻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에’와 강조의 ‘다가’가 결합하여 축약된 말로 보아야 합니다.

?!

그렇듯하게(○) 그럴 듯 하게(X)

형용사 ‘그렇듯하다’의 활용형은 ‘그렇듯하게’와 같이 적습니다.

‘좀더’는 두 개의 부사가 겹쳐진 것으로, 붙여 쓰는 걸로 아
는데요. 실제로는 ‘좀 더’와 같이 띄어 쓴 경우가 대다수이더군
요. 어느 것이 맞나요?

좀 더 · 좀더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은 ‘좀’과 ‘더’를 각각의 단어로 보
므로, 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좀 더’와 같이 띄어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때 그곳/좀더 큰것/이말 저말/한잎 두
잎’과 같이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하므로, ‘좀더’와 같이 붙여 적는 형태도 쓰
일 수 있습니다.

좀 더
좀더 큰것
좀
더

(관련 규정: ‘한글 맞춤법’ 제5장 띄어쓰기, 제2절, 제46항)

‘하루이틀도 아니고 말이지.’라고 할 때 ‘하루이틀’은 붙여 써
도 될까요? ‘한두 개도 아니고 말이지.’는 붙여 쓰니까 ‘하루이
틀’도 붙여 써야 될 듯한데요.

한두 ·
하루 이틀

‘한두’는 일부 단위를 나타내는 말 앞에 쓰여 그 수량이
하나나 둘임을 나타내는 관형사로, 합성어이므로 모든 음
절을 붙여 적습니다. 하지만 ‘하루’와 ‘이틀’은 각각의 단어
이므로, ‘하루 이틀’과 같이 띄어 적어야 합니다.

한두
하루이틀
하루 이틀

-상 · -하

접미사
전제하
의미상
-하
-상

‘한국이 이겼다는 전제하에 일본은 2승이 필요하다.’는 표현에서 ‘전제하’는 사전에 없는 말인데, 그렇다면 ‘전제 하’와 같이 띄어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의미상 다른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에서 ‘의미상’도 ‘의미 상’으로 띄어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하’, ‘-상’과 같은 말들은 접미사로 사용한 것 같은데, 이런 말을 붙여서 한 단어처럼 써도 되는지요? 사전에 없지만 흔히 쓰는 자연스러운 표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것과 관련된 조건이나 환경’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하’, ‘그것과 관계된 입장’ 또는 ‘그것에 따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상’은 파생력이 있으므로, ‘전제하’, ‘의미상’과 같이 단어를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물체의 아래나 위를 나타내는 ‘하’나 ‘상’은 앞말과 띄어 씁니다.

?!
?

상하 귀천(○) 상하귀천(×)

‘상하’와 ‘귀천’은 현재 ‘상하귀천’과 같이 한 단어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상하 귀천’으로 띄어 씁니다.

‘불만한/불 만한’의 띄어쓰기가 궁금합니다.

불만한 ·
불 만한

‘구경거리가 될 만하다.’, ‘보고 얻을 것이 많거나 또는 볼 가치가 있다.’의 뜻을 나타내는 형용사 ‘불만하다’는 한 단어이므로, 모든 음절을 붙여 적습니다.

예 불만한 풍경

이 광장에서는 근위병이 교대하는 광경이 불만하다.
두 사람이 길거리에서 욕을 하며 싸우는 광경은 불만했다.

불만하다
불 만하다
불 만한
불만한

한편 ‘불 만한’은 본용언 ‘보다’ 뒤에 보조 용언 ‘만하다’가 이어진 구성으로,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한글 맞춤법’ 제47항)에 따라 ‘불 만 한’과 같이 띄어 적는 것이 원칙이고, ‘불만한’과 같이 붙여 적는 것도 허용합니다.



사랑할 거야(○) 사랑할거야(X)

‘거’는 의존 명사 ‘것’의 구어형입니다. ‘사랑하다’의 관형형 ‘사랑할’과 의존 명사 ‘거’는 띄어 써야 합니다.

명목 GNP · 명목GNP

명목 국민 총생산

명목국민총생산

명목 GNP

명목GNP

경제 용어인데요. ‘명목국민총생산’의 약어가 ‘명목GNP’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명목국민총생산’을 모두 붙여 쓰면 ‘명목 GNP’도 붙여 쓸 수 있나요? 아니면 한글과 외국어의 조합이라서 ‘명목 GNP’로 띄어 쓰는 게 맞나요?

‘명목 국민 총생산’과 같이 띄어 적는 것이 원칙이지만, 편의상 ‘명목국민총생산’과 같이 붙여 쓰이는 전문 용어가 있다면, 이에 준하여 ‘명목GNP’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제우스 님 · 제우스님

님

-님

제우스 님

제우스님

‘님’이 접사도 있고 명사도 있잖아요. ‘제우스님’의 경우에는 띄어 쓰나요, 붙여 쓰나요?

의존 명사 ‘님’과 접사 ‘-님’의 쓰임을 참고할 때,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람의 성이나 이름 다음에 쓰여 그 사람을 높여 이르는 말인 의존 명사 ‘님’을 써서 ‘제우스 님’과 같이 적는 것이 맞습니다.

“안 돼!” 할 때에 ‘안 돼’와 같이 띄어 써야 하나요? 아니면 ‘안돼’처럼 붙여 쓰나요?

안돼 · 안 돼

‘일, 현상, 물건 따위가 좋게 이루어지지 않다.’의 뜻을 나타내는 동사 ‘안되다’와 ‘근심이나 병 따위로 얼굴이 많이 상하다.’의 뜻을 나타내는 형용사 ‘안되다’는 한 단어이므로, ‘장사가 안돼 걱정이다./안색이 안돼 보여서 보약을 지어 보냈다.’와 같이 ‘안돼’를 붙여 적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돼.’와 같이 부사 ‘안’이 동사 ‘되다’의 뜻을 한정하는 구조에서는 부사 ‘안’과 동사 ‘되다’의 활용형 ‘돼’가 각각의 단어이므로, ‘안 돼’와 같이 띄어 적습니다.

안돼
안 돼!
안되다
안 되다

‘보란 듯이 성공할 거야.’라는 말을 자주 하잖아요. 여기에서 ‘보란 듯이’는 의존 명사 ‘듯이’ 또는 어미 ‘-듯이’ 중 어느 뜻으로 해석되나요? 띄어쓰기도 확인해 주세요.

보란 듯이 · 보란듯이

‘보란 듯이’는 동사 ‘보다’의 어간 ‘보-’ 뒤에 ‘-라고 하는’이 줄어든 말인 ‘-란’이 붙은 ‘보란’ 뒤에, 어미 ‘-은/-는/-을’ 뒤에 쓰는 의존 명사 ‘듯이’가 온 것입니다. 따라서 ‘보란 듯이’와 같이 ‘보란’과 ‘듯이’를 띄어 적어야 합니다.

보란 듯이
보란듯이
듯이
-듯이

한정식 집 . 한정식집

한정식집
한정식 집
갈빗집
꽃집

한정식을 파는 음식점을 ‘한정식 집’처럼 띄어 써야 하나요,
‘한정식집’처럼 붙여 써야 하나요?

‘한정식집’은 사전에 한 단어로 올라 있지 않지만, 물건을 팔거나 영업을 하는 가게를 나타내는 ‘집’이 ‘갈빗집/고깃집/꽃집/피자집’과 같이 앞말에 붙어 쓰이므로, 이 쓰임을 따라 ‘한정식집’과 같이 적습니다.

한 걸음 . 한걸음

한 걸음
한걸음

‘한걸음 한걸음 내딛는 일이 보물찾기를 하는 것 같지요.’에서 ‘한걸음’은 띄어 써야 하나요?

제시하신 문장에는 관형사 ‘한’이, 두 발을 번갈아 옮겨놓는 횟수를 세는 단위인 ‘걸음’을 꾸미는 구조인 ‘한 걸음’을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참고로, 명사 ‘한걸음’은 ‘기쁜 소식을 전하러고 집까지 한걸음에 뛰었다.’와 같이 ‘쉬지 아니하고 내쳐 걷는 걸음이나 움직임’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데’를 띄어 쓰는 경우와 붙여 쓰는 경우가 늘 헷갈려요. 확실히 구분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래 문장에서는 어느 경우가 맞나요?

1. 사과가 10개 있는데 5개를 먹었어.
2. 사과가 10개 있는 데 5개를 먹었어.

어미 ‘-는데’를 쓸지, 의존 명사 ‘데’를 쓸지는 문맥에 따라 판단합니다. 뒤 절에서 어떤 일을 설명하거나 묻거나 시키거나 제안하기 위하여 그 대상과 상관되는 상황을 앞 절에서 미리 말할 때에는 연결 어미 ‘-는데/-ㄴ 데’를, ‘곳, 장소, 일, 것, 경우’ 등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의존 명사 ‘데’를 씁니다. 이때 ‘데’ 앞에는 관형사형이 놓입니다. (예 집에 가는 데에 옷 가게가 있다.)

문의하신 것은 ‘사과가 열 개 있는데 다섯 개를 먹었어.’와 같이 씁니다. 이 문장은 뒤 절 ‘(사과) 다섯 개를 먹었다.’에서 어떤 일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 것과 관련 있는 상황을 앞 절 ‘사과가 열 개 있다.’에 연결 어미 ‘-는데’를 붙여 ‘사과가 열 개 있는데’와 같이 써서 뒤 절과 연결한 경우입니다.

있는데 ·
있는 데

어미
의존 명사
-는데
데



더 이상(○) 더이상(X)

‘더 이상’으로 띄어 씁니다. 다만, ‘더 이상 바랄 게 없다.’에서처럼 대체로 ‘더’와 ‘이상’이 의미상 중복되므로 ‘더 이상’을 ‘더는’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일남 일녀 · 1남 1녀

1남 1녀 일남 일녀

자녀 수를 말할 때 ‘1남1녀’로 붙여 쓰는지, ‘1남 1녀’로 띄어 쓰는지 궁금합니다.

아들 한 사람을 이르는 ‘일남’과 딸 한 사람을 이르는 ‘일녀’는 각각의 단어입니다. 따라서 ‘일남 일녀’와 같이 띄어 적습니다. 이는 ‘일’을 ‘1’로 표기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1남 1녀’로 적습니다.

관련짓다 · 구분 짓다

관련짓다 관련 짓다 구분짓다 구분(을) 짓다

흔히 ‘관련 짓다’, ‘구분 짓다’처럼 ‘짓다’ 앞의 목적어에서 목적격 조사를 빼고 쓰잖아요. 이때 ‘짓다’를 접사의 개념으로 보고 앞의 말과 붙여 써도 되나요?

‘관련짓다’, ‘구분(을) 짓다’와 같이 쓰시기 바랍니다. 한 단어로 굳어져 쓰임에 따라 합성어로 인정된 ‘갈래짓다, 결론짓다, 결말짓다, 결정짓다, 관련짓다, 규정짓다, 농사짓다, 눈물짓다, 매듭짓다, 반짓다, 종결짓다, 죄짓다, 줄짓다, 짝짓다, 척짓다, 축짓다, 특징짓다, 편짓다, 한숨짓다, 환짓다, 회짓다’ 등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음절을 붙여 적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어 ‘무엇(을)’과 서술어 ‘짓다’를 띄어 적습니다.

‘모든 세세한 일은 확대경 아래서 이루어질 걸세.’에서 ‘걸’ 앞을 띄어 쓰고 있는데요. 아마도 ‘ㄴ 걸’을 의존 명사로 파악한 것 같습니다. ‘이루어질 것이다.’의 뜻으로요. 그런데 “표준국어 대사전”을 찾아보면 ‘-르걸’이라는 종결 어미가 있더군요. 혹시 이 문장도 종결 어미 ‘-르걸’이 쓰인 것으로 봐서 ‘이루어질 걸세.’와 같이 붙여 써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르걸’이 종결 어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붙여서 쓰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문의하신 ‘이루어질 걸세.’의 경우는 뒤에 ‘세’라는 종결 어미가 있기 때문에 ‘ㄴ’과 ‘걸’의 연쇄를 종결 어미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루어질 걸세.’는 ‘이루어질 것일세.’의 준말로 보아 띄어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이루어질걸세 ·
이루어질 걸세

-르걸
것일세
걸세

1. 마음을 열려고 할수록 그는 더 멀어져 간다.
2. 이 일은 그가 할 수밖에 없다.

위의 두 문장에서 ‘수’는 서로 다른 성분인가요? 저는 1번도 ‘할 수록’으로 띄어 써야 할 것 같은데요.

‘할수록’의 ‘-르수록’은 앞 절 일의 어떤 정도가 그렇게 더하여 가는 것이, 뒤 절 일의 어떤 정도가 더하거나 덜하게 되는 조건이 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므로, ‘하다’의 어간 ‘하-’에 붙여 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밖에’의 ‘수’는 의존 명사이므로, 그 앞에 놓인 관형어 ‘할’과 띄어 써야 합니다.

할수록 ·
할 수록

할수록
-르수록
할 수밖에
수

데 · -ㄴ데

의존 명사
연결 어미
데
-ㄴ데

얼마 전에 선생님께서 제가 쓴 글의 띄어쓰기를 지적하셨습니다. ‘신문 헤드라인에 있는 기사는 현재 사회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사건이 분명한데 저는 그런 사건이 왜 발생하고 왜 중요한지, 무엇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라는 문장에서 ‘분명한데’를 ‘분명한 데’로 띄어 써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데’로 띄어 써야 한다면 그 이유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앞말과 띄어 쓰는 ‘데’는 ‘곳’이나 ‘장소’의 뜻을 나타내거나(예 올 데 갈 데 없는 사람/지금 가는 데가 어디인데?), ‘일’이나 ‘것’의 뜻을 나타내거나(예 사람을 돕는 데에 애 어른이 어디 있겠습니까?/그 사람은 오직 졸업장을 따는 데 목적이 있다.), ‘경우’의 뜻을 나타내는(예 머리 아픈 데 먹는 약/이 그릇은 귀한 거라 손님 대접하는 데나 쓴다.) 의존 명사입니다.

그런데 보이신 문장의 ‘데’는 의존 명사 ‘데’의 쓰임이라기보다는 형용사 어간 ‘분명하-’ 뒤에 붙어 뒤 절에서 어떤 일을 설명하거나 묻거나 시키거나 제안하기 위하여 그 대상과 상관되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 ‘-ㄴ데’가 쓰인 것으로 보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러울 듯합니다. 연결 어미 ‘-ㄴ데’의 용례를 보이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예 여기가 우리 고향인데 인심 좋고 경치 좋은 곳이지.
날씨가 추운데 외투를 입고 나가거라.
그 사람이 정직하기는 한데 이번 일에는 적합하지 않다.

‘김장훈식 콘서트’, ‘강호동식 예능’, ‘신동엽식 재치’ 등에서 ‘-식’은 띄어쓰기를 해야 하나요? 즉 ‘김장훈 식 콘서트’, ‘강호동 식 예능’, ‘신동엽 식 재치’인지 궁금합니다.

김장훈식 ·
김장훈 식

제시하신 보기에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방식’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식’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식’과 같이 쓰시기 바랍니다.

접미사
-식
○○○식



오래 전(○) 오래 전(X)

‘전’이 ‘이전’의 뜻을 나타낼 때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이 경우는 ‘오래전’이 한 단어로 의미가 굳어져 붙여 씁니다.

알아 두면 유용한 외래어 표기 ②

원어	맞는 표기	틀린 표기	설명
corsage	코르사주	코사지	장신구의 하나로, 여성의 옷깃, 가슴, 허리 등에 다는 꽃묶음을 이르는 프랑스어는 ‘코르사주’입니다. 이 말은 ‘맵시꽃’으로 바뀌 쓸 수 있습니다.
Chirashi	지라시	찌라시	‘지라시’는 ‘선전지’, ‘날장 광고’로 바뀌 쓸 수 있습니다.
fast food	패스트푸드	페스트푸드	‘패스트푸드’는 ‘즉석식’으로 바뀌 쓸 수 있습니다.
post-it	포스트잇	포스트일	‘포스트잇’은 ‘붙임쪽지’로 바뀌 쓸 수 있습니다.
fried chicken	프라이드치킨	후라이드치킨	‘프라이드치킨’은 ‘닭고기튀김’으로 바뀌 쓸 수 있습니다.
ad lib	애드리브	애드립	‘ad lib’는 어말과 모든 자음 앞에 오는 유성 파열음 ([b], [d], [g])은 ‘으’를 붙여 적는다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애드리브’로 적습니다. 이 말은 ‘즉흥 대사, 즉흥 연기, 즉흥 연주’로 바뀌 쓸 수 있습니다.
placard	플레카드	플랜카드	‘플레카드’는 ‘현수막’으로 바뀌 쓸 수 있습니다.
presentation	프레젠테이션	프리젠테이션	‘시청각설명(회)’으로 바뀌 쓸 수 있습니다.
license	라이선스	라이센스	‘면허(장), 허가(장), 사용권’으로 바뀌 쓸 수 있습니다.
lucky	러키	럭키	‘행운’으로 바뀌 쓰는 것이 좋습니다.
message	메시지	메세지	상황에 따라 ‘교서, 성명서, 전갈’로 바뀌 쓸 수 있습니다.
sunglass	선글라스	썬글라스	‘색안경’으로 바뀌 쓸 수 있습니다.
center	센터	센타	우리말로 바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수도 cock	수도 콕	수도 콕크	‘수도꼭지’라는 말이 있으므로 굳이 ‘수도 콕’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agenda	어젠다	아젠다	‘의제’로 바뀌 쓸 수 있습니다.
concept	콘셉트	컨셉	‘개념, 관념’으로 바뀌 쓸 수 있습니다.
contents	콘텐츠	컨텐츠	‘내용(물), 꾸림정보’로 바뀌 쓸 수 있습니다.
complex	콤플렉스	컴플렉스	‘열등감, 욕구 불만, 강박 관념’으로 바뀌 쓸 수 있습니다.

3

날말

곱절과 갑절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갑절은 사전에서 보면 ‘배’의 의미를 나타내는데요. 곱절과의 쓰임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두 갑절’, ‘두 곱절’ 중 어느 것이 맞는 표현입니까? 저는 곱절은 3배수 이상일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갑절’은 ‘어떤 수나 양을 두 번 합한 만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곱절’은 ‘어떤 수나 양을 두 번 합한 만큼’의 뜻으로도 쓰이고, ‘세 곱절, 여러 곱절’처럼 ‘일정한 수나 양이 그 수만큼 거듭됨을 이르는 말’의 뜻으로도 쓰입니다. 따라서 ‘두 배’의 뜻으로는 ‘갑절’과 ‘곱절’을 다 쓸 수 있고, ‘몇 배’의 뜻으로는 ‘곱절’을 씁니다.

갑절 · 곱절

갑절

곱절

세 곱절

여러 곱절



귀국(歸國)

외국에 나가 있던 사람이 자기 나라로 돌아오거나 돌아감.

입국(入國)

자기 나라 또는 남의 나라 안으로 들어감.

각 · 각각

각
각각
날날의
따로따로

아래 문장에서 ‘각’이란 단어를 ‘각각, 각’ 중 어느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이하 ‘이 사건 근로자1’이라 한다.)은 1989. 5. 1., ×××(이하 ‘이 사건 근로자2’라 하며, 모두를 말할 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1998. 8. 10. (각) 00회사에 입사하여 영업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8. 11. 9.과 2008. 12. 25.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정직 3개월의 (각) 징계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징계 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자이다.’

관형사 ‘각’은 ‘날날의(여럿 가운데 하나하나의)’라는 뜻을 나타내고, 부사 ‘각각(‘따로따로’로 순화)’은 ‘사람이나 물건의 하나하나마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보이신 문장의 의미가 ‘근로자 1과 근로자 2가 따로따로 입사하다, 근로자 1과 근로자 2가 따로따로 징계 처분을 받다’라는 뜻이라면, ‘(회사에) 입사하다, (징계 처분을) 받다’를 수식하는 부사 ‘각각’을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음 문장에서 ‘자기 개발/계발’ 중에 어떤 게 맞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가 전해 드리는 ‘자기 개발/자기 계발’ 소식입니다.’에서 ‘개발’과 ‘계발’ 중 어느 것이 맞나요?

개발 · 계발

개발
계발

문의하신 ‘자기 개발’과 ‘자기 계발’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발’은 ‘지식이나 재능 따위를 발달하게 함.’이란 뜻으로 쓰며, ‘계발’은 ‘슬기나 재능, 사상 따위를 일깨워 줌.’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이들을 유의 관계에 있는 단어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개발’에는 ‘지식이나 재능 따위를 발달하게 함.’이라는 뜻 외에 ‘토지나 천연자원 따위를 유용하게 만듦(예 유전 개발/수자원 개발).’, ‘산업이나 경제 따위를 발전하게 함(예 산업 개발).’, ‘새로운 물건을 만들거나 새로운 생각을 내어놓음(예 신제품 개발/핵무기 개발).’과 같은 뜻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출하다 · 각출하다

각출하다

각출하다

각출

각출

‘각출’과 ‘각출’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의문이 생겨 질문합니다. 예를 들어, ‘십시일반으로 각출한 기금으로’, ‘기업들은 보조자금을 각출하기로.’ 이런 문장에서 각출과 각출은 서로 겸용이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문법적 정보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제시하신 예문에서 ‘각출(各出)’ 또는 ‘각출(釀出)’을 쓸 수 있습니다. ‘각각 내놓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각출하다’나 ‘같은 목적을 위하여 여러 사람이 돈을 나누어 낸다.’의 뜻을 나타내는 ‘각출하다’는 ‘무엇이 무엇을 각출하다’, ‘무엇이 무엇을 각출하다’와 같이 ‘주어’와 ‘목적어’가 필요한 문형으로 쓰입니다. 제시하신 예문은 ‘각출하다’, ‘각출하다’의 뜻이나 문형에 들어맞으므로,

이러한 쓰임이 표현 의도와 맞는다면, ‘각출하다’ 또는 ‘각출하다’를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아래에 제시한 ‘각출(하다)’, ‘각출(하다)’의 용례도 참고하기 바랍니다. ‘각출’은 ‘나누어 냄’, ‘추렴’, ‘추렴함’으로 다듬었습니다.

- 예 1. 개별 기업마다 수재 의연금의 각출을 약속하였다.
성금을 각출하다.
2. 행사 비용 각출/의연금 각출
모인 사람들이 각출하여 구제 기금을 마련하였다.

예를 들어 ‘공부한 책’, ‘공부했던 책’과 같은 표현에서 ‘~한/~했던’ 둘 다 과거의 일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둘의 차이를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부한’은 ‘공부하다’라는 행위가 말하는 이가 상정한 기준 시점보다 과거에 일어남을 뜻합니다. ‘공부하였던’은 ‘-던’이 쓰임에 따라 ‘공부하다’라는 행위가 이미 일어났음에 더하여 과거에 완료되지 않고 중단되었다는 미완(未完)의 뜻까지 나타냅니다.

공부한 ·
공부하였던

공부한
공부하였던
공부했던
-ㄴ/은
-던



발췌

책, 글 따위에서 필요하거나 중요한 부분을 가려 뽑아냄. 또는 그런 내용

인용

남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에 끌어 씀.

경신 · 갱신

경신 갱신

‘경신’과 ‘갱신’의 차이와 쓰임이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세요.

‘경신(更新)’은 ‘이미 있던 것을 고쳐 새롭게 함.’의 의미로 쓰이는 말입니다. ‘고침’으로 순화되었으며, 이때에는 ‘갱신’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예 자기 갱신/환경 갱신/동맹 갱신/단체 협상 갱신이 무산되었다.). 그러나 ‘경신’이 두 번째 의미, ‘중전의 기록을 깨뜨림’으로 쓰일 때는 ‘갱신’으로 쓸 수 없습니다. 이때에는 주로 스포츠 기록이나 주가 등을 대상으로 쓰입니다.

한편, ‘갱신’은 ‘법률관계의 존속 기간이 끝났을 때 그 기간을 연장하는 일’을 의미할 때에도 쓰입니다. ‘경신’에는 이러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때에는 ‘경신’을 쓸 수 없습니다. 또 컴퓨터에서 ‘기존의 내용을 변동된 사실에 따라 변경, 추가, 삭제하는 일’을 나타낼 때도 ‘갱신’을 씁니다.

‘과반수’에 ‘이상’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과반수 이상’이 아니라 ‘과반수’로 써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반수 이상’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지 문의합니다. 또 ‘과반수 초과’는 ‘과반수 이상’과 마찬가지로 틀린 표현인가요?

‘과반수’는 절반이 되는 수를 포함하여 절반이 넘는 수들을 아우르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반수’는 전체의 절반이 되는 수를 말하므로, ‘과반수’는 ‘반수 이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또 ‘과반수’에 ‘이상’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과 ‘과반수 초과’는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과반수 · 반수 이상

과반수
반수 이상
과반수 이상
과반수 초과
반수

‘시계가 5분 빠르다/이르다.’ 중 어느 게 맞나요? ‘10분 늦다.’가 맞는 표현이고, 따라서 ‘늦다’의 반대인 ‘이르다’일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빠르다’와 ‘이르다’의 의미가 유의 관계에 있지만 ‘빠르다’와 ‘이르다’의 반대말을 보면 그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빠르다’의 반대말은 ‘느리다’이고, ‘이르다’의 반대말은 ‘늦다’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빠르다’와 ‘이르다’를 구별하여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시계가 5분 빠르다/느리다.’가 ‘시계가 5분 이르다/늦다.’보다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고, ‘이른 아침’을 ‘빠른 아침’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빠르다 · 이르다

빠르다
이르다
느리다
늦다

늘이다 · 늘리다

늘이다 늘리다

보통 ‘늘이다’는 아래로 길게 처지게 하거나 길이를 늘인다는 뜻으로 쓰이고, ‘늘리다’는 양적으로 늘린다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지나 옷소매를 늘리다.’가 옳은 문장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또 ‘바지 길이를 늘이다.’는 맞는 표현인가요?

‘늘이다’는 ‘본디보다 더 길게 하다.’의 뜻과 ‘아래로 길게 처지다.’라는 뜻의 말로, ‘엿가락을 늘이다.’, ‘고무줄을 늘이다.’와 ‘주름을 늘이다.’, ‘밧줄을 늘이다.’처럼 쓰입니다.

‘늘리다’는 ‘물체의 길이, 넓이, 부피 따위를 커지게 하다./수나 분량이 본디보다 많아지게 하다./힘이나 기운 따위를 큰 상태가 되게 하다./재주나 능력 따위를 나아지게 하다./시간이나 기간을 길어지게 하다.’의 뜻을 지닌 말로, ‘바지허리를 늘리다./몸무게를 늘리다./세력을 늘리다.’처럼 쓰입니다. 이러한 ‘늘이다’와 ‘늘리다’의 뜻을 참고하면, ‘바지’나 ‘옷소매’뿐만 아니라 ‘바지 기장’도 ‘늘리다’로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르다’를 ‘틀리다’로 잘못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르다’는 비교를 해서 같지 않은 경우, ‘틀리다’는 계산이나 답이 맞지 않은 경우, 사실이 아닌 경우, 사실과 맞지 않은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이 아닌 경우는 ‘틀리다’인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로 쓰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틀리다’와 ‘다르다’ 중에 어느 것이 맞는 표현인가요?

다르다 ·
틀리다

다르다
틀리다

‘다르다’는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않다.’는 뜻이고, ‘틀리다’는 ‘셈이나 사실 따위가 그르게 되거나 어긋나다.’는 뜻입니다. 제시하신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그것’과 ‘사실’ 두 대상을 서로 비교하고 있고, 그 둘이 서로 같지 않다는 뜻을 나타내므로, ‘다르다’를 쓰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

게시(揭示)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하여 내 붙이거나 내걸어 두루 보게 함. 또는 그런 물건

게재(揭載)

글이나 그림 등을 신문이나 잡지 따위에 실음.

당기다 · 땅기다 · 땡기다 · 땡기다

당기다
땅기다
땡기다
땡기다

‘당기다/땅기다/땡기다’의 구분을 정확히 하고 싶은데요. 다음 표현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입맛이 당기다.
2. 구미가 당기다.
3. 겨울철이 되면 피부가 땅기다.
4. 라이터를 땡기다.

그리고 ‘땡기다’는 없는 말인가요? 또 ‘땡기다’는 항상 불과 관련될 때만 쓰이는 말인가요?

‘입맛이 돋우어지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당기다’는 ‘입맛이 당기다.’와 같이 쓰입니다. 그리고 ‘구미가 당기다.’는 ‘욕심이나 관심이 생기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관용구입니다. ‘땡기다’는 표준어가 아니며, ‘땅기다’는 ‘몹시 단단하고 팽팽하게 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로, ‘겨울철이 되면 피부가 땅기다.’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땡기다’는 불과 관련하여 ‘불이 옻아 붙다. 또는 그렇게 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말을 할 때 보통, ‘다른 사람’을 ‘[딴] 사람’으로 발음합니다.
쓸 때는 어떻게 쓰는 것이 맞나요? ‘단 사람’은 왠지 어색해서요.

다른 · 딴

문맥에 따라 ‘다르다’의 관형사형인 ‘다른’이나, 관형사 ‘딴/다른’을 씁니다. ‘다른’이나 ‘딴’을 ‘단’과 같이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참고로 관형사 ‘딴’과 ‘다른’의 쓰임새를 아래에 제시합니다.

다른
딴
다르다

1. 딴: ① 아무런 관계가 없이 다른./② 다른(당장 문제되거나 해당되는 것 이외의).

- 예 1. 딴 일/딴 이야기를 하다./딴 대답을 하다./그는 계속 딴 곳만 쳐다본다.
2. 딴 회사의 제품과 비교하다./그는 나 말고 딴 친구는 없다./그는 딴 사람 생각은 조금도 안 한다.

2. 다른: 당장 문제되거나 해당되는 것 이외의.

- 예 다른 사람들은 어디 있지?/다른 생각 말고 공부나 해라./그는 자기 일 밖의 다른 일에는 관심이 없다./편식하지 말고 다른 것도 먹어라./그는 다른 곳에서 자라서 이곳 물정을 모른다./우리에게는 단 한 가지 길만 허용되고 다른 길은 용납되지 않아.

동호회 · 동우회

동호회
동우회
기성회

가구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작년에 여러 가구업체 사장님들과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매출을 높이자는 뜻을 모아 모임을 결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임의 명칭이 ‘동우회’와 ‘동호회’ 중에 어떤 것이 맞는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명칭이 정확할까요?

‘낚시 동호회/바둑 동호회’, ‘바둑 동우회/테니스 동우회’와 같은 ‘동호회’, ‘동우회’의 쓰임을 보면, ‘동호회’나 ‘동우회’의 쓰임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뜻 풀이를 고려한다면, 문의하신 경우에는 ‘같은 취미를 가지고 함께 즐기는 사람의 모임’을 뜻하는 ‘동호회’보다는 ‘일정한 목적 아래 뜻과 취미가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만든 모임’을 뜻하는 ‘동우회’를 쓰는 것이 더 알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조직한 모임을 뜻하는 단어로는 ‘기성회(期成會)’도 쓰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덕분 ·
때문 ·
탓

덕분
때문
탓

‘덕분에’라는 말은 긍정적인 경우에 사용하고 ‘때문에’라는 말은 부정적인 경우에 사용하는 말인가요? 또 ‘탓’은 언제 사용하나요? 세 단어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덕분’은 ‘배풀어 준 은혜나 도움’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긍정적인 의사 표시를 하는 문장에서 ‘덕분에’를 쓰게 됩니다.

예 선생님 덕분에 대학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당신 덕분에 좋은 구경했습니다./제가 잘된 것은 모두 형님 덕분입니다./그동안 걱정해 준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때문’은 ‘어떤 일의 원인이나 까닭’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부정적 맥락이나 긍정적 맥락에만 어울린다는 정보는 사전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전에서 ‘때문’의 용례로는 부정적 맥락과 긍정적 맥락을 모두 보여 주고 있습니다.

예 그는 빗 때문에 고생을 했다./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일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없다./내가 기쁜 것은 네가 오기 때문이다.

‘탓’은 ‘주로 부정적인 현상이 생겨난 까닭이나 원인’, ‘구실이나 핑계로 삼아 원망하거나 나무라는 일’을 뜻하는 말이므로 부정적 맥락에서 사용하는 말로 봅니다.

예 이번 사고는 순전히 내 탓이다./그는 급한 성격 탓에 나와 충돌이 잦다./어제 실수는 술이 과한 탓이네./안 되면 조상 탓만 한다.

마다 · -씩

마다 -씩

현재 외국에서 제 아이에게 한글을 가르치는데, ‘마다’와 ‘-씩’의 차이가 좀 모호합니다. 각각 무슨 뜻이고, 어떤 때에 써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다’는 체언 뒤에 붙어 ‘날날이 모두’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고, ‘-씩’은 수량을 나타내는 명사 또는 명사구 뒤에 붙어 ‘그 수량이나 크기로 나뉘거나 되풀이됨.’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입니다. 용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 1. 날마다 책을 읽는다./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다./영희는 옷을 때마다 보조개가 팬다./고향을 떠난 뒤로 밤마다 눈물로 지낸다./집집마다 웃음꽃이 피었다.
2. 조금씩/며칠씩/하나씩/두 사람씩/열 그릇씩/다섯 마리씩/한 번씩/한 걸음씩/한 사람 앞에 수건을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



결제 (決濟)

증권 또는 대금을 주고받아 매매 당사자 사이의 거래 관계를 끝맺는 일

결재 (決裁)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함.

오늘날 우리는 가장 최근의 그리고 아마도 가장 무시 못할 지배 형태를 추가해야만 한다. 그것은 관료주의 또는 복잡한 관료 체계의 지배‘로서’ 여기서는 아무에게도, 한 사람이든 상류 계층이든, 소수든 다수든,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위 문장에서 ‘로서’가 맞나요? ‘로서’와 ‘로써’는 매년 헷갈립니다. 어떻게 구분하여 써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로서’는 어떤 지위나 신분, 자격을 나타내는 데 쓰이는 격 조사이고, ‘로써’는 도구, 수단, 방법, 재료 등을 나타내는 데 쓰이는 격 조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 그대로 해석하여 앞에 오는 명사가 ‘지위, 신분, 자격’에 해당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로서’를 쓸 수 없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문장 안에서의 관계를 통해 살펴봐야 합니다.

- 예 1. (~가 되어서) 교육자로서, 그런 짓을 할 수 있나?/(~ 입장에서) 사장으로서 하는 말이다./(~의 자격으로) 주민 대표로서 참석하였다./(~로 인정하고) 그를 친구로서 대하였다.
2. (~를 가지고) 톱으로(써) 나무를 자른다./(~ 때문에) 병으로(써) 결근하였다.

문의하신 문장에서는 ‘로서’가 적절합니다.

말 · 말씀

말 말씀

‘선생님, 제 말씀 좀 들어 보세요’가 맞는 높임 표현인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말씀’을 ‘말’로 고쳐야 올바른 것 같은데요. ‘나’보다 선생님을 높이려면 ‘나’가 말하는 ‘말’을 높이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남의 말을 높여 이르는 말’도 ‘말씀’이지만 ‘자기의 말을 낮추어 이르는 말’도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예 1. 선생님 말씀대로 저는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아버님 말씀도 옳으신 데가 있어요.
2. 말씀을 올리다./말씀을 드리다./내 말씀은 못 믿으셔도 머느님 말은 믿으시겠다는 말씀이죠?

따라서 문의하신 문장에서도 ‘말씀’으로 쓰시면 됩니다.

우리는 흔히 ‘넥타이를 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등산을 갈 때 배낭은 ‘맨다’고 하지 않고 ‘멘다’고 하는데 ‘맨다’와 ‘멘다’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왜 넥타이는 ‘맨다’고 하고 배낭은 ‘멘다’고 하나요?

단어의 쓰임은 단어의 형태와 단어가 지닌 뜻과 그 뜻이 가리키는 지시 대상(사물)이 세 가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매다’라는 형태는, ‘끈이나 줄 따위의 두 끝을 엮고 잡아당기어 풀어지지 아니하게 마디를 만들다.’라는 뜻이 있고, ‘신발 끈을 매다./옷고름을 매다./넥타이를 매다.’

와 같은 지시 대상이 있는 낱말입니다. ‘메다’라는 형태는, ‘어깨에 걸치거나 올려놓다.’라는 뜻이 있고, ‘어깨에 배낭을 메다./총을 메고 수백 명이 오고 있습니다.’와 같은 지시 대상이 있는 낱말입니다. 이와 같이 ‘매다’와 ‘메다’는 단어의 뜻, 단어의 지시 대상, 단어의 형태가 다르므로 문맥에 맞게 단어를 선택해서 써야 합니다.

매우 · 너무 ·
몹시 · 많이

매우
너무
몹시
많이

우리가 평소에 쓰면서 별다른 구별 없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매우/너무/몹시/많이’가 있습니다. 각 단어의 차이와 쓰임을 알려 주세요.

‘매우’는 ‘보통 정도보다 훨씬 더’라는 뜻으로 ‘그는 매우 착하다./한글은 매우 독창적이고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다.’와 같이 씁니다. ‘매우’의 ‘보통 정도보다’라는 뜻풀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매우’는 정도를 나타낼 때 씁니다.

‘너무’는 ‘일정한 정도나 한계에 지나치게’라는 뜻입니다.

‘너무’의 뜻을 볼 때 ‘너무’는 ‘너무 심하다./너무 아프다./너무 많다./너무 못생기다./너무 싫다.’와 같이 주로 부정적인 문맥에 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너무 예쁘다.’라거나 ‘너무 좋다.’와 같은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것은 ‘너무’가 부정적인 문맥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문맥에서 ‘매우’와 비슷한 뜻으로 쓰인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너무’가 쓰인 문장이 부정적인 문맥이 아니라면, ‘참’, ‘아주’, ‘매우’ 등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몹시’는 ‘더할 수 없이 심하게’라는 뜻입니다. ‘몹시 추운 날씨/몹시 힘든 일/기분이 몹시 상하다.’와 같이 주로 화자가 주어진 상황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씁니다.

‘많이’는 부사로 ‘수효나 분량, 정도 따위가 일정한 기준보다 넘게’라는 뜻입니다.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다.’와 같이 씁니다.

반증 · 방증 · 증거

반증
방증
증거

‘그토록 간절하게 꿈꾸던 인간 세계를 잠시나마 맛본 김현의
호녀와 신도징의 호녀. 그러나 그들 모두는 끝내 화합하지 못
한다. 이류와 완전한 만남을 이루는 것은 결코 허락될 수 없다
는 금기의 반증이겠다.’에서 ‘반증’은 ‘증거’로 써야 옳지 않나
요? 그리고 ‘반증’과 ‘방증’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반증(反證)’은 ‘어떤 사실이나 주장이 옳지 아니함을 그
에 반대되는 근거를 들어 증명함. 또는 그런 증거/어떤 사
실과 모순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는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방증(傍證)’은 사실을 직접 증
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되지는 않지만, 주변의 상황을 밝힘으로써 간접적으로
증명에 도움을 주는 증거를 이르는 말이며, ‘증거(證據)’는 어떤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근거를 이르는 말입니다. 단어 사용자는 이러한 단어의 뜻풀이를
고려하여 문맥에 맞게 단어를 선택해서 써야 합니다.

문맥상 ‘어떤 사실’이 ‘완전한 만남을 이루는 것은 허락될 수 없다는 금기’
를 그대로 보여 준다면, 그 ‘어떤 사실’은 금기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또 ‘어
떤 사실’이 ‘~금기’를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가 된다면, 그 ‘어떤 사실’은
‘방증’이 될 것이며, ‘어떤 사실’이 ‘~금기’와 반대되는 것을 보여 준다면, 그
‘어떤 사실’은 금기의 ‘반증’이 될 것입니다.

한부·한매

부 매 장 한부 한매

1. 접수 현황 1부.
2. 접수 현황 1매.

1과 2는 문서나 서류 작성 시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한 부’ 또는 ‘한 매’의 차이점과 어떻게 구분해서 써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부’는 신문이나 책을 세는 단위입니다.

예) 만 부를 발행하다./사회 복지관에서 책 십여 부를 학교에 보냈다./이 책자는 사무실마다 한 부씩 비치하고 있다.

‘매’는 종이나 널빤지 따위를 세는 단위인데, 일본어 투 용어이므로 될 수 있으면 ‘장’으로 순화해 쓸 것을 권고합니다.

예) 200자 원고지 백 매를 썼다./복사지 삼십 매만 가져오너라.

다만, 문의하신 것이 접수처에 접수된 서류를 뜻하고, 종이 한 장의 개념이 아니라 접수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한데 모은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신문’을 ‘한 장’이라고 하지 않듯이 ‘서류’도 ‘한 부’로 쓰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종이 문서가 아닌 기안을 작성하면서 붙일 서류가 있을 때 ‘붙임’에 관하여 여러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붙임’, ‘덧붙임’, ‘첨부’, ‘첨부’ 중에 어느 것이 맞는지와 각 말의 쓰임새를 알고 싶습니다.

문서 양식을 규정해 놓은 자료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문의하신 경우는 ‘글의 어떤 부분에서 빠진 것’이나 참고할 내용을 그 부분의 뒤에 덧붙여 적은 것’이라는 뜻을 가진 ‘붙임’과 ‘안건이나 문서 따위를 덧붙임.’이라는 뜻을 가진 ‘첨부’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만 ‘붙임’과 ‘첨부’의 뜻풀이를 참고하면, 앞의 기록 내용에 덧붙여 적을 경우에는 ‘붙임’을 쓰고, 파일 등을 덧붙이는 경우에는 ‘첨부’를 쓰는 것이 적절한 것입니다.

‘붙은 위에 겹쳐 붙다./군더더기로 딸려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포스터 위에 포스터가 덧붙여 있다./친척 집에 덧붙여 살다.’와 같이 쓰이는 ‘덧붙다’의 사동사인 ‘덧붙이다’의 명사형 ‘덧붙임’이나 ‘말라서 붙임.’이라는 뜻의 ‘첨부’는 문의하신 경우에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붙임
덧붙임
첨부
첨부

수여 · 취득

수여 취득

업무상 학위 수여식을 계획하면서 사용하는 단어의 올바른 표현을 확인하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대학의 학위 수여식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을 ‘학사 학위 수여자’, ‘석사 학위 수여자’, ‘박사 학위 수여자’, ‘명예 박사 학위 수여자’ 등으로 표현합니다. ‘수여자’는 주는 사람으로 학위를 주는 총장을 뜻하는 것 같은데, 올바른 표현이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여(授與)’는 ‘증서, 상장, 훈장 따위를 줌.’의 뜻입니다. 따라서 학위를 수여받는 사람을 일컫기 위한 단어로 ‘취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취득(取得)’은 ‘자기 것으로 만 들어 가짐.’의 뜻으로, ‘면허 취득/부동산 취득/자격증 취득/학위 취득’과 같이 쓰입니다.



금칙(禁飭)

하지 못하게 타이름.

금지(禁止)

법이나 규칙이나 명령 따위로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함.

뉴스에서 가끔 ‘○○○은 감사원(또는 검찰)에 감사 청구서(고발장)를 접수하였습니다.’와 같이 ‘접수하다’라는 표현을 듣습니다. ‘접수하다’는 신청(청구)서를 받는 쪽의 입장에서 사용하는 말인 것 같은데요, 신청(청구)서를 제출하는 쪽의 입장에서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접수시키다’라는 표현이 맞는지, ‘접수하다’를 제출하는 쪽이나 받는 쪽의 입장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 주세요.

접수하다

접수하다

신청하다

내다

접수시키다

‘접수’는 ‘신청이나 신고 따위를 구두(口頭)나 문서로 받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접수를 받다’와 같이 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접수하다’의 경우에는 사전적 의미를 근거로 볼 때, 제출하는 쪽에서 ‘접수하다’를 쓰기에 의미상으로 맞지 않아 보입니다. 사전의 예문에도 ‘면회를 접수하는 간수’, ‘전임 명령서를 접수하고 난 뒤로도 뒤통네 관계관들로부터는 도대체 확인 전화 한 통이 없었다.’ 등 받는 쪽 입장에서 서술된 문장만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본다면 ‘접수하다’는 받는 쪽의 입장에서 써야 할 말로 보입니다. 흔히 우리의 국어 생활에서는 제출하는 쪽에서도 ‘접수하다’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접수’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이 때에는 ‘신청하다’, ‘내다’ 등으로 바꿔 써야 할 것입니다.

- 예 1. 등본 신청서는 4번 창구에서 접수하십시오.
→ 등본 신청서는 4번 창구에서 신청하십시오/내십시오.
2. ○○○은 감사원(또는 검찰)에 감사 청구서(고발장)를 접수하였습니다.
→ ○○○은 감사원(또는 검찰)에 감사 청구서(고발장)를 냈습니다.

실제 · 실재

실제 실재

‘실제’와 ‘실재’가 어떻게 다른지 알려 주세요. 그리고 다음 예문 중 맞는 것은 어느 것인지도 알려 주세요.

1. 수표를 이용한 놀이 수학의 실제/실재
2. 쌓기나무를 활용한 놀이 수학의 실제/실재

‘실제(實際)’는 사실의 경우나 형편이라는 의미로, 어떤 ‘사실’에 초점을 둔 말로 쓰거나, 본인이 보거나 듣거나 하는 경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직접 하거나 느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면 ‘실재(實在)’는 사실로서 현실에서 존재함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존재’에 초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놀이 수학의 경우는 이론으로 배운 것을 직접 해 본다는 의미이므로 모두 ‘실제’를 써서 표현해야 적합한 쓰임이 됩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에 ‘알은체하다’와 ‘아는 체하다’의 차이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말의 정확한 차이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읽어도 그 뜻이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이 두 말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알은체하다 · 아는 체하다

알은척하다

알은체하다

아는 척하다

아는 체하다

동사 ‘알은척하다’, ‘알은체하다’는 ‘어떤 일에 관심을 두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 또는 사람을 보고 인사하는 표정을 짓는 것’을 뜻하는 말로 “표준국어대사전”에 동의어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제어 찾기가 가능한 한 단어이기에 붙여 써야 합니다. 반면 ‘아는 척하다’는 모르면서 거짓으로 알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를 뜻하는 말로, 본용언 ‘알다’의 활용형 ‘아는’ 뒤에,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를 거짓으로 그럴 듯하게 꾸밈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 ‘척하다’가 쓰인 구성입니다. 또 ‘체하다’는 ‘척하다’와 동의어이므로 ‘아는 체하다’도 ‘아는 척하다’와 같이 ‘알다’와 ‘체하다’ 두 단어가 결합된 구성의 말입니다.

아래의 예문을 통해 의미에 따라 다른 표현임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비문인 경우에 ‘*’ 표시).

- 예 1. ㄱ. 얼굴이 익은 사람 하나가 알은체하며 말을 걸어 왔다.
 ㄴ. 친구가 알은척하며 내 이름을 불렀다.
 ㄷ. *낮선 사람 하나가 아는 척하며 내게 말을 걸어 왔다.
 ㄹ. *낮선 사람 하나가 아는 체하며 내게 말을 걸어 왔다.
2. ㄱ. 모르면 아는 척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ㄴ. 모르면 아는 체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ㄷ. *모르면 알은체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ㄹ. *모르면 알은척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에 · 에게

무정물

유정물

세상에 도전하라

세상에게 도전하라

에

에게

1. 세상에 도전하라.
2. 세상에게 도전하라.

위 문장은 몇 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세상’은 무정물이므로, 무정물에 쓰이는 조사 ‘에’를 붙여 ‘세상에 도전하라.’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끓이다 · 삶다

끓이다

삶다

‘라면을 끓이다/삶다.’ 중에 어떤 게 맞나요? ‘끓이다’를 많이 쓰기는 하는데 어느 게 맞는지, ‘끓이다’와 ‘삶다’의 의미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국수’는 대체로 ‘삶는다’고 하는데요.

‘끓이다’는 액체를 대상으로 하고, ‘삶다’는 고체, 곧 건더기를 대상으로 합니다. ‘라면’은 액체가 아니므로 라면을 물에 넣어 익게 할 경우에는 ‘삶다’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에’와 ‘에서’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 큰불이 났다.’와 ‘학교에서 큰불이 났다.’의 경우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린지, 아니면 둘 다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에’는 앞말이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고, ‘에서’는 앞말이 행동이 이루어지는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에’는 ‘옷에 먼지가 묻다./언덕 위에 집을 짓다./나는 시골에 산다./부모님은 집에 계신다./거리에 사람들이 많다./집안에 경사가 났다.’와 같은 꼴로 많이 쓰입니다. 또 ‘에서’는 ‘우리는 아침에 도서관에서 만나기로 하였다./가게 앞에서 사람들이 떠들고 있었다./이 물건은 시장에서 사 왔다./어느 학교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이다.’와 같이 쓰입니다. 그러므로 문의하신 문장은 ‘학교에 큰불이 났다.’와 같이 쓰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에서’에는 앞말이 어떤 일의 출처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서의 용법이 있으므로 이 의미를 드러내고자 한 것이었다면 ‘학교에서 큰불이 났다.’도 쓸 수 있습니다.

얼마 이따 ·
얼마 있다

이따
있다
이따가
있다가

‘어쨌든 그 집은 얼마 이따 남의 손에 넘어갔고’에서 ‘얼마 이따’가 맞는 것이지요? 저는 ‘얼마 있다’로 써 왔는데요.

‘이따’와 ‘있다’는 둘 다 가능한 말입니다. ‘있다’는 ‘있다가’의 준말로 용언 ‘있-’에 ‘어떤 동작이나 상태 따위가 중단되고 다른 동작이나 상태로 바뀔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인 ‘-다(가)’가 결합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따(가)’는 기본적으로 보면 ‘있-’에 어미 ‘-다가’가 결합된 말로 보이나, 현대 국어에서 이미 ‘있다’의 의미에서 멀어져 ‘조금 지난 뒤에’라는 뜻의 부사로 굳어져 쓰이므로 원형을 밝히지 않고 ‘이따(가)’로 적는 것입니다.

이 둘은 동일한 문장에서도 상황에 따라 구분해 쓸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간다고 할 때에는 ‘조금 이따 갈게.’로 씁니다. 그리고 여기 머무르다가 간다는 의미로 쓴다면 ‘조금 (여기서) 있다 갈게.’를 쓸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예문에서는 그 의미로 볼 때 ‘얼마 있다’로 쓰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일체’는 ‘모두’, ‘전부’의 의미이고, ‘일절’은 ‘전혀’, ‘절대로’의 의미로 구별되는데, 막상 실제로 사용하려면 헷갈립니다. ‘이 옷과 발길을 일체 끊고 산다.’는 왜 안 되죠? 관계 전체를 모두 끊고 산다는 의미로 보면 안 되나요? 문장의 의미가 부정적인 상황이면 ‘일절’을 사용하고, 긍정적인 상황이면 ‘일체’를 사용한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일체’는 명사와 부사로 쓰이고, ‘일절’은 부사로만 쓰입니다. 부사 ‘일체’는 ‘모든 것을 다’의 뜻을 나타내고, 부사 ‘일절’은 ‘아주’의 뜻을 나타냅니다. 제시하신 문장은 ‘왕래를 아주 끊다.’와 같은 문맥이므로 ‘일절’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부사 ‘일체’와 달리 부사 ‘일절’은 흔히 사물을 부인하거나 행위를 금지할 때에 쓰는 말이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내 ·
미만 ·
이하

이하
미만
이내
초과

국가 자격 시험을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시험에 응시한 자가

1. 12m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12m 이내여야 한다.
3. 12m 이하여야 한다.

로 답했을 경우 위 세 가지가 모두 같은 뜻인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 ‘이내’는 12m를 포함하지 않는 ‘미만’의 뜻으로 여겨집니다.

‘12m’를 기준으로 한다면 ‘12m 이하’는 ‘12m’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12m 미만’은 ‘12m’를 포함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내’와 ‘이하’는 같은 개념입니다. 참고로 ‘초과’는 앞에서 설명한 개념과 상대되는 말로 ‘12m 초과’라고 한 경우는 ‘12m’보다 길거나 높은 또는 먼 거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사업 주관 기관’과 ‘사업 집행 주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주관 · 주최

‘주관(主管)’은 ‘어떤 일을 책임을 지고 맡아 관리함.’을 뜻하고, ‘주최(主催)’는 ‘행사나 모임을 주장하고 기획하여 옴.’을 뜻합니다. 이러한 뜻풀이만으로 보면 어떠한 행사에 대하여 그것을 계획하고 실제로 진행하는 것은 ‘주최하는 기관’이지만 그것을 지휘 감독하고 사무 관리하는 것은 ‘주관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관하는 기관’은 상위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실무적인 일을 ‘주관’ 기관이 행하고 그런 일 전체를 지원하거나 책임을 지는 일을 ‘주최’ 기관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관
주최



도서실

도서를 모아 두고 그것을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만든 방

독서실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따로 차려 놓은 방

작다 · 적다

작다 적다

‘가능성이 작다’와 ‘가능성이 적다’ 중에 어느 쪽이 어법에 맞습니까? 아니면 둘 다 맞습니까? 또 ‘작다’와 ‘적다’의 간단한 용례와 구별법을 알고 싶습니다.

길이, 넓이, 부피, 크기 따위와 관련된 것은 ‘작다’와 호응됩니다.

예 깨알처럼 작은 글씨/키 작은 꽃/작고 조용한 마을/몸집이 작다./체구가 작다./운동장이 작다./그는 동생보다 키가 작다./언니는 발이 유난히 작다./우리 집은 앞집보다 작다./치수가 작다./살이 찌서 옷이 작다./발이 커서 신이 작다.

그러나 수효나 분량, 정도와 관련된 것은 ‘적다’와 호응됩니다.

예 수입이 적다./경험이 적다./관심이 적다./적지 않은 피해를 입다./복권은 당첨될 확률이 적다./말수가 적다.

그러므로 ‘가능성’은 ‘적다’와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치 단체 조례로 일 년 중 특정한 날을 ‘구민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행사를 개최하다가 작년에는 못 하고 올해 다시 행사를 열려고 하니 횟수를 표기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작년이 12회였으므로 횟수를 따지면 13회가 맞는데 이렇게 되면 횟수가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정된 해를 기준으로 횟수는 30년이 지났는데 구민의 날은 20회로 표현하게 되어 혼선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인터넷을 보니 ‘주년’은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할 때, ‘회’는 특정한 날을 제정 기념할 때 각각 쓴다고 하는데, ‘제○주년 구민의 날’이 맞는지 ‘제○회 구민의 날’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경우, 지난해에 행사가 없었다면 올해 구민의 날 행사는 ‘제13회 구민의 날’이 됩니다. 횟수를 나타내는 ‘회’는 해당 행사가 해마다 열리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횟수’는 해의 수를 이르는 말이므로 구민의 날이 횟수로 30년이 되었는데 행사는 20회만 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년 구민의 날’이라 하면 구민의 날 행사라기보다 구민의 날 자체를 기념하여 이르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행사’를 지칭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해마다 열리지 않더라도 ‘제○회 구민의 날’로 쓰고, ‘기간’을 지칭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제○주년 구민의 날’로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기본적으로 ‘주년’은 기간을, ‘회’는 횟수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쓰임새를 살펴 보았을 때 ‘주년’은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할 때, ‘회’는 특정한 날을 제정 기념할 때 쓴다고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채 · -째

채

-째

껍질째

껍질 채

1. 사과는 ‘껍질 채’ 먹어라.(X)
2. 감자를 통째로 삶아서 ‘껍질 채’로 먹었다.(O)

1번은 틀리고 2번은 맞다고 합니다. 같은 ‘껍질 채’인데 왜 1번은 틀리고 2번은 맞나요? 국어사전에는 ‘껍질째’로 나와 있어서 더 혼란스럽습니다.

‘채’는 ‘-은/는 채로’ 구성으로 쓰여 이미 있는 상태 그대로 있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 옷을 입은 채로 물에 들어간다./노루를 산 채로 잡았다./벽에 기대앉은 채로 잠이 들었다.

한편 ‘-째’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대로’ 또는 ‘전부’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입니다.

예) 그릇째/뿌리째/껍질째

이러한 문법 정보를 참고할 때, 제시하신 문장 둘 다 ‘껍질째’로 되어야 맞습니다. 의존 명사인 ‘채’를 쓰려면 ‘감자를 통째로 삶아서 껍질을 벗기지 않은 채 먹었다.’와 같이 써야 합니다.

‘달의 항로를 쫓다/쫓다.’에서 ‘쫓다’가 맞나요? 아니면 ‘쫓다’가 맞나요?

쫓다 · 쫓다

‘쫓다’와 ‘쫓다’는 실제적인 공간 이동인지 아닌지에 따라 그 의미가 구분됩니다. 이론이나 이상, 신념 따위를 따르는 의미일 때는 ‘쫓다’를, 어떤 대상을 잡거나 만나기 위해 따라간다는 의미일 때는 ‘쫓다’를 씁니다. 따라서 문의 하신 문장은 ‘(우주선이) 달의 항로를 쫓다.’와 같이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쫓다
쫓다

1. 십수 년이 채 걸리지 않다.

2. 십수 년이 체 걸리지 않다.

두 문장 중에 어느 것이 맞나요?

채 · 체

어떤 상태나 동작이 다 되거나 이루어졌다고 할 만한 정도에 아직 이르지 못한 상태를 이르는 부사 ‘채’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이때 ‘채’는 뒷말과 떨어져서 ‘십수 년이 채 걸리지 않다.’와 같이 쓰시기 바랍니다.

채
체

털다 · 떨다

털다

떨다

‘털다’와 ‘떨다’를 정확하게 구별하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1. 털다: ① 달려 있는 것, 붙어 있는 것 따위가 떨어지게 흔들거나 치거나 하다. ④ 일, 감정, 병 따위를 완전히 극복하거나 말끔히 정리하다.

2. 떨다: ① 달려 있거나 붙어 있는 것을 쳐서 떼어 내다.

③ 언짢은 생각 따위를 없애다.

위 내용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떨다’, ‘털다’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털다’의 1번과 ‘떨다’의 1번은 같은 맥락 아닌가요? 그리고 ‘먼지를 떨다/털다’, ‘밤을 떨다/털다’, ‘담뱃재를 떨다/털다’, ‘눈을 털다/떨다’는 다 맞는 표현인가요? 덧붙여, ‘털다’의 4번과 ‘떨다’의 3번도 같은 맥락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힘든 일은 이제 그만 떨고/털고 일어나자.’에서 둘 중 어느 표현이 맞나요? 아니면 둘 다 맞는 표현인가요?

‘떨다’와 ‘털다’ 모두 ‘달려 있거나 붙어 있는 것을 떼어 내다.’라는 공통의 의미를 갖습니다. 차이는 ‘털다’는 흔들거나 치거나 해서 떼어 낸다는 뜻이고, ‘떨다’는 쳐서 떼어 낸다는 것입니다. ‘옷을 털어 먼지를 떨어내다.’처럼 씁니다. 담뱃재나 먼지, 나무에 달린 밤, 옷에 얹힌 눈 같은 경우 쳐서 떨어내기 때문에 ‘떨다’를 씁니다. 그리고 ‘털다’의 4번과 ‘떨다’의 3번은 그 의미가 유사해 보이지만, 이런 경우 힘든 일을 털어서 날려 버린다는 은유적인 뜻으로 쓰인 것으로 보아 ‘털다’를 쓰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보고서를 쓰는 과정에서 ‘현행 요금’과 ‘현재 요금’이라는 단어에 이견이 있어 여쭙습니다. 두 말의 분명하게 다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현행(現行)’은 ‘현재 행하고 있음. 또는 행하여지고 있음.’이라는 뜻으로, ‘지금의 시간’이라는 ‘현재(現在)’의 뜻과 ‘행하고 있다, 행해지고 있다’의 뜻을 아울러 나타냅니다. 따라서 ‘현재 행하고 있다. 또는 현재 행하여지고 있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현행’을 쓰면 됩니다. 그런데 ‘요금’은 ‘행하고 있다, 행해지고 있다’와 의미상 자연스럽게 호응되지 않으므로, ‘현재 요금’과 같이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고, ‘요금 제도’인 경우에는 ‘행하고 있다, 행해지고 있다’와 의미상 호응되므로, ‘현행 요금 제도’와 같이도 쓸 수 있습니다.

현재 · 현행

현재

현행

현재 요금

현행 요금 제도

등 · 외

통상적으로 ‘홍길동 등 8명’이란 표현과 ‘홍길동 외 7명’이란 표현은 8명을 나타낼 때 씁니다만 어느 표기가 정확한가요?

등 외

홍길동 등 8명
홍길동 외 7명

‘등’은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 또는 열거한 대상이 복수임을 나타내거나 그것들을 한 정함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홍길동 등 8명’은 ‘홍길동과 같은 사람이 8명’ 있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외’는 일정한 범위나 한계를 벗어남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홍길동 외 7명’은 ‘홍길동 한 사람이라는 일정한 범위를 벗어난 사람이 7명’ 있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홍길동과 같은 사람이 8명’과 ‘홍길동 한 사람의 범위를 벗어난 사람이 7명’ 있다는 것은 동일하게 ‘사람의 수가 총 8명’ 있다는 것을 뜻하므로 ‘홍길동 등 8명’과 ‘홍길동 외 7명’은 모두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문맥에 따라서는 ‘홍길동 등 8명’은 8명의 사람에게 비중이 동일하게 놓이는 반면 ‘홍길동 외 7명’의 경우는 나머지 7명보다 밝혀 쓴 ‘홍길동’에 더 비중이 실리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만 원대’와 ‘만 원 선’ 중에 어느 표현을 써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만약 어떤 물건값이 22,000원이라면 ‘2만 원대’, ‘2만 원 선’ 중 어느 것이 맞나요? 아니면 둘 다 맞나요?

‘대’는 ‘그 값 또는 수를 넘어선 대강의 범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고, ‘선’은 ‘다른 것과 구별되는 일정한 한계나 그 한계를 나타내는 기준’을 뜻합니다. 이러한 뜻풀이를 보면 ‘선’보다 ‘대’의 테두리가 좀 더 넓다고 판단됩니다.

‘대’와 ‘선’의 일반적인 쓰임새를 고려하면, 실제 금액이 정한 기준의 금액에 가까운 경우는 ‘대’와 ‘선’ 모두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 금액이 정한 기준의 금액에서 멀어지는 경우는 ‘대’를 쓰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즉 문의하신 ‘22,000원’의 경우에는 ‘2만 원대’ 또는 ‘2만 원 선’이라는 표현이 모두 가능하지만 금액이 ‘28,000원’인 경우에는 ‘2만 원 선’보다는 ‘2만 원대’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입니다.

만 원대 ·
만 원 선

만 원대
만 원 대
만 원 선
-대
선

수리 · 수선

수선 수리

제가 ‘우산을 수리한다.’고 썼더니 친구가 ‘우산을 수선한다.’고 써야 한다고 하더군요. 둘 중에 어느 표현이 맞나요?

‘수선(修繕)’은 ‘낡거나 험 물건을 고침.’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수리(修理)’는 ‘고장 나거나 허름한 데를 손보아 고침.’이라는 의미를 지녀서 뜻이 비슷합니다. 실제로 국어 사전에서는 이 두 말을 비슷한 말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 말을 쓸 수 있는 대상에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 예 1. 옷: 수선(O)/수리(×), 구두: 수선(O)/수리(×)
2. 자전거: 수선(O)/수리(O), 우산: 수선(O)/수리(O)
3. 양철 지붕: 수선(×)/수리(O)
발동기: 수선(×)/수리(O)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비교적 크기가 작고 단순한 구조의 사물은 ‘수선’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게 쓰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계를 ‘수리’한다고는 해도 ‘수선’한다고는 하지 않으며 구두를 ‘수선’한다고는 해도 ‘수리’한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자전거’는 ‘수선’이나 ‘수리’를 모두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산’의 경우 찢어진 ‘우산’의 천을 꿰매는 것이라면 ‘수선’이 적절하고, 스테인리스로 된 ‘우산살’ 부분을 잘 조립하여 고치는 것이라면 ‘수리’가 더 적절할 듯합니다.

‘-어서/아서’와 ‘-고’의 차이점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서/아서’는 시간적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나 이유나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쓰입니다.

예 어머니는 술을 씻어서 쌀을 안쳤다.
그는 워낙 성실한 사람이어서 뭘 해도 성공할 것이다.

‘-고’는 두 가지 이상의 사실을 대등하게 벌여 놓는 연결 어미나 앞뒤 절의 두 사실 간에 계기적인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등으로 쓰입니다.

예 여름에는 비가 내리고 겨울에는 눈이 내린다.
오빠는 나에게 얼른 눈짓을 하고 나가 버렸다.

-어서 ·
-아서 ·
-고

연결 어미
-어서
-아서
-고

가장 · 최고

가장 최고

근자에 ‘가장 ~한 ~ 중에 하나다.’, ‘~는 최고 중의 하나다.’ 등의 표현을 자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알아자하리 대에서 가장 깨끗한 건물인 ITLC 외벽에는 수단 국기와 나란히 태극기가 붙어 있다. ITLC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으로 2008년에 세웠다. 한국어는 영어, 중국어와 함께 이 센터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외국어 중 하나다.’라는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가장 중요한 외국어 중 하나다.’란 표현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장’이나 ‘최고’가 복수가 될 수 있나요? ‘최고로 중요한 외국어 중 하나다.’라는 문장이 바르게 쓴 것인가요? 그냥 ‘중요한 외국어 중 하나다.’가 맞지 않나요?

‘가장’은 ‘여럿 가운데 어느 것보다 정도가 높거나 세게.’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따라서 제시하신 문장 중 ‘가장 깨끗한 건물’은 적절하게 쓰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외국어 중 하나다.’라는 표현은 지적하신 대로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이때의 ‘가장’이나 ‘최고’는 ‘가장 중요한 것, 최고로 중요한 것’이 여럿이라는 의미가 되어 ‘가장’이나 ‘최고’의 의미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시하신 대로 ‘중요한 외국어 중 하나다.’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교만’과 ‘오만’이라는 말을 정확히 구별하고 싶어요. 보통은 ‘교만’과 ‘오만’은 같이 쓰고 구분 없이 쓰긴 합니다만 어감이 조금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만’과 ‘오만’의 작은 어감의 차이랄까 또는 쓰이는 예에서 어떤 때는 ‘오만’을 자주 쓰고 어떤 때는 ‘교만’을 자주 쓴다든가 하는 게 있다면 알려 주세요.

‘교만(驕慢)’과 ‘오만(傲慢)’은 개념이 적용되는 범위가 서로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짐.’이라는 ‘교만’의 뜻과 ‘태도나 행동이 건방지거나 거만함.’이라는 ‘오만’의 뜻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만’은 잘난 체하고 우쭐거린다는 의미가 중심이나 ‘오만’은 잘난 체하는 것에 남을 업신여긴다는 의미까지 나타냅니다. 따라서 문맥에 따라 의미를 고려하여 ‘교만’과 ‘오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쓰면 됩니다.

그러나 · 하지만

접속 부사

그러나

하지만

‘그러나’와 ‘하지만’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그러나’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상반될 때 쓰는 접속 부사로, 앞과 뒤가 문장이건 아니건 쓸 수 있습니다.

- 예 1. ‘그러나’로 접속된 앞뒤가 모두 문장인 경우: 우리는 열심히 손을 흔들었다. 그러나 선수 중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
2. ‘그러나’로 접속된 앞뒤가 문장이 아닌 경우: 아내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반면, ‘하지만’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상반되는 사실을 나타내는 두 문장을 이어 줄 때 쓰는 접속 부사로, 문장과 문장을 이어 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 예 그의 행동에는 잘못된 점이 많다.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람사르 총회가 창원에서 개최됩니다.’

위 문장은 국어 어법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만약에 바꿔 쓴다면 ‘람사르 총회를 창원에서 개최합니다.’로 바꾸고 싶은데 이 문장은 맞는 건가요?

‘모임이나 회의 따위를 주최하여 열.’이라는 ‘개최’를 어근으로 하여 ‘개최되다’와 ‘개최하다’라는 말이 만들어져 쓰입니다. 만일 ‘람사르 총회’를 주어로 하여 그것이 열린다는 뜻을 나타내고자 한다면 ‘람사르 총회가 창원에서 개최됩니다.’와 같이 쓰게 될 것이고, ‘람사르 총회’를 여는 주체가 그것을 연다는 의미를 나타내고자 한다면 ‘○○가’를 상징할 수 있는 ‘(○○가) 람사르 총회를 창원에서 개최합니다.’와 같은 표현을 쓰게 될 것입니다.

다만 어떠한 행사가 있음을 널리 알릴 때, ‘○○가 행사를 열다(개최하다)’보다는 ‘행사가 열린다(개최되다)’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듯합니다.

예 책 전시회가 도서관에서 열립니다.

책 전시회를 도서관에서 엽니다.

개최하다 ·
개최되다

개최하다

개최되다

열다

열리다

당사자 · 관계자

당사자 관계자

‘관계자’와 ‘당사자’에 대해 사전도 찾아보았지만 의미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둘을 어떻게 가려 써야 할지 궁금합니다.

‘당사’는 그 사건에 직접 관여함을 의미하며, ‘관계’는 둘 이상의 사람, 사물, 현상 따위가 서로 관련을 맺거나 관련이 있음, 또는 그런 관련을 의미합니다. 즉 ‘관계’가 어떤 사물, 현상 간에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면, ‘당사’는 일정한 관계의 한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또 ‘당사자’는 어떤 일이나 사건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관계한 사람을, ‘관계자’는 관련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당사자’의 경우가 어떤 관계에서 ‘관계자’보다 직접성이 있는 경우에 이를 드러낼 수 있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

매 무 새

옷, 머리 따위를 수습하여 입거나
손질한 모양새

매 무 시

옷을 입을 때 매고 여미는 따위의 뒷
단속

공공 기관에서 소속 공무원들에게 신분증을 발급하고 청사 내에서 신분증을 달고 다니도록 합니다. 이때 보통 ‘신분증을 반드시 패용하여 주십시오.’와 같이 표현합니다. 하지만 ‘패용’이라는 말이 어렵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말이므로 다른 말로 고쳐서 쓰고 싶은데요. 신분증이나 이름표의 사용과 관련하여 ‘패용’이라는 말을 ‘착용’이라는 말로 고쳐 써도 괜찮은지요? 또 목걸이형 신분증은 ‘달다’라는 표현보다 ‘신분증을 꼭 착용하여 주십시오.’라는 표현이 더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요. 어떻게 써야 하나요? ‘신분증을 단다.’고 하면 왠지 핀이나 집게로 고정하는 방식이 떠오릅니다.

달다 · 패용하다

패용
착용
달다
걸다

‘패용(佩用)’은 ‘이름표 따위를 몸에 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 ‘착용(着用)’은 ‘의복, 모자, 신발 따위를 입거나, 쓰거나, 신거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전적인 정의에 기대어 생각한다면 신분증은 ‘패용’과 어울려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패용’을 쓰기가 어색한 경우에는 ‘이름표를 달다’라는 표현을 쓰실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목걸이형으로 된 신분증의 경우는 ‘신분증을 (목에) 걸다’ 등의 표현이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도무지 · 도저히

도무지 도저히

‘도무지’와 ‘도저히’의 차이를 알려 주실 수 있는지요. 사전 풀이를 보면 둘의 의미 차이를 잘 모르겠는데, 둘을 구별해서 써야 하나요?

‘도무지’는 주로 부정 표현과 어울려 ‘아무리 해도’ 또는 ‘이러니저러니 할 것 없이 아주’의 의미로 쓰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역시 주로 부정 표현과 어울려 쓰이며 ‘아무리 하여도’를 의미합니다. ‘도무지’가 ‘아무리 해도’의 의미로 쓰일 경우 ‘도저히’와 바꾸어 쓸 수 있지만, ‘그는 도무지 예의라곤 없는 사람이다.’와 같이 후자의 뜻으로 쓰일 경우에는 ‘도저히’로 바꾸어 쓰기 어렵기에 구별하여 써야 합니다.

마치다 · 끝나다

마치다 끝나다

‘마치다’와 ‘끝나다’가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 같긴 한데, 쓰임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둘의 차이가 뭔가요?

‘마치다’는 ‘어떤 일이나 과정, 절차 따위가 끝나다. 또는 그렇게 하다.’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무엇이 마치다.’, ‘무엇을 마치다.’와 같이 자동사로도 쓰이고 타동사로도 쓰입니다. 한편 ‘끝나다’는 ‘일이 다 이루어지다.’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무엇이 끝나다.’와 같이 자동사로만 쓰입니다.

‘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서 ‘또는’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또는’은 앞의 문장과 별개로 볼 때 쓰고 ‘및’은 앞의 문장과 연결할 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는’과 ‘및’의 정확한 차이는 무엇인가요?

‘또는’은 ‘그렇지 않으면’의 뜻이고, ‘및’은 ‘그리고’의 뜻입니다. 따라서 ‘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은 ‘의사 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그렇지 않으면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의 뜻이 되어, ‘의사 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과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중 하나가 선택됨을 뜻합니다. 한편 ‘의사 결정 과정 및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은 ‘의사 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그리고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의 뜻이 되어, ‘의사 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과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두 가지 모두를 가리키게 됩니다.

또는 · 및

또는
및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모두 · 다

모두
다

‘모두’와 ‘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모두’와 ‘다’는 명사로도 부사로도 쓰이는 말인데, ‘모두’는 명사로서의 쓰임이, ‘다’는 부사로서의 쓰임이 일차적이며, ‘다’의 쓰임새가 ‘모두’보다 더 많습니다. ‘일정한 수효나 양을 빠짐없이 다’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 ‘모두’와 ‘남거나 빠진 것이 없이 모두’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사 ‘다’는 통용되지만, 부사 ‘다’의 다른 쓰임은 부사 ‘모두’와 통용되지 않으며, 명사 ‘모두’와 명사 ‘다’의 쓰임새는 개별적입니다.

미식별 · 식별 불가

미식별
마-
식별 불가

공문서 작성 시 시설/장비가 식별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식별이 안 될 경우 ‘미식별’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이 ‘미식별’이라는 용어가 어법상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맞다면 어떠한 어문 규정에 따라 맞는 표현인지 알고 싶고, 틀리다면 어떠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정확한지 알고 싶습니다.

‘미-’가 접사로 쓰일 때 ‘그것이 아직 아닌’ 또는 ‘그것이 아직 되지 않은’의 뜻을 더하는 역할을 하지만, ‘식별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말로 제시하신 것과 같이 ‘미식별’과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한 단어로 말하기 어렵다면 ‘가능하지 않음’을 뜻하는 말로 ‘불가’와 ‘식별’을 결합해, ‘식별 불가’와 같은 구 구성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말을 하다 보면 ‘몹쓸 짓’과 ‘못쓸 짓’을 쓸 경우가 있는데요,
어느 것이 맞는 말일까요? 경우에 따라 헷갈려서요.

‘몹쓸’은 ‘악독하고 고약한’의 뜻을 나타내는 관형사이므로, ‘몹쓸 짓’으로 표현한다면 ‘악독하고 고약한 짓’을 뜻하게 됩니다.

예 몹쓸 짓/몹쓸 곳/몹쓸 말/몹쓸 병/몹쓸 사람/나는 술이
취해 아이에게 몹쓸 소리를 마구 해 대고 말았다.

한편 ‘못쓸’과 같이 쓴다면 이는 ‘얼굴이나 몸이 축나다./
옳지 않다. 또는 바람직한 상태가 아니다.’의 뜻을 나타내는 동사 ‘못쓰다’의
관형사형이므로 ‘못쓸 짓’과 같은 구성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못
쓰다’는 ‘얼굴이 못쓰게 상하다./거짓말을 하면 못써./그는 너무 게을러서 못
쓰겠다.’와 같이 ‘못쓰게’의 꼴로 쓰이거나, 주로 ‘-으면’, ‘-어서’와 함께 쓰인
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몹쓸 짓 ·
못쓸 짓

몹쓸
못쓸
못쓰다

무슨 · 어떤

무슨 어떤

‘어떤’과 ‘무슨’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아래의 예를 사용하여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어떤 색을 좋아합니까?/무슨 색을 좋아합니까?

잃어버린 모자는 어떤 색입니까?/잃어버린 모자는 무슨 색입니까?

‘(여러 가지 색깔 중) 어떤 색을 좋아합니까?’의 ‘어떤’은 ‘주어진 여러 사물 중 대상으로 삼는 것이 무엇인지 물을 때 쓰는 말’에, ‘잃어버린 모자는 어떤 색입니까?’의 ‘어떤’은 ‘사람이나 사물의 특성, 내용, 상태, 성격이 무엇인지 물을 때 쓰는 말’에 해당합니다. 한편 ‘무슨 색을 좋아합니까?’와 ‘잃어버린 모자는 무슨 색입니까?’의 ‘무슨’은 ‘무엇인지 모르는 일이나 대상, 물건 따위를 물을 때 쓰는 말’에 해당합니다.

축의금과 조의금의 속지에 쓰는 올바른 표현이 무엇인지 여쭙습니다. 축의금 속지에 작성한 사람 이름 뒤에 ‘배상(拜上)’을 써도 되나요? 또 조의금 속지에 작성한 사람 이름 뒤에 ‘배곡(拜哭)’을 써도 되나요?

‘표준 화법 해설’에 보면,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넣을 때는 반드시 단자를 써서 축의(조의)금에 둘러 넣는 것이 예의라고 밝히고, 이름 뒤에 굳이 아무것도 쓰지 않아도 되지만, 쓴다면 조의의 경우 ‘근정(謹呈)’으로 쓴다고만 밝히었습니다. 또 ‘배상’의 경우 “표준국어대사전”에 ‘절하며 올린다는 뜻으로, 예스러운 편지글에서 사연을 다 쓴 뒤에 자기 이름 다음에 쓰는 말’로 풀이되어 있고, ‘배곡’의 경우는 올라 있지 않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축의금
조의금
단자
근정
배상

방출 · 배출

방출 배출

저는 평소에 사람들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다.’로 많이 쓰다고 생각했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다.’도 많이 썼습니다. ‘배출’과 ‘방출’의 쓰임새가 각각 어떻게 다른가요?

‘방출(放出)’은 ‘비축하여 놓은 것을 내놓음.’이란 의미로 ‘쌀의 방출’, ‘은행의 자금 방출로 기업의 숨통이 조금 트였다.’와 같이 쓰입니다. 그리고 ‘배출(排出)’은 ‘안에서 밖으로 밀어 내보냄.’이란 의미로 ‘가스 배출’, ‘노폐물 배출’, ‘오염 물질 배출’, ‘공해 배출 업소’와 같이 쓰입니다. 따라서 의미에 따라 선택하여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비축하여 놓은 것을 내놓는 경우가 아니라면 ‘배출’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附加)

주된 것에 덧붙임.

부과(賦課)

일정한 책임이나 일을 부담하여 맡게 함.

‘숨어 있던 명작을 새로이 발견해내고/발굴해내고’에서 ‘발견’과 ‘발굴’ 중 어느 것이 맞는 표현인가요? 두 단어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발굴하다 ·
발견하다

‘발굴하다’는 ‘(1) 땅속이나 큰 덩치의 흙, 돌 더미 따위에 묻혀 있는 것을 찾아서 파내다. (2)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거나 뛰어난 것을 찾아 밝히어 내다.’라는 뜻으로, ‘(1) 유물을 발굴하다./우리 회사는 석유와 광석을 발굴한다. (2) 인재를 발굴하다./신인을 발굴하다.’와 같이 쓰이는 말입니다. ‘발견하다’는 ‘미처 찾아내지 못하였거나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사물이나 현상, 사실 따위를 찾아내다.’라는 뜻으로, ‘새로 발견한 법칙/자아를 발견하다./그는 우연히 아버지의 유품을 발견하였다.’와 같이 쓰이는 말입니다. 따라서 문장의 의도에 맞도록 ‘발굴하다’와 ‘발견하다’ 중 하나를 쓰면 될 것입니다.

발굴하다
발견하다

다만, 보이신 문장에 있는 ‘명작(名作)’은 ‘이름난 훌륭한 작품’이라는 뜻이므로, 그 앞에 있는 수식어인 ‘숨어 있던’이나 ‘발굴하다/발견하다’의 의미와 잘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항 · 상황 · 현황

사항 상황 현황

업무 보고서를 작성할 때 ‘사항/상황/현황’ 이 늘 헷갈립니다. ‘사항’은 항목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상황’은 전반적인 일의 진행 과정이고, ‘현황’은 상황보다는 더 구체적인 범위로, 일의 전 진행 과정 중 특히 현재에 중점을 두었을 때 쓰는 말인가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혹시 틀렸습니까?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기에 말씀하신 대로 위 말들을 사용하면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사항’은 ‘상황/현황’과 별개의 것이니 특별히 혼동될 여지는 없으나, ‘상황’ 가운데 현재의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 ‘현황’이라는 점만 주의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위촉 · 임명

위촉 임명 맡김

‘위촉’과 ‘임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둘 다 ‘맡김’의 의미인 것 같은데요.

‘위촉(委囑)’은 ‘어떤 일을 남에게 부탁하여 맡게 함.’이라는 뜻이고(‘맡김’으로 순화), ‘임명(任命)’은 ‘일정한 지위나 임무를 남에게 맡김.’이라는 뜻입니다. 뜻풀이와 용례를 살펴보면 어떤 일을 맡는 주체나 대상이 ‘임명’의 경우에는 주로 사람이지만, ‘위촉’의 경우에는 사람을 비롯하여 기관이나 단체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각의 용례는 사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냄새가 살짝 난다.’라는 문장이 틀렸나요? 저는 ‘냄새가 살짝/약간/조금 난다.’에서 ‘살짝/약간/조금’이 정도의 차이를 나타낼 뿐이고 그 의미는 통하는 것이라 교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살짝/조금/약간’은 대체로 뜻이 비슷하지만 그 초점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살짝’은 정도가 가벼움의 의미를 지니는 반면, ‘조금’은 주로 분량이 많지 않음에 초점을 맞춘 말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짧은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며, ‘약간’은 분량이나 정도가 얼마 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냄새’는 ‘코로 맡을 수 있는 어떤 기운이나 분위기로 느낄 수 있는 특이한 성질이나 낚새’를 의미하므로, ‘조금’이나 ‘약간’과 어울려 쓰이는 것이 무난합니다. 다만 ‘살짝’이 ‘심하지 않게 아주 적게’ 또는 ‘표 나지 않게 가만히’의 뜻을 지니기도 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잠시 냄새가 나다 사라졌다든지 어떤 낚새를 아주 잠시 드러내 보였다는지 할 경우에는 ‘살짝’과 어울려 쓰일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살짝 ·
조금 ·
약간

살짝
조금
약간

새까맣다 · 새까만

새까맣다
새까만
새까만 후배

‘나에게 인사를 한 후배는 새까맣다.’는 문장에서 ‘새까맣다’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후배의 피부색이 검다.’의 의미를 지닙니다. 혹시 이 문장이 ‘직장이나 학교에 들어온 시기가 나와는 매우 차이가 나는 후배이다.’의 의미로 해석될 여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새까만 후배’로 표현했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직장이나 학교에 들어온 시기가 매우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피부색이 새까만 후배’의 의미로 볼 수는 없는지도 궁금하고요. 즉 ‘새까만’과 ‘새까맣다’의 의미 구별에 대해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새까맣다’는 기본적으로 ‘색이 매우 까맣다.’라는 의미이지만 ‘거리나 시간 따위가 아득하게 멀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러므로 ‘새까만 후배’ 또는 ‘새까만 옛날’과 같은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서술어 위치에 있는 ‘나에게 인사를 한 후배는 새까맣다.’와 같은 문장은 그리 자연스럽게 읽히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후배의 피부색이 매우 검다.’는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문맥에 따라서는 이 문장에서도 ‘새까맣다’가 ‘거리나 시간 따위가 아득하게 멀다.’는 의미로 해석될 경우가 있겠지만, 그러한 해석이 일반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특정한 형용사가 서술어로 쓰일 때와 관형어로 쓰일 때 관련되는 명사와의 의미 관계가 서로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빨간 거짓말’과 ‘저녁노을이 유난히 새빨갰다.’도 비슷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스승/선생/강사’는 그 쓰임이 헛갈리는 비슷한 단어입니다. 각 단어에 어떤 의미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승/선생/강사께서’와 ‘스승님/선생님/강사님께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함께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승’은 자기를 가르쳐 인도하는 사람을, ‘선생’은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을, ‘강사’는 학교나 학원 따위에서 위촉을 받아 강의를 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쓰임새를 참고하셔서 상황에 맞게 단어를 선택하여 쓰면 됩니다. 참고로 ‘선생’과 ‘강사’의 뜻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학교나 학원 따위에서 위촉을 받아 강의를 하는’과 ‘스승’의 뜻에서 ‘자기를 가르쳐 인도하는’의 뜻을 견주어 볼 때, ‘선생’과 ‘강사’보다는 ‘스승’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님’은 ‘높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므로, ‘스승/선생/강사’보다 ‘스승님/선생님/강사님’이 대상을 높여 이르는 말이 됩니다.

스승 ·
선생 ·
강사

스승
선생
강사
님

신종 · 신조

신종
신조
신조어
신종 플루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새로운 인플루엔자를 지칭하는 의미로 ‘신종’을 붙였는데, 새로운 단어가 나오면 ‘신조+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신종+어’, ‘신조 플루’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신종(新種)’은 새로 발견하였거나 개량한 새로운 종류라는 의미이며, ‘신조(新造)’는 새로 만드는 것의 의미입니다. ‘신종 플루’는 인플루엔자 가운데 새롭게 발견된 종류의 것이므로 그렇게 명명한 것인데, ‘신조어’는 인간이 새로 만든 말이므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신조 플루’는 인위적으로 누가 인플루엔자를 만들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입니다. 반면 ‘신종어’는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의 통신 언어라든지 줄임말, 유행어 등을 이를 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옳다’는 형용사로 ‘사리에 맞고 바르다.’라는 뜻이고, ‘올바르다’도 형용사로 ‘말이나 생각, 행동 따위가 이치나 규범에서 벗어남이 없이 옳고 바르다.’라는 뜻인데 주체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옳다’와 ‘올바르다’를 구분해야 하나요? ‘말’, ‘생각’, ‘행동’ 등 인간이 행하는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을 말할 때에는 ‘올바르다’를 쓰고, 그 외 것들의 옳고 그름을 말할 때에는 ‘옳다’를 써야 하나요? 예를 들어 ‘그의 말은 옳다.’가 아닌 ‘그의 말은 올바르다.’로 쓰고, ‘그 규칙은 올바르다.’가 아니라 ‘그 규칙은 옳다. 또는 옳지 않다.’로 써야 하는지요?

옳다 ·
올바르다

옳다
올바르다

서술어 ‘옳다’와 ‘올바르다’에 호응하는 주어가 나뉘어 있지는 않으므로, ‘옳다’와 ‘올바르다’의 뜻을 참고하여 문맥의 의미에 맞게 단어를 선택하여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 ‘무엇이 사리에 맞고 바르다.’ 또는 ‘무엇이 격식에 맞아 타당하거나 흠잡을 데가 없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무엇이 옳다’와 같이 쓰고, ‘무엇이 이치나 규범에서 벗어남이 없이 옳고 바르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무엇이 올바르다’와 같이 씁니다. 예문의 주어인 ‘그의 말’과 ‘규칙’을 서술하는 말로도 문맥적 의미를 고려하여 ‘옳다’ 또는 ‘올바르다’를 쓸 수 있습니다.

요소 · 항목

요소 항목

‘요소’와 ‘항목’ 중에 어느 것을 사용해야 할지 몰라서 질문합니다. 웹 페이지에서 이미지, 특정 텍스트 등 페이지를 구성하는 낱말의 개체를 지칭하는 말로 ‘요소’와 ‘항목’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영어로는 ‘element’이며, 이 영어를 기본으로 해서 위의 설명에 맞는 단어를 구분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는 ‘요소’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소’는 ‘사물의 성립이나 효력 발생 따위에 꼭 필요한 성분. 또는 근본 조건’을 뜻하고, ‘항목’은 ‘법률이나 규정 따위의 낱말의 조나 항목’을 뜻합니다. 문의하신 경우는 ‘웹 페이지의 구성 요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므로, ‘요소’를 써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신문 기사 등을 보면, ‘신분을 숨기다.’의 뜻으로 ‘신분을 은닉하다.’를 씁니다. 사전을 보면 ‘은닉’의 경우 물건이나 사람을 숨기는 것으로 이해되고, ‘은폐’의 경우 어떤 사건이나 진실을 숨기는 경우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공무원의 신분을 숨긴다.’의 뜻으로 사용할 경우 ‘신분 은닉/은폐’ 중 어느 것을 써야 할까요?

‘은닉’은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것을 감추는 행위를 뜻하지만, ‘은폐’는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것을 감추는 행위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로 덮어서 감추거나 가리어 숨긴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신분’과 어울리게 하여 쓸 때에는 ‘신분’이 구체적인 형상을 지닌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면 ‘은닉’보다는 ‘은폐’와 어울리는 것이 적합하리라 판단합니다.

은닉 · 은폐

은닉
은폐
신분 은닉
신분 은폐

이미 · 벌써

이미
벌써

‘이미’와 ‘벌써’의 사용상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다 끝나거나 지난 일을 이룰 때 쓰는 말로 ‘이미’와 ‘벌써’는 모두 ‘앞서’의 뜻을 나타냅니다(예 이미 지난 일/벌써 지난 일). 그러나 ‘벌써’는 ‘이미 오래전에’라는 뜻 이외에 ‘예상보다 빠르게 어느새’의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벌써 일어서려고?’는 사용할 수 있지만, ‘이미 일어서려고?’는 어색하여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이미’와 ‘벌써’가 구별되는 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 이전

이후
이전

특정 문구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해 질문드립니다. ‘이전’ 또는 ‘이후’에는 그 기준일이 포함되나요? 예를 들어 ‘2008년도 이후’라는 문구가 있을 경우 그 시점이 2008년을 포함(2008. 1. 1.~)하는지 2009년(2009. 1. 1.~)부터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이후’는 ‘이제(바로 이때)부터 뒤’ 또는 ‘기준이 되는 때를 포함하여 그보다 뒤’의 뜻이므로, ‘2008년도 이후’는 ‘2008년’을 포함하는 말로 쓰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전’도 ‘이제(바로 이때)보다 전’ 또는 ‘기준이 되는 때를 포함하여 그 전’의 뜻이므로, ‘2008년도 이전’은 ‘2008년’을 포함하는 말로 쓰는 것입니다.

‘보좌관이 불법 로비 자금 사건에 깊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진, 김 의원에 대한 의심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에서 ‘의심’ 대신에 ‘의혹’을 써야 올바른 문장이 되나요? 그렇다면 ‘의심’과 ‘의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의심 · 의혹

의심
의혹

사전에 따르면 ‘의심’은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마음’을 가리키고, ‘의혹’은 ‘의심하여 수상히 여김. 또는 그런 마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의혹’은 ‘의심’을 포괄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궁금해하시는 것은 김 의원의 행동에 대하여 수상히 여기는 마음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되므로, ‘의심’보다는 ‘의혹’이 적절한 쓰임이라고 하겠습니다.

?!

햇볕

해가 내리찍는 뜨거운 기운.

예 햇볕이 쨍쨍 내리쬘다.

햇빛

해의 빛. 예 풀잎마다 맺힌 이슬방울이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일시 중지 · 일시 정지

중지 정지 일시 중지 일시 정지

‘연초부터 시행되던 자선 행사를 무더위로 일시 정지/중지하고 가을부터 다시 시작한다.’라는 문장에서 ‘일시 정지’와 ‘일시 중지’ 중 어느 표현이 맞나요?

‘중지’는 ‘하던 일을 중도에서 그만둠.’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정지’는 ‘움직이던 것이 멎거나 그침. 또는 중도에서 멎거나 그치게 함.’이나 ‘하던 일을 그만둠.’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중지’나 ‘정지’는 모두 하던 일을 그만둔다는 뜻을 나타내므로 제시하신 문장에 ‘중지’나 ‘정지’를 모두 쓸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정지’의 일차적인 뜻은 ‘움직이던 것이 멎거나 그침.’이고, ‘하던 일을 중도에서 그만둠.’이라는 뜻을 일차적으로 나타내는 단어는 ‘중지’이므로, ‘중지’를 쓰는 것이 문맥상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만세 운동을 현재 시점에 당시 상황을 다시 나타낸다고 생각하고 ‘3·1 독립 만세 재현’이라고 씁니다. 3·1 독립 만세 ‘재현’ 행사가 정확한 표현인지, ‘재연’ 행사가 정확한 표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현 · 재연

재현
재연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시 나타냄.’의 뜻을 전달하고자 한다면 ‘다시 나타남. 또는 다시 나타냄.’의 뜻을 지닌 ‘재현(再現)’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재현’은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다.’, ‘백여 년 전의 농촌을 재현한 마을에 관광객이 줄을 이었다.’와 같이 쓰입니다.

참고로 ‘재연’은 ‘연극이나 영화 따위를 다시 상연함.’이나 ‘한 번 하였던 행위나 일을 다시 되풀이함.’의 의미로 쓰입니다.

?!

해 지

계약 당사자 한쪽의 의사 표시에 따라 계약에 기초한 법률관계를 말소하는 것. ㉠ 만기가 된 정기 예금을 해지했다.

해 제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에 따라 소급(遡及)해서 해소함. ㉡ 매매 계약을 해제하다.

일찍 · 빨리

일찍 일찍이 빨리

‘가을이 참 빨리/일찍 왔네.’라는 문장에서 ‘빨리’가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찍’은 ‘일찍이’와 같은 말로 ‘일정한 시간보다 이르게.’로 풀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찍 귀가하다.’, ‘일찍 일어나다.’, ‘그는 부모를 일찍 여의었다.’, ‘네가 이렇게 일찍 일어나다니, 어쩐 일이니?’와 같이 쓰입니다. 이 보기들을 통해 보면 ‘일찍’은 관습적으로 정해진 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그보다 앞서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비해 ‘빨리’는 ‘걸리는 시간이 짧게.’로 풀이됩니다. 예를 들면 ‘빨리 건다.’, ‘빨리 늙다.’, ‘빨리 결정하다.’, ‘일을 빨리 끝내다.’, ‘일의 정황을 빨리 파악하다.’, ‘목표가 계획보다 빨리 달성되었다.’, ‘예상보다 빨리 그날이 왔다.’, ‘그는 자신의 동료보다 빨리 승진하였다.’와 같이 쓰입니다. 여기서 볼 때 ‘빨리’는 어떤 일에 걸리는 시간이 길지 않음을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가을이 참 일찍 왔네.’의 경우 가을이 관습적으로 정해진 시간보다 이르게 왔다는 뜻으로 해석되어 ‘일찍’을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뉴스에서 ‘임상 실험’이라는 말도 쓰고, ‘임상 시험’이라는 말도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둘 중에 어느 표현이 맞나요?

임상 시험 · 임상 실험

‘시험(試驗)’은 사물의 성질이나 기능을 실제로 증험(證驗)하여 보는 일로, 가령 새로 만든 약이 실제로 사람에게 효험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투여하고 그 결과를 파악하는 행위를 이르는 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실험(實驗)’은 실제로 해 보는 것을 이르거나, 이론이나 현상을 관찰하고 예측하는 것을 이르는 말로, 가령 물리학이나 화학에서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 등을 이르는 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면 ‘시험’이 검증하고자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물의 기능이나 성질인 반면에, ‘실험’이 검증하고자 하는 것은 이론이나 현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만든 백신의 효능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가리킬 때에는 ‘임상 시험’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바이러스와 면역체의 관계를 파악하려고 행하는 절차를 가리킬 때에는 ‘임상 실험’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상 시험
임상 실험
시험
실험

정확하다 · 적확하다

정확하다 적확하다

저는 그동안 ‘정확하다’는 표현만 알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적확하다’는 표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하다’와 ‘적확하다’ 두 단어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정확’은 ‘바르고 확실함.’, ‘적확’은 ‘틀림없이 들어맞음.’이라는 뜻의 말입니다. 서로 비슷한 뜻이기는 하나 ‘정확’은 바르다는 의미이고, ‘적확’은 꼭 들어맞는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서로 바꾸어 쓰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의 예를 참고하면 두 말의 차이가 조금 더 분명해지리라 생각합니다.

- 예
1. 정확한 자세(O)/적확한 자세(X)
 2. 정확한 시계(O)/적확한 시계(X)
 3. 정확한 표현(O)/적확한 표현(O)

예 3의 경우 두 가지 표현이 모두 가능하지만 앞의 것은 ‘바른 표현’의 의미이고, 뒤의 것은 ‘꼭 들어맞는 표현’의 의미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주책’을 찾아보니 ‘일정하게 자리 잡힌 주장이나 판단력’과 ‘일정한 잣대가 없이 되는 대로 하는 짓’이라는 상반된 뜻이 나오네요. 흔히 쓰는 말 중에 ‘너 진짜 주책이야.’라는 말은 맞는 말인가요?

주책없다 ·
주책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일정한 잣대가 없이 이랬다저랬다 하여 몹시 실었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형용사 ‘주책없다’를 쓰고 있으며, ‘주책이다’는 ‘주책없다’의 잘못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시하신 문장에도 ‘주책없다’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주책없다
주책이다
주책

“표준국어대사전”을 검색해 보니까 ‘토의’는 ‘어떤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고 협의함.’, ‘협의’는 ‘여러 사람이 모여 서로 의논함.’, ‘협상’은 ‘어떤 목적에 부합하는 결정을 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이 서로 의논함.’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전에서 풀이해 준 의미만으로는 각 단어의 의미 차이가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세 단어는 어떤 의미 차이가 있나요?

토의 ·
협의 ·
협상

‘토의’와 ‘협의’와 ‘협상’은 ‘의논’의 뜻을 나타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논’의 의미 외에, ‘토의’에는 ‘검토’의 의미가 더 들어 있고, ‘협의’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라는 방식이 전제되고, ‘협상’에는 ‘목적에 부합되는 결정’이라는 목적이 전제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토의
협의
협상

한글 · 한국어

자막 한글 한국어

‘한글’과 ‘한국어’의 쓰임이 헷갈립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한글 자막’으로 쓰는데, 제가 보기엔 ‘한국어 자막’이 맞는 거 같거든요.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나요?

‘한글’은 우리나라 고유 문자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한국어’는 ‘한국인이 사용하는 언어’라는 뜻으로, 주로 ‘영어’ 또는 ‘중국어’, ‘일본어’ 등과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의미와 쓰임을 고려하면, ‘영어 자막’, ‘중국어 자막’, ‘일본어 자막’ 등과 대응하는 경우에는 ‘한국어 자막’으로 쓸 수 있습니다. 또 ‘한글로 표기되어 있다.’는 의미를 지닐 때에는 ‘한글 자막’이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패 지

못 쓰게 된 종이

폐 지

쓰고 버린 종이  폐지를 재활용하다.

공문서에 문서를 첨부할 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여기서 ‘참조’ 대신에 ‘참고’로 쓰면 틀린 것인지요? ‘참고’와 ‘참조’의 정확한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와 ‘참조’는 각각 다음과 같은 의미와 쓰임이 있습니다.

1. 참고: 살펴서 생각함. 살펴서 도움이 될 만한 재료로 삼음.

예 참고 도서, 참고 자료, 참고 사항, 참고로 하다, 참고로 내 의견을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2. 참조: 참고로 비교하고 대조하여 봄.

예 관계 기사 참조, 사진 참조

따라서 어떤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기를 원할 때에는 ‘참고 바랍니다.’로 쓰는 것이 적절하고, ‘참조 바랍니다.’는 어느 것을 다른 것과 비교하거나 대조하여 보기를 원할 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공문서 내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위의 의미를 살펴 사용하면 될 듯합니다.

지명하다 · 지목하다

지명하다 지목하다

비슷한 어휘 때문에 많이 헷갈리는데 특히 ‘지명하다’와 ‘지목하다’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지명하다’는 ‘여러 사람 가운데 누구의 이름을 지정하여 가리킴.’을 뜻하는 말이고, ‘지목하다’는 ‘사람이나 사물이 어떠한다고 가리켜 정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 사람 가운데 누구의 이름을 정해 가리켜 말하는 것이 ‘지명’이므로 ‘이 중에서 누구라고 이름을 지명하지는 않더라도 다들 아실 줄 압니다.’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또 여러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지정하여 가리켜 ‘대사’와 같은 직책에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주미 대사에 지명되다.’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한편, ‘지목하다’는 ‘그는 나를 범인이라고 지목하지 않았다.’와 같이 어떤 사람이 어떠한다고 가리켜 정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지명하다’처럼 직책을 나타내는 말과도 쓰일 수 있는데, 이때에도 ‘누가 그 직책이 되었나’보다는 ‘어떠한 사람으로 가리킨 것이냐’에 초점을 두어 말하는 것이므로 ‘지명하다’와는 쓰임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회장 후보로 지목된 사람’과 같이 쓰입니다.

‘휴무’와 ‘휴업’의 의미가 다소 비슷한 것 같은데요. ‘휴무’는 직무를 쉬는 것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금일 휴무’로 써도 괜찮은가요? 그리고 ‘휴무합니다/휴무입니다’, ‘휴업합니다/휴업입니다’ 중에 어떤 것이 더 적합한 표현인지도 알려 주세요.

‘휴무’는 ‘직무를 보지 아니하고 하루 또는 한동안 쉬.’을 뜻하고, ‘휴업’은 ‘사업이나 영업, 작업 따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하루 또는 한동안 쉬.’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뜻을 고려하여 장사를 하루 쉰다고 할 때에는 ‘휴업’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기간 휴무합니다.’, ‘내부 수리 공사로 당분간 휴업합니다.’와 같이 동사 ‘휴무하다’, ‘휴업하다’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휴무 · 휴업

휴무
휴업
휴무하다
휴업하다

?!

깨치다

일의 이치 따위를 깨달아 알다.

예 수학 공식을 깨치다.

깨우치다

깨달아 알게 하다. 예 동생의 잘못을 깨우쳐 주다.

참여하다 ·
참석하다 ·
참가하다

참여하다
참석하다
참가하다

‘참여하다’, ‘참석하다’, ‘참가하다’의 정확한 의미 차이가 뭔가요? 사전을 찾아봐도 세 단어의 의미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단어를 선택하여 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먼저 각 말을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에 기대어서 보면 ‘참여하다’는 ‘어떤 일에 끼어들어 관계하다.’, ‘참석하다’는 ‘모임이나 회의 따위의 자리에 참여하다.’, ‘참가하다’는 ‘모임이나 단체 또는 일에 관계하여 들어가다.’의 뜻을 지닙니다. 이를 보면 각각 그 의미의 초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참여하다’는 ‘어떤 일에 관계하다.’의 의미로 쓰여 그 일의 진행 과정에 개입해 있는 경우를 드러내는 데에 쓰이는 것이고, ‘참석하다’는 모임이나 회의에 출석하는 것의 의미를 지니는 경우에 사용하며, ‘참가하다’는 단순한 출석의 의미가 아니라 ‘참여’의 단계로 들어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그 노인은 혼자 있기를 좋아한다.
2. 그 노인은 홀로 있기를 좋아한다.

위의 두 문장이 같은 뜻인 것 같은데, 다른 점이 있나요?

‘혼자’와 ‘홀로’는 의미가 비슷한 어휘이지만 품사가 다릅니다. ‘혼자’는 명사이고, ‘홀로’는 부사입니다. 따라서 품사의 특징에 따라 쓰임새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사는 ‘무엇이 어찌하다’와 같은 문장에서 ‘무엇’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가 되었다.’와 같은 문장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부사는 명사와 같이 문장의 필수 성분 기능이 없으며, 위와 같은 문장에 ‘홀로’를 대입해 보면 ‘홀로가 되었다.’와 같이 어색한 문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혼자 · 홀로

혼자
홀로

표기 · 표시

표기

표시

사무 관리 규정 제10조 제3항을 보면 “문서에 쓰는 날짜의 표기는 숫자로 하되, 연 · 월 · 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하며, 시 · 분의 표기는 24시간제에 따라 숫자로 하되, 시 · 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하는 ‘표기’와 ‘표시’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국어사전만 보고는 ‘표시’와 ‘표기’의 차이점을 모르겠습니다.

‘표기(表記)’는 무엇을 적거나 적어서 나타낸 기록이라는 뜻으로, 문자라는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이 전제되는 말이며, ‘공책에 다음 내용을 표기해 주세요.’, ‘그는 이력서에 대졸이라고 표기하였다.’와 같이 쓰입니다. 한편 ‘표시(表示)’는 겉으로 드러내 보인다는 뜻으로, ‘읽던 부분을 접어서 표시해 두었다.’, ‘나뭇가지에 끈을 매달아 등산로를 표시했다.’처럼 겉으로 드러내는 모든 표식을 뜻하는 말입니다.

영수증에는 ‘일금 000원’으로 표시하고, 회계에서는 금액을 표시할 때 ‘금 000원’으로 표시합니다. ‘금’과 ‘일금’의 정확한 의미와 구별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특정 조직에서 이 둘을 구별하여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사전의 풀이와 예문만을 참고한다면 영수증에서든 회계 장부에서든 ‘금’과 ‘일금’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금’과 ‘일금’은 각각 ‘문서에서 돈을 이르는 말’과 ‘돈의 액수를 나타내는 수사 앞에 쓰여 전부의 돈을 나타내는 말’로 풀이하고 있으며, 이는 사용상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장에서 사용되는 경우 ‘금 얼마’로 표기하는 경우에 ‘돈’을 나타내는 의미와 ‘황금’을 나타내는 의미를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일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 · 일금

금
일금

효과 · 영향

효과 영향

책을 읽다가 ‘영향’과 ‘효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해져서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영향’은 ‘어떤 사물의 효과나 작용이 다른 것에 미치는 일’을 말하고, ‘효과’는 ‘어떤 목적을 지닌 행위로 드러나는 보람이나 좋은 결과’를 말하는 것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효과’와 ‘영향’은 각각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문맥에서 구별되어 쓰입니다. 예를 들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다./작은 광고판 하나로 선전 효과를 얻으려 하는 것은 무리였다./남편의 말은 아내의 슬픔을 달래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좋은 약은 모두 먹었으나 별 효과가 없었다.’에 쓰인 ‘효과’는 ‘보람이나 좋은 결과’를 뜻하는 말인데, 이 ‘효과’ 대신 ‘영향’을 쓸 수 없습니다. 또 ‘아이는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지나친 흡연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기압골의 영향으로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유년 시절의 여러 가지 기억 중에서 그 후 내 삶의 행동 양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장면이 하나 있다.’에 쓰인 ‘영향’은 ‘결과나 현상이 다른 것에 미치는 일’을 뜻하는 말인데, 이 ‘영향’ 대신 ‘효과’를 쓸 수 없습니다.

‘아마’와 ‘어쩌면’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 두 단어를 크게 구분하지 않고 서로 섞어서 사용해도 무방
한가요?

아마 · 어쩌면

아마
어쩌면

‘아마’와 ‘어쩌면’이 ‘짐작/가능성’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는 서로 비슷하지만, 통사적으로 볼 때 ‘아마’와 ‘어쩌면’이
어떤 경우라도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을 만큼 의미에 차이
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짐작/가능성’에 대한 확신의 정도
에 따라 문장 구성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대체로 확신
의 정도가 높은 ‘아마’의 경우는 뒤에 ‘것이다(거다)’와 같
은 표현과 호응할 때, ‘어쩌면’의 경우는 ‘-르지도 모르다’와 같은 표현과 호응
할 때 자연스러운 문맥을 형성하게 됩니다.

- 예 1. ‘아마’의 자리에 ‘어쩌면’을 쓰면 어색한 경우: 아마 그때가 가을이었지./
어쩌면 그때가 가을이었지.(?)
2. ‘아마’를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경우: 아마 그럴 거야./어쩌면 그럴 거
야.(?)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
아마 널 기다리고 있을 거다./어쩌면 널 기다리고 있을 거다.(?) (→어쩌
면 널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3. ‘어쩌면’을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경우: 어쩌면 그가 올지도 몰라./아
마 그가 올지도 몰라.(?) (→아마 그가 올 것이다.)
어쩌면 그가 말한 것이 모두 거짓말일지도 모른다./아마 그가 말한 것이
모두 거짓말일지도 모른다.(?) (→아마 그가 말한 것이 모두 거짓말일
것이다.)

갯벌 · 개펄

개펄 갯벌

‘갯벌’과 ‘개펄’이 다른가요?

‘개펄’은 ‘갯가의 개흙 깔린 벌판’을, ‘갯벌’은 ‘바닷물이 드나드는 모래사장. 또는 그 주변의 넓은 땅’을 이르는 말입니다. 즉 ‘개펄’은 ‘개흙, 즉 거무스름하고 미끈미끈한 고운 흙이 깔린 부분’만을 이르는 말이고, ‘갯벌’은 ‘그 개흙이 깔린 부분 외에 모래가 깔린 부분까지 좀 더 넓은 부분’을 이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 그렇다

그러다 그렇다 그러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았다면

‘먼저 알았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다.’에서 ‘그렇지 않았다면/그러지 않았다면’의 차이가 있나요? ‘그렇다’가 형용사이고 ‘그러다’가 동사인 건 알겠는데 저 문장에서 둘의 의미 차이를 모르겠어요.

동사 ‘그러다’와 형용사 ‘그렇다’는 앞에 나온 말을 대신 받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문맥상 동사의 의미를 받는다면 동사 ‘그러다’를 쓰고, 형용사의 의미를 받는다면 형용사 ‘그렇다’를 씁니다. 보이신 문장은 동사 ‘알다’의 의미를 받으므로 동사 ‘그러다’를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데.’와 같은 문장에 나오는 ‘-는데’와 ‘-는데’의 용법이 헷갈립니다. 그 차이를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는데 ·
-는데

‘-는데’는 ‘이 많은 책을 언제 읽는데?’와 같이 어떤 사실이 주어진 것으로 치고 그 사실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쓰이거나 ‘(철수는 그곳에 안 가고) 여기 있는데.’처럼 ‘-는다고 해’가 줄어든 말로 쓰입니다. 한편 ‘-는데’는 ‘(나는) 여기 있는데 (너는 왜 거기 있니?)’와 같이 뒤 절에서 어떤 일을 설명하거나 묻거나 시키거나 제안하기 위하여 그 대상과 상관되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로 쓰이거나 ‘잘 달리는데.’와 같이 어떤 일을 감탄하는 뜻을 넣어 서술함으로써 그에 대한 청자의 반응을 기다리는 태도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쓰입니다.

있는데
있는데
-는데
-는데

홀몸 · 홀몸

홀몸 홀몸

‘홀몸’과 ‘홀몸’의 차이에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교통 사고로 가족을 모두 잃고 홀몸이 되었다.’와 ‘사고로 아내를 잃고 홀몸이 되었다.’에서 ‘홀몸’과 ‘홀몸’에 차이가 있나요?

‘홀몸’은 ‘(1) 딸린 사람이 없는 혼자의 몸, (2) 아이를 배지 아니한 몸’의 뜻입니다. 그리고 ‘홀몸’은 ‘배우자나 형제가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홀몸 (1)’과 ‘홀몸’은 엄밀하게 말하면 동일한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나 형제가 없으나 다른 가족이 있을 경우에 ‘홀몸’이라 할 수 있지만 ‘홀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교통사고로 가족을 모두 잃고 홀몸이 되었다.’와 ‘사고로 아내를 잃고 홀몸이 되었다.’라는 문장도 그러한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경고문(警告文)

경고하는 글

경고장(警告狀)

경고하는 내용을 적은 서류장

1. 오늘 달이 아주 밝대.

2. 오늘 달이 아주 밝데.

위 두 문장의 쓰임이 어떻게 다른지 알려 주세요.

‘대’는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남이 말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때 쓰이고, ‘-데’는 화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나중에 보고하듯이 말할 때 쓰이는 말로 ‘-더라’와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데 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달이 아주 밝대.’는 일기 예보나 남이 말한 내용을 듣고 이를 다시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말이며, ‘달이 아주 밝데.’는 ‘달이 아주 밝더라.’와 같은 의미로, 본인이 직접 보고 느낀 것을 나중에 누군가에게 회상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밝대 · 밝데

밝대

밝데

-대

-데

-더라

-던지 · -든지

연결 어미

-던지

-든지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던지’와 ‘-든지’를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해서 써야 한다고는 알고 있지만 쉽게 구별되지 않아서 부탁드립니다.

‘-던지’는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을 뒤 절의 사실이나 판단과 관련시키는 데 쓰는 연결 어미입니다.

- 예 1. 얼마나 열심히 하던지 내가 불러도 모르더군.
얼마나 춥던지 손이 곱아 펴지지 않았다.
아이가 밥을 얼마나 많이 먹던지 배탈 날까 걱정되었다.

‘-든지’는 나열된 동작이나 상태, 대상들 중에서 어느 것이든 선택될 수 있음을 나타내거나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일어나도 뒤 절의 내용이 성립하는 데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입니다.

2. 숙제를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집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해라.
노래를 부르든지 춤을 추든지 간에 네 맘대로 해라.

1. 모든 것이 마음먹기 나름이다.
2. 모든 것은 마음먹기 나름이다.

위 두 예문 중에 조사 ‘이’와 ‘은’은 둘 다 가능한 표현인가요?
 첫 번째 예문이 약간 어색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
 네요. 만약 두 예문 다 적절한 표현이라고 하면 (조사 쓰임에서)
 두 조사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문법적으로는 ‘이’가 격 조사,
 ‘은’이 보조사라고 알고 있는데 쓰임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두 문장 모두 쓸 수 있습니다. 격 조사 ‘이’가 붙으면 격 조
 사의 쓰임에 따라 ‘이’가 붙은 단위가 다른 말에 대하여 갖는
 일정한 자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보조사 ‘은’이 붙으면 보조사의 쓰임
 에 따라 ‘은’이 붙은 단위에 특별한 뜻이 더해집니다. 제시하신 문장의 ‘모든
 것은’에서 ‘은’은 문장 속에서 어떤 대상이 화제임을 나타냅니다.

이/가·
은/는

격 조사
보조사
이/가
은/는

어떤 때 · 어떨 때

어떤 때

어떨 때

어떤

어떨

‘어떤 때는/어떨 때는 누가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 힘이 된다.’

위 문장에서 ‘어떤 때’와 ‘어떨 때’ 중 어느 것이 바른 표현인가요?

‘어떤’은 대상을 뚜렷이 밝히지 않고 이를 때 쓰는 말로, 관형사입니다. ‘어떨’은 형용사인 ‘어떻다’ 또는 ‘어떠하다’의 관형사형이기는 하지만 ‘어떤’처럼 관형사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때’의 의미로 ‘어떨 때’를 쓰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어떨’이 ‘날씨가 어떨 때 우산을 쓰니까?’와 같은 문장에서처럼 서술성을 지니고 있을 때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떨’은 ‘날씨가’를 주어로 하는 관형절의 서술어가 되기 때문입니다. 문의하신 문장에서는 ‘어떤 때는 누가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 힘이 된다.’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불가하므로’, ‘불가함으로(써)’와 같은 표현에서 쓰이는 ‘-므로’, ‘-ㅁ으로(써)’를 어떻게 구분하여 쓰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므로’는 ‘-기 때문에’란 까닭의 의미를 나타내고, ‘-ㅁ으로(써)’는 ‘-는 것으로(써)’란 수단 또는 방법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문장이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에 따라 적절한 형태를 골라 쓰실 것을 권합니다.

예 1. -므로

그는 부지런하므로 성공할 거야.

그는 훌륭한 학자이므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다.

2. -ㅁ으로(써)

그는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겠단다.

그는 열심히 일함으로(써) 삶의 보람을 느낀다.

-므로 ·
-ㅁ으로(써)

-므로
-ㅁ으로(써)
-기 때문에
-는 것으로(써)

지 · -ㄴ지

의존 명사 어미 지 -ㄴ지

의존 명사 ‘지’와 어미 ‘-ㄴ지’를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장 속에서 보면 어떤 때에 의존 명사로 쓰이고 어떤 때에 어미로 쓰이는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존 명사 ‘지’ 앞에 어미 ‘-(으)ㄴ’이 붙은 활용형이 옳으로 어미 ‘-(으)ㄴ지’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존 명사 ‘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말로, ‘그를 만난 지도 꽤 오래되었다.’, ‘집을 떠나 온 지 어언 3년이 지났다.’, ‘강아지가 집을 나간 지 사흘 만에 돌아왔다.’와 같이 ‘시간의 길이’와 관련된 문맥에서 쓰인다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어미 ‘-(으)ㄴ지’는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을 뒤 절의 사실이나 판단과 관련시키는 데 쓰는 연결 어미로, ‘기분이 좋은지 휘파람을 분다.’, ‘얼마나 부지런한지 세 사람 몫의 일을 해낸다.’와 같이 쓰입니다.

‘의’와 ‘에’를 쓸 때, 어떤 때에 ‘의’를 쓰고 어떤 때에 ‘에’를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 · 에

조사 의 에

조사 ‘의’는 체언 뒤에 붙어 그 체언이 관형사 구실을 하도록 할 때 씁니다.

1. 뒤 체언이 나타내는 대상이 앞 체언에 소유되거나 소속됨을 나타내는 경우

예 나의 옷/그의 가방/영이의 얼굴/우리의 학교/어머니의 성경 책

2. 앞 체언이 뒤 체언이 나타내는 행동이나 작용의 주체임을 나타내는 경우

예 우리의 각오/국민의 단결/너의 부탁/나라의 발전

3. 앞 체언이 뒤 체언이 나타내는 대상을 만들거나 이룬 형성자임을 나타내는 경우

예 다윈의 진화론/나의 작품/거문고의 가락

조사 ‘에’는 체언 뒤에 붙어 그 체언이 부사어임을 나타낼 때 씁니다.

1. 앞말이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경우

예 옷에 먼지가 묻다./언덕 위에 집을 짓다./나는 시골에 산다.

2. 앞말이 시간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경우

예 나는 아침에 운동을 한다./우리, 오후에 만나자./진달래는 이른 봄에 핀다.

3. 앞말이 진행 방향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경우

예 학교에 가다./동생은 방금 집에 갔다./지금 산에 간다.

-도록 하다 · -게 하다

-도록 하다
-게 하다
-도록
-게

‘-도록 하다’와 ‘-게 하다’는 서로 바꿔 쓸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바꿔 쓸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바꿔 쓸 수 없는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도록’이 ‘하다’와 같이 쓰이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거나 시킴을 나타내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므로 ‘-게 하다’와 비슷한 맥락에 쓰일 때가 있습니다.

1. 어떤 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시키거나 물건인 경우
어떤 작동을 하게 만드는 의미를 나타낸다.

예 교수님께서 정관이한테 이 주제로 리포트를 쓰도록 하셨다.(O)/쓰게 하셨다.(O)

2. 어떤 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허락함을 나타낸다.

예 할아버지께서는 화가 가라앉자 그제서야 손자를 방에 들어오도록 했다.(O)/들어오게 했다.(O)

3. (‘하다’가 명령형이나 청유형으로 쓰여) 듣는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명령하거나 권유함을 나타낸다.

예 건물 내에서는 흡연을 삼가도록 하세요.(O)/삼가게 하세요.(X)

4. (‘-도록 하겠다’ 구성으로 쓰여) 말하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할 것이라는 의지나 다짐을 나타낸다.

예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O)/조심하게 하겠습니다.(X)

위의 ‘-도록 하다’의 용법을 살펴보면 네 가지가 있는데 그중 용법 1과 2의 경우에 ‘-게 하다’로 바꿔 쓸 수 있으며, 용법 3과 4의 경우에는 ‘-게 하다’로 바꿔 쓸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에게 ‘-느라고’라는 표현을 설명하였는데, ‘-니까’나 ‘-아서’와 차이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더군요.

‘일을 배워서 바빠요.’

‘일을 배우니까 바빠요.’

‘일을 배우느라고 바빠요.’

위 문장을 보면 분명히 쓰임이 다른 것 같은데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느라고’와 ‘-니까’, ‘-아서’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까 ·
-아서 / 어서

연결 어미

-느라고

-니까

-아서

-어서

‘-느라고’는 앞 절의 사태가 뒤 절의 사태에 목적이나 원인이 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영희는 웃음을 참느라고 땀 데를 보았다.’, ‘철수는 어제 책을 읽느라고 밤을 새웠다.’처럼 씁니다. ‘-니까’와 ‘-아서/어서’는 뒤 절의 결과를 이끄는 원인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입니다. 그런데 ‘-아서/어서’는 뒤 절에 청유문과 명령문이 올 수 없다는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니까’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밖에 · 그 밖의

그 밖에 그 밖의 에 의

‘그 밖에 다른 것들’과 ‘그 밖의 다른 것들’ 중 어느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 밖에’와 ‘그 밖의’를 모두 쓸 수 있으나 ‘그 밖에’에 결합된 ‘에’는 부사격 조사이고, ‘그 밖의’에 결합된 ‘의’는 관형격 조사라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장에서 ‘그 밖에’는 부사어로, ‘그 밖의’는 관형어로 기능합니다. 예컨대 ‘그 밖에 다른 것도 있었다.’와 같은 문장에서 ‘그 밖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어 구실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다른 것도 있었다.’와 같은 문장에서 ‘그 밖의’는 뒤의 명사구 ‘다른 것’을 수식하는 관형어 구실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미 ‘-어서/어’를 검색해 보니 비슷한 부분이 많아 그 차이를 알기가 쉽지 않네요. 그 미묘한 차이가 무엇인지요?

-어서 · -어

‘-어서’와 ‘-어’는 다음 두 가지 기능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번갈아 쓸 수 있습니다.

연결 어미

-어서

-어

1. 시간상의 선후 관계를 나타내거나 방법 따위를 나타

내는 연결 어미

예 양념을 넣어(서) 맛을 낸다.

2. 까닭이나 근거 따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예 간식을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다.

하지만 ‘-어’는 ‘-어서’와 달리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쓰입니다. 이때 ‘-어’로만 쓸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3.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연결하는 데 쓰는 연결 어미

예 밤이 깊어 간다.(O)/밤이 깊어서 간다.(X)

참고로 1과 2로 사용되는 경우에 사전적으로는 ‘-어서’와 ‘-어’가 같은 의미이지만, ‘-어서’의 경우 ‘-어’에 ‘서’를 덧붙여 사용하여 음상이 강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조사 ‘을·만’

격 조사 보조사 을/를 만

어떤 행사에서 다음처럼 사회자가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1. 애국가 1절을 부릅니다.
2. 애국가 1절만 부릅니다.

이 두 문장에서 맞는 것은 어느 문장입니까? 두 문장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려 주십시오.

두 문장 모두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쓰인 조사에 따라 뜻에 차이가 있습니다. ‘1절을’에는 앞말이 다른 말에 대하여 갖는 일정한 자격을 나타내는 격 조사 ‘을’이 붙었고, ‘1절만’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를 더해 주는 보조사 ‘만’이 붙었습니다. 이에 따라 ‘1절을’은 부르는 동작의 대상이 ‘1절’이라는 것을 뜻하는 반면, ‘1절만’은 다른 것으로 제한되어 ‘1절’에 한정된다는 의미가 더해집니다.

‘어떤 때’와 ‘어쩔 때’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 두 단어의 쓰임은 어떻게 다른가요?

어떤 · 어찌다

‘어떤’은 관형사이고, ‘어찌다’는 ‘어찌하다’의 준말인 동사입니다. 사물의 특성, 내용, 상태, 성격이 무엇인지 물을 때에나 주어진 여러 사물 중 대상으로 삼는 것이 무엇인지 물을 때, 관련되는 대상이 특별히 제한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형사 ‘어떤’을 쓰고, ‘어떠한 방법으로 하다.’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어찌하다’의 준말인 ‘어찌다’를 씁니다. 아래의 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쩔
어찌다
어찌하다

- 예 1. 어떤 때는 돌아올 때 인력거나 자동차를 태워 주고 겸하여 커다란 과자 상자 같은 것까지 덤적이 안겨 주기도 하였다(한설야, “탑”).
2. 어쩔 때 보면 저런 쥐알봉수가 어떻게 산적 두목인가 싶을 지경이야(송기숙, “녹두 장군”).

알아 두면 유용한 외래어 표기 ③

원어	맞는 표기	틀린 표기	설명
credit	크레디트	크레딧	‘신용’으로 바뀌 쓸 수 있습니다.
target	타깃	타겟	상황에 따라 ‘목표, 중심, 표적, 과녁, 대상’으로 바뀌 쓸 수 있습니다.
towel	타월	타올	‘수건’으로 바뀌 쓰는 것이 좋습니다.
tablet	태블릿	타블렛	‘자리판’이라는 말로 바뀌 쓸 수 있습니다.
total	토털	토탈	‘합계, 총계, 종합’으로 바뀌 쓸 수 있습니다.
trans 지방	트랜스 지방	트렌스 지방	‘변이 지방’으로 바뀌 쓸 수 있습니다.
fighting	파이팅	화이팅	‘힘내자’, ‘아자’로 바뀌 쓸 수 있습니다.
fanfare	팡파르	팡파레	‘개막(곡), 축하곡, 축하 음악, 환영 음악’으로 바뀌 쓸 수 있습니다.
family	패밀리	훼미리	‘가족’이라는 우리말이 있습니다.
pamphlet	팸플릿	팜플렛	‘소책자, 작은 책자’로 바뀌 쓸 수 있습니다.
portal site	포털 사이트	포탈 사이트	‘들머리 사이트’로 바뀌 쓸 수 있습니다.
propose	프러포즈	프로포즈	‘청혼, 고백, 제안’으로 바뀌 쓸 수 있습니다.
fitness	피트니스	휘트니스	‘체력 단련’으로 바뀌 쓸 수 있습니다.
conference	콘퍼런스	컨퍼런스	‘학술 회의’나 ‘학술 대회’로 바뀌 쓸 수 있습니다.
blog	블로그	블러그	‘누리사랑방’으로 다듬었습니다.



찾아보기

찾아보기

ㄱ

- 가 142
- 가(家) 95
- 가리키는 말 107
- 가 보다 201
- 가사랑 16
- 가십시오 53
- 가운뎃점 30
- 가장 284
- 가졌으면[가져쓰면/가져
쓰면] 163
- 가죽을[가주글] 172
- 가지다 36
- 가질 36
- 각 244
- 각각 244
- 각출 246
- 각출하다 246
- 간 202, 211
- 간 211
- ‘() 간’의 띄어쓰기 211
- 간접 명령 66
- 간접 인용절 133
- 갈 거죠 38
- 갈 꺼죠 38
- 갈빗집 234
- 감사합니다 108
- 감쪽같은 181
- 갑절 243
- 갑 티슈 87
- 값있는[가빈는] 167
- 강사 301
- 강의의[강의의/강이의/
강의에/강이에] 165
- 강조 127
- 갇다 36
- 갇을 36
- 같다 181
- 같은 181
- 같은 계열 30
- 개다 37, 132
- 개발 245
- 개었다 37
- 개이다 132
- 개인 132
- 개최되다 287
- 개최하다 287
- 개펄 324
- 갠 132
- 갯벌 324
- 갬다 37
- 갱신 248
- 각출 246
- 각출하다 246
- 거 38
- 거기다 138
- 거기에다 138
- 거기에다가 138
- 거로구먼 67
- 거리 140
- 걸 179
- 걸다 289

결세 237
 결이 75
 것을 179
 것일세 237
 -게 334
 게로구먼 67
 -게요 163
 -게 하다 334
 격 조사 329, 338
 겹받침 158
 경신 248
 경우 84
 경우에는 84
 계발 245
 계세요 54
 계셔요 54
 계시다 148
 계시어요 54
 고 192
 고(故) 117

-고 283
 고객 108
 -고 나다 125
 -고는 126
 고리 75
 고맙습니다 108
 고모 99
 고생 118
 -고 싶다 212
 고유 명사 149, 215, 226
 고유 명사 표기 152
 -고 있다 205
 고치다 55
 고치려고 55
 고칠려고 55
 곱배기 9
 곱빼기 9
 곱절 243
 공권력[공권력] 153

공릉[공능] 165
 공부하였던 247
 공부한 247
 공부했던 247
 공정률 10
 공정율 10
 과거 완료 121
 과거 진행 121
 과반수 249
 과반수 이상 249
 과반수 초과 249
 과장님께서 115
 곱 티슈 87
 관계자 288
 관련되다 124
 관련이다 124
 관련짓다 236
 관련 짓다 236
 관련하다 124
 관용구 31

관형사 117
 괄호 211
 괄호 뒤 조사 22
 관촬느냐 137
 관촬으나 137
 교만 285
 구 79
 구개음화 155
 -구나 132, 139
 구름양 16
 구분(을) 짓다 236
 구분짓다 236
 구청 79
 굴러 들어오다 216
 굴러들어 오다 216
 굴러들어오다 216
 굶다 58
 궁금해하다 182
 궁금해할지도 182
 궁금해 할지도 182
 권고하되 21
 권고하대 21
 귀 184
 귀네스 팰트로 150
 귀네스팰트로 150
 귀사 184
 귀 사 184
 귀하 97, 184
 그것 때문에 81
 그 다음 날 184
 그 다음날 184

그랬나 봐 213
 그러고 나서 125
 그러고는 126
 그러나 286
 그러다 125, 324
 그러므로 21
 그러지 않았다면 324
 그런 만큼 185
 그럼으로(써) 21
 그렇다 55, 324
 그렇죠 55
 그렇지 않았다면 324
 그렇지 않으면 291
 그리고 125, 291
 그리고 나서 125
 그리고는 126
 그러하다 55
 그 밖에 336
 그 밖의 336
 그 밤 183
 그 사람 101
 그 외 183
 그쵸 55
 그 후 183
 근정 295
 금 321
 금시에 16
 금세 16
 금새 16
 금슬 120
 금실 120

금액 표기 69
 -기 때문에 331
 기성회 254
 기억해 두다 201
 김 씨 185
 김씨 185
 깊다 86
 깊은 양해 86
 깨끗하지 않다 38
 깨끗지 않다 38
 깨끗잡다 38
 깨끗찮다 38
 껌질 채 276
 껌질째 276
 꽃집 234
 끓이다 268
 끓일 듯 말 듯 187
 끝나다 290
 끼다 50
 끼어 50
 끼여 50
 끼이다 50

ㄴ

-ㄴ데 211, 238
 -ㄴ 데다가 228
 -ㄴ데다가 228
 -ㄴ바 206
 ‘ㄴ’ 소리 덧남 23
 -ㄴ/은 247
 -ㄴ지 332

ㄴ 첨가 160	내디디었다 137	놀을거리 140
나누다 88	내디뎠다 137	높다 81
나누어 88	내딜다 137	높임말 148
나만 하다 188	내딜었다 137	높임법 102, 104, 110,
-나 보다 213	내려뜨리다 147	114
-나 봐 213	내리갈다 147	높임 표현 78, 100, 105
나쁘대요 56	내리꽃다 147	누구예요 49
나쁜데요 56	내 주다 216	누구예요 49
나쁜대요 56	내주다 216	누우면 58
나왔다 57	너머 119	누으면 58
나이 81	너무 260	-느냐 70, 137
난 11	넌따랄다 89	-느냐고 133
난도 90	넙다랄다 89	-느냐고 해 40
난이도 90	넙다 86	-느라고 335
남편 여동생의 남편	넙은 양해 86	느리다 249
96	넙다 119	는 22
남편의 누나 99	넙어 119	-는 64
남편의 여동생 99	네 76, 94	-는 것으로(써) 331
낫다 57	-냐 70	-는구나 132, 139
낫표 25	-냐고 133	-는대 325
났다 57	-냐고 해 40	-는데 56, 235, 325
낫다 81	년 18	-는데도 211
낫서니 53	노고 118	-는 데도 211
낫서오 53	노나 88	늘다 64
낫설다 53	노느다 88	늘리다 250
낫섭니다 53	노랫말 23	늘이다 250
낫습니다 53	노원구 79	늦다 249
날날의 244	노원구청 79	-니 126
내 207	놀 거리 140	-니까 335
내다 265	놀거리 140	님 97, 112, 232
내디디다 137	놀을 거리 140	-님 232, 301

님아 112
님이여 112

ㄷ

‘ㄷ’ 불규칙 용언 47

다 292

-다고 23

-다고요 23

-다구요 23

다달이 145

다르다 251, 253

다른 253

-다시피 64

단어 형성 방식 147

단자 295

달다 289

(실력이) 달려서 92

(실력이) 달리다 92

달마다 145

담가 60

담귀 60

담그다 60

당기다 252

당사자 288

대결만큼 185

대답하는 말 63, 94

대문자 149

대여받다 77

대여하다 77

-대요 56

대표음 164

댕기다 252

더 229

-더- 134

-더라 134, 327

덕분 255

-던 247

-던지 328

덧붙임 263

데 235, 238

-데 327

-도록 334

-도록 하다 334

도무지 290

도움이 되었기를 78

도움이 되셨기를 78

도저히 290

돌 93

돛 93

돕다 58

동사 123, 216

동우회 254

동작하다 218

동작하십시오 218

동호회 254

돼 51

돼먹다 195

되- 51

-되 21

되다 51, 109

되어 51

되어 있다 205

되어있다 205

된소리 13

두껍게 86

두껍다 86

두는 102

두말하다 217

두말하면 217

두시는 102

두음 법칙 19

두째 20

두텁게 86

두텁다 86

둘째 20

뒤 문장 10

뒷골목 10

뒷일 10

드러냄표 25

드리다 191

-드리다 85

-든지 328

들 208

-들 208

들어가 봐야 224

들어가봐야 224

들어 주다 189

들어주다 189

듯 187

-듯 187

듯하다 200

등 280

디귤이[디그시] 162

따 159
 따 놓은 당상 92
 따 논 당상 92
 따님 109
 따라서 하다 217
 따라 하다 217
 따라하다 217
 따로따로 244
 따옴표 26, 192, 218
 탄 253
 딸내미 109
 (실력이) 딸려서 92
 (실력이) 딸리다 92
 땅기다 252
 때문 81, 255
 때문에 81
 때문에요 59
 때문이에요 59
 때문예요 59
 땡기다 252
 떨다 278
 떼려야 24
 떼어 놓은 당상 92
 떼 논 당상 92
 떨래야 24
 또는 291
 또 한 번 190
 또 한번 190
 띄다 138
 띄어쓰기 150
 띄어 쓰다 188

띄우다 138
 띠며 138
 띠어 138

‘르’ 불규칙 용언 62
 리더십 156
 리 158

ㄹ

ㄹ 154
 -ㄹ걸 179, 237
 -ㄹ게요[-ㄹ께요] 163
 -ㄹ는지 50
 -ㄹ락 말락 196
 -ㄹ래야 24
 -ㄹ런지 50
 -ㄹ뿐더러 194
 -ㄹ수록 237
 -ㄹ지 131
 라고 192
 -라고 23
 -라고요 23
 -라구요 23
 란 11, 62
 -란 62
 량 16
 -려고 55
 -로구먼 67
 로마자 표기 147, 149,
 150, 151, 152, 154
 로서 257
 로써 257
 룡 19
 -룰 10
 ‘ㄹ’ 불규칙 용언 156

ㄴ

-ㄴ 41
 -ㄴ으로(써) 331
 마는 42
 마다 145, 256
 마라 41
 마란 62
 마세요 80
 마시오 80
 마이 95
 마추다 72
 마춤 72
 마치다 290
 마침표 29, 31
 막내 106
 만 42, 188, 193, 219,
 338
 만 38세 193
 만 38세 193
 만 나이 193
 만들어지다 207
 만 원대 281
 만 원 대 281
 만 원 선 281
 만은 42
 만큼 185
 만 하다 188

만하다 200	머리돌 33	모이다 136
많다 81	머무는 43	몹쓸 293
많이 260	머물다 43	몹쓸 짓 293
만이 106	머무르다 43	몹시 260
말 258	머물러 43	못 돼먹다 195
말다 41, 62	먹을락 말락 하다 196	못 되다 198
말라고 41	덜뿐더러 194	못되다 195, 198
말라는 62	덜 뿐더러 194	못생기다 214
말씀 258	메다 259	못 생기다 214
말씀이다 100	멤버십 156	못쓰다 293
말씀이시다 100	명목 GNP 232	못쓸 293
말아라 41	명목GNP 232	못쓸 짓 293
맛있다[마뉘따/마신탘/ 만닐따] 159	명목 국민 총생산 232	못 잊어[몬니저/모디저] 167
맞추다 14, 72	명목국민총생산 232	못 하다 198
맞춤 72	명사 186	못하다 198
맞히다 14	명사형 어미 41	무슨 294
말김 298	몇 203	무엇을 44
매 262	몇 번 222	무엇하다 199
매개모음 128	몇번 222	무정물 268
매 기말 193	모니터링을 하다 221	문장 끝 29
매기말 193	모니터링하다 221	문장 부호 25, 26, 27, 28, 29, 30, 31, 32
매다 259	모다 136	묻다 83
매달 145, 193	모두 292	물어 83
매부 113	모듬 75	뭐 199
매우 260	모듬냄비 75	뭐이다 44
매월 145, 193	모듬밥 75	뭐일까 44
매제 113	모듬 75	뭐 하다 199
머리말 33	모르는구나 139	뭐하다 199
머릿말 33	모르구나 139	월 44
머릿돌 33	모아지다 136	
	모으다 136	

뭇가 44
 -므로 331
 미- 292
 미만 272
 미소를 띠다 138
 미식별 292
 [민주주의의 의의] 173
 뭇 291

ㅂ

-ㅂ니다 52
 ‘ㅂ’ 불규칙 용언 45
 바 206
 바뀌다 45
 바뀌었다 45
 바꼈다 45
 바르다 62
 바빴다 39
 바빴다 39
 세네 76
 밖 186
 밖에 186
 반수 249
 반수 이상 249
 반점 27
 반증 261
 받다 83
 받으실 수 있다 105
 받침 있는 이름 142
 받침 소리 164
 받혀[바쳐] 168

받히다[바치다] 168
 발간 연도 15
 발견하다 297
 발굴하다 297
 발라 62
 발라서 62
 발생되다 119
 발생하다 119
 발음 155, 158, 159,
 160, 161, 162, 163,
 165, 166, 167, 168,
 169, 171, 172, 173,
 174, 175
 밝대 327
 밝데 327
 밝고 161
 밝다 161
 방증 261
 방출 296
 발다 94
 발에 155
 발은 155
 발이 155
 발트다 94
 -배기 9
 배상 295
 배출 296
 백로[뱅노] 170
 백옥 같은 181
 뻗어 61
 벌써 306

벚꽃[번꽃] 153
 벼품 41
 별로 122
 별로예요 122
 보기 93
 보내다 109
 보내 드리다 191
 보내드리다 191
 보란 듯이 233
 보란듯이 233
 보여 드리다 110
 보여 주다 110
 보여지다 142
 보이다 142
 보일락 말락 하다 196
 보조사 129, 188, 329,
 338
 보조 용언 189, 200,
 201, 212, 216, 224
 볼만하다 231
 볼 만하다 231
 볼 만한 231
 볼만한 231
 뵈다 128
 뵈어 128
 뵈다 128
 부 117, 262
 부각시키다 96
 부각하다 96
 부딪다 127
 부딪치다 127

부딪히다 127
 부부간 202
 부상당하다 67
 부상을 당하다 67
 부상(을) 입다 67
 부상입다 67
 부자연스러운 45
 부자연스런 45
 부처다 73
 부탁드리다 191
 -분 85
 분이다 102
 분이시다 102
 불거지다 12
 불고염치하다 71
 불구하다 71
 붙어지다 12
 붙히다 12
 붙여쓰기 188
 붙여 쓰다 188
 불이다 73
 불임 263
 빌다 74
 빌려 74
 빌려 주다 77
 빌리다 74
 빌어 74
 빠르다 249
 빠짐표 27
 빨리 310
 -빼기 9

빼앗다 61
 빼앗아 61
 뺏다 61
 뺏어 61
 뿐 197
 뿐만 아니라 197

人

사귀었다 45
 사겼다 45
 사글세 집 35
 사글셋방 35
 사글셋집 35
 사동 표현 135, 139
 사람 이름 160
 사부님 102
 사이시옷 10, 23, 33,
 34, 35
 사항 298
 살고 있었다 121
 살다 121
 살았다 121
 살짝 299
 살짝요 220
 살짝이요 220
 삶다 268
 삼가다 144
 삼가시기 144
 삼가시길 144
 삼가 주시길 144

-상 230
 상견례[상견례/상결례]
 169
 상황 298
 새까만 300
 새까만 후배 300
 새까맣다 300
 새벽녘 223
 새언니 111
 생겨지다 141
 생기다 141
 샅 154
 서너 76
 서두르다 68
 서둘다 68
 서른두째 20
 서른둘째 20
 서방 113
 서방님 96
 서술격 조사 ‘이다’의
 어간 40
 서투르다 43, 68
 서툴다 43, 68
 서툴러 43
 선 281
 선릉[설릉] 174
 선배 100
 선배님 100
 선생 301
 선생님의 남편 102
 선택지 93

성과 이름 151	숫양[순냥] 17, 161	실력이 느는 64
성냥갑 87	숫염소[순념소] 161	실력이 는 64
성씨 95	숫자 197	실어 47
세 76	쉽표 27	실재 266
세 곱절 243	스승 301	실제 266
세상에 도전하라 268	-습니다 52	‘실천’입니다 218
세상에게 도전하라 268	시 207	실행하다 218
-세요 54, 80	-시- 105, 115	실행하십시오 218
-셔요 53, 54	시각 197	실험 311
소개하는 말 107	시간 197	싫니 126
소개하다 110	시간이 계시다 114	싫으니 126
소개합니다 110	시간이 계신가요 114	십 년 180
소개해 드립니다 110	시간이 있으시다 114	십년 180
소괄호 25, 28, 32	시간이 있으신가요 114	십 몇 203
소문자 149	시누이 99	십몇 203
손님 108	-시오 80	십 몇 대 일 203
숍 154	-시키다 96	십몇 대 일 203
수 17, 237	시험 311	-십시오 53
수개미 17	-식 239	써 보다 201
수고 118	○○○식 239	써지다 130
수리 282	식별 불가 292	쑥스럽다 13
수선 282	신분 은폐 305	쓰다 130
수여 83, 264	신분 은닉 305	쓰여지다 130
수여받다 83	신조 302	쓰이다 130
수캐 17	신조어 302	쓸 데가 없다 225
수캐미 17	신종 302	쓸데없다 225
숨가락 20	신종 플루 302	쓸모없다 225
숨고 있다 205	신청하다 265	씨 107, 185
숨어 있다 205	심는 47	씨(氏) 95
숨어있다 205	실어 47	-씨 185
숫가락 20	실는 47	-씩 256

아내를 가리키는 말
101

아뇨 63

아는 척하다 267

아는 체하다 267

아니 46

(책이) 아니오 63

아니요 63

아니하다 46

아다시피 64

아름다운 45

아름단 45

아마 323

-아서 283, 335

아주머니 96

안 46

안간힘[안간힘] 175

안돼 233

안 돼! 233

안 되다 204, 233

안되다 204, 233

안드러냄표 27

안사람 101

안스럽다 13

안절부절 91

안절부절못하다 91

않는 65, 146

않다 46

않은 65, 146

알다 64

알다시피 64

알은척하다 267

알은체하다 267

앞 문장 10

애쓰다 118

약간 299

양 16

양해 86

-어 337

어느새 16

어느세 16

어두 81

어떠하게 해 48

어떡해 48

어떤 294, 330, 339

어떤 때 330

어떨 330

어떨 때 330

어떻게 48

어떻다 48

어떻해 48

어머니가 104

어머니께서 104

어미 129, 131, 206,
235, 332

-어서 283, 335, 337

-어 있다 205

어조를 고르는 접미사
130, 142

-어지다 141, 207

어쩌다 339

어쩌면 323

어쩔 339

어찌하다 339

-어하다 207

언니 111

얼게 하다 135

얼리다 135

에 268, 269, 333, 336

에게 268

~에 감사합니다 84

-에다 138

-에다가 138

~에 대해 감사합니다
84

에서 269

-에요 49

-여 210

여러 곱절 243

여쭙다 83

여쭙어 83

연 18

연결 어미 194, 238,
283, 328, 335, 337

연도 15

연락드리다 85, 191

연락드리도록 해드리다
85

연령 81

연음 172

열다 287

열리다 287

얹고 161	웃 입다[온넙따/오딧따]	위웃 73
얹다 161	167	위촉 298
염치 71	~와 관련한 문서입니다	윗사람 성함 103
염치 불고하다 71	124	윗웃 73
염치 불구하다 71	~와 관련입니다 124	유발시키다 139
영숙이예요 130	완료형 65	유발하다 139
알파벳 뒤 조사 35	완전 78	유정물 268
영향 322	완전히 78	-을 10
예 94	왕릉[왕능] 174	-으냐 70, 137
예뻐다 39	왜인지 18	-으냐고 133
예뻐라 143	왓지 18	-으냐고 해 40
예뻐져라 143	외 280	-으니 126
예뻐다 39	외국 인명 150	-으려야 24
예쁘구나 139	외래어 221	은 22
예쁜 데다가 228	외래어 표기법 156,	-은 64
예쁜데다가 228	157	은/는 329
예술의 전당 215	요 129, 220	은닉 305
예술의전당 215	요소 304	은폐 305
예요 49, 122, 130	용 19	~을 감사합니다 84
-오 129	용언의 활용 39	-을락 말락 196
오만 285	우리 98, 116	-음 41
오십시오 53	우리나라 98	을/를 338
온 214	우리 말 227	음의 첨가 160
온- 214	우리말 227	-읍니다 52
온마리 214	우유값 87	의 173, 333, 336
온점 29, 31, 32	웃웃 73, 95	의미상 230
온 힘 214	원정 69	의의 173
올바르다 303	월드컵 공원 215	의존 명사 38, 185,
올케 111	월드컵공원 215	206, 207, 208, 219,
올케언니 111	웬 18	233, 235, 238, 332
웁다 303	웬지 18	-이 130, 142

이/가 329
 -이가 142
 이내 272
 이따 270
 이따가 270
 이 땅 183
 이 때문에 81
 이력서의 호주와의 관
 계 117
 이르다 249
 이미 306
 ‘이’ 생략 67
 ‘이-’ 생략 40
 이에요 49, 122, 130
 예요 130
 이요 220
 이전 306
 이중 피동 136, 142
 이하 272
 이후 306
 사람 이름 19, 151
 인사말 118
 인사말 23
 인삿말 23
 인용 192, 218
 일금 69, 321
 일남 일녀 236
 일시 정지 308
 일시 중지 308
 일절 271
 일찍 310

일찍이 310
 일천 69
 일체 271
 임명 298
 임상 시험 311
 임상 실험 311
 입니다[임니다] 171
 입찰에 부치다 73
 있느내 40
 있는대 325
 있는데 325
 있다 148, 270
 있다가 270
 있으시다 148

ㅈ

자 117
 -자 103
 자막 314
 자문을 구하다 82
 자문을 받다 82
 자문하다 82
 자음동화 170
 작다 274
 작은따옴표(‘ ’) 26
 잘 되다 209
 잘되다 209
 잘 하다 209
 잘하다 209
 잠가 60
 잠그다 60

잡혀 152
 장 262
 장남 106
 장녀 106
 재연 309
 재킷 95
 재현 309
 저희 98, 116
 저희 나라 98
 적다 274
 적합하실 듯 105
 적합할 듯 105
 정확하다 312
 전문 용어 226
 전세방 34
 전셋방 34
 전셋집 34
 전세집 34
 전제하 230
 접미사 10, 208, 210,
 230, 239
 접속 부사 286
 접수시키다 265
 접수하다 265
 젓가락 20
 정답과 맞추다 14
 정답을 맞히다 14
 정도 182
 정지 308
 정확하다 312
 전가락 20

제 116
 제- 180
 제 1 180
 제1 180
 제부 113
 제우스 님 232
 제우스님 232
 조금 299
 조사 185, 186, 218,
 219, 333
 조의금 295
 존하 97
 졸업 연도 15
 좀 229
 좀 더 229
 좀더 큰것 229
 종결 어미 137
 좇다 277
 좋아하구나 132
 좋아하는구나 132
 좋아하다 207
 좌하 97
 -조 55
 주관 273
 주년 275
 주책 313
 주책없다 313
 주책이다 313
 주최 273
 준말 37, 42, 46, 50, 68
 준말의 활용형 36

줄표 28
 줍다 58
 중 207
 중지 308
 즐기다 66
 즐겨라 66
 즐기라 66
 증거 261
 지 332
 지나지 아니하다 146
 지나지 않는 146
 지나지 않은 146
 -지 말다 82
 -지 말았으면 82
 지명하다 316
 지목하다 316
 -지 못하다 214
 -지 않다 82
 -지 않았으면 82
 지우깅니다 40
 직장에서의 높임법
 115
 직접 명령 66
 집사람 101
 -째 276
 쫓다 277

ㅈ

착용 289
 참가하다 318
 참고 315

참석하다 318
 참여하다 318
 참조 315
 참음 41
 채 276, 277
 처 101
 처남의 댁 96
 처남의 부인 96
 첨부 263
 첩부 263
 첫 글자 149
 첫째 106
 체 277
 초과 272
 최고 284
 축의금 295
 취득 264
 친구 간 202

ㅋ

캐시백 156
 캐쉬백 156
 커트 157
 컷 157
 코끼리입니다 40
 코끼리입니다 40
 크다 123
 큰따옴표(“ ”) 26

ㅅ

탓 255
태릉[태릉] 165
털다 278
토의 313
틀리다 251

ㅈ

패용 289
편지 봉투 97
표기 320
표시 320
피동사 127, 142
피동 표현 119

ㅎ

ㅎ 152
-하 230
하냐 70
하느냐 70
하다 217
하루 이틀 229
하루이틀 229
하면 217
하오체 129
하지만 286
학과[학과] 166
한 걸음 234
한걸음 234

한국어 314
한글 314
한두 229
한 매 262
한 번 190
한번 190
한 부 262
한정식집 234
한정식 집 234
한 해 18
할수록 237
할 수밖에 237
합성 동사 224
항목 304
해야 할지 131
해야 할 지 131
해 질 녘 223
해질녁 223
했을지도 50
했을런지도 50
행복해져라 143
행복해라 143
헤어숍 154
헤어샵 154
현재 279
현재 요금 279
현재형 65
현행 279
현행 요금 제도 279
현황 298
협상 313

협의 313
형님 99
형용사 123
형용사의 명령형 143
형제간 202
호격 조사 112
호칭어 102, 111, 113
혼자 319
홀로 319
홀몸 326
홍길동 226
홍길동 등 8명 280
홍길동 외 7명 280
홀몸 326
회 275
회상 134
효과 322
휴무 317
휴무하다 317
휴업 317
휴업하다 317
히읇이[히으시] 162

123

1남 1녀 236
1번 난 11
1번 란 11
7종성 164
10 년 180
10년 180

10년여간 210

10여 년간 210

30% 정도 182

30%정도 182

1950년도 15

abc

공권력/gonggwonneok

153

남동 대교/Namdong

bridge 147

서해 대교/Seohae

Bridge 147

법원/Beobwon/

Beopwon 150

잡혀/japyeo 152

Gwyneth Paltrow/귀네

스 팰트로 150

jacket/재킷 95

r/Guri 154

l/Chilgok 154

ll/Ulleung 154

r는/아르는 35

r은/알은 35

shop/숍/샵 154

top/톱/탑 157

공문서 쓸 때 도움받을 곳

국립국어원 누리집

<http://korean.go.kr>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사전을 찾아볼 수 있다.

가나다전화: 1599-9979

- 상담 시간: 월~금, 9:00~18:00
-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온라인 가나다**에 문의할 수도 있다.

다듬은 말 찾기

국립국어원 누리집 → 찾기 마당 → 순화어

공공언어 지원 누리집

<http://www.korean.go.kr/publang/>

- 공공기관 언어 사용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 상담: (02) 2669-9726

한눈에 알아보는 공문서 바로 쓰기

- 실제 공문서의 국어 사용 오류를 지적하고 설명한 책
- 파일 내려받기: 국립국어원 누리집 → 자료실 → 기타 공개 자료 - **공문서 입력**
- 책자 요청: 공공언어 지원 누리집 또는 전화 (02) 2669-9726



국어문화학교

- 국어전문교육과정을 수강하여 국어 사용 능력을 키울 수 있다.
- 안내: (02) 2669-9752, 9729, 9662

국어 온라인 강의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한글 맞춤법**, **국어순화**, **공문서 바로 쓰기** 강의를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다.

담당 연구원: 김형배 (학예연구사)

국립국어원
가나다전화에
물어보았어요

인쇄 2010년 12월 21일

발행 2010년 12월 28일

발행인 권재일

발행처 국립국어원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 2669-9775
